

건축사 학술지

1998 11 vol. 355

칼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 - 공의과 전문성**

작품리뷰 **서라벌 교회**

전시회 **98한국건축문화대상**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⑨ -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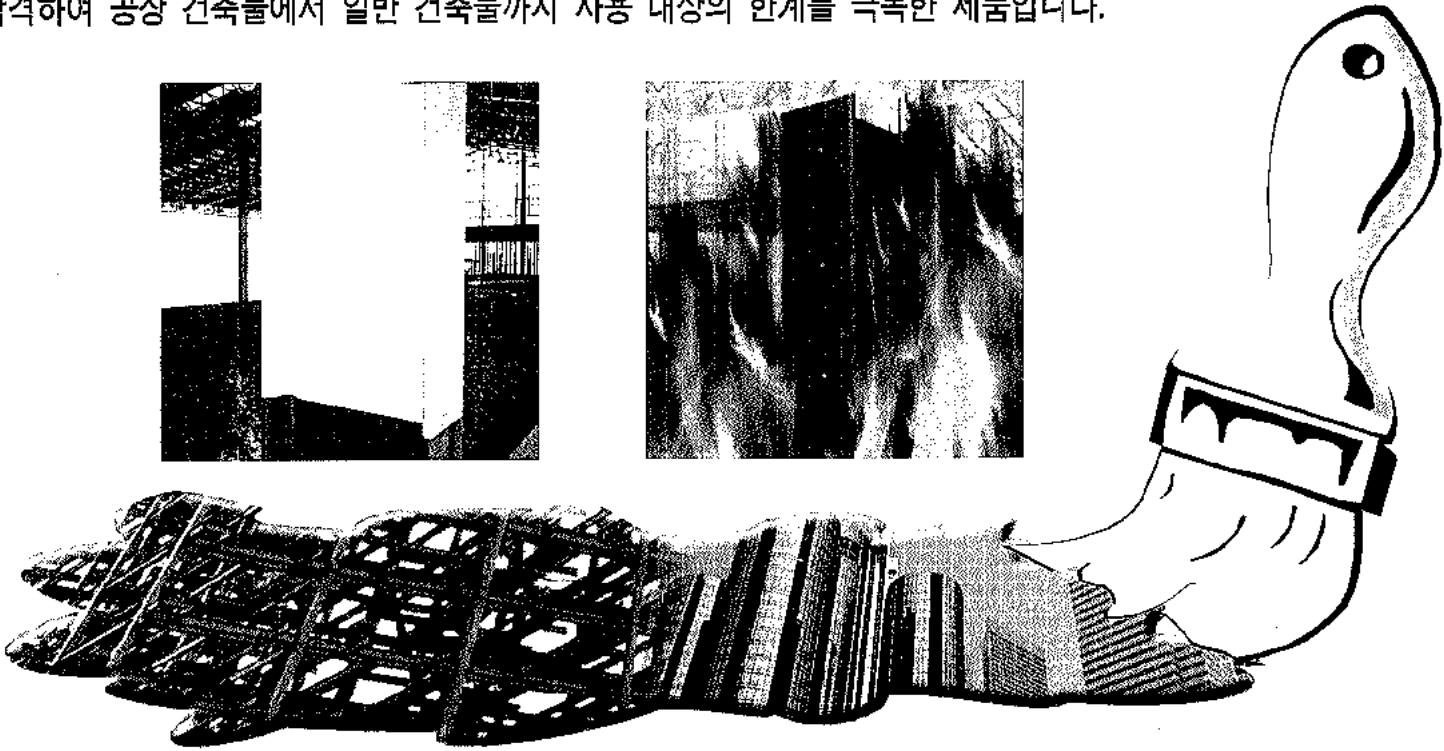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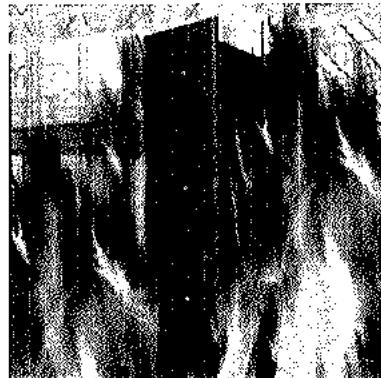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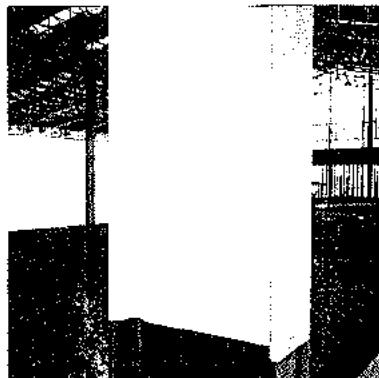
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타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트, 산업시설

특성

- 지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내화구조지정	대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일반건축물용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타 등	1시간	철골 (기둥, 보)	하도: 0.05mm 중도: 2.95mm 상도: 3.20mm
공장건축물용	공장(1층, 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 보)	하도: 0.05mm 중도: 1.95mm 상도: 2.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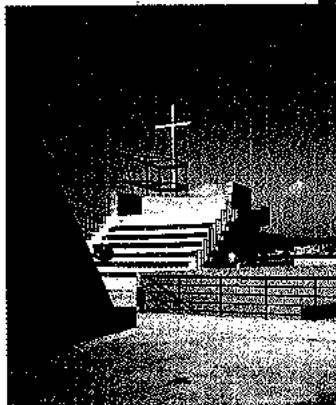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은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 도료입니다.

HITEM 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 : (02) 535-7230(代) · FAX : (02) 535-6503
공장: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목리 861
TEL : (033) 33-6074-5

차례 1998 11 355호



서리빌교회(손명운作)



발행인: 이의구
 편찬위원: 방철린(위원장), 승호상
 동정근, 삼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빙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 581-5711~4
 팩스번호: (02) 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천리안 ID: kirahead)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 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ie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4
 Fax: (02) 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취임사	취임예 즈음하여	이의구	6
칼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 - 공익과 전문성	조성통	8
작품리뷰 / 서리빌교회		손명운	10
대담: 알전에 뜯 배: 역사도시와 노아의 방주		성인수	19
비평: 전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김봉렬	25
전시회 / '98한국건축문화대상			29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 울산현대예술관			
본상 - 고려포리미(주) 시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다기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입선 - 제주강정교회 외 14점			
계획건축물부문 / 은상, 동상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9] : 대전		편집디렉터/김억중	57
대전의 역사와 풍속		한상수	58
도시의 일상		고성희	61
대전의 근·현대건축		김성동	65
대전의 현대건축		유병우	71
21세기 대전건축의 주역		송종호	74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김억중	77
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과제		임양빈	79
좌담: 대전도시건축의 잠재력			84
건축마당			91
협회소식			97
건축계소식			104
현상설계			109
계획작품			110
전시리뷰			112
해외잡지동향			119
회원현황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설실 인내

Address

Inaugural Address	Lee Eui-Koo	6
-------------------	-------------	---

Column

Urgent Theme: The Choice Between Public Good and Specialty of Architecture	Joh Sung-Yong	8
--	---------------	---

Review / Seorabeol Church	Son Myung-Moon	10
----------------------------------	----------------	----

Interview A Ship on the 'Al-Chun'; Historical City and Noah's Ark	Sung In-Soo	19
---	-------------	----

Critique Toward a New Wholeness	Kim Bong-Ryol	25
---------------------------------	---------------	----

Exhibition / Korean Architecture Award '98	29
---	----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	--

Grand Prize Hyudai Art Center	
-------------------------------	--

Superior Prize The Korea Polymer Co. Building	
---	--

Kim Ok-Gil Memorial Hall	
--------------------------	--

Oak Valley Resort	
-------------------	--

Cine Plus	
-----------	--

Etaewon Housing	
-----------------	--

Paiknam Scientific Information Center	
---------------------------------------	--

Winning Prize Kangjeong Presbyterian Church etc.	
--	--

Prize Works - The Submitted Works Part	
--	--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⑨: Taejeon	Kim Eok-Jung	57
--	--------------	----

The History and Custom of Taejeon	Han Sang-Su	58
-----------------------------------	-------------	----

The Everyday of a City	Ko Seong-Hee	61
------------------------	--------------	----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Taejeon	Kim Chung-Dong	65
---	----------------	----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Taejeon	Yu Byeong-Woo	71
--------------------------------------	---------------	----

The Major Players of Taejeon's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Song Yang-Ho	74
---	--------------	----

The Potential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Kim Eok-Jung	77
---	--------------	----

The Prospect and Task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Lim Yang-Bin	79
---	--------------	----

Conversation: The Potential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84
---	--	----

Architects' Plaza		
--------------------------	--	--

KIRA News		91
-----------	--	----

Archi-net		97
-----------	--	----

Competition		104
-------------	--	-----

Process Work		109
--------------	--	-----

Exhibition		110
------------	--	-----

Overseas Journal		112
------------------	--	-----

Member		119
--------	--	-----

Statistics		120
------------	--	-----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2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504-7188 · 관악구건축사회/9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84-5026 · 노원구건축사회/933-9378 · 동대문구구축사회/735-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3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3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8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1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9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66 · 도봉구건축사회/93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9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시의건축사회/0349-9802 · 광명건축사회/021684-5845 · 구리시의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시의건축사회/032-664-1554 · 남양주시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시의건축사회/031)1241-7987~8 · 시흥시의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시의건축사회/0345-180-0130 · 안성시의건축사회/0343)449-2688 · 의정부시의건축사회/033)657-6149 · 이천시의건축사회/0336)625-5645 · 경기시의건축사회/0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6 · 용인시의건축사회/0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64-2442

강릉시의건축사회/0301)1653-7371 · 삼척시의건축사회/0394)531-6708 · 속초시의건축사회/032)683-5081 · 평발지면의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시의건축사회/0371)743-7230 · 춘천시의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2069 · 충주시의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시의건축사회/041-6-854-3353 · 보령시의건축사회/0452)32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시의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시의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시의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62)251-6040

고창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담원지역건축사회/0653)852-3788

■ 전라남도건축사회/(0661)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362)652-7023 · 니주지역건축사회/062)366-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시의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7)42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산주지역건축사회/0582)53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1853-0244 · 평원지역건축사회/0562)634-5560 · 용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청주시의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8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8-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28)943-0030 · 김해시의건축사회/0525)334-0644 · 이장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0 · 사천시의건축사회/0593)833-9779 · 임금시의건축사회/0562)384-3050 · 신주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시의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8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2-2233

취임에 즈음하여

Inaugural Address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친애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33회 정기총회에서 우리협회 23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대의원님과 회원여러분께 이 자리에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김영수 회장께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국의 7천여 회원을 대표하고 건축계의 리더 그룹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건축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회원과 협회의 재도약을 위해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로 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협회는 그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세기말적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는 지난 역사의 뿌리마저 뒤흔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정부」의 각종 개혁 작업들은 우리 건축사의 전문적 위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의 시대 상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우리에게 파멸밖에 없음을 단언합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 난관을 돌파하려는 용기와 실천적 협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저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업무 영역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과감하게 업무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수입원 확대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시공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M, 컨설팅, 낙야가 건축물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우리의 업무영역에 포함되게끔 제도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건축문화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당면해 있는 건축관련 제도 개선들이 현실과 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축의 원칙과 이론이 외연된 체 경제논리로 접근해 왔던 관계당국의 그릇된 인식에 기인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같이 불행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정부, 대국민 건축문화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3단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일반인에게 건축이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예술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전문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지역 전 건축사모임인 아카시아(ARCASIA)의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의 건축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합리화로 「봉사하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축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회원들의 실정을 헤아려 기존 회비에만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협회 재정자립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는 등 「회원 서비스」가 중시되는 체제로 전환하여 회원에게 「봉사하는 협회」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관행의 개선은 물론, 협회발전을 가로막고 회원간 갈등을 조성하는 어떠한 형태의 도전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실하고 건전한 회원들이 일한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건축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선진화된 건축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협회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상에 굳게 섰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결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시대적 난국을 돌파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선진 건축사상을 이루합시다.

앞으로 헌신단회하고 솔직한 고견을 주십시오. 그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 - 공익과 전문성

Urgent Theme: The Choice Between Public Good and Specialty of Architecture

조성룡 / 조성룡도시건축

by Joh Sung-Yong

지난 10월 말 건축 3단체가 합쳐서 건축설계관련상호인증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세계건축가연맹(UIA)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국제상호인정 표준안을 만들었고 내년 북경에서 열릴 대회에서 이 안을 인준하려고 하면서, 미리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원하였고 이 날의 모임이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인 셈이다. 이 표준안은 이어 WTO에 제출되고 각국이 건축설계업무에 관련한 인증협의를 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준안은 크게 교육과 인증제도, 실무경력/교육/인턴십(Internship)제도, 전문(자격)시험 제도, 자격과 면허의 인정과 사무소 등록 제도, 윤리 강령, 평생(연수)교육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연말 이후의 경제 전쟁 때문에 주춤해 지긴 하였지만 벌써 수 년 전부터 건축 설계 업무는 이미 외국 건축시장에 무방비상태로 개방되어 있었고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건축가나 설계 회사와의 계약도 증가하고 있었다. 세계건축가연맹이 내어놓은 여섯 가지 제도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과 대응을 살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가 교육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국제 개방에서 첨예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세계건축가연맹은 제시된 표준안에서 전일제 교육을 최소 5년간 이수할 것을 주장한다. 비록 UIA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우 4년간(그러나 1학년 교양 과목, 4학년 기사시험준비를 빼면 실제 전공기간은 겨우 2년이 조금 넘을 뿐이다)의 설계교육으로 건축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무리임을 다 알면서도 건축이 디자인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여 아직까지 4년제 공대시스템을 고집하는 대학쪽의 자세는 정말 답답하다.

굳이 공학부 제도를 폐지하지는 것도 아니고 건축가를 기르기 위한 전문대학을 몇 대학만이라도 개설하면 될 터인데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한 대학교수는 한탄한다. 어차피 대학에서 건축가 교육을 시킬만한 충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음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실무건축기가 대학에 접근하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건축사법과 사협회 윤리 강령의 격차금지 조항)되어 결국 교육을 받는 학생만 제대로 된 설계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을 나오고 또 이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뿐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대학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지만 이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대학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제 대학의 차이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용에서 드러나야 한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가 무엇보다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건축가를 기를 것인가, 전문 엔지니어인가, 또는 관리인가. 그렇게 보면 공대는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건축가 교육과 동시에 전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공대를 나와 현장의 입장정도의 역할이라면 문제

는 심각하다. 건설현장이 변화하는 속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서 온 결과이다. 구조나 설비 엔지니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지금의 대학에서처럼 설계에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역학이나 설비공학 공부는 결국 구조, 설비 그 자체만을 위한 공부로 끝날 뿐 아니라 종합 능력을 기르지 못하므로 결국 기술적 낙후성을 야기 시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사와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이다. UIA 표준안에서 명시한 정의를 보자. “건축사는 전문적 자격을 갖고 자기가 실무를 행하는 영역(Jurisdiction)에서 면허를 등록함으로써 건축실무에서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보장을 받은 사람으로 공정성과 지속적(Sustainable)인 개발, 복지, 공간, 형태,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 정주(Society's Habitat)에 대하여 문화적 표현을 주장하여야 한다” 건축가의 직능은 오늘날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건축가의 업무는 늘어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테크놀러지의 진보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회와 생태적인 당위성이 역시 더욱 더 건축가의 영역을 조여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을 나누어 담당하고 협동하여야 할 필요가 생겨난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설계 전문가로서 건축가의 역할은 이제 전자 테크놀러지와 전문 기술 시스템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직업과 구별하여 법률, 의학, 신학, 교육, 건축 등을 다루는 직업을 일컬어 ‘Profession’이라 하였다. 흔히 건축가의 직능을 변호사와 의사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건축가의 위상은 어떠한가? 과연 의사나 변호사(최근 이 분야도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나)처럼 사회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직능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현대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 경제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 상황이 바뀌므로 더욱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과학과 기술의 괄목할 만한 진보는 그 이전 몇 천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뛰어 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겨지면서 유전자 공학, 전자 테크놀러지가 바꾸어 놓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는 이제 개인의 정보 장치가 된 지 오래고, 팩스밀리와 이동통신은 인간과 사회의 거리, 인간과 인간의 거리 뿐 아니라 시간·공간의 개념을 뒤 흔드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정보라는 허구가 지배하는 도시의 모습은 편의점과 소비 사회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광고에서 24시간 움직이는 새로운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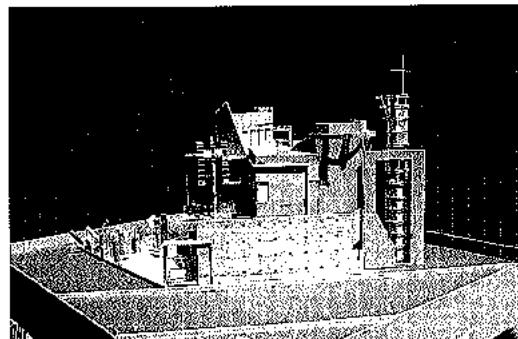
이러한 도시의 변화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국토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건축주로 등장하게 되고, 건축가는 변화하는 거센 물결에서 속수무책이다. 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빨라짐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수행해야 할 업무도 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확장되어 있다. 개발업자들은 분양 책임을 전제로 하거나, 재개발의 경우처럼 자본까지 동원하며 설계 시장이 장삿속으로 변해 가는 것도 큰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 일어난 대형 붕괴 사고 이후로는 업무상의 실수나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건설 환경에서 각각의 영역은 점점 더 전문화되는 추세이고 자연히 전문 영역이 모여 협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건축 생산 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계 조직도 따라서 대형화되는 움직임이 강하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규모 조직의 건축가들은 우선 전문 종합 집단으로서의 대규모 조직과 경쟁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업무도 그 시간에 더 많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건축가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즉 의사와 변호사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문제이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과 상황을 맞았다. 얼마동안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헛되어 보낼 겨를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우리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세계시장에서도 적용되는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배주의와 불감증이 남아있는 한 좋은 건축(혹은 건축가 사회)환경을 만들기 힘들다. 지나간 몇십년처럼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건축주의 시녀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며 개인적인 서비스 차원에만 머무르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은 뻔한 일이다. 건축가는 건축주뿐 아니라 이 사회와 도시 문화에 책임을 지는 전문가 집단이다. 사회적 공익이 무엇보다 우선될 때 우리의 직능은 살아 남는다. 시대를 끌고 가는 문화·사회적 리더로서, 사회적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양심있는 전문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기술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문가로서, 젊은 건축인들을 훈련하는 교육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프로페셔널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르고 균형 잡힌 사회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손명문 / 건축사사무소 건·환
Designed by Son Myung-Moon

건축개요

위치	경북 경주시 성건동 1-2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대지면적	849.00m ²
건축면적	428.61m ²
연면적	1,499.21m ²
건폐율	50.48%
용적률	137.1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설계담당	김정우, 이창훈
최고높이	19.40m
주요설비	페널히팅난방 패키지유닛 낭방
외부마감	벽 - 토석벽돌처장쌓기, 드라이비트 지붕 - 몰탈워 석재타일
내부마감	바닥 - 테라조타일 벽 - 핸디코트 천장 - 미송루버
조경면적	60.41m ²



하늘로 열려있는 교회

강가에 교회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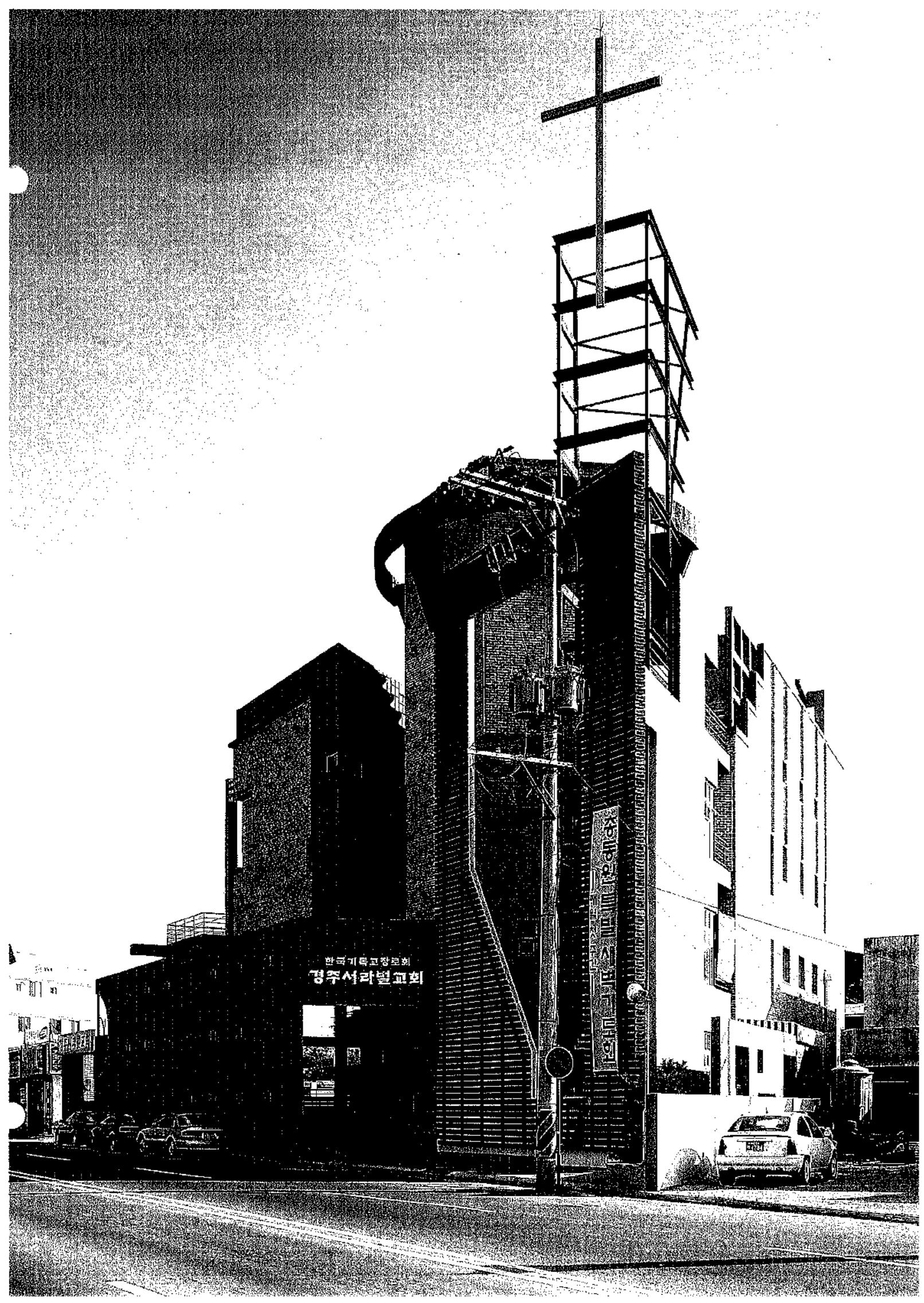
교회 부지에서 강건너를 바라보면 소나무, 상수리나무가 우거진 황성공원이 멋드러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부지 주변의 거리풍경은 인도는커녕 가로수 한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도로를 달리는 차들과 횡일적인 포장마차촌, 무질서한 건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닌지 오래이다. 이러한 부지의 이원적인 성격을 건축이라는 표현언어를 통해서 그 장소적 특성을 되살리고 불량한 주변경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다.

바람직하지 못한 주위 경관의 이미지를 순화시켜주기 위한 과정적 연출을 위한 여과장치로 대지 입구에서 교회 현관까지의 진입을 비교적 길게 유도하였다. 양호한 외부공간(미당)을 갖기 위해 - 차량소음과 전면도로 건너편의 불량한 경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 도로가에 이 건물과 일체화된 높은 기벽과 종탑을 드리웠다. 그것은 정적인 공간으로의 변모이며 여러 형태적 오소와 함께 하늘로 열려있는 교회를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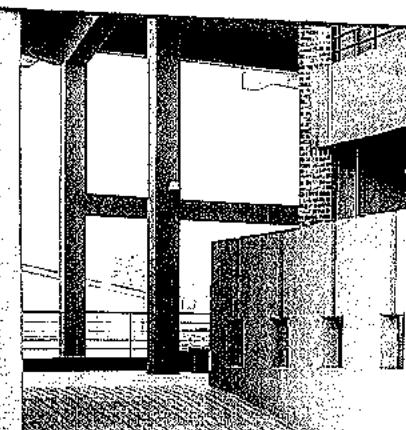
건물현관에서 예배당까지의 동선처리는 일반신도는 계단으로 노약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예배당 내부공간에서는 공간의 불룸과 빛의 대비로 경이로움과 친밀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은 트리아이트를 통해 설교단에 깊숙히 드리워지고 있다.

상층부에 있는 테라스와 옥상정원은 강과 공원을 향해 열려져 있으며, 이는 친교 공간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옥상정원은 내부에서 못다한 조망의 기쁨을 누리며 옥외집회장,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교회건축에서 늘 대두되는 주차장 문제는 교회 맞은 편의 고수부지 주차장(약200대 주차)을 활용하면서 해결하였다.

종교건축이 가지는 신성화된 권위의 상징적 형태미보다는 생활 속의 표현어로 자리잡고자 강가라는 장소성과 신앙적 의미가 담긴 배(노아의 방주), 면류관, 십자가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주서라발교회



A Church Open Up to the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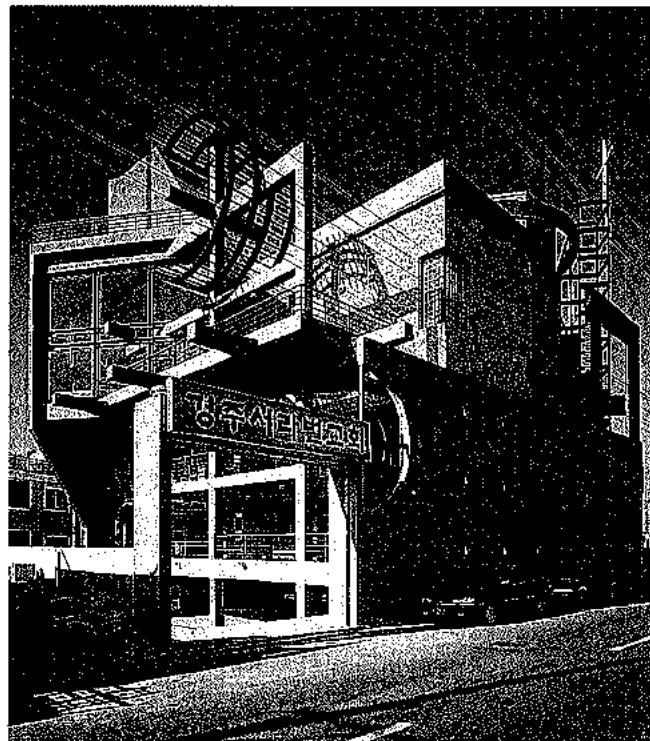
Across the lake from the site is placed the Hwangsung Park, with thick growth of pine trees and oak trees. Just beside the site, however, is a roadway with neither trees nor pedestrian way, where monotonous buildings and wagons make a disordered formation. It has been long since it ceased to be a place of welcome and warmth. This extremely contrasting characteristic of the land was dealt with a proper expressionistic means of architecture.

To diminish the undesirable images of its surrounding, a rather long approaching road, performing as a buffering tool to make the changes gradual, was planned. To create an inner garden with calm atmosphere, protection against the noises of the passing road was required, and was provided by the use of free-standing walls and towers that are connected with the main volume of the building. This encloses a space of tranquility, and with the addition of a few architectural devices, defines the church open up to the sky.

Circulation from the building's entrance to the main chapel is divided into two: the stairway for most people and an elevator for the aged. The interior of the chapel, with a striking contrast between volumes and light, delivers an atmosphere of the sublime and the intimate. The light falls deep into the chancel through a top light.

The terrace and roof garden of the upper levels are open to the river and the park, and function as spaces for gathering. In the roof garden, used as an outdoor auditorium and rest area, one can enjoy the vista that has not been fully given in the inside. The problem of acquiring enough parking spaces, the usual with church architecture, was solved by utilizing the neighboring riverside parking zone with a capacity of 200 automobiles.

Rather than creating a symbolical figure of holiness and authority, my intention was to form harmony between the location beside the river and sacred images of a boat - alluding to Noah's ark - , a crown and a cross, ultimately presenting it as an expression grounded in real life.



Location 1-21, Sungun-dong, City of Kyungju, Kyungbuk Province

District Classification Residential District, Height-Restriction Area(25m)

Site Area 849.00 m²

Building Area 428.61 m²

Total Floor Area 1,499.21 m²

Building Coverage Ratio 50.48%

Gross Floor Ratio 137.12%

Project Architects Kim Jung-woo, Lee Chang-hoon

Stories 4 Stories, 1 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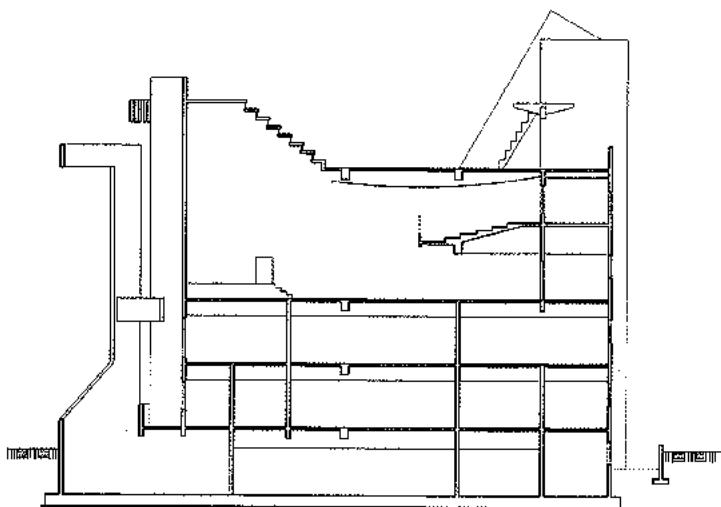
Height 19.40m

Major Types of Installation Panel Heating System, Package Unit Air Conditioning,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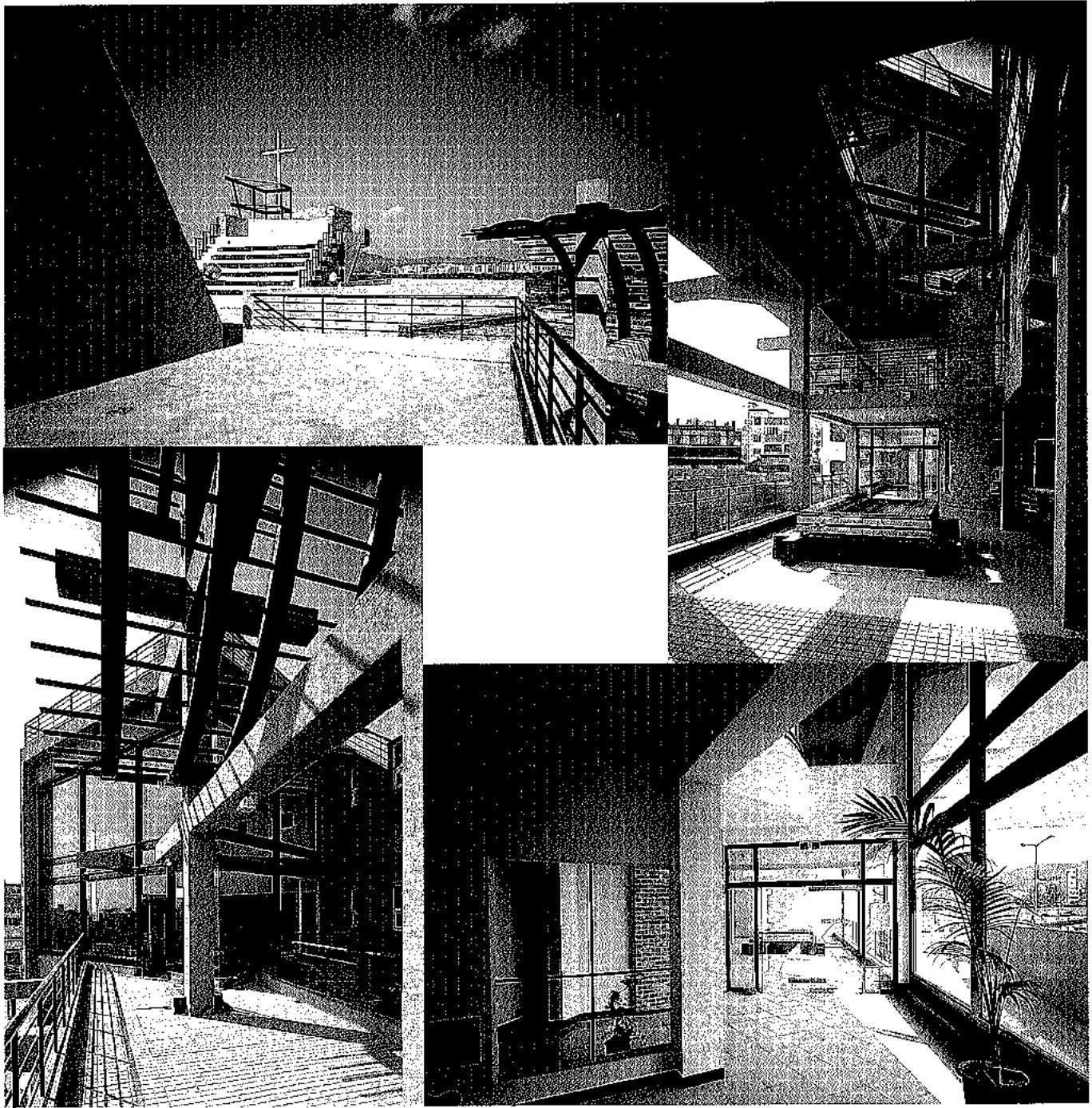
Finishes Walls - Brick, Drivit; Roof - Stone Tiles Over Mor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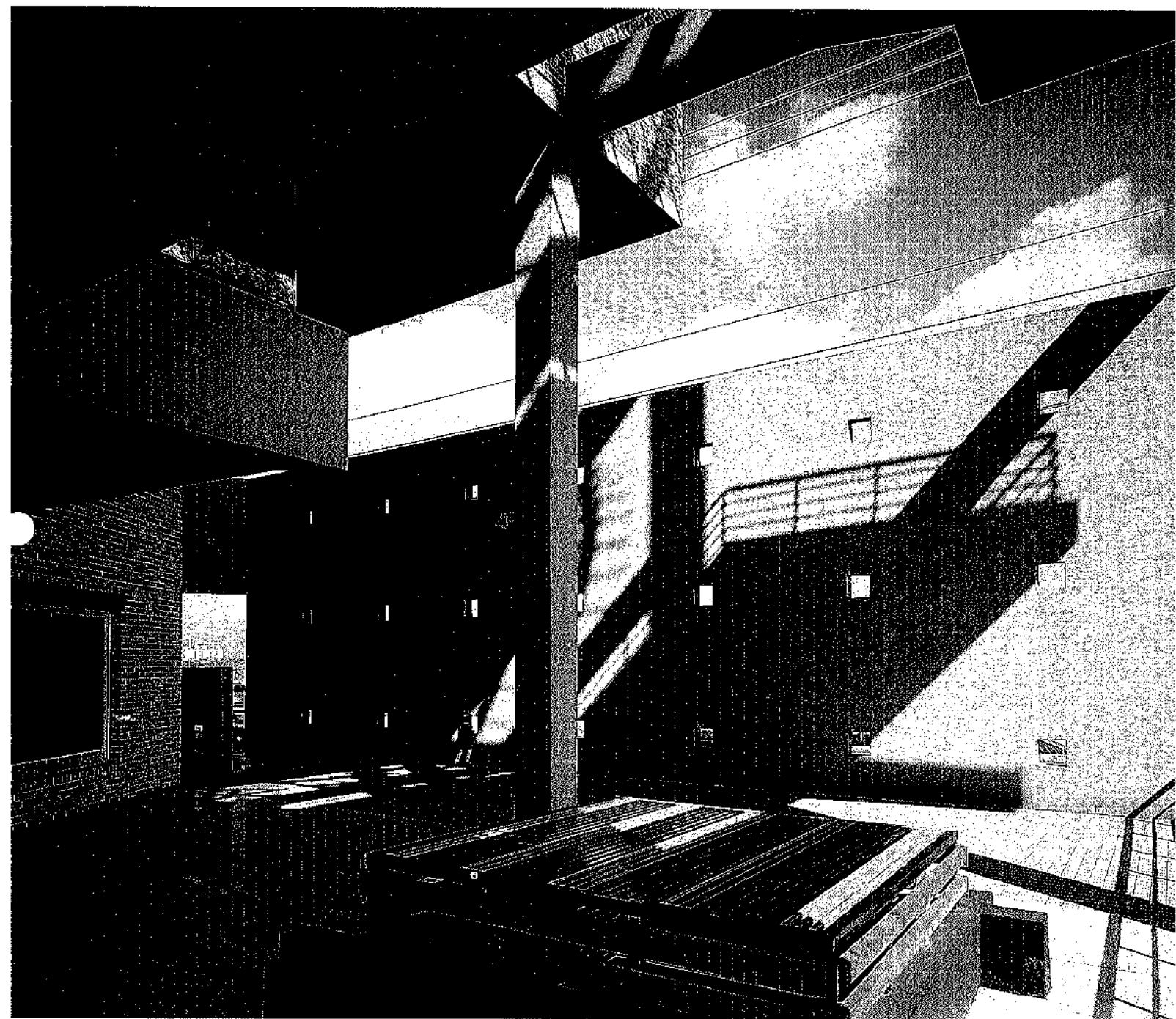
Interior Finishes Floors - Terrazzo Tiles; Walls - Handycoat; Ceiling - Oregon Fir Lu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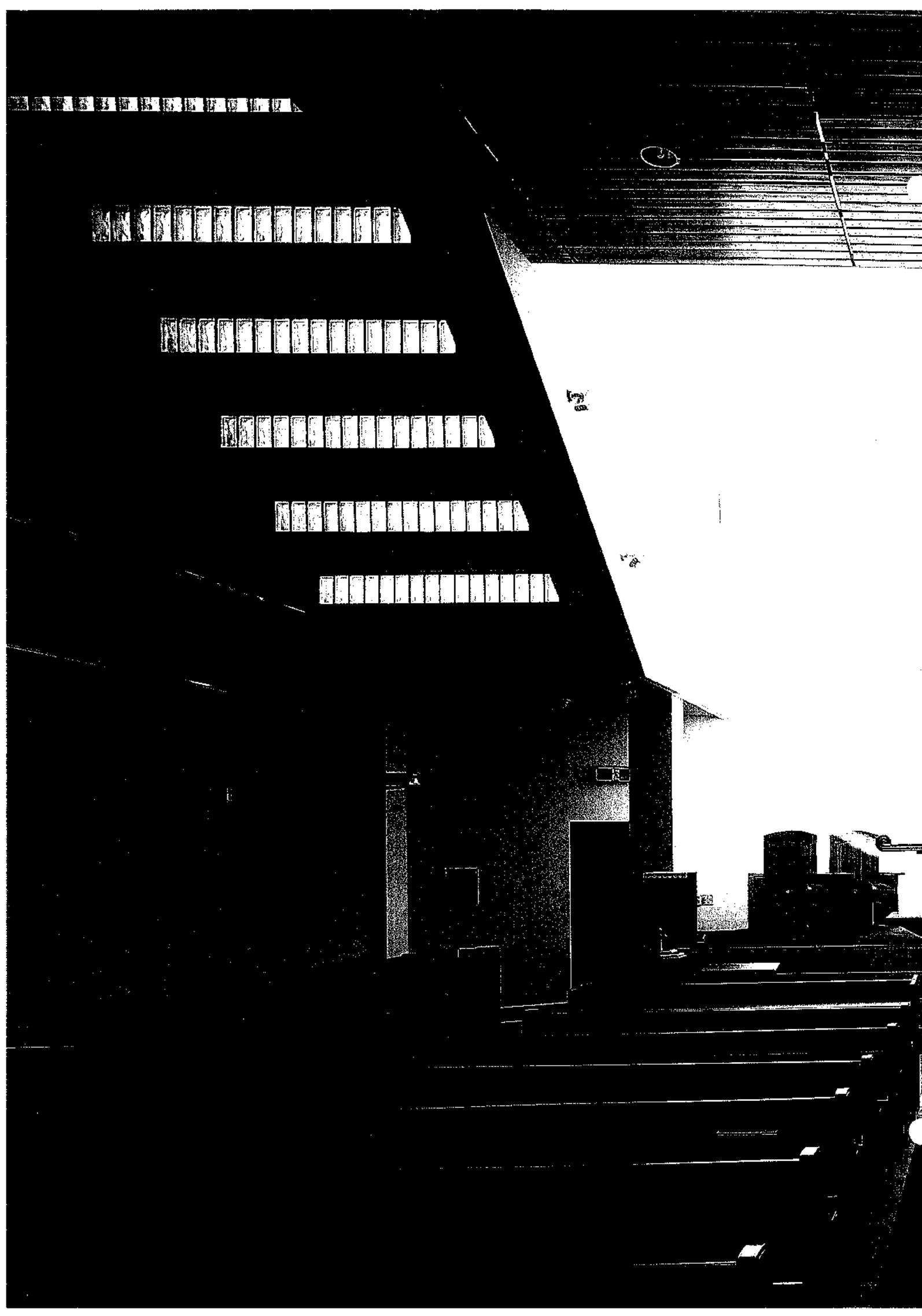
Landscape Area 60.41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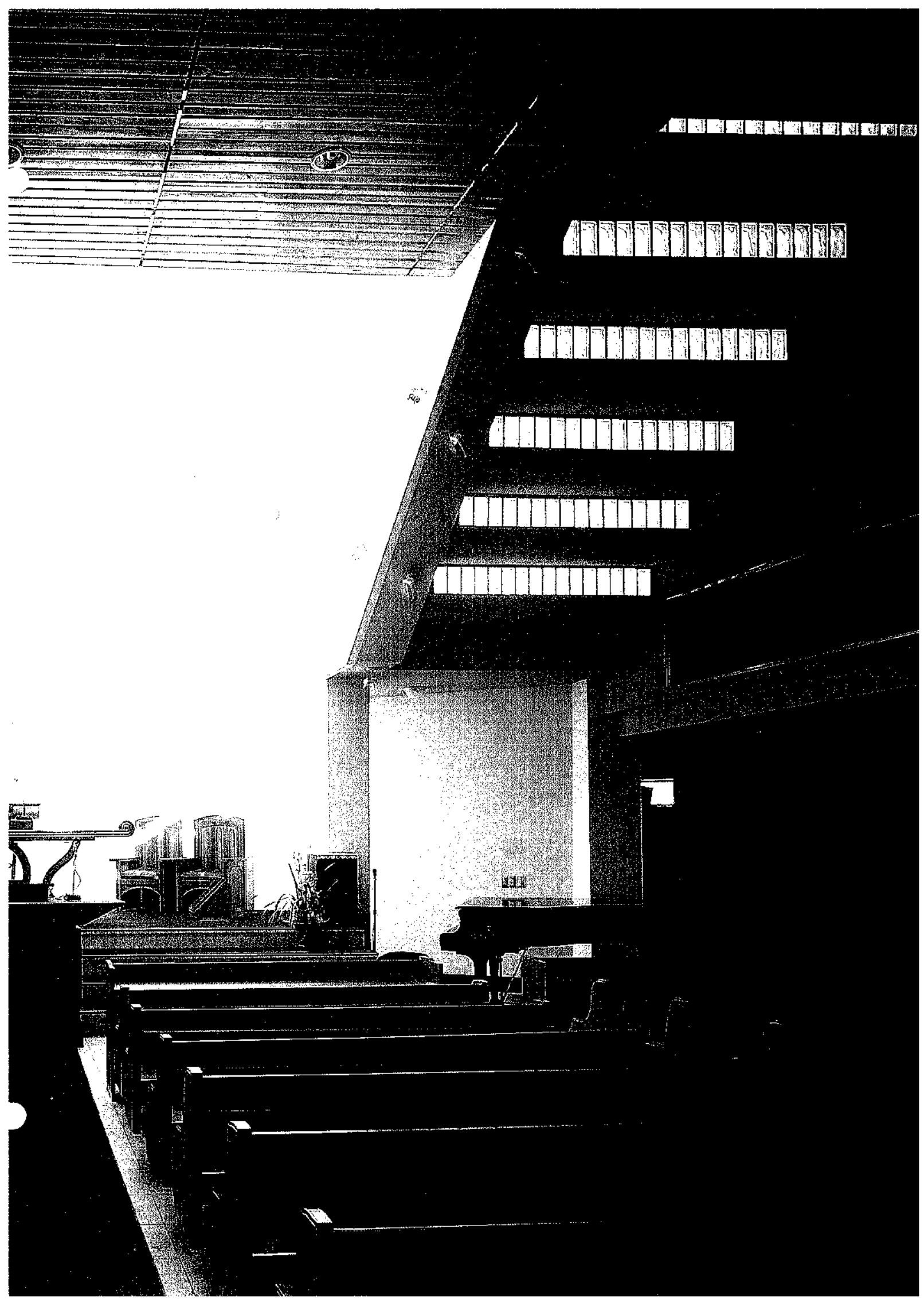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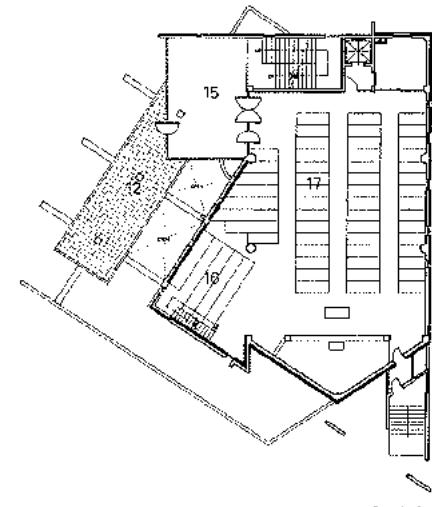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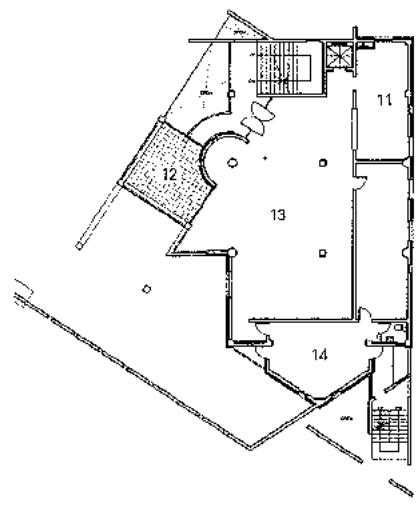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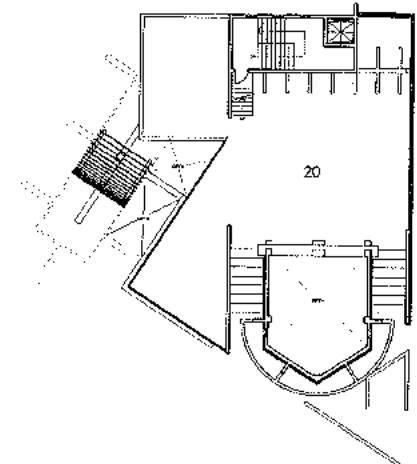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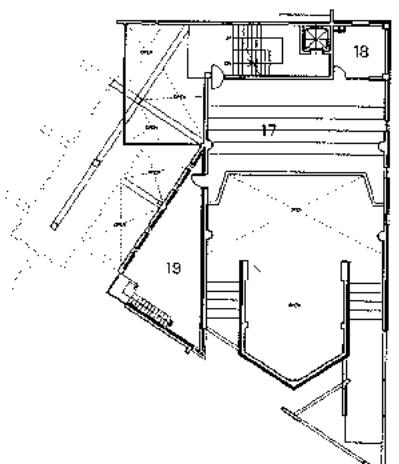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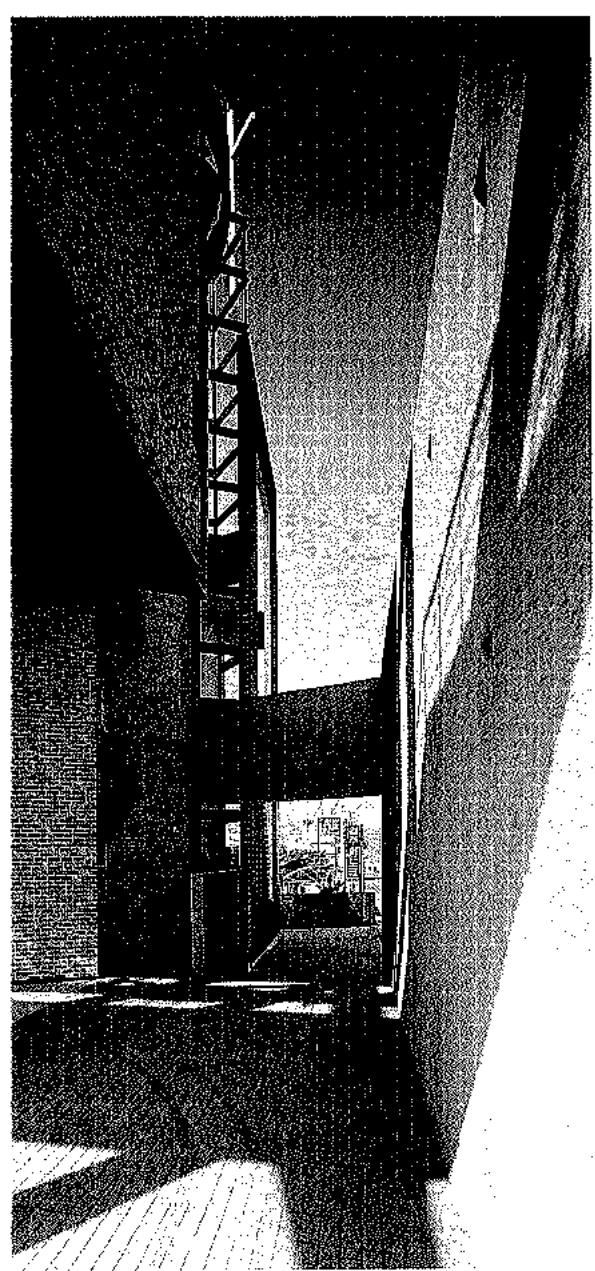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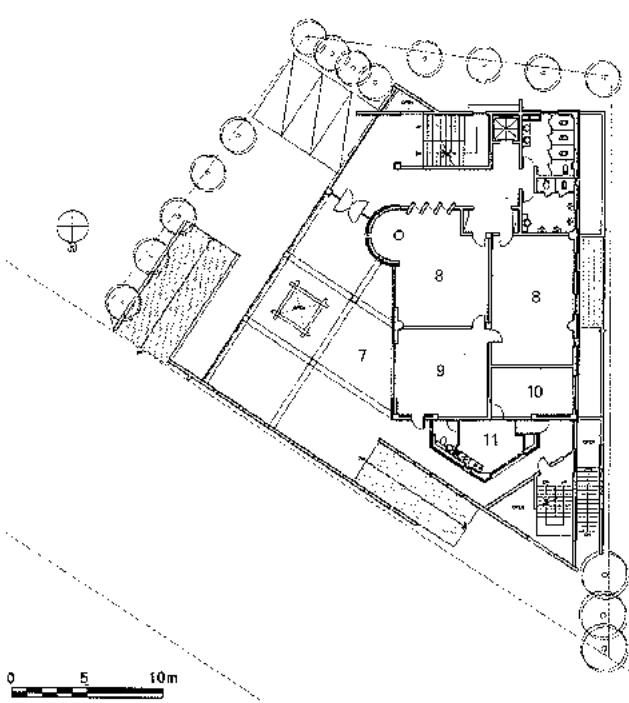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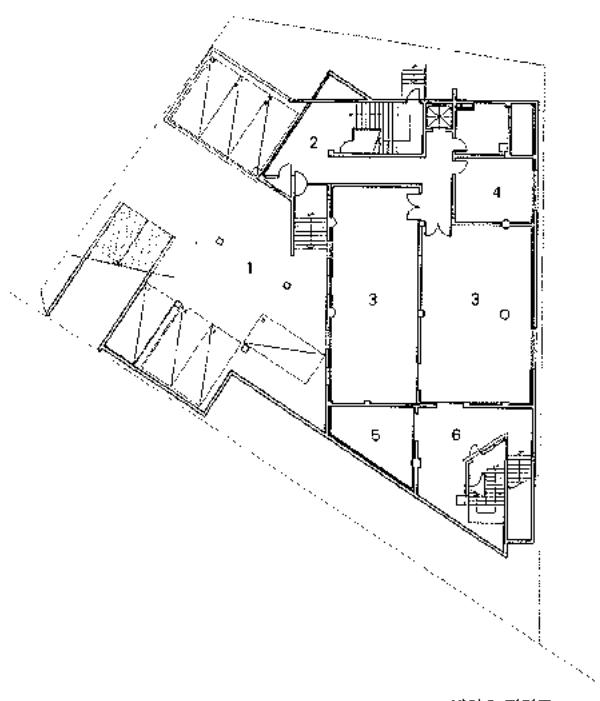








- 1. 주차장
- 2. 출
- 3. 교육관
- 4. 창고
- 5. 기도실
- 6. 신문
- 7. 인증광장(데크)
- 8. 선교원
- 9. 사무실
- 10. 치식
- 11. 주방
- 12. 대리스
- 13. 다목적실
- 14. 당회실
- 15. 접실
- 16. 성기대식
- 17. 둔당
- 18. 방송실
- 19. 설기대연습실
- 20. 옥상정원



알천에 뜬 배; 역사 도시와 노아의 방주
A Ship on the 'Al-Chun' : Historical City and Noah's Ark

건축사 / 손명문(건축사사무소 건·환)
대답자 / 성인수(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ung In-Soo & Son Myung-Moon
일시 / 98. 10. 19(월) 17:00~19:00
장소 / 건·환 사옥 3층 소장실

성인수_____을 봄에 작고하신 선친(손재수 건축사사무소)과 손명문(건·환)소장님은 경주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건축사 1세대라 부를 만한 선친의 경주에서의 활동을 평가해 보신다면?

손명문_____저에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셨습니다. 부친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해방 후 귀국 하여 경주공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6·25가 나자 경찰계에 투신하여 국가에 봉사했고, 전쟁 후에는 국가 건설 및 재건에 부흥코자 건축계로 복귀하셨습니다. 초창기 건축대서사에서 건축사로 건축사 제도가 마련되는 중에 자격을 취득하여 67년 경주에서 건축사 1호로 개업하고 설계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시무소와 집이 붙어 있어 밤늦게 회장실을 가려면 부친의 작업실을 거쳐야 했는데 새벽 1, 2시에도 열심히 건축을 하던 모습을 보면, “건축이란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뇌리에 남아, 제가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식 교육 탓인지 몰라도 당신께서는 철저한 시간 관념과 매사를 능동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 주셨고 그 긍정적 태도는 지방도시에서 일해 가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긍정적 태도와 성실성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경주 구 맨해튼 호텔, 대영빌딩, 검찰청장 관사나, 예식장 등 경주 시가지에 많은 작품을 남기셨고, 저에게 작품보다는 생활태도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셨고 현실적 여건으로 작품을 할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격려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설계사무소 초기에는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생활이 어려울 때는 생활비를,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책값을 보내 주는 등 경제적 보조나 건축적 격려를 통하여 제게 절실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활동, 건축사들의 자위, 품위 향상에 노력하셨고, 초대 경주건축사회 회장, 경상북도 건축사회 회장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셨습니다. 건축사회 행사사에 만세 삼창을 외치는 모습이나 노래를 하던 모



대담광경(왼쪽: 손명문, 오른쪽: 성인수)

습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인수_____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진로를 건축으로 선택했다고 하던데 뭐라고 격려하실 예정입니까?

손명문_____본인이 원한다면 그대로 존중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여행하면서 건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는데 그것이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1인 지금까지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혹시 “고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중년 선배를 경주 남산 등산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인생은 고난”이라고 한 말에 공감되면서, 내 아들도 건축을 하게 된다면… 하지만 보람있는 고생(?)이 될 터, 또 건축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신의 축복이기도 하니까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인수_____공부와 실무를 배우러 서울을 다녀오신 지도 꽤 되셨고, 경주에서는 건축 외에 여러 일에 관여하는 듯한데, 요즘은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일상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소장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문_____지역 내에서 선배로서 실무자로서 사회적인 봉사로 생각하고 주 14시간 경주지역 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등에서 건축 및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자연환경요소뿐만 아니라 문학적 토양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문헌조사, 답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의 작업이 10년, 20년 후의 건축을 위한 것이니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합니다. 건축은 5, 60대부터라고 생각하며 건강을 위하여 종학교 선수 수준인 탁구를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즐겨하는데 시합 중에 작은 탁구대를 비라보면 파란 바다처럼 넓게 느껴지고 공이 오고가는 사이의 무념의 상태를 즐깁니다. 골프는 좋은 운동이지만 시간도 많이 드는 데다 걸어가는 동안에 업무로 인한 짐됨이 생겨 그만 둔지

가 한 6년 되었습니다.

성인수_____ 근래 경주에서도 IMF 상황 등으로 건축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 일의 양이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손명문_____ IMF는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경주 등 소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건축이 경제성과 긴밀한 관계를 지녀야 합니다. 건축의 단순성이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단순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적은 공사비로 저울 수 있는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면이 있다면 가수요는 없어지고 필요한 건축주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적 질은 다소 높아지고 건축주를 상대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던 집장사들은 사라져서 전반적 일감은 줄었지만 어느 정도 문화적 수준이 있는 실수요자들과의 만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성인수_____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동안 추구하던 건축적 주제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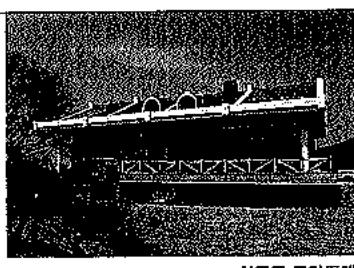
손명문_____ 경주에 내려와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 39세에 겁도 없이(?) 건축 개인전을 열었는데 경주에 대한 건축적 주제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과정 속에서 건축적 순수함, 의욕, 열정 등은 그대로 지녀야 자신의 건축적 성숙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로 반성하며 자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즈음 건축 작업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선친처럼 저에게 영향을 준 분들은 대학시절의 조창한 선생님, 작업기의 정시춘 선생님입니다. 조 선생님은 현상설계 참가 시에 “최고를 향한 완전성”을 끝없이 추구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품을 포기하기까지 하던 선생님의 사례를 기억하게 되고, 자기자신에게 완벽함을 끌가지 요구하던 태도에 감명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건축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건

축은 조건을 디자인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통하여 완벽한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실성, 건축적 끈기”를 가르쳐 주던, 이제는 학교를 떠나 다시 실무를 하는 정시춘 선생님 등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제 건축에서 지적 자극이었으며 좋은 기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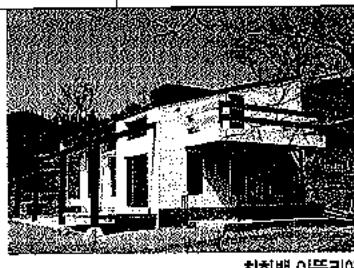
성인수_____ 그동안 인천 주안 영광교회, 과천 과천교회(1986년), 김포 제일교회(1987년), 황성동 성당(1991년) 등의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벽돌이 주를 이루었고, 종탑이 부각된 이들 교회보다는 서리벌교회는 그 건축적 어법, 형태와 의미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회건축에 대하여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문_____ 인천 주안 영광교회, 과천 과천교회는 서울 정주건축에 몸담고 있을 때의 프로젝트로 디자인을 담당한 것인데 당시 계획 프로젝트와 교회를 많이 작업했습니다. 그 당시 디자인 개념들이 경주의 황성동 성당까지 이어졌습니다. 종교건축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해야하는 시간성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종교건축물들의 사례는 충분히 이것을 증명합니다. 외장 재료로 벽돌을 선호하는데 벽돌은 오래 변하지 않는 시간성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보다 지속성을 지니므로 벽돌을 채택하여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표현했습니다. 벽돌 자체는 환경친화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리벌 교회에서는 파벽돌을 조금 사용하고, 대부분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여 형태적 재미를 유추한 것은 건축이 종교적 신비성보다 “말씀” 중심의 생활신앙을 표현한 일상적인 건물로써의 교회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보다 인간중심의 “하느님과 만나는 인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당은 의식과 신비성을 중요히 생각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상징성과 함께 공간적으로는 생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적 기법도 일상적 편안함과 이용자에게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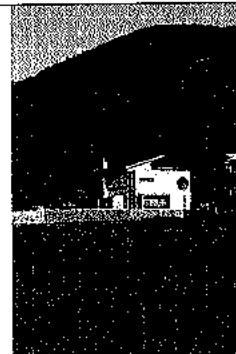
성인수_____ 교회에서 형태적으로 상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유적으로 “생활 속의 표현”라



천근동 주말주택



최화백 이뜰리에



하셨는데 잠소성, 면류관, 십자가와 '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탑이 둑이나 마스트로 분화되고, 강기에 표현한 '노아의 방주'가 오래된 역사도시 경주라는 도시 안에서 지니는, 또는 의도된 현대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손명문 “생활 속의 표현어”라 한 것처럼 교회건축은 신앙생활의 일부로써 시민들에게 친화력있게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경주의 지역적 특징으로 역사적 층면, 자연적 층면, 생활의 층면 등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사회적 생활성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시에서 허가한 강변 포장마차촌과 차랑이 질주하는 도로, 그리고 슬럼화된 도시의 상황으로부터 인식된 250평의 적은 부지로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역을 순화할 건축의 힘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의 대지였다면 건축적 출발과 결과로써의 형태나 공간처럼 사뭇 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제일 큰 도시인 경주에서 만약 대지가 경주 교외에 위치했다면 자연적인 경관과 어울리는 문화적인 그 무엇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지에서 우러나는 소리와 합일이 되도록 맞추기 위하여 노력했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시대 알천으로부터 지금의 북천, 현재는 물이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강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북천의 물과 교회가 어우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중요시했고 제 사옥과 서라벌교회가 앞으로 형성될 경주의 수변경관을 위하여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인수 소장님의 사옥은 북천 면에서 랜드마크로 경주시내 택시 기사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데, 이 서라벌교회는 살고 계신 사옥 겸 주택에서 건너다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같은 도로에 면해 있습니다. 평소 대지나 주위를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설계를 외로 밟개 된 특별한 과정이 흥미 있을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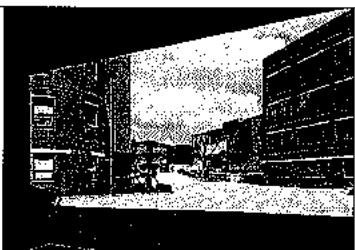
손명문 사무실에 위치한 제 방에서는 북쪽으로 늘 북천(알천)과 활성공원이 보입니다. 서라벌교회 대

지도 동쪽으로 바리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건축적 표정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제 사옥과 공존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병행해서 필요하고 새로운 건물과 장소를 만들고 싶던 차에 탁구를 통하여 알게 된 교회 장로께서 개인의 부지를 교회에 회사하여 시내 중심가에 있던 신도 200명의 오래된 서라벌 교회를 이곳에 새로이 신축,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친척이라는 서울의 건축사 한 분과 대구에서 온 건축사 및 경주의 저까지 포함하여 3인의 아이디어를 받아 20인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사 개인별로 브리핑을 한 후 투표를 했는데 제 안에 조금 많은 표가 나와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분석 후 디자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이 대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필연성을 역설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성인수 진입시 1층에서 본당에 이르는 길, 마당과 골목이 등장하는데 계단을 통하여 본당에 이르는 과정에 이야기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손명문 신도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경우 고수부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분여 정도 걸어 다가와 건널목을 건너,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며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전면도로가 숙연한 분위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당에 이르는 동안 예배, 교육, 친교, 관리행정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배공간입니다. 중요한 공간까지 이끌고 가는 과정적 연출을 사찰에서의 일주문과 같은 시퀀스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생활을 정리하는 정연한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입구와 지하 우물 천정이 내려다보이고 건물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계단도 진입감의 연출과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소 획일화되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수 “하늘로 열린 교회”라는 표제가 주는 느낌은 하늘로 열려 있다는 사실 보다 도시에서 주위에 대하여 달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타성과 상징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습니다. 베타성이란 기독교의 종교적 속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주위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주위를 외면하고 독립하고 싶은 내용이 전제된 듯합니다. 또 상장성이란 모더니즘보다 포스트모던 건축을 지향하는 듯 합니다. 단순함보다는 다양한 상징적 언어로 건축을 말하고 있는데요?

손명문 저층부는 폐쇄성, 그리고 상층부의 개방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주변상황에 대하여 좋은 인자가 있었다면 제가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차량 소음과 전면 도로, 좌우의 산만하고 불량한 경관에 대하여 저층부에서는 폐쇄성을 유도한 것입니다. 주위를 보시면 경주 카도크, 제일컴퓨터세차장, 신홍 막창 등 주위의 그렇고 그런 도시풍경과 자동차 소음이 보여주는 산만한 느낌을 가벽을 설치하여 분리하였고 이 가벽이 건물과 일체를 이루도록 하면서 그 틈새로 예기치 않던 북천과 황성공원의 풍경을 그리고 히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주의 경우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 개방감을 확보하여 자연과 융화가 되어야 하지만 이 가로 환경에서는 반대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환경이 폐쇄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반면에 상층부에서는 북천이나 황성공원, 시가지의 경관을 담기 위해 테라스나 데크, 옥상정원 등을 도입하여 주위 환경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성인수 소장님은 대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편입니다. 만약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명문 개인적인 건축적 사고나 철학은 일맥상통 해야하지만 매번 형태가 같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제주도의 자연적 요건과 문화적 풍토성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경주만 해도 각 지역마다 다른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또 대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도 다릅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건축이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소중하고, 프로젝트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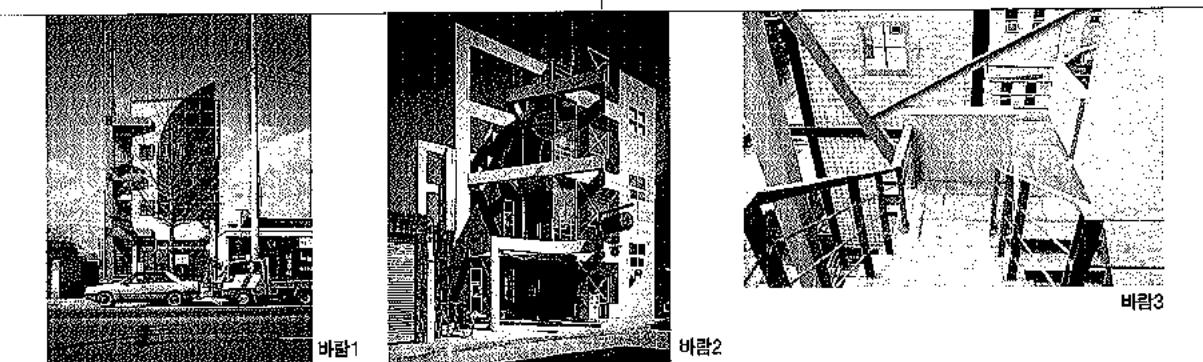
성인수 기독교 장로교파는 종교에서 도 원칙적, 원론적인 입장을 지닌다고 알고 있는데 저층부의 다소 폐쇄적인 태도는 교회측의 요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건축가가 특별히 의도한 공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읽히기로는 건축가의 의도가 많아 보입니다.

손명문 미리 계획안을 만들어 건축위원회에 설명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조건을 보고 만든 결과물로 인터뷰를 통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계획안과 달라진 것은 최상층에 교육공간을 두고 본당을 진입동선을 고려해서 2층에 두려 했는데 교회 위원회 층에서 예배 공간 위에는 아무 것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본당이 최상층에 위치하게 되었고 노약자 진입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층이 예배공간으로 바뀌는 바람에 옥상에 그 공간과 연계성을 가진 아외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저층부의 폐쇄적인 태도는 건축가의 의도된 공간입니다.

성인수 옥상 아외 예배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명문 옥상 아외 예배당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간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난간만 있지만 벽을 마련하여 적극화된 공간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제단 상부에 레벨을 두어 객석과 그 아래 무대를 두었고(경우에 따라서는 객석과 무대가 바뀌기도 하겠죠) 양쪽 골목길과 그 옆에 테라스 등 네 종류의 공간으로 나뉘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바닥재로도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결혼식이라든가 아외 집회 등 친교 공간의 목적도 있습니다.

성인수 저층 데크에서는 소장님의 사옥에서도 바라보이는 황성공원이 이 곳에서는 3층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2층 테라스에 오르면 가벽으로 닫힌 전망이 작은 구멍으로 열려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3층이나 옥상정원에 오르면 측면으로 경주 시내가 보이며 시야가 확대됩니다.

손명문 이 곳에서의 조망은 3층 높이가 가장 빠어납니다. 가벽 디자인 자체는 자동차 매연 방지용으로 붉은 파벽돌을 쓰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드라이비트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종탑에 일부 사용된 목재 패널을 사용하여 드라이비트 벽 위에 부치고 패널에 십자가를 세장하게 묘사되도록 그래픽 요소를 디자인하여 가미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도로 구멍이 남았는데 막으면 단절될 것 같아 공간의 암시성을 지니도록 남겼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도로여서 도로에서 1.5m 가벽을 후퇴하여 보행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시공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비를 심어 녹색의 벽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인수 경주시가지는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 상으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손명문 그렇습니다. 외곽지 분위기를 시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주주위에는 산이나 녹지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시내에는 녹지나 공원이 적습니다. 일전에 도심내 철도 이설 부지에 소공원을 만들어 '그린 축'을 만들자고 시가지 내 녹지지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일은 경주의 도시경관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 미관심의가 있지만 경주의 도시구조를 분석하여 역사도시, 관광도시, 생활도시로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경관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수 교회설계에 동원된 어휘들, 콘크리트 벽 위에 드라이비트와 그리드, 차장벽돌 벽, 프레임으로 돌출한 격자보, 나무판 그릴 등 하늘로 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건축적 용어로 '수사적 표현'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손명문 재료의 선택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흔히 통일성, 단순성을 위하여 재료는 3가지 이내로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다소 재료가 많은 대신 전체적 형태로 조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다소 어긋났습니다. 친밀감을 위한 표현으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였고 콘크리트는 견고성으로 십자가에서 철골 부재는 경쾌함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철에 의한 둑의 분위기는 약화시켰어야 했고 색도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야 했는데 의도보다는 과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약간은 표현 욕구가 많아 보입니다만 일반적 강기라는 이미지로부터의 장소성, 가로경관에서의 재미 - 시각적 긴장감 - 를 유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성인수 옥상 계단 아래 단형 축장으로부터 너무 밝아 보이는 본당 강대 뒤로 내리 그어진 흰 태양 빛은 평탄한 벽에서 '신성한 빛살무늬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손명문 예배시간인 일요일 11시가 교회에서는 피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빛의 효과를 빛살무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하늘로 승화하는 사선'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빛과 시간의 결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뒷 배경을 단순하게 백색으로 처리하였고 추후 여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도입하면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성인수 그 동안의 프로젝트나 완공 작품을 보면서 건축에서 형태를 만드는 일과 공간을 형성하는 일 중에 형태를 만들고 가다듬는 과정이 우선되는 듯 합니다. 조소적인 형태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번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대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손명문 건축에서의 형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의 자연스런 표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건축하면 예배공간, 그 중에서도 본당공간이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교회에서는 그 대지의 형상에서 어떠한 본당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그러한 공간이 결정되고나면 형태와의 접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형태와 공간의 합일점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 인자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흔히 건축의 형태는 조소적, 골격적, 평면적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교회 건축은 다분히 조소적 형태로 훌쩍왔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 -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움직이는 전실, 다목적실 등 - 은 의도적으로 밤에 주변의 어두운 상황에서 가로의 야간경관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만 지나가는 행인 등에 대한 무언의 전도자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비어있는 공간은 신과의 만남을 위한 자기 수양의 마음을 추스리는 내부와 같은 공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인수_____ 보통 개념은 외연(Denotation: 外延)과 내포(Connotation: 内包)로 나눕니다. 교회라는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수없이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칭한 것입니다. 교회의 내포(적 의미)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혹시 외국이나 국내에서 여행 중 보게 된 교회 중 본인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손명문_____ 그렇습니다. 또 서양건축사 중에는 다양한 교회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연(적 대상)으로써 많은 교회를 좋아하지만 현대교회 건축으로는 헬싱키에 있는 Temppeliaukio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암반 위에 세워진 저하고회로써 자연에 인공의 힘을 빌어 형태와 공간적으로 멋드러진 연출을 시도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파리의 노틀담교회를 들렸을 때 우연히 미신 중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성가 신부님의 울려 퍼지는 소리와 빛, 신도들과 어우러진 공간의 종교적 엑스터시를 경험한 것이 생생한 체험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교회의 내포(적 의미)에 제가 더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수_____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손명문_____ 건축학과 학생들에게는 주로 대지를 읽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대지와 조건을 어떻게 건축의 형태와 공간에 융화시키느냐? 회기에게는 캔버스가 중요하듯 이 건축기에게는 대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양학부 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이야기와 슬라이드, 비디오 등으로 건축적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적 공감대를 형성하다보면 학생들도 쉽게 건축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성인수_____ 서리벌교회 건물에 대한 주위의 평을 들어 보셨습니까?

손명문_____ 교회측 이야기로는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지형과 장소성이 맞추다 보니 수식어가 좀 많아졌습니다만 강기를 향해서 면류관을 원형으로 쓴 종탑이 있는, 다소 침체된 거리환경에서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건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수_____ 소장님에게 주요 테마는 대지로 주어진 '땅의 의미'이며 항상 그 땅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좋은 건축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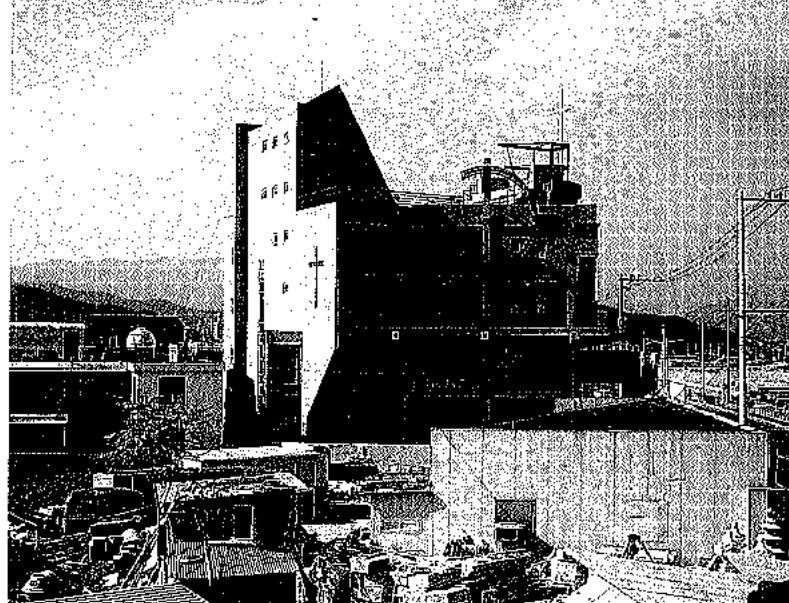
감포의 집



현곡면사무소

전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Toward a New Wholeness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by Kim Bong-Ryol



서라벌교회

건축가 손명문을 경주에서 만난 지 10년에 가깝다. 서울에서의 수련기간을 거쳐 고향으로 내려와 계속하고 있는 그의 건축작업을 지켜보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게 된다. 능력있는 건축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방의 도시적 환경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의 저력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기대이고 건축적 자극이 드문 상태에서 홀로 외롭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터워지는 득단과 나태에 대한 우려다. 이 글은 서라벌교회라는 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이 건축가에게 보내는 격려와 조언이어야 좋다.

그동안 그는 많은 일을 했다. 경주시의 어느 거리는 '손명문 거리'라 해도 좋을 정도로 몇 집 건너 하나씩 그의 작품들이 서 있다. 그 건물들은 일정 정도의 완성도가 구현된 수준작들이고 그가 생각하는 경주 속의 건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도시의 도시건축적 환경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그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호의적이다. 어찌보면 잘 나가는 지역 건축가로 훌륭한 데 없이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 건축가의 작품세계만 정지하고 만족하는 순간 퇴행과 지루한 반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구상을 실험하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편안치 못한 삶이 건축가로서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지방도시에서 한 사람의 창조적 건축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예상 외로 지대하다. 이미 손명문의 아류작품들이 다른 건축가의 손을 빌어 경주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 아류작들이 만드는 도시적 풍경은 썩 유쾌하지 않다. 치기어린 요소들의 돌출과 도시적 맥락과 맞지 않는 공간의 설정, 현란한 색채 등은 오히려 손명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평범한 건물들보다 더 도시환경을 어지럽게 만든다. 따라서 유행의 전파자로서 손명문은 일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는 이 도시의 낙후된 건축적 질을 향상시키려면 시민들의 미의식과 건축관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했고 충격적인 형태와 예상치 못했던 공간과 표현적인 색채의 건축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건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전

략을 택해왔다. 이 전략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인다. 그에 대한 시민적 지명도도 높아졌고, 지역적 평가는 물론 전국 건축계에서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항상 건축주들의 기대와 요구 이상으로 결과물을 완성시킨 대기였다.

그러나 이 세속적 성공이 건축가로서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애초의 그의 목표 - 고향에 대한 애정과 건축발전에도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건축세계의 성숙이나 완성과도 거리가 있다. 건축주들은 이를 바 뒤는 건축 만이 좋은 건축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됐고 그에게 계속적으로 표현적 작업만을 주문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회적 메카니즘 속에서 그 자신 역시 본질에 대한 치열한 추구와 성숙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가? 서라벌교회가 서 있는 동천변에는 몇백m 떨어진 곳에 손명문의 사무소 건물이 있다. 그만큼 그는 이 교회의 장소가 가지는 한계와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자연적 조건은 훌륭하지만 현재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천원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모호한 이 땅이 어떤 장소로 바뀌어야 할지도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건너편의 황성공원을 원경으로 하고, 길과 강이 어우러져 걷고 싶고 사색하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는 것이다.

서라벌교회는 '교회같지 않은 교회'다. 적어도 지방도시에서는 아직도 '교회같은 교회'란 바실리카식 평면을 가지고 뾰족탑과 높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일 것이다. 작가는 이 도시에 전혀 새로운 교회형태를 선보이려 했다. 동시에 빙주나 면류관 등의 추상화를 통한 종교적 상징을 형상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몸체와 기능은 현대적이면서도 하늘을 향하는 전통적인 향천적 형태를 다시 재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현재는 통과교통으로 위험한 강변로에 면한 전면 경계에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 안으로 길을 끌어 들인다. 가로가 연장되어 교회안의 마당으로 자연스레 삽입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 전면 도로와는 완전히 격리되고 오로지 교회 내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2층 3층 계단실을 통해 올라야 하고, 계단실에 면해 있는 옥외 테라스에 서면

드디어 도시의 펼쳐진 경관들을 대하게 된다. 이 교회의 내부적 순환체계에서 동선과 시선은 서로 단절적이다. 동선이 움직이면 시선이 사라지고, 시선이 살아나면 동선은 정지된다. 희망하는 도시적 환경은 단지 바라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사회 속의 교회'라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전제로 한다. 의식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건축적 목표를 구현하려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었다. 문제는 항상 관리였다. 일반 주민들의 건전한 접근이나 이용보다는 소위 불량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점유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장애 사이의 갈등은 흔히 현실 쪽으로 기울기 쉽다. 서라벌교회의 경우에도 접근성과 개방성은 계획 초기의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 관리의 편의성에 처우쳤다. 작가는 교회라는 건축적 프로그램을 '주공간 대 봉사공간' 혹은 '성스러움 대 세속성'의 이원적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주로 예배시설인 전자는 폐쇄적 구성을 통해 보호되고 로비 테라스 등 후자는 개방적 구조로 노출된다. 성소는 토석 벽돌의 딱딱한 재료로 막힌 벽면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로비들은 드라이비트라는 비교적 연한 재료로 감싸진 구조 프레임들로 개방적인 공간과 형태를 형성한다. '폐쇄 대 개방', '유색재 대 무색재', '벽면 대 골조' 등의 대립적인 재료 - 구조 - 형태의 체계가 30도 각도로 틀어진 채 관통한다. 여기까지의 개념과 설정은 합리적이고 신선하다. 그러나 그가 의도한 관통된 이중 시스템은 몇 가지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 우선 두 체계 간의 구별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드라이비트로 이루어진 골조 프레임부분의 비례적 형태감에 대한 고려도 아쉽다. 특히 돌출된 캐틸레버 빔의 마구리들은 그 강한 노출성으로 인해 프레임 구성의 일부라는 본분을 잊어버렸다. 두 체계 간의 더욱 강한 대비와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체계적 모호함은 두 체계가 관통하면서만 들어지는 중간적 공간들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다. 두 상이한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림으로써 중간적 영역의 성격이 없어지고 부조화되는 어색한 장면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본당 입구 전실에 걸려있는 골조 프레임의 처리, 로비의 공간감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외부 도시경관을 방해한다. 로비공간을 제3의 시스템으로 인식했다라면 다른 해결방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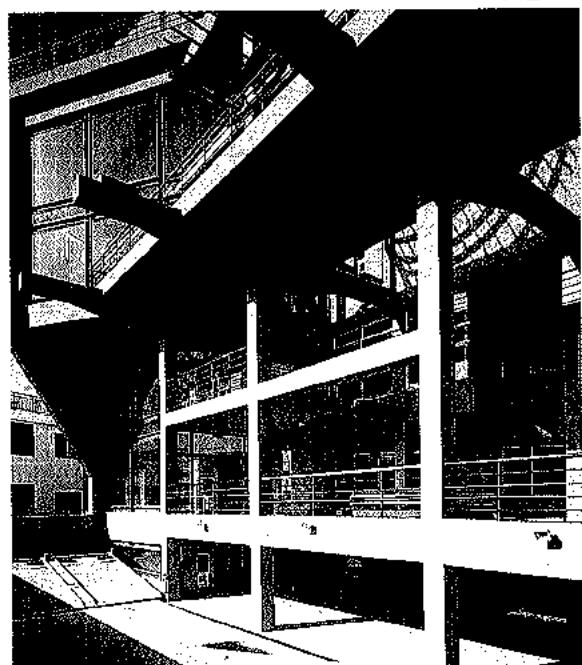
건축가 손명문이 설정한 이 교회의 건축적 목표는 모두 정당하고 귀중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하 교육시설과 주차장에 빛을 도입하여 효용성을 높인 부분, 안마당의 도시적 분위기, 안톤 프레독을 연상시키는 본당의 빛처리와 옥상의 계단식 예배공간의 설정 등 그리고 세속성과 종교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설정된 철제 상징물을 하나 하나는 가치있고 성공적인 부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애매 함이 남는다. 이는 의도된 모호함이 아니라 부분들의 지나친 표현성으로 야기된 부조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서라벌교회는 같은 건축기가 근자에 발표한 '감포의 집'이나 '현곡면사무소'

등과 일련의 시리즈라 할 수 있다. 물론 세 건물 모두 기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적 설정은 상이하다. 그러나 경관의 구조나 선택된 재료와 디테일, 실질적 형태들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부분들의 형태와 빈도수는 세 건물 모두 비슷 하지만 전체적 구성과 완성도는 서로 다르다. 감포의 집은 높이와 위락을 위한 상업시설이다. 이 집의 자연환경과 기능적 프로그램은 다분히 축제적이고 낭만적인 건축을 원했고 비교적 성공했다. 현곡면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고 봉사시설이다. 접근성과 개방성은 서라벌교회와 유사하고 파격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면사무소 단위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건축으로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서라벌교회는 다르다. 우선 교회라는 종교적 프로그램이 다르고 도심이라는 위치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후발성 때문에 더욱 높아진 기대치를 이미 두 집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을 반복함으로써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다르다. 부분들의 지나친 외침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진정으로 경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다면 여러 세트의 차임벨을 동시에 울리는 것보다는 단음조의 육중한 종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치 예밀레종파 같이, 경주박물관에 있는 애밀레 종의 몽통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모습은 산처럼 우뚝하고 그 소리는 용의 을 조림 같아 위로는 지상의 끝까지 퍼지고 아래로는 땅속까지 스며든다. 보는 이는 신기함을 느낄 것이요 소리를 듣는 이는 복을 받으리라."

지난 기간동안 경주와 건축을 향해 쏟아웠던 애정과 탐구의 방법을 일대 전환할 때라 보인다. 현란한 부분들의 표현보다는 절제된 표현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성을 구현할 때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개념적인 건축, 현실적 유혹을 극복하고 초기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 이제 경주 혹은 지역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건축가' 손명문으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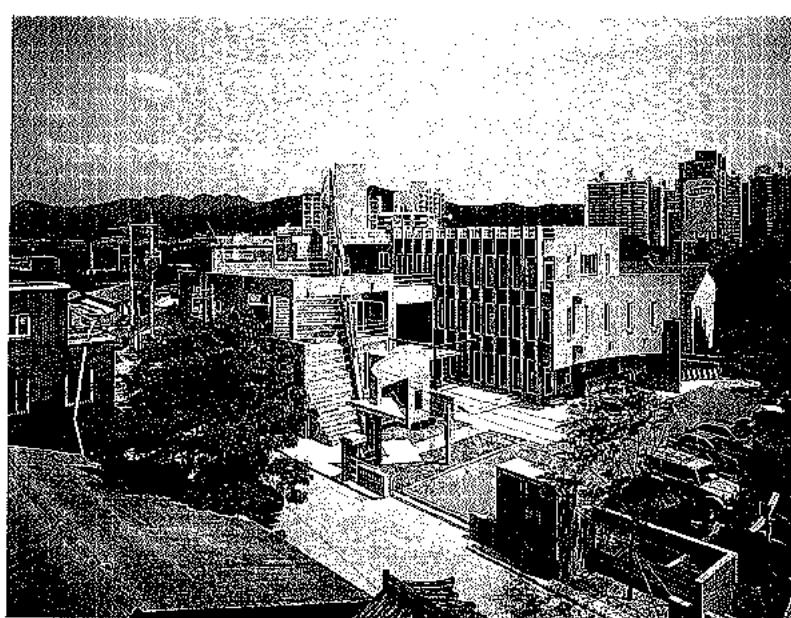
서라벌 교회



The last time I saw architect Son Myung-Moon in Kyungju was almost 10 years ago. Observing his architectural practices in his hometown, after the educating period in Seoul, one cannot resist the feeling of a simultaneous hope and anxiety. Hope is in the fact that he exerts himself to the gradual development of small city's urban conditions, often neglected by competent architects; Anxiety stems from his isolated position, disconnected from architectural stimuli which could induce dogmatic or slothful attitude. This criticism may well be read as an encouragement and advice to the architect, through his recent work, the Seorabul Church. The number of works he has produced is not a small one; a street in Kyungju may be nicknamed 'Street of Son Myung-Moon', since his work can be seen quite frequently. These buildings, which achieved a certain level of architectural value, are his expressions from and within the City of Kyungju. Improving its urban environment, they are an object of joy to both the architect and the citizens.

But an architect's vision of architecture, as soon as it begins to be content with itself and thus become rigid, tends to degrade into regressive, insipid and endless repetitions. Life of an architect is doomed, if you put it that way, to one of ceaseless struggle to top oneself, what he/she has previously done. The influence a creative architect can have on a regional city is beyond the usual expectation. One can find proof of such in the various buildings of Kyungju that are built in Son's style but by other hands. But the cityscape of such copied works is not a pleasant one: formal elements, space and color stand out of context from the city, and contaminate the urban environment even more than the "normal" architecture, i.e. those uninfluenced by Son's works. It is quite ironic that Son has no other choice than to be responsible to these negative consequences. But why should he? In a city of rather uncultivated architectural taste, he has chosen a strategy to present shocking forms, unexpected spaces and expressionistic colors, stimulating the eyes of the citizens with an ultimate end to modify their aesthetical minds. It can be said that these have enjoyed a strategical success. By providing something more than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 client, Son has become well known among the city's people, not to mention those engage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both regional and across the nation.

But these so-called success does not necessarily secure his accomplishment as a true architect. It isn't even a safe proof of his willing and affectionate contribution to the architecture of his home town. Clients now have the predilection for "unusual" buildings, and ask Son only of those that stand out among others. In this social mechanism of economic repetition, isn't Son losing edge in his pursuit of meaningful architecture? A few hundred meters from the Seorabul Church stands an office building also designed by Son. Through the process of his previous work, he is well



현곡면사무소

acquainted with the conditions of the site, it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Though the natural setting is beautiful, it is currently abandoned, maintaining a strange posi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tmosphere. He is quite sure what to do with it: Looking out to the park across the river, it would become a path of nature, providing an ideal space for pedestrian's meditation.

Seorabul Church is one quite different from others. The norm of this building type, especially in the regional areas, is one of Basilican plan, with a cross over a pointed tower. The architect here presents the city with a new type of church. It is also of a form with religious connotations, through the abstraction of the Ark or sacred crown. With modernized volume and functions, it inherits a traditional value, one that is open up to the sky.

The main border of the site with the road, now busy with speeding vehicles, is dealt with a free-standing wall, which has an opening to the path approaching the church. This road naturally extends itself to the court of the church. But the problem starts then. The extreme height of the wall secludes one completely from the outside, and leave a choice only to go into the church. The second and third floors are linked continuously through a stairway, which is connected to an outdoor terrace where you can finally have a view out to the city. The visual and physical circulation systems of the church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Where movement continues, the vista disappears: As a vision pleases the eye, corporeal circulation ceases. A desirable cityscape is not provided by the mere gesture of looking.

To become a church rooted in the communal life, it is required to be both open and highly approachable. Thoughtful architects have strived to achieve this ideal aspect of a church, but problems in management, such as preventing it from becoming a refuge to troubled youths, has not been met with satisfactory solutions. In the case of this church, as in almost every other instances, reality has prevailed over ideal: It ended up with a stronger concern for an effective management.

The architect comprehends the architectural program of a church in dichotomic terms of 'main space vs.

service space', or 'the holy vs. the secularized'. The former, usually the main chapel space, is secured by a closed structure, whereas the latter such as the lobby terraces are exposed and open. Sacred spaces are finished with hard bricks, when lobbies remain light and open by use of drivit-covered structural frames. A system of contrasting aspects in terms of material, structure and form, such as closedness vs. openness, color vs. the uncolored and stereotomic vs. tectonic, pervades the overall space with a tilt of 30 degrees. The concept up to this point is reasonable and original.

His intention of using dual systems throughout, however, is not without weaknesses. First of all, a clear distinction and consistency among the two system are absent. Formal proportion of the skeleton frame, finished with drivit, is also not properly thought out. The over exposure of cantilever beams overshadows its principle as an element consisting the frame of the building. Since the two systems lack strong distinction and arrangement, the intermediate spaces between them also display ambiguous aspects. As the different systems collide directly with each other, instances of disharmony appear through absence of buffering zones: An example that comes to mind is the skeleton frame hovering above the room entering the main chapel, which reduces the spatial characteristic of the lobby and blocks the view toward the outside city. Comprehending the lobby as a third system might have achieved better results. What Son has set as an architectural objective to this church is thoroughly right and meaningful, and evidence of his efforts to achieve such goals can be seen in many instances.



현곡면사무소

The introduction of natural light into the educational facility and parking spaces in the basement floor vitalizes its use, while the inner court delivers an urban atmosphere. The arrangement of light in the main chapel curiously reminds one of Antoine Predock, which is also true of the outdoor service space on the roof. The steel structures symbolically stand for the religious as well as the worldly. These examples are truly successful attempts in themselves, but this does not act to overcome its overall vagueness. This result does not seem to be one of intention: It is rather an effect of discord, an outcome of each fragment's highly anxious expressiveness. Seorabul Church can be viewed as one in a series of his recent works that include House of Gampo and the Office of Hyungok-myun. These three works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site situations, thus share no basic architectural proposition. But in terms of applied material, execution of details and symbolical forms, they show a discreet connection. House of Gampo is a commercial facility for recreation, its natural surrounding and functional program seeking a romantic, even festive quality. On the other hand, the Office of Hyungok-myun is a public service facility for the regional residents. Hence it shares Seorabul Church's aim for openness and approachability, and have answered this demand notwithstanding its radical formal features. It is in this respect that that work can be valuable as a presentation of an alternative style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buildings. This, however, is not the case with Seorabul Church. First, unlike others, it has a religious program, and is located within the city.

Since it is his most recent work to date, completed after the experiences of other works, we cannot but expect something more from it than the preceding ones. The result was rather discouraging: It had too much elements repeated from the past works. Too many elemental voices could add up in clamour. To benefit the culture of a city with such long history, one should choose not a various set of chimes but simple tone of a heavy ringing, one such the Emiae Bell of Kyungju Museum could render. The writings on the Bell could be telling:

Its form stands tall as a mountain, its ringing sounds like that of a dragon, emitting as high as the end of the world, and as deep as the core of the earth. Those who see will be in awe, those who listen will be blessed.

The architecture of Son, charged with curiosity and love towards Kyungju, and of course, architecture itself, now faces a challenge against itself to be revitalized. It is now the time to overcome the extravagance of elements and construct a new wholeness within a modest expression. To achieve this goal, one must have the will to get over the worldly lures and pursue his/her pure and primary concepts throughout the whole designing process. Only through these efforts will Son surpass the boundaries of Kyungju and the region, and become an 'architect' in a true sense of the word.



'98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98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인공을 찾아 격려함은 물론 일반인과 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참가 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 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98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돼 지난 10월 27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데 이어 11월 2일까지 2층 다목적홀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됐다.

올해의 영예의 대상은 노형래(건정건축) + 베기업(명신건축) + 서정대(디에스티건축)씨가 공동설계한 「울산현대예술관」이 차지했으며, 노형래씨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본상은 김인철(아르카움건축)씨의 「김옥길기념관」을 비롯해 6점이 선정됐고, 입선작은 서용근(위드건축)씨의 「관음재」와 14점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대상작의 시공자와 건축주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본상 수상작 건축사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돼 명실공히 권위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으로 발돋움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크게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는데, 준공건축물부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기간 중 지어진 전국의 건축물 중 예술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건축사들이 직접 응모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 67점에 비해 5점이 많은 72점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1차 사진첩심사와 2차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입선작 이상 22점이 선정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은 건축전공학생(대학원생 포함), 건축사사무소 종사자(건축사 제외) 등 아마추어 건축가들이 일정한 주제하에 건축디자인 및 설계개념 소화능력을 겨루는 것으로 올해 주제는 「도시의 흔적」이었다. 총 응모작은 3백22점으로 작년보다 19점이 늘었으며, 금·은·동상과 입선으로 나뉘어 시상된 이번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에는 해당작이 없었고, 은상 3점과 동상 5점 그리고 입선 22점이 각각 선정됐다.



응모대상

- 응모대상: 97년 9월부터 98년 8월 기간 중 준공된 국내건축물
- 응모자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응모방법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첨부)

작품접수

- 기간: 98. 8. 17(월)~8. 20(목)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조정실
- 협황: 72점(주거 15, 비주거 57)

심사위원

- 강석원(前한국건축가협회장, 건축사사무소 그룹 대표)
- 김광문(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 김이영(삼성서울병원 정신과교)
- 신현식(前대한건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 오운동(前대한건축사협회장,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컨설팅 대표)
- 정 훈(서울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심사일시

- 1차(사진첩): 98. 8. 24(월)
- 2차(현장방문): 98. 8. 27(목) ~ 9. 5(토)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1998년 10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입상자에게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1998년 10월 27일(화)~11월 2일(월)/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
- 시상식: 1998년 10월 27일(화)/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시상내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비 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외건축방법	트로피 해외건축방법	트로피 동 반	총포장 2인 대통령표장 1인
본상(6점)	트로피 해외건축방법	트로피 해외건축방법	트로피 동 반	설계자: 건설교통부상 총포장 총포장 설계자: 대한건축협회 설계자: 서울경제신문사상 설계자: 서울경제신문사상
입선작(다수)	상파	-	상파	설계자: 대한건축협회 시공자: 서울경제신문사상
공로상	트로피	-	트로피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수상작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順)**■ 대상**

- 울산현대예술관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명신건축사사무소 배기임+디에스티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정대 / 현대산업개발(주) / 현대중공업(주)
- 대통령표장: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 국무총리표창: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중공업(주)

■ 본상

- 고려포리미(주)사옥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공간환경(주) 한재원·최병일 / LG건설(주) / 고려포리미(주)
- 김옥길기념관 / 건축사사무소 (주)아트키움 김인철 / (주)세진주택 조용희 / 김동길
- OAK VALLEY RESORT / (주)일송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국·김광수 / 한솔건설(주) / 한솔개발(주)
- 씨네플러스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김낙중 / 현대산업개발(주) / (주)금강기획
- 이태원 다가구주택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삼성생명
- 백남학술정보관 / 이강업+한양대학교 설계실(반진표)+고려환경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이장범+건축사사무소 예공포럼 이성만 / 한양개발(주) / 한양대학교
-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한재원, 김인철.

(주)일송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낙중, 김창수, 이강업

■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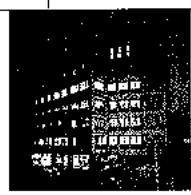
-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건축사사무소 천미 허영주 / 동방건설(주)
- 전북건축사신옹합동조합 사옥 / 건축사사무소 미간사 이자 / (주)신일관
- 관음재 / 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용근 / 위드건설 이규황
- CAFE en ROSE POISE-II / (주)디자인그룹 아방건축사사무소 천근우 / (주)아방디자인그룹
- 제주 강정교회 / 건축사사무소 무희건축 김재판 / 신일종합건설(주) 박문수
- 동우밸브콘트롤 공장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김호만 / (주)세화건설
-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 (주)건축사사무소 정주건축연구소 정시춘 / 쌍용건설(주)
- 한국경제신문사 사옥 / (주)창조건축사사무소 조재원·유태웅 / 현대건설(주)
- 정부대전청사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전동훈 / 현대건설(주)
- 삼성플라자 분당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윤승중, 변용, 김석주 / 삼성물산(주)건설부문
- 아트선재센터 /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대우
- 한호제 / 토마건축사사무소 민규암 / 송동섭
- 신사동 청학빌딩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험인선 / 금강종합건설(주) 김진왕
- 진천 이월초등학교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만·오동희·윤홍노 / (주)태암 권정하, (주)포스홈 윤현
- 숭실대 환경직기념관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쌍용건설

■ 공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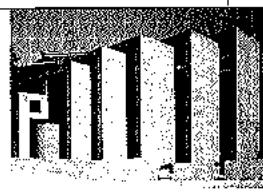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한창진(한정건축), 전대한건축사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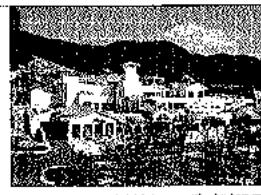
대상/울산현대예술관



본상/고려포리미 사옥
(건축사지 9806 참조)



본상/김옥길 기념관
(건축사지 9806 참조)



본상/오크밸리리조트



심사평

오윤동/전 대한건축사협회회장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환경과의 조화, 인간중시

를 술로건으로 내세운 21세기 신 건축문화창 달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행사로 글년 이 일곱 번째가 된다. 총 72점의 작품이 접수 되었으나 아쉽게도 주거용 건축물 작품이 예년에 비해 출품률이 저조했던 것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삶의 터전이 기울어지는 경향 때문인 것 같다. 당초 심사위원 회에서는 본상 6개 작품 중, 주거 2점, 비주 거 4점을 선정하기로 비율을 정했으나 1차 사전 협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마치고 보니 출품작 품들 중 주거작품의 작품수준이나 시공상태가 기대이하여서 주거용 건축물의 작품 중에서는 1점만 본상을 주기로 심사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아 주거 1점, 비주거 5점으로 다시 조정해 최종 심사는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현장(2차)심사는 자연과 환경의 조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공헌도, 미래지향성, 마감공사의 상태 등을 심사의 주안점으로 두었다.

주거부문에서는 단독주택, 연립형빌라, 아파트 등이 출품되었으나 공간구성처리가 우수한 주택 작품들이 있었던 반면 막상 현장을 답사하고 보니 시공상태가 미흡하거나 필요 이상의 가시적인 처리 등으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 많았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공공적 설계와 배치, 주거환경 등을 새로운 개념으로 개선해 보고자 한 의도가 희박하였으나 앞으로 주거문화 발전 측면에서 자연과 환경 조화 등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본다. 비주거부문에서는 업무, 문화,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예술성, 공익성, 상징성, 시공성 등 환경과의 조화를 중점으로 심사 의견을 모았으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최종 심사 결정에 많은 토론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된 건축물의 현장을 방문하여 돌아보니 한국건축문화를 훌륭히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건축가와 건축기술자들의 노력과 의지에 감탄한 것은 물론 한국건축의 장래가 매우 희망적이며, 앞으로는 세계적인 우수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뚝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

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건축문화 대상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예술에 크게 기여하는 기폭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가 크게 칭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현식/중랑대 명예교수

우수한 건축은 미적이고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며 가능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수한 건축을 찾아내어 시상함으로써 더욱 좋은 작품제작을 권장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로자 제정되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98년도 응모작을 개관하면 의장적인 면에서 출중한 작품도 있었으며 시공면으로 보아도 진일보한 면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작품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의장적이면서 구조적으로도 참신하고 자유분방한 면을 보여 주었으나 그 사용재료가 부적절한 느낌을 주고 눈에 잘 띠지 않는 부분 일부가 미완성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대지가 고가임에도 공공성을 위해 건축면적의 상당부분을 공용스페이스로 내놓아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한 작품도 있었다. 건축물을 완성시킨 후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문화시설을 제공한 작품도 있었다. 이 작품은 대지가 두개의 도로로 3분할되어 있으나 건축 계획적으로 잘 해결한 애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설치한 부재를 의장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한 작품도 있었다.

작고한 모유명인사의 기념관은 외판도 의장적 효과를 나타냈고 우리나라 건축시공기술의 정도로 보아 시공상태는 격차를 아끼지 않을 만큼 마감이 잘 되어 있었고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없이 건축가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작품이어서 작품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나 기념관의 내부에는 작고한 유명인사가 직접 쓴 유물이나 기념이 훨씬 유물이 전시되어 있지 않고 커피점이 개설되어 있어 기대에 어긋나기도 하였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 일정이 빠듯하여 강행군을 하였으나 좋은 작품감상으로 피로한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 다녔다.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더 많은 응모있기 바라며 사상기관의 예산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가능한 많은 시상으로 건축가와 건축기술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광문/한양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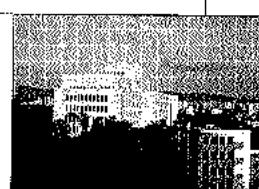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준공건축물에 응모한 작품의 수가 지극히 적었다. 아마도 선정 기준이 다소 애매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차 예비심사에서 비주거부문 18점과 주거부문 4점을 선정하였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22점을 4일간에 걸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작품들을 한정된 시간내에 답사하게 되어 시간에 쫓기는 아쉬움이 남았다. 준공건축물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준공된 것이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준공 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건물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다. 심사기간과 심사위원 구성에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울산현대미술관: 건축이 완성되어 좋은 건축으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설립목적, 입지조건, 용도와 공간계획 그리고 그에 알맞은 일련계획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미술관은 위에서 언급된 조건을 골고루 갖춘 것이다. 건물의 용도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 스포츠 그리고 다목적 문화공간이다. 대지의 중앙을 관통하는 2개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3개로 분할된 대지위에 통일된 디자인으로 다목적 용도를 갖는 기능을 적절하게 배치시켰다. 중앙의 예술관 디자인은 주변의 복잡스러운 재래 시장의 분위기를 반사시키려는 의도인 듯 생각된다. 번잡스러운 상황에 동화하려는 디자인은 나름대로 천밀감을 갖게 한다. 다만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써의 광장은 좀더 광장다운 광장으로 디자인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백남학술정보관: 사립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할 이 건물은 대학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의 중심은 학술정보 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학문을 상징하는 듯 장엄하고 우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강남에서 성수대교를 넘어 강북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띠며 이곳에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건축물이 설계가 잘 되고 완성이 되면 그 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이 정보관이 성동구의 높은 위치에 자리잡게 되면서부터 성동구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본상/이태원 다가구(건축사지 9808 참조)
본상/씨네플러스(건축사지 9804 참조)



본상/백남학술정보관



입선/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생기게 되었다. 언뜻보면 이 건물은 오래 전부터 이 곳에서 있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건축 디자인에는 고전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학문을 다루는 대학의 도서관으로서 요즘 유행하는 언어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아쉬운 점은 중앙의 원통 상부로부터 자연광이 유입되지 못한 점이다.

씨네풀러스: 중소규모의 상업적 건축에서는 한치라도 더 많은 건폐율을 차지하려는 설계가 많다. 이 곳에서는 설계자의 의도한 비가 시공자와 둘이 맞아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배치계획에서 보면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위에 서 있는 건축의 1층에는 건물 한가운데를 관통시키는 인간적인 척도의 골목길을 설치하여 전면도로와 후면도로 그리고 축면도로를 연결시키고 있다. 입면에서 특이한 것은 전면 광장이 도심 속의 복잡함과 혼잡속에 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 속에 응합하려는 듯, 다양성을 디자인 요소로 하고 있다. 콘크리트, 금속, 유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고층부와 저층부의 분리, 저층동의 역동성과 고층부의 상징성이 주변 거리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크밸리리조트: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큰 사명을 갖고 시작한 이 작품은 많은 노력이 엿 보인다. 우선 속박동의 모임지붕과 매지붕이 눈에 띄인다. 도시 생활에서 피곤함을 덜기 위하여 찾아온 휴양객들에게 일상생활과는 다른 호화로움을 주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설계자의 의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거대한 매스를 피하기 위한 노력, 건물 사이로 산이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등 수를 늘린 것 등등이다. 등 수는 늘리는 것이 하나의 작은 마을을 연상케 한다. 이상과 같은 설계자의 노력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체대한 만끽하면서 휴양할 수 있게 하는 건축적인 수법이라 생각한다.

김옥길기념관: 건축면적으로 따지면 좀 큰 특립주택만한 이 기념관은 건축을 구성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게 하고 있다. 건축을 구성하는 바닥, 벽, 천장이 모두 철두철미하게 노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축에서는 콘크리트와 유리 이외의 건축자재는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들어설 때부터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이와 같은 설계자의 없음의 철학은 김옥길 선생의 일생과 어디선가 공통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아쉽게 느낀 점은 김선생을 기념하는 건축물이 왜 다방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유물이 아직 하나도 전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이영/삼성서울병원 과장 ······

문화와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이란 직책은 매우 부담스러운 역할이다. 내가 무엇을 심사할 것인가가 계속되는 고민이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사진과 도면심사를 하면서 약간은 해소됐다. 어차피 전문적인 심사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인상에 의한 심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축상이 아니고 건축문화대상이라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심사할 것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자에 의해 어떻게 구상화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떠나 기본정신을 어떻게 구현시켰느냐는 매우 막연한 관점으로 심사에 임했다. 결론은 이렇다. 설계도 좋고 시공도 완벽한데다가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끝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 혼연일체가 되는 작품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설계도 좋고 시공도 완전한데 건물의 기본정신이 사용자에 의해서 왜곡되는 느낌도 받았고, 건축주의 의도는 분명한데 설계자가 너무 자신의 주장만 펴서 겉도는 건물도 눈에 띈다. 시공자가 설계자의 의도를 제대로 구상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영동한 입주자가 예술성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나 나름대로 여행을 하면서 보아왔던 좋은 건축작품들에서 받은 인상과 비교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예술성의 심사란 그런 것이란 말로 변명하고 만다. 옛날의 도목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시공자가 마음이 안들면 일을 시작하지 않았고, 자기가 대리고 다니는 일꾼들도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람

보다는 자신의 장인정신, 예술성을 아침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고 다녔다고 한다. 기껏 지어놓은 건물을 엉뚱하게 사용한다고 헐어버린 도목수도 있다던가! 현대의 분업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허기는 힘들지 모른다. 그래도 건축이 문화인 이상 작가의 정신을 살리고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려면 건축주, 설계자, 일꾼, 사용자가 혼연일체가 되는 작품이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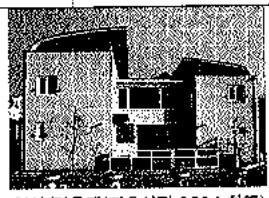
정 훈/ 서울경제신문사 논설위원 ······

98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심한 국제통화기금(IMF)한파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IMF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드리웠다. 특히 한 시대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기도 한 건축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출품작 수나 수준도 걱정이 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출품작은 예년을 상회할 정도였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팔목할만한 수준이었음을 현장심사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제정취지는 「인간 중심」, 「환경과의 조화」이다. 콘크리트 숲으로 일립(林立)된 메마른 도심에 인간이 숨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 후세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 그 취지다. 이번에 대상(大賞)으로 선정된 「울산현대예술관」은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들어 맞는 작품이다.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시민에 친숙치 못한 기존의 문화·예술 시설들과는 달리 생활속에 살아숨쉬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생활체육·문화·예술·금융시설 등을 복합 구성,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물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킨 설계가 어필했다. 특히 지방에 이같은 문화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화의 일국(一極)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건축 주인 현대중공업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본상(本賞)을 받은 작품 가운데 「고려포리마사목」은 오피스빌딩의 개념을 변모시킨 건물이다. 육상에 정원을 설치한 것하며, 육내 중정(中庭)을 두어 근무하기에 희망한 공간을 조성한 것 등은 오피스빌딩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역시 본상작품인 한양대「백남희술정보관」도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이



입선/전북건축사 신용협동조합사옥



입선/관음재(건축사지 9804 참조)



입선/카페멘로즈



입선/제주경정교회



다. 그러나 건물외관에 비해 조경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비주거부문은 본상이나 입선작 모두 질적·양적인 면에서 평년작 이상이었지만, 주거부문은 비주거부문에 비해 뒤진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건축물부문

98한국건축문화대상

응모대상

- 응모대상 : 임의 선정한 실제의 대지와 용도에 주제를 적용한 창작작품으로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응모방법

- 패널(가로 90cm × 세로 120cm)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 × 세로 규격이 75cm × 90cm 또는 90cm × 75cm, 높이 75cm 이내) 1점 제출
- 1인 1작품에 한함(공동작품 응모 불가)

작품주제 : 도시의 흔적

• 주제설명
우리들 도시의 역사가 그리 짧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그 풍경은 마치 금조된 것처럼 어설픈 편린들이 난무해 있다. 이는 우리의 도시현대사가 개발의 논리에 주도 당하여 그 평형성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층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는 기억과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하면서 건강하게 자란다. 옛 것이 있는가하면 새 것도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같이 있고, 성과 속, 놀음과 낮음 등이 어울려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우리

의 도시들에 강제된 개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새 것, 큰 것, 유용한 것, 빠른 것 등 만을 도시속에 담고자 하여 우리의 기억과 흔적들을 점점 사라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들 고유의 도시성은 이미 대부분 상실되었다.

드디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어려운 경제적 난국은 이 개발의 혼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 해온 모든 가치를 다시 검증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과연 우리의 근거는 어디인가.

우리가 개발의 미명으로 지우려 했던 우리의 흔적이 남은 도시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건축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우리의 귀중하였던 삶이 시간 속에 각인한 자국이며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리얼리티이다. 이로써 우리의 도시는 근거있게 되며 또한 미래와 연결될 것이다.

※ 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건축사」誌 9807월호 참조.

작품접수

- 기간: 98. 9. 21(월) 09:00~18: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 현황: 322점

심사위원

- 김기철(동명건축 대표)
- 동정근(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 방철린(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 심영섭(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 양남철(양남철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정만(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심사일시

98. 9. 24(목) 10:00~18:00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1998년 10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입상자에게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1998년 10월 27일

(화)~11월 2일(월)/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

- 시상식 : 1998년 10월 27일(화)/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시상내용

- 금상(1점)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 은상(2점) : 상금 각 250만원 및 상장
- 동상(5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 동상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98년 11월중 스리랑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ARCAST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부여

수상작현황

- 금상: 해당없음
- 은상
 - 공생 / 장원석(서울건축학교)
 - 신당동 중밀도 집합주거 / 양명석(한양대 건축과 4년)
 - 시간·흔적·산책 - 한강사 박물관 / 강효진(인하대 건축공학과 3년)
- 동상
 - 존재하는 것, 존재했던 것 / 조재천 (오·씨·에이 건축사사무소)
 - 유락재생(遊廓再生) / 홍장희(서울시립대 건축과 4년)
 - EXTENSION OF TRACE / 권한상 (단국대 건축공학과 4년)
 - 인식과 전환 / 박영천(한양대 건축공학부 4년)
 - 흔적, 새로움의 시작 / 이태문(스튜디오 W 맴버)
- 입선
 - EXSISTING, EXSISTED / 김형진 (오·씨·에이 건축사사무소)
 - 도시의 흔적 / 김형건(잉 스튜디오)
 - RECOMPOSITION / 김명신(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4년)
 - 종로구 숭인동 육교변 건물계획 / 정기정(서울시립대 건축대학원)
 - 염두하여 재생하기 또는 덮어쓰기 / 박남진(경기대 건축공학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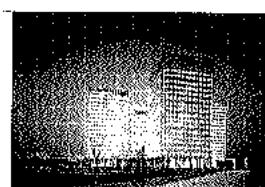
입선/동우밸브콘트롤 공장



입선/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건축사지 9802 참조)



입선/한국경제신문사 시옥



입선/정부대전청사

-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이동건 (승실대 건축공학과)
-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 홍명기(충북 대 건축공학과 4년)
- 천년의 흔적위에… / 정상현(동신대 건축공학과 4년)
- 흔적·관계 그리고 연속 / 임성학(부 경대 건축공학과 4년)
- 흔적위에 덧쓰기 / 김석기(부경대 건축공학과 3년)
- 발자취 / 송영석(금오공과대 건축공학과 3년)
- 남은 것, 남길 것 / 백승희(부경대 3학년)
- BETWEEN ERA / 변남일(아주대 건축학과 대학원)
- 길에서 만난 색 / 이정아(한양대 건축 공학부 4년)
- HOUSING IN TRANSITION / 윤 인원(충남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 장(場) – 다락원터 시장계획안 / 이수 경(중앙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 일상·기억·흔적 / 장세훈(건국대 건축대학원)
- 피맛골+무형문화재기념관 / 현동우 (한양대 건축공학과 4년)
- 기억과 내재 – 도시발전사박물관 / 이 상권(목원대 건축학과 4년)
- 기억법 / 안성준(연세대 건축공학과 4년)
- 도시의 감속 / 안영근(한양대 건축과 4년)
- VESTIGE / 채승훈(광주대 건축공학과 4년)

심사평

김기철/대한건축사협회 이사
98한국건축문화대상은 제7회가 되는데 올해의 계획건축물부문 응모작은 총 322점으로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응모작이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제3회부터 신인과 학생 등 일반국민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과제가 미리 주어지고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도시의 흔적"이었고 이 주제에 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토론을 거

쳐 건축사지(98. 7)에 발표된 바 있다. 토론에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하므로 응모자들이 자유로운 발상에 따른 계획안을 기대하였으나 응모작들을 살펴본 바로는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거나 주제와 동떨어진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 과제물로 단체로 계획한 것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많은 응모작에서 지하구조물에 전시장 등을 계획하거나 큰 도로위에 건축물을 계획하여 가로의 상징물로 삼은 것들은 당초 주제에서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강변을 이용한 일부 계획들의 물에 접근하려는 의도는 괴이한 시설을 함으로써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응모자중 상당수의 작품이 모형제작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엿볼 수 있었으나 도면에서의 표현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모형제작에 기울인 노력의 일부라도 좀더 도면의 검토에 할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고, 시간의 활용에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모형과 도면이 상호 보완되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는 응모작의 숫자에 관계없이 앞으로 응모하고자 하는 신인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또한 주제 속에서 응모주제를 제시할 때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흥미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심사과정에서 입선작을 선정한 후 입상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고상인 금상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금상작품의 선정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심사 위원들이 논의를 하였으나 금상작품으로 주제에 대한 해석에서 알맞은 작품이 없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도시나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의 표현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주제의 해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온상작품인 '공생'은 골목길과 미당에 대한 접근이 심사위원들에게 호감을 샀으나 건물의 축과 골목을 건너는 건축물부분에서 우리 것에 논란이 있었고, '신당동 중밀도 집합주거'는 자체 계획은 좋았으나 그 장소에 대한 해석의 접근이 미약했고 '한강사박물관'의 경우 강변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해결의 시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상작품인 '유곽재생'의 경우 사회적인 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이 미흡하였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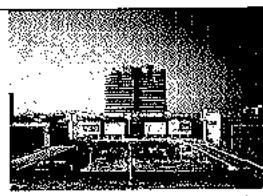
사박물관'은 현 서울시청건물에 대한 재개발의 접근이 새로웠고, '남대문시장 재개발안'은 건물의 계획이 너무 기성작가의 것에 접근된 느낌이었으며, '존재하는 것, 존재했던 것'의 작품은 다리 아래의 재개발방식으로 주거로서의 독립성에 대한 고려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흔적, 새로운 시작'은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기대되는 작품이었다.

동정근/ 인하대 교수

'도시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공모전은 도시를 보는 시각 그리고 도시탐색 능력이 이번 공모전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다. 즉 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출품한 많은 작품들이 이러한 주제를 매우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도시문제에 대한 젊은 시각의 다양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작품들이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몇 작품들은 학교 과제를 비슷한 제목을 달아 제출하는 얼굴 두꺼운 작품(?)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흔적의 대상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초점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출품작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와 요구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역사적 건축물이나 구축물의 재생 -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재생에 대한 뚜렷한 시대적 해석을 하고 있는가?
 2. 대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표출 - 숨어 있는 잠재력을 찾는 통찰력은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나 작위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3. 장소에 대한 기억의 재해석 - 장소설은 그 지역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은 적정한가?
 4. 정체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자속기능성 - 정체성은 형태보다는 행태를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는가?
- 외에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주제설정에 대한 표현이나 설득력이 부족하여 공감을 얻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공모전 심사마다 느끼는 것은 주제해석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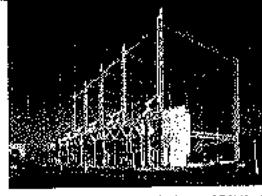
입선/삼성플라자 분당점



입선/아트선재센터



입선/한호제



입선/신사동 청화빌딩



한 표현과 설득력이 부족한 작품을 볼 때는 우리의 사회 한 단면을 보는 듯 하였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혹은 적당한 구실로 정당화하려는 기성 엘리트계층들의 행동을 닮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주제가 주어진 공모전은 주제를 통한 건축기간의 상징적 담화인 것이다. '말하는 건축'은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언어라는 무공무진한 전달수단을 통하여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허공을 떠도는 말, 말들은 실체없는 유령처럼 주변을 맴돌뿐이다. 수상작은 아니지만 많은 실험적인 작품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생각의 과정을 전달하지 못한 작품들도 발전된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본다. 이번 주제를 통하여 단일 건축물보다는 도시 속의 건축 그리고 장소에 대한 탐색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심영섭/호서대 교수

- ① 「SYMBIOSIS」는 도시나 건축의 외형적 상황보다는 내재된 생활방식의 수용을 통해 도시의 혼적을 유지하려는 점이 특기할만하고 프로그램의 건축화 과정이 건실하다. 비록 개념의 설정이 구축된 건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공간의 계획에 비해 건축적 계획이 미친한 점이 아쉽다.
- ② 「한강사 박물관」은 주제의 해석이나 Site의 선정, 개념의 전개, 전체적 구성 등에서 치밀한 면을 보인다. 여러 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으나 강변도로로 인해 단절된 Site(도시)와 한강의 관계 강화가 미약하고, 일부분(극면부 담장)은 지상 레벨에서 오히려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을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 ③ 「Housing on the Road」는 오래된 주거 지역을 재개발하며 시간성과 정체성의 표현을 통해 도시의 혼적을 간직하고자 했다. 출발의 신선함이나 표현력에 비해 몇몇 요소들은 현대적 '친숙함'을 주고 있으며, 주제와 연관된 단위성이나 질증성이 떨어지고 있다.
- 「유곽재생」은 많은 논란이 있던 작품이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특별한 상황을 칙설적 표현이나 단순한 기능설정으로 접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입선/진천이월초등학교



일선/승실대 한경직기념관
(건축사지 9802 참조)



계획부문 은상/공생



계획부문 동상/인식과 전환

「남대문시장 재개발 계획안」은 남대문을 향한 시장내 시각축을 활용하고 남대문측에 광장을 형성한 세련된 건축계획에 비해 남대문시장과 대웅한 건물 후면의 구성이 단조롭고 일부 모방적 표현이 보이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존재하는 것, 존재했던 것」은 도시에서 방치된 부분의 재개발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상황이 너무 특수하고 현실적인 시각이다 소 부족하다.

「인식과 전환」은 서울시청의 재활용 계획으로서 Site 전체나 도시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고 중·개축 부분의 완성도가 부족해 보인다.

「흔적, 새로움의 시작」은 도시 한국주거지의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재개발의 방향을 학구적인 차서로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분 미완성의 작업으로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입선작이나 출품작에서 좋은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주제와 관련된 단위성이 대부분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가한 응모자들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건축작업에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이정만/한양대 교수

건축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행성을 유보한 계획건축을 의 평가를 위해서는 Paper Architecture의 가치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각적인 표현방법을 동원한 건축작품의 묘사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능력의 평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표현능력에 앞선 건축적 사고의 티당성과 속련도를 읽어보려는 노력이 심사의 걸과를 통하여 보여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특히 주제가 주어진 공모전이므로 주제가 설정한 사고영역 안에서 건축적 문제의 티당한 인식과 건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기본관점으로 설정하고, 건축교육과 실무를 위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도시의 혼적」이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어느 차원의 혼적을 - 물리적 혼상, 정신적 혼존, 유산, 회상, 재생력 등 - 대상으로 하여 건축적으로 소화할 것인가는 참 어려운 과제이며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아마도 주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급속한 개발의 과정 속에서 소멸되는 도시의 연속성을 찾고 싶었던 것이고, 연속성의 파괴자인 건축계에 교훈과 자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을 텐데… 표현된 혼상 안에 건축적인 실행성의 의지도 같이 담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부인한다. 이와 같은 공모전을 통하여 20년 후의 우리 건축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00여 작품 속에서 축제의 주연인 금상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출품자들과 함께 심사위원으로서도 매우 아쉬운 점이다. 아마도 '흠이 없는 대상'이 없었음이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출품작들을 살펴보면 주제로부터 충실히 건축적 과제와 개념, 설계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과 연관 작품을 출품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공모전의 성격상의 전자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주제의 해석에 있어서 물리적 혼적을 강조하는 의견과 전체적인 문위기를 재현과 유지 측면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양 쪽의 의견이 모두 수용되었다. 일상작 중 「공생」은 깔끔한 형태처리와 비례감각이 돋보이고, 「신당동 집합주거」는 집합주택의 어려운 과제를 스케일감을 가지고 성실히 풀어낸 노력을 평가한다. 「한강사 박물관」은 도시의 혼상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건축적 해결을 만드려는 노력이, 「유곽재생」은 현대적 해결 능력이 돋보이나 혼적의 궁정적인 승화가 요청되고, 「서울사 박물관」은 문제의식을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작들이 있었는데, 「남대문시장 계획」은 건축적인 숙련도가 보이며, 「길에서 만난 색」은 도시환경에서의 색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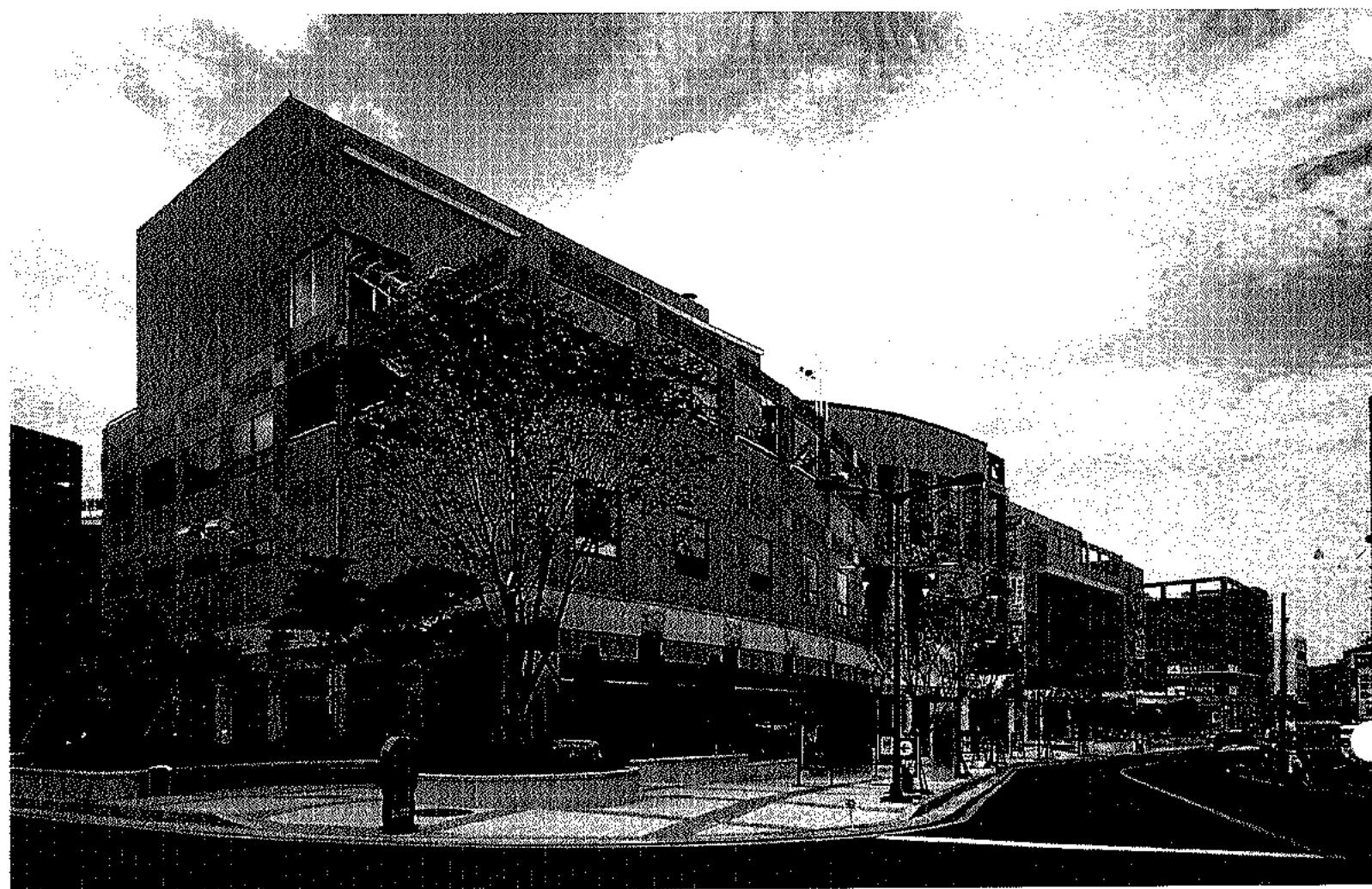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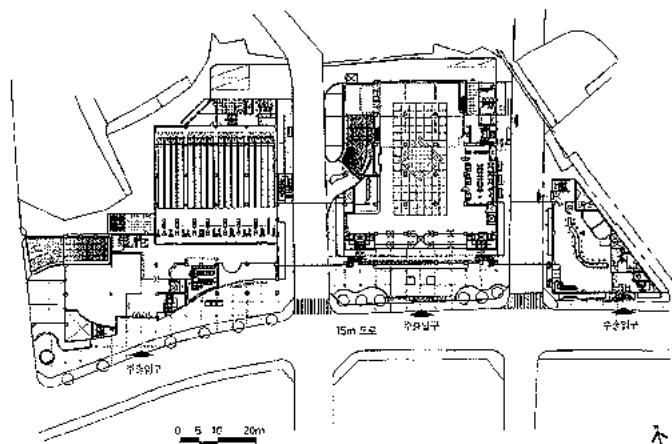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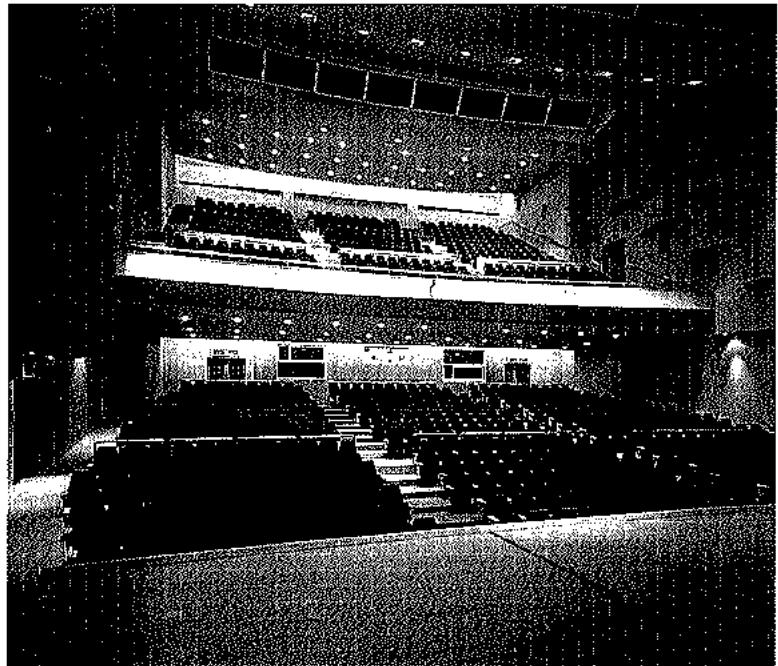
'98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대상 부문

울산현대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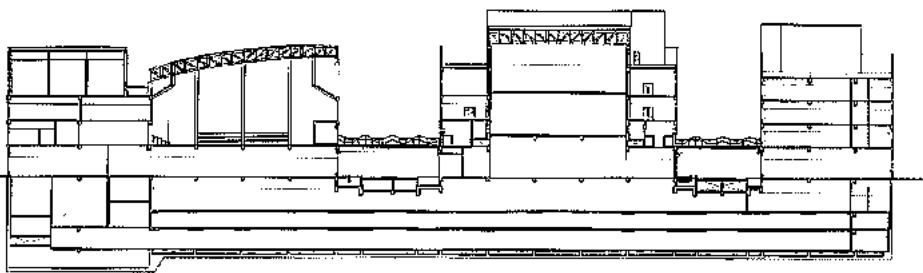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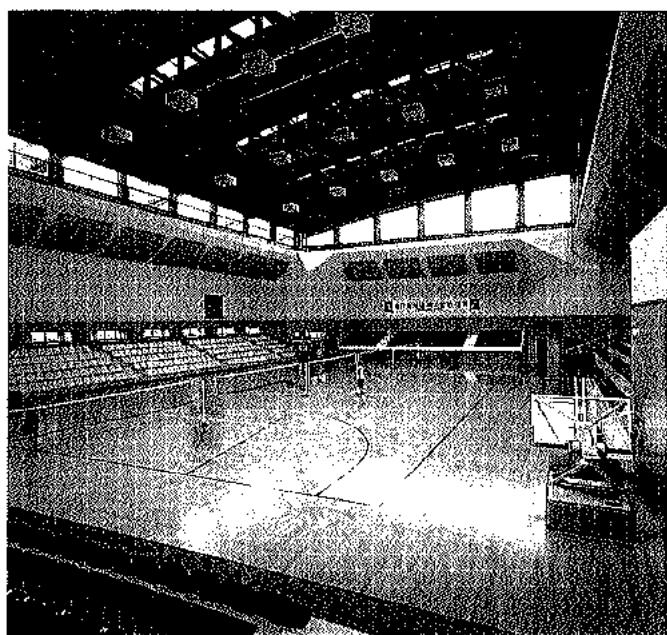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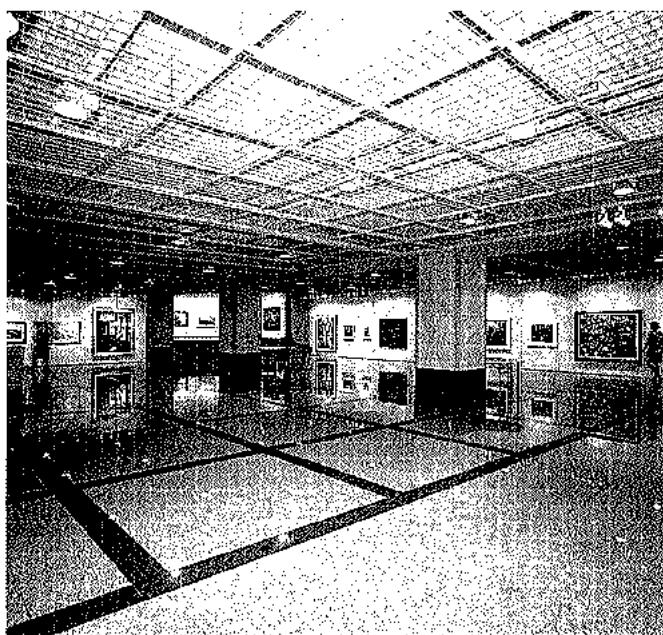
Hyundai Art Center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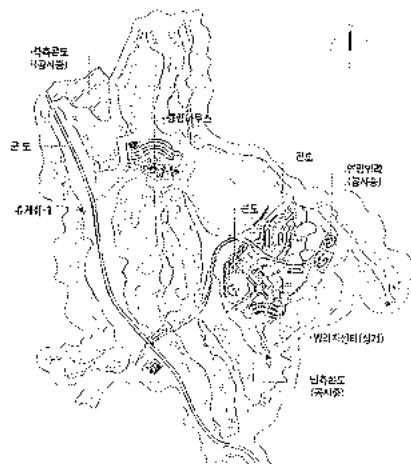
건축사 노형래(건정건축)+배기업(명신건축)
+서정대(디에스티건축)
시공자 현대산업개발(주)
건축주 현대 중공업(주)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10-1, 110-5, 110-4번지(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 일반상업, 주자장정비지구
대지면적 8,074.01m²
주용도 근린생활, 운동, 전시시설
관람시설, 업무시설
건축면적 4,937.00m²
연면적 30,658.00m²
건폐율 61.14%
옹작률 168.22%
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주요외장재 희강석(저층부) + 드라이비트 + 타일(상층부)
THK24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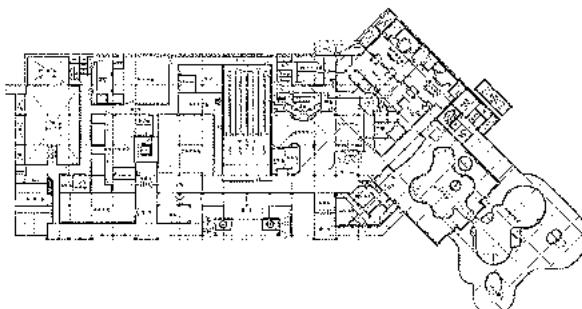
0 5 10 20m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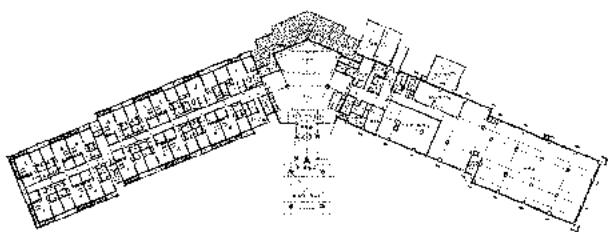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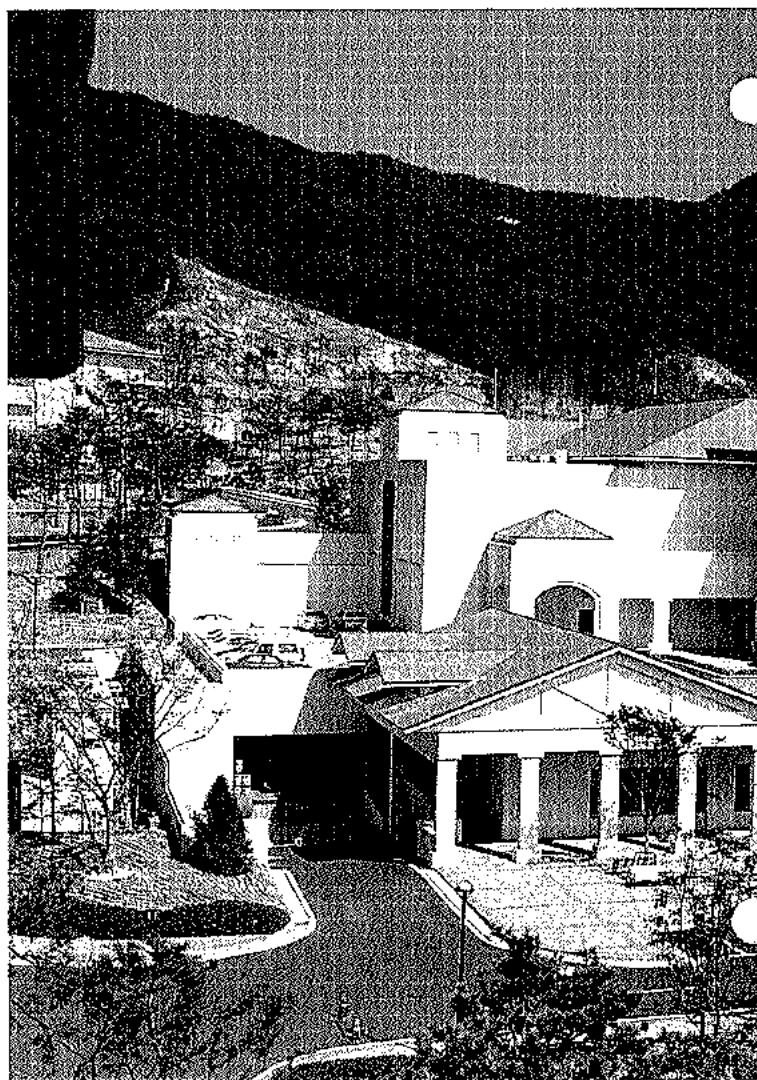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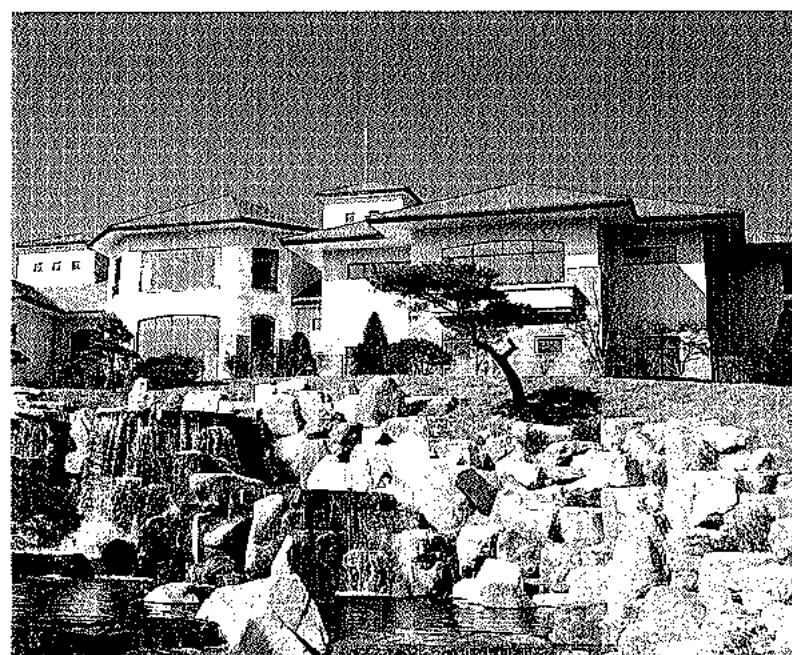
오크밸리리조트
Oak Valley Re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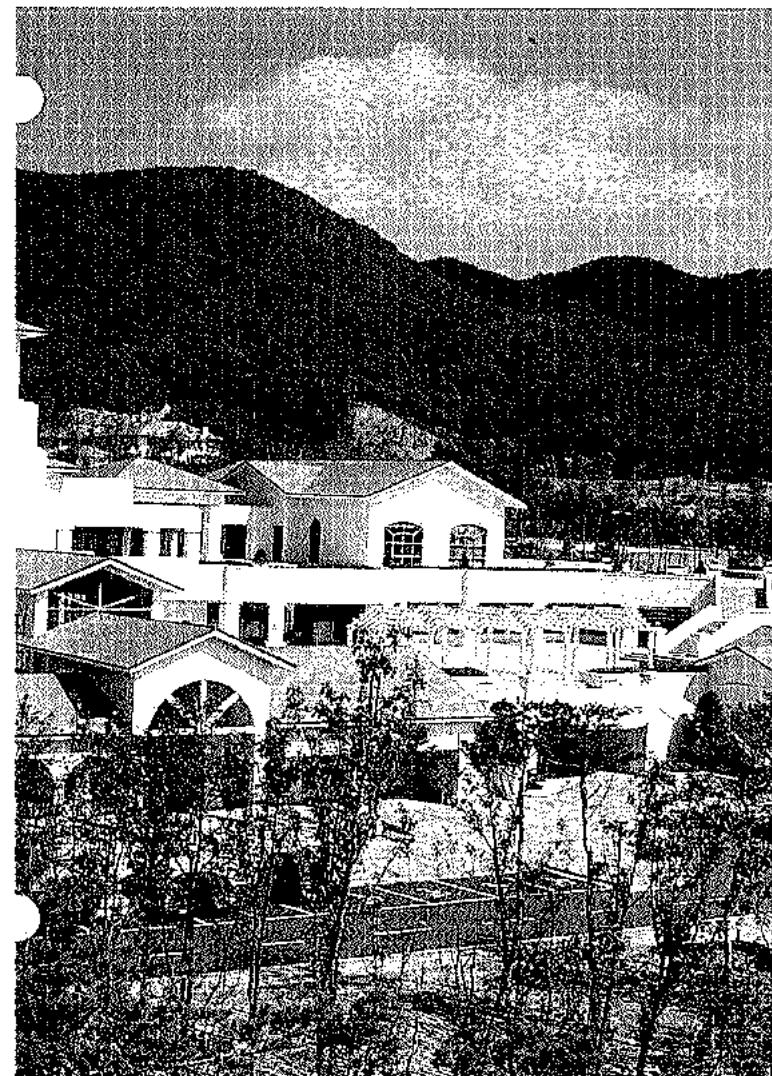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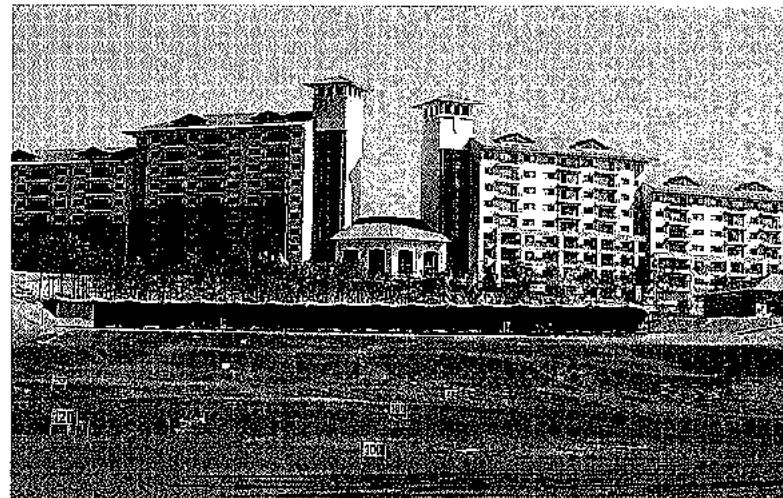
배치도



빌리지 센터 1층 평면도



콘도 1층 평면도



건축개요

건축사 이상국+김광수(일송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한솔건설 (주)

건축주 한솔개발 (주)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승리 일대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시설 지구

대지면적 약 1,000,000평

건축면적 약 10,570평

연면적 약 36,700평

주차대수 921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비방식 : DUCT + F.C.U

외부마감 벽-스타코+외단열

유리-THK24 투명복층유리

지붕-모임지붕위 천연슬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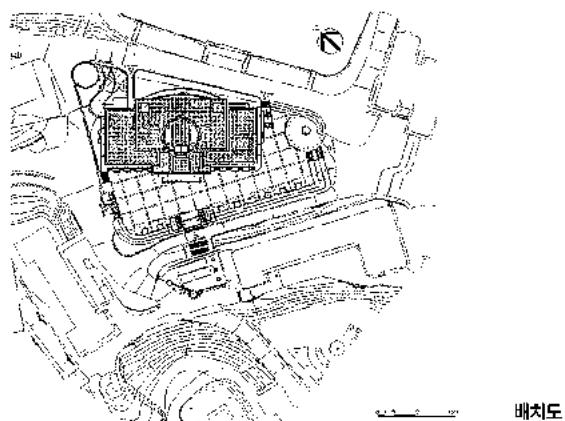


'98한국건축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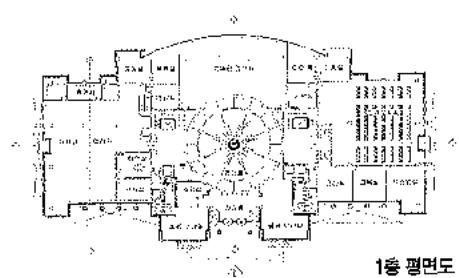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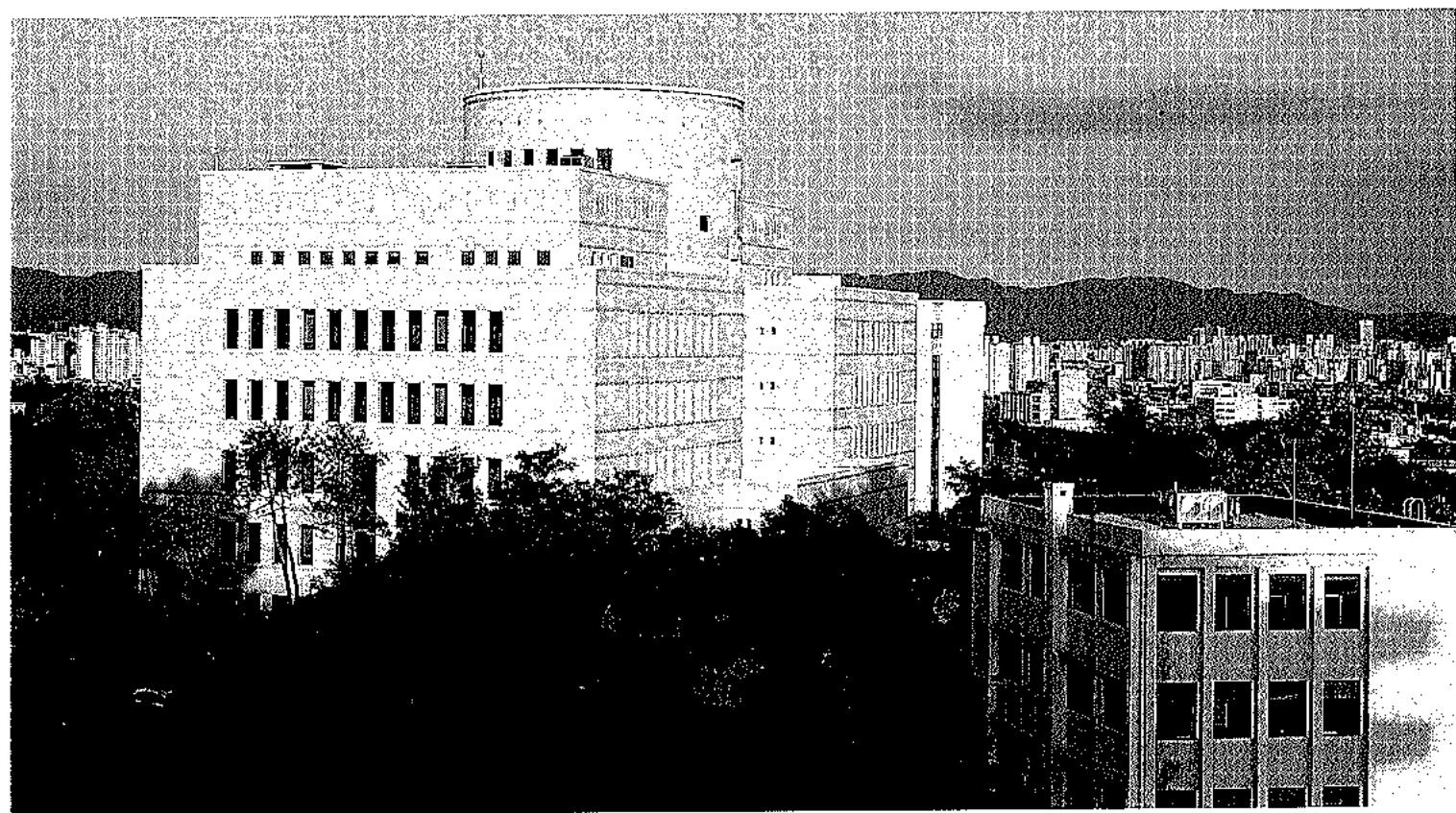
준공 본상 부문

백남학술정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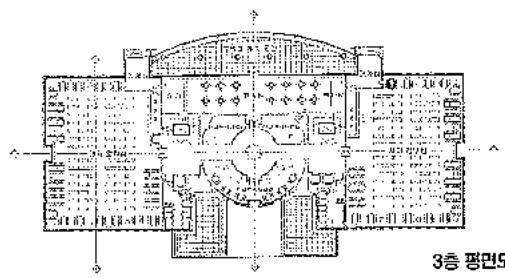
Paiknam Scientific Information Center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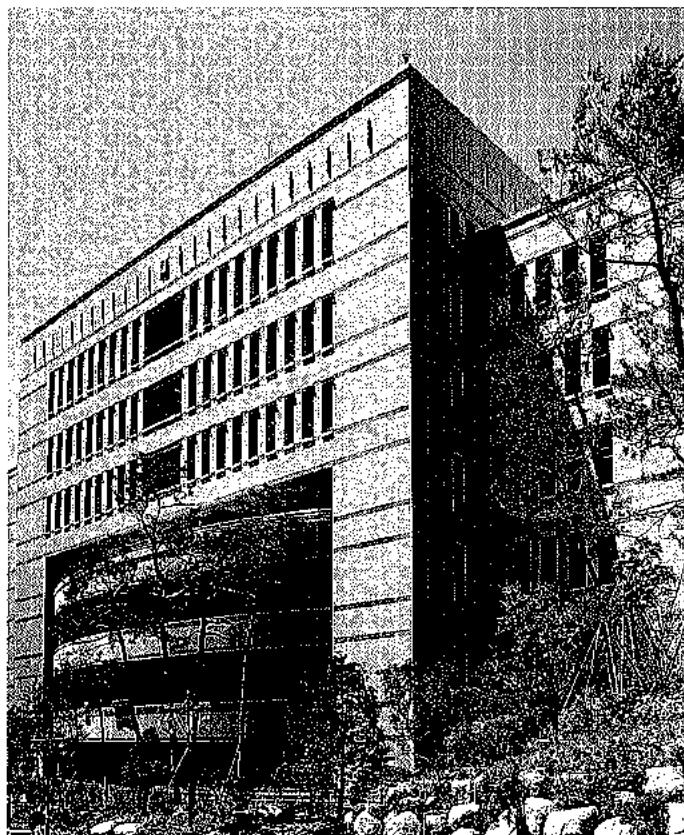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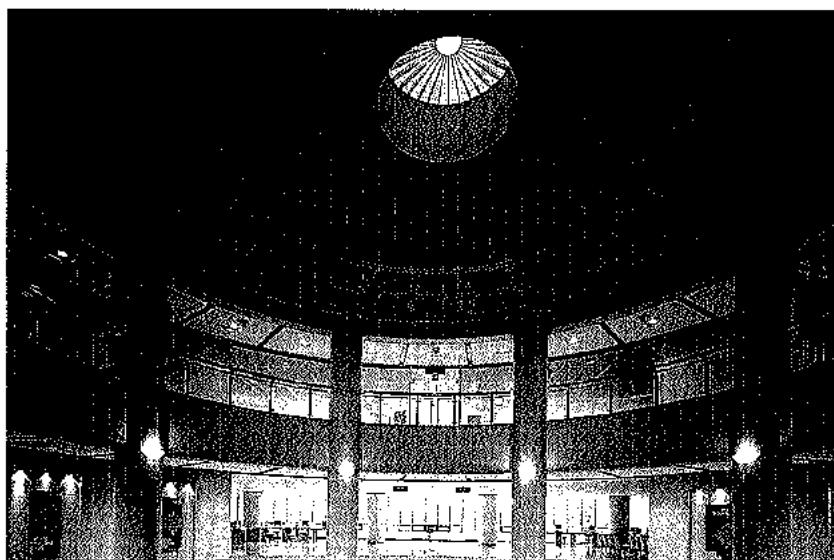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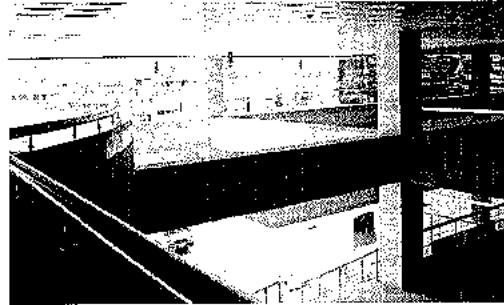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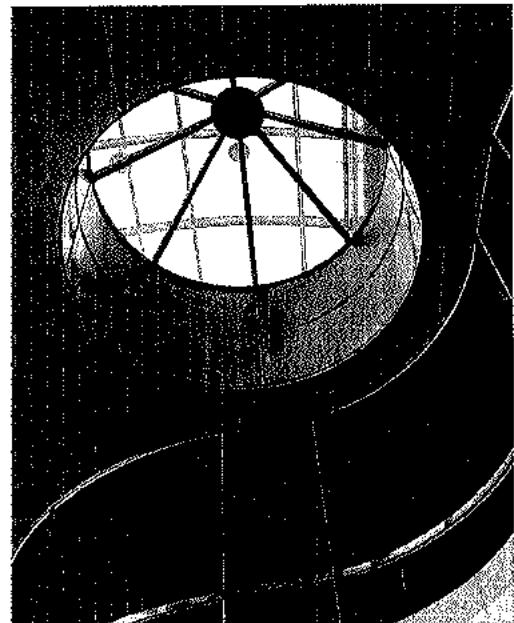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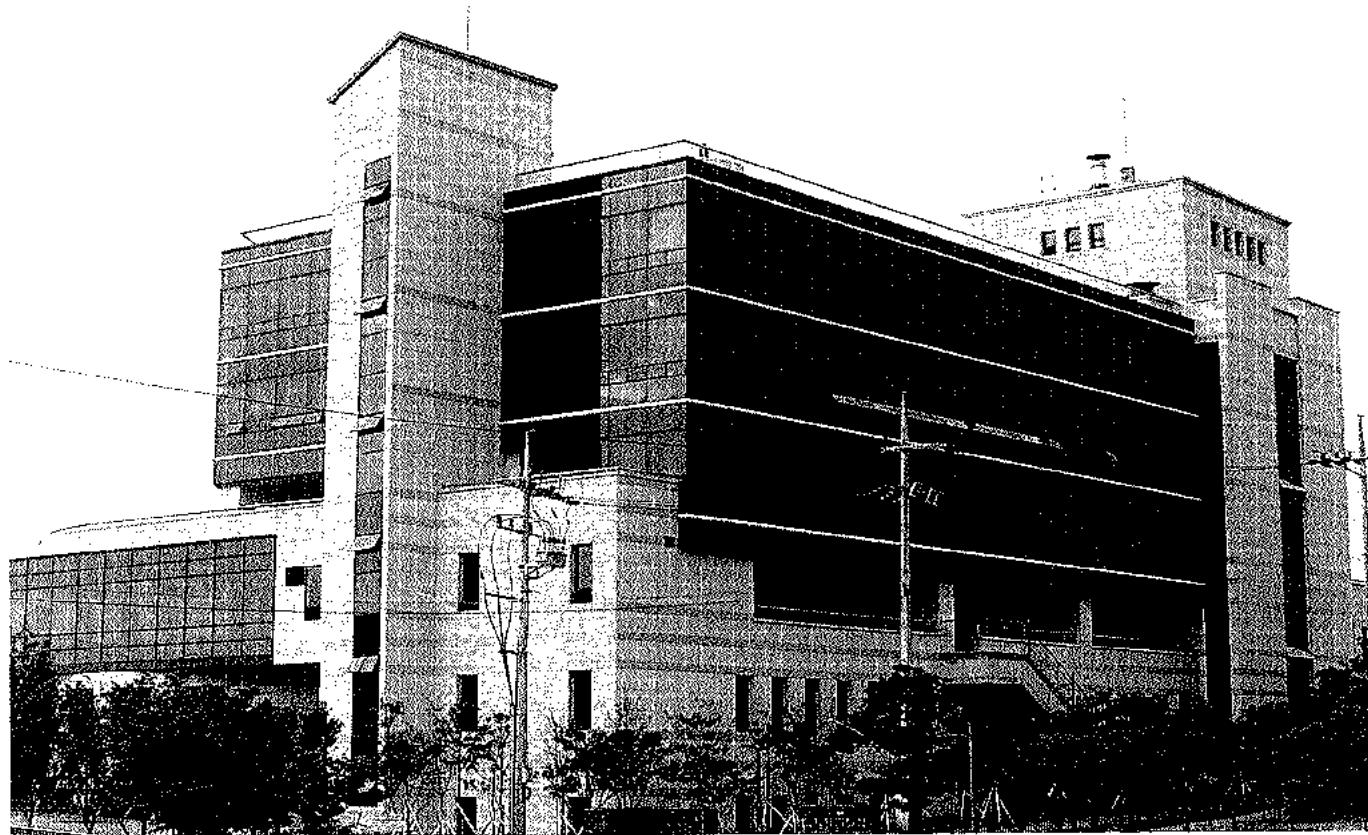


건축개요

설계자 이강업(한양대 교수) + 한양대학교 설계실(담당 반진표)
- 건축사 : 이장범, 이성만
시공자 한양개발
건축주 한양대학교
위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 내)
지역지구 학교용지,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89,984.0m²
용도 교육 연구 시설(도서관)
건축면적 2,644.2m²
규모 지하 3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화강석 벽면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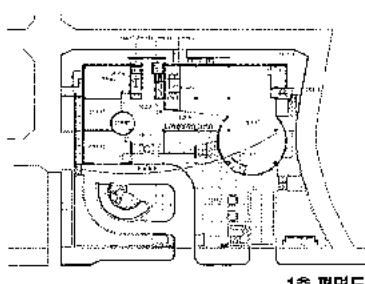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eneral Support Center for Minor Enterprises of Chejudo



건축개요

건축사	허영주(건축사사무소 천미)
시공자	동방건설(주)
위치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용의정사시설부지
대지면적	4,583.60 m ²
건축면적	: 2,142.09 m ²
연면적	13,304.58 m ²
건폐율	46.73%
용적률	164.42%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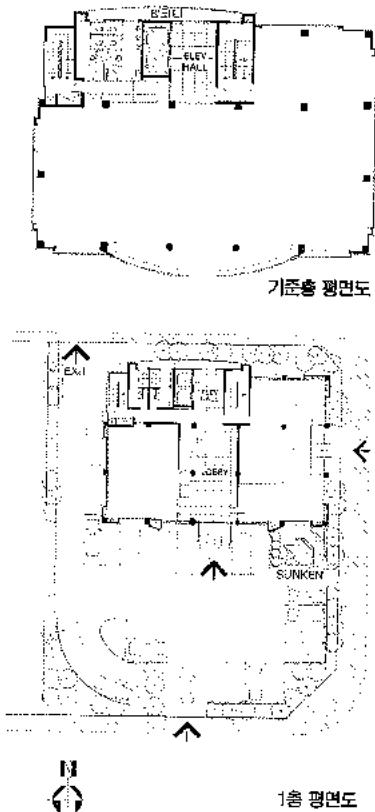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전북건축사신용협동조합사옥

The Headquarter of Credit Association, KIRA, Cheonbuk Province



건축개요

건축사	이 자(건축사사무소 미검사)
시공자	(주)신일
대지면적	1,577.7m ²
건축면적	524.61m ²
연면적	4,975.70m ²
건폐율	33.26%
용적률	215.3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주차대수	지상 22대, 지하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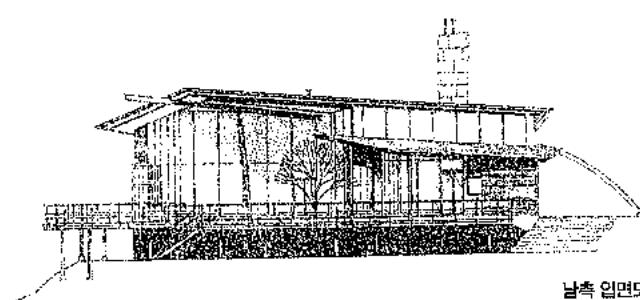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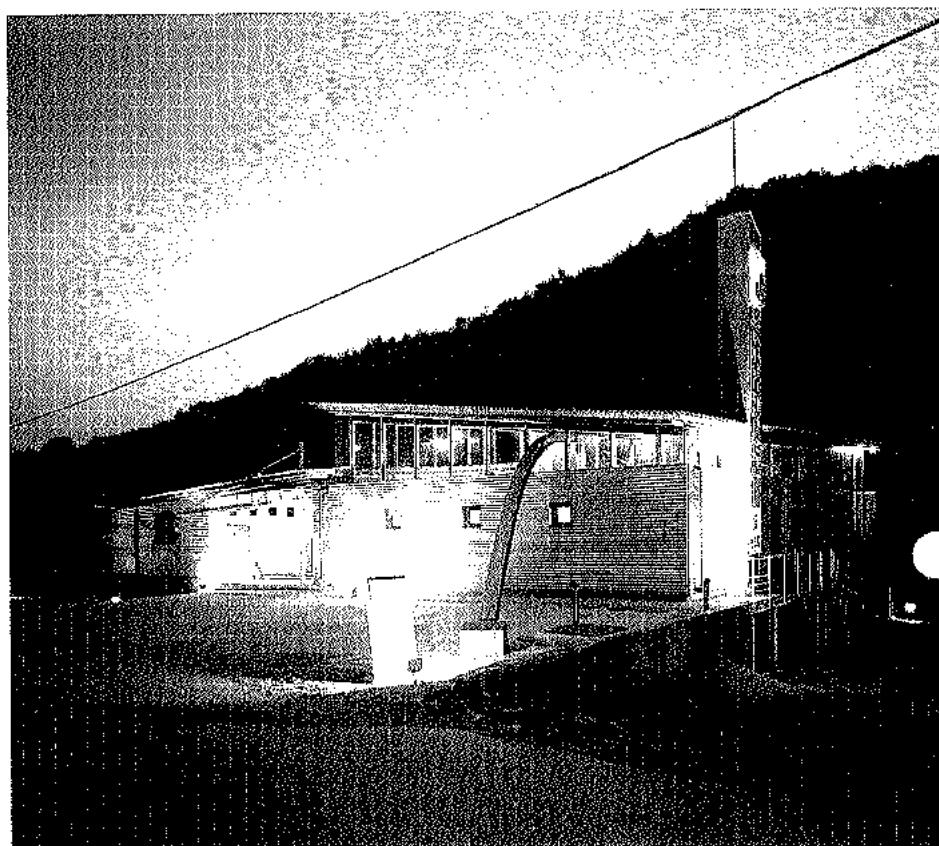


카페 엔 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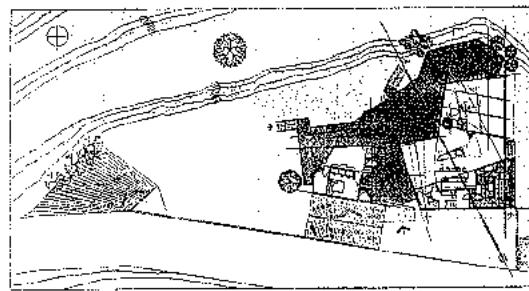
Poise - //

건축개요

건축사 천근우(디자인그룹 아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아방디자인그룹
 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중면 수입리 445번지
 대지면적 1,032m²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건축면적 524.49m²
 (카페 : 192m², 주택 : 50m²)
 용적률 24.46%
 건폐율 51.0%
 규모 지상1층, 메자닌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외벽/ 노출콘크리트, 골강판 C-76
 강화유리THK12, 복층유리 THK16
 지붕/ 골강판 V-115
 설계담당 이태문, 양승호, 이인기, 박범기
 시공, 인테리어 주. 아방디자인 그룹
 현장소장 박태준
 구조 김정선
 건축주 이강철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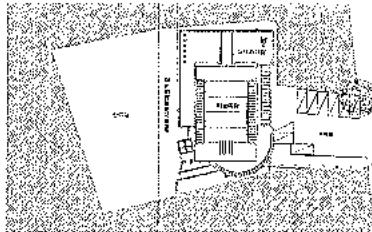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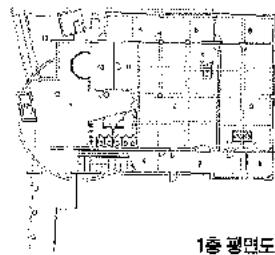


강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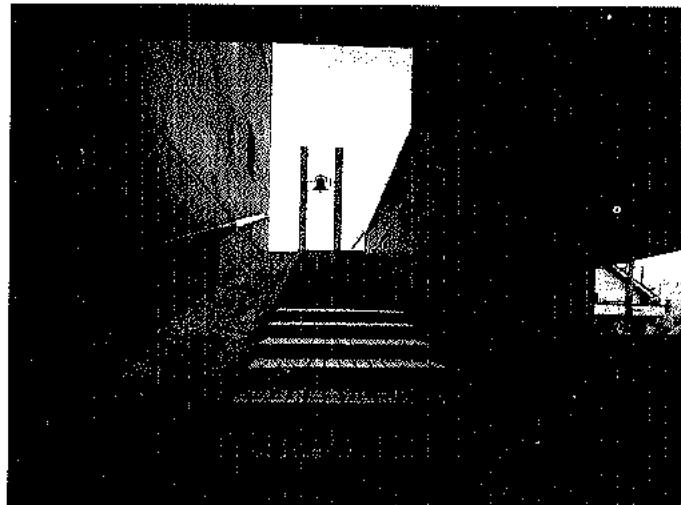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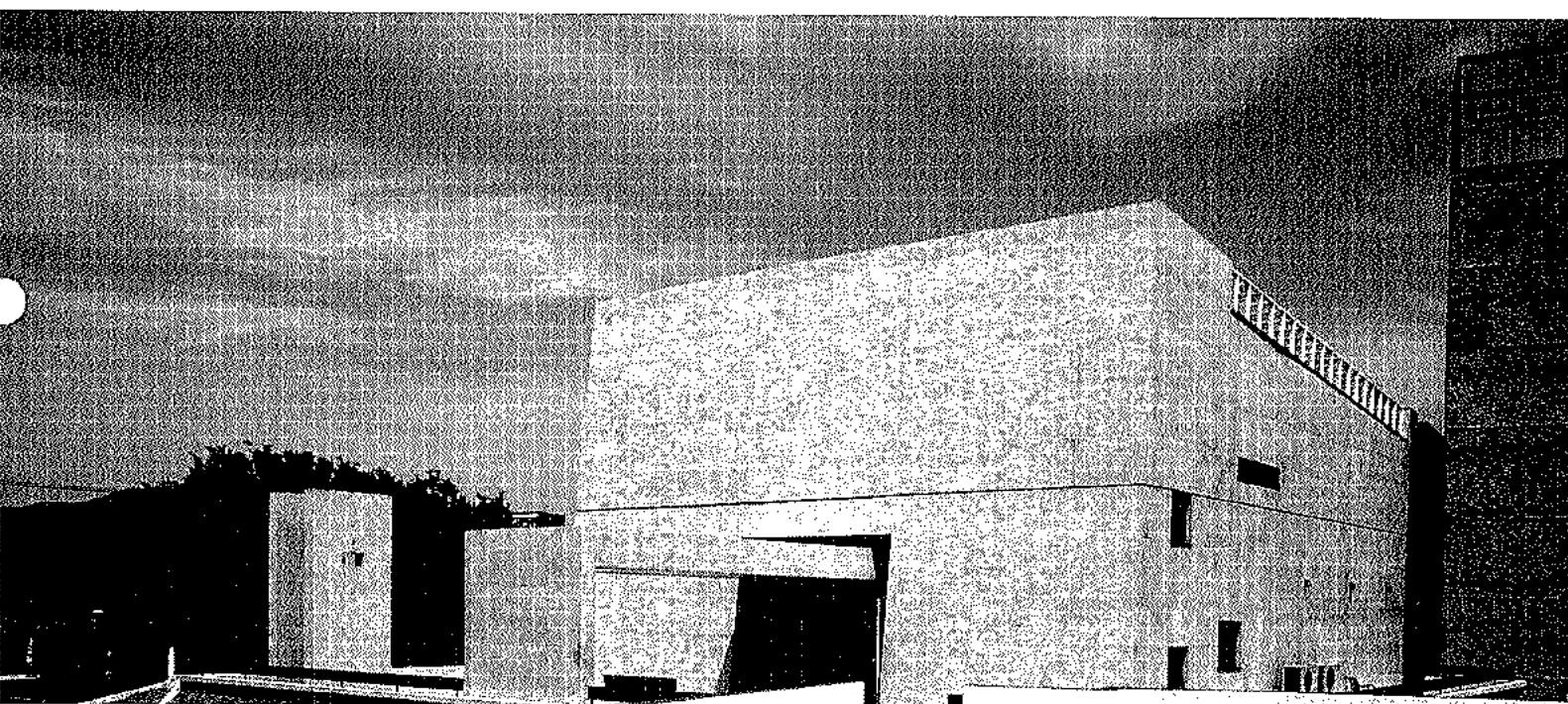
Kangjeong Presbyterian Church



배치도



1층 평면도



건축개요

건축사	김재관(건축사사무소 무회건축)
시공자	제주 신일종합건설(주) 박문수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400-4
대지면적	1,078m ²
연면적	820.9m ²
지역지구	일반주거, 고도지구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전단벽식구조
주용도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외장재료	외벽 - 노출콘크리트, 콘크리트위 온색 우레탄 도장, 시멘트 몰탈 뿐칠마감 내벽 - 노출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뿐칠마감 수성체 인트, 9mm 미송합판/자딩/투명락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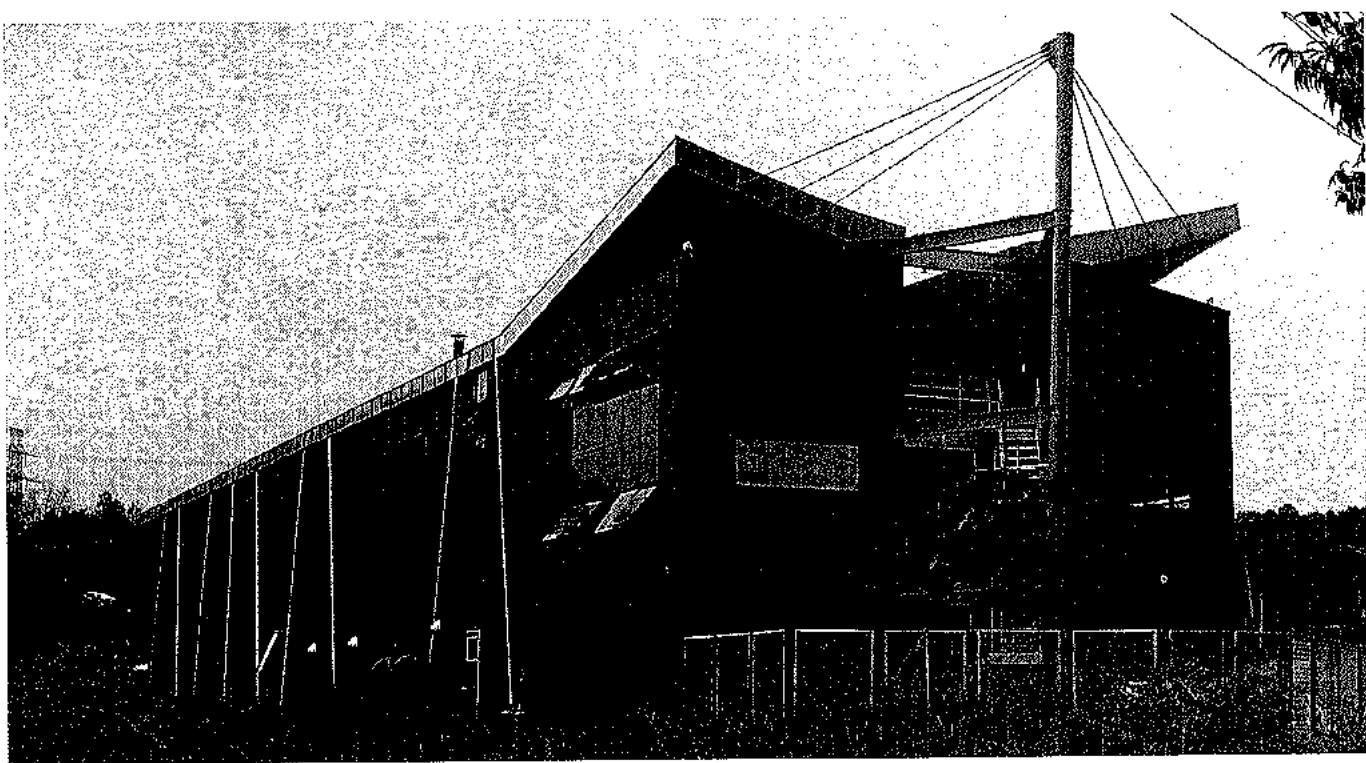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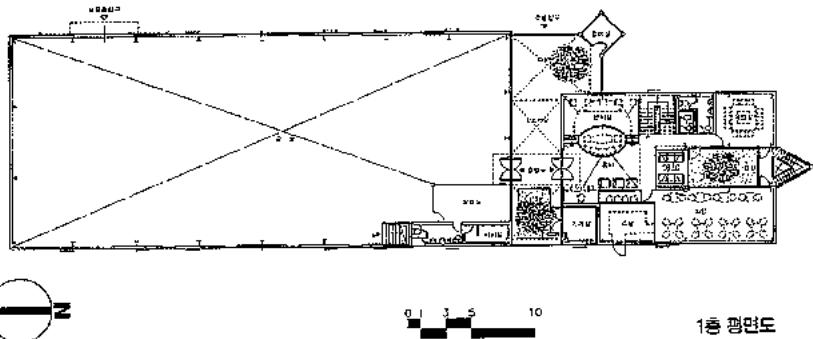


98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입선 부문

동우밸브콘트롤 공장

Factory, Dongwoo Valve Control Co. LTD



건축개요

건축사	김효만(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용적률	39.00%
시공자	(주) 세화산업개발	규모	지상 3층
위치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 120	구조	철골조
지역지구	준농립지역	내부마감	바닥 - 무석면타일, 에폭시페인트 벽 - 콘크리트블럭노출, 샌드위 치파넬노출
주요용도	일반공장	천장	- 데크프레이트 / O.P
대지면적	3,171.71m ²	설계담당	김성임, 정선희
건축면적	880.4m ²		
연면적	1,223.28m ²		
건폐율	28.00%		





준공 입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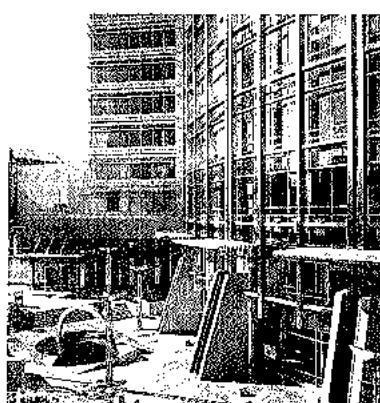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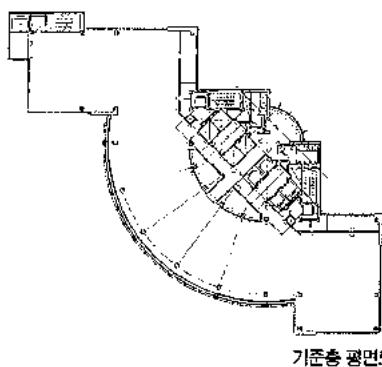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사 사옥

The Korea Economic Daily Building



건축개요

건축사	조재원 + 유태웅(창조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현대건설(주)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동 441번지 외 15 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7,729.30m ²
건축면적	3,067.26m ²
연면적	53,868.85m ²
건폐율	39.68%
용적률	430.11%
규모	지하 6층 / 지상 18층
주용도	업무시설(신문사/ 윤전공장)
구조	철골조(지상)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지하)
외부마감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THK 2mm), 단열복층유리(THK 24mm)
최고높이	89.05m
설계담당	최선종, 최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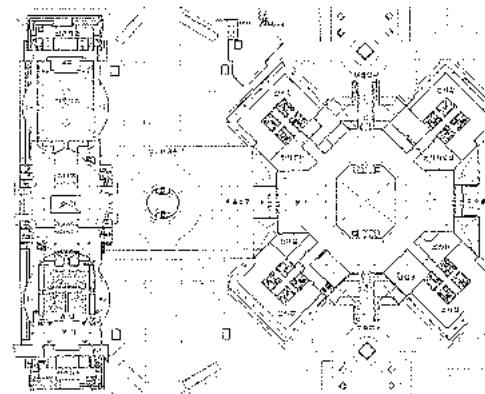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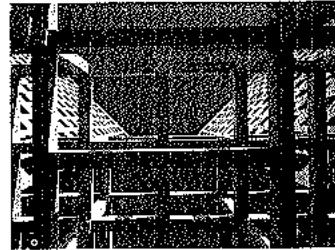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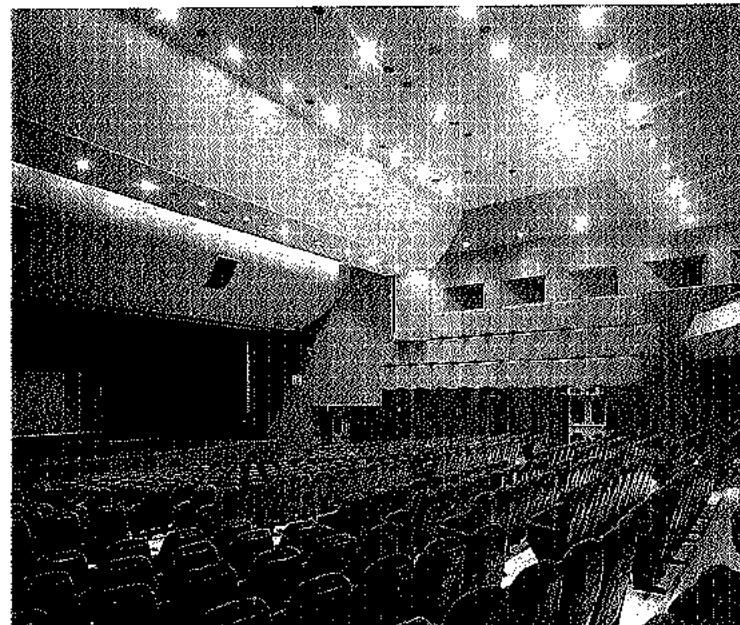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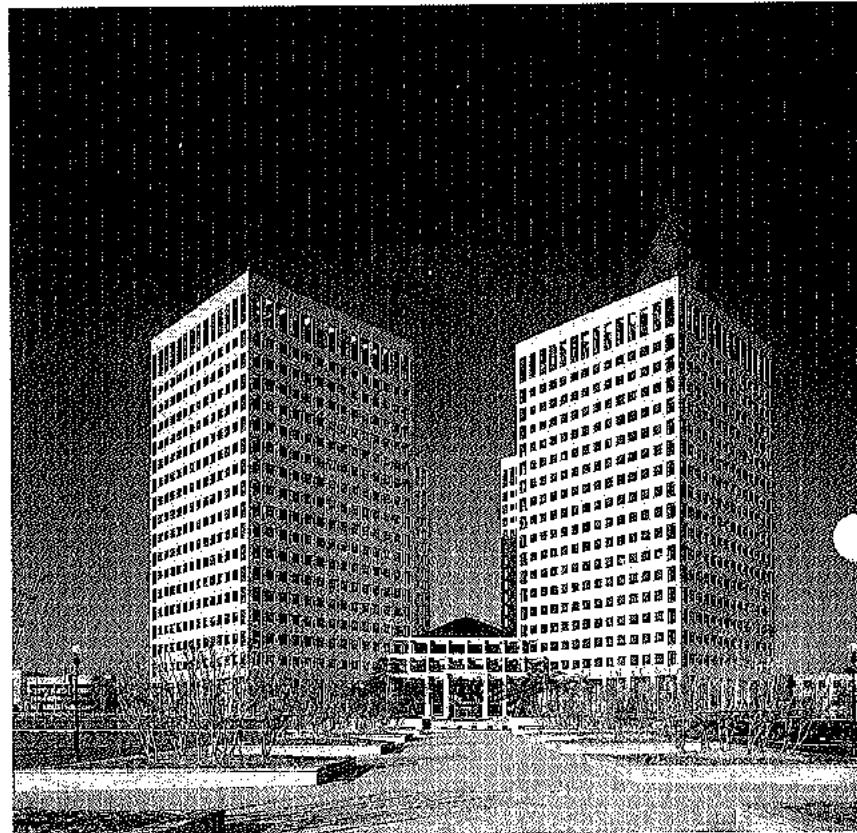


정부 대전청사

The Government office of Taeje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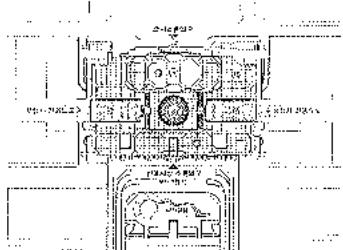
설계자	삼우설계+전 동훈(경희대 건축공학과)
시공사	현대, 대우, 서광, 선경건설
위치	대전직할시 서구 문산동 신시가지 개발지역내
용도	업무, 접희, 후생, 안내, 관리, 경비
지역지구	중앙 행정용지
대지면적	524,764m ²
건축면적	26,927m ²
연면적	224,990m ²
건폐율	5.12%
용적률	30.25%
규모	사무동 4개동(지하 2층, 지상 20층) 부속동(지하 2층, 지상 2층), 연결통로(지상 2층)
구조	사무동 - SRC조, 기타 - RC조
최고높이	91.9m
주차대수	옥외 1,870대 옥내 667대
부대시설	축구장, 테니스코트 등 옥외 체육시설
주요외장	화강석,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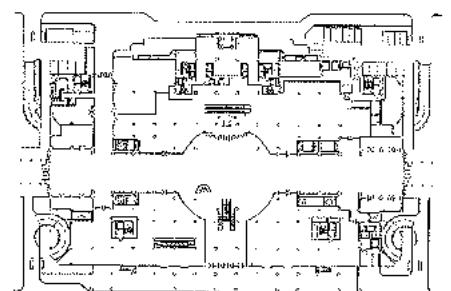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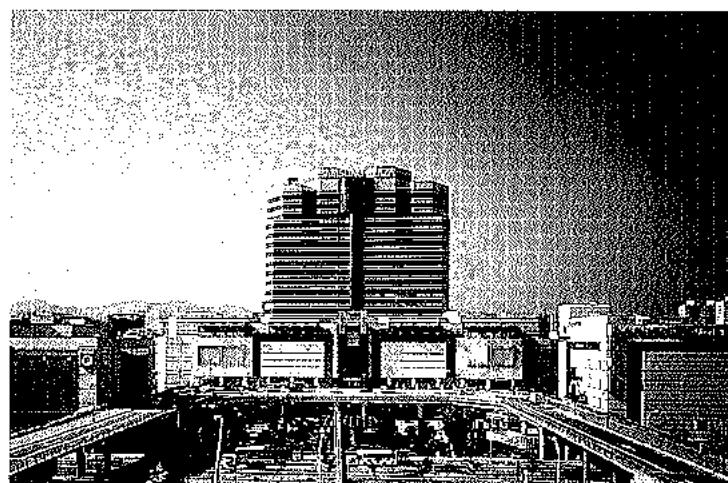


삼성플라자분당점

Bundang Samsung Plaza



배치도



1층 평면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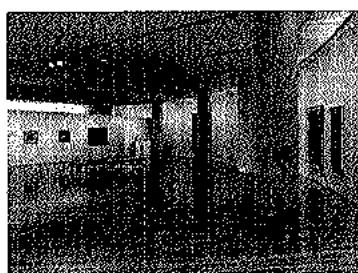
건축사	윤승중+변 응+김석주(원도시건축)
시공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지역지구	특별설계구역, 중심상업지역
대지면적	15,600 m ²
건축면적	10,987.01m ²
연면적	118,711.72m ²
건폐율	70.43%
용적률	469.73%
주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주요마감	외벽 : 알미늄복합판 창호 : 알미늄창 24mm 복층유리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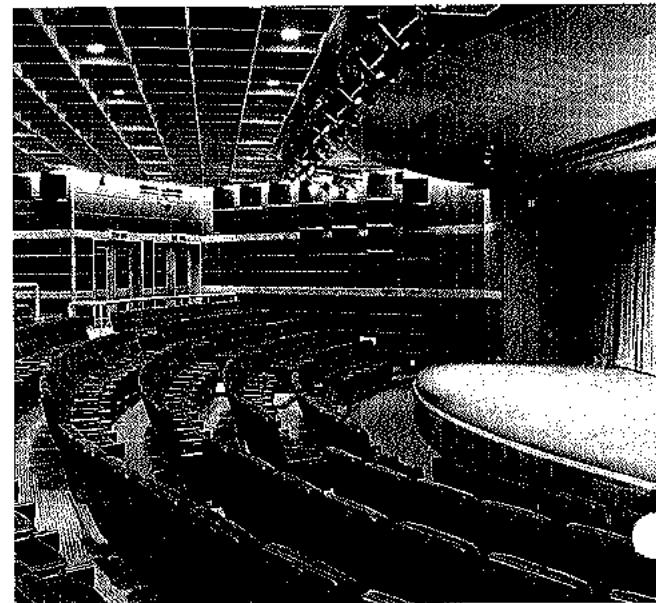
Art Sojae Center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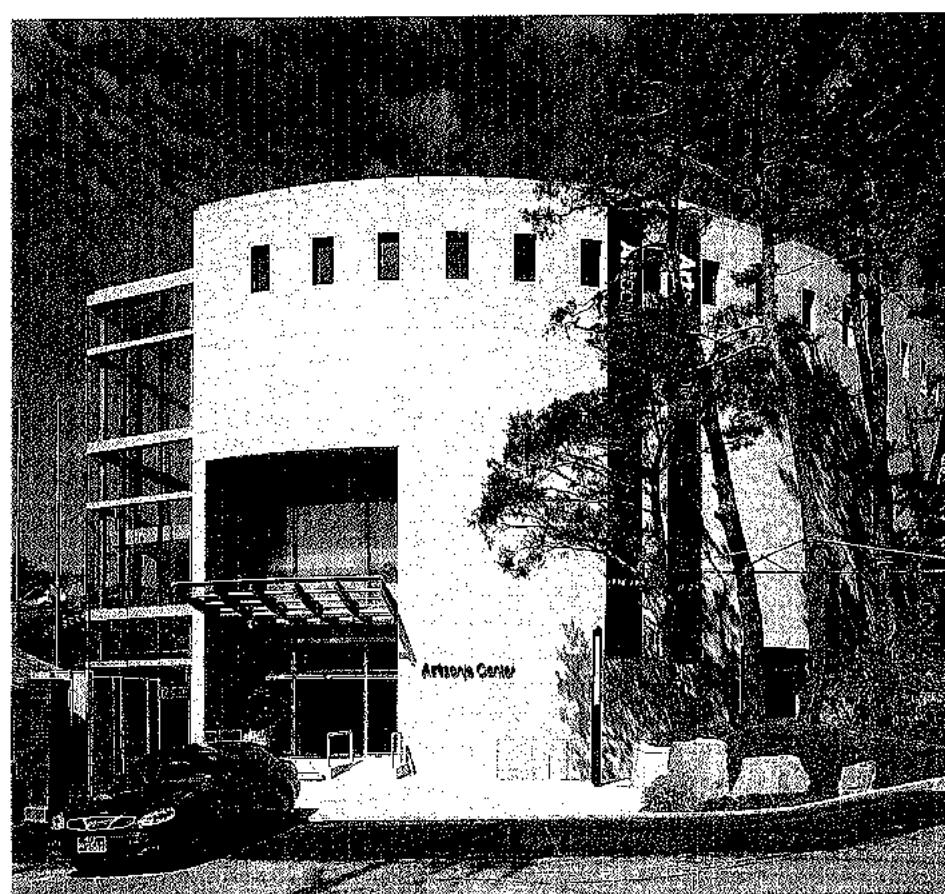


배치도



건축개요

설계자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대우
위치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44-2, 148-3
대지면적	1,472.30m ²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4종집단미관지구
주용도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균린생활시설
건축면적	760.79m ²
연면적	4,796.76m ²
건폐율	51.67%
용적률	141.6%
규모	지하3층, 지상3층
최고높이	14.5m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 유리
주차대수	2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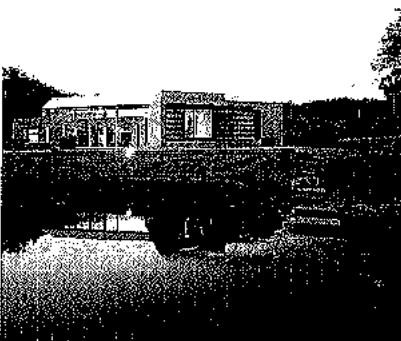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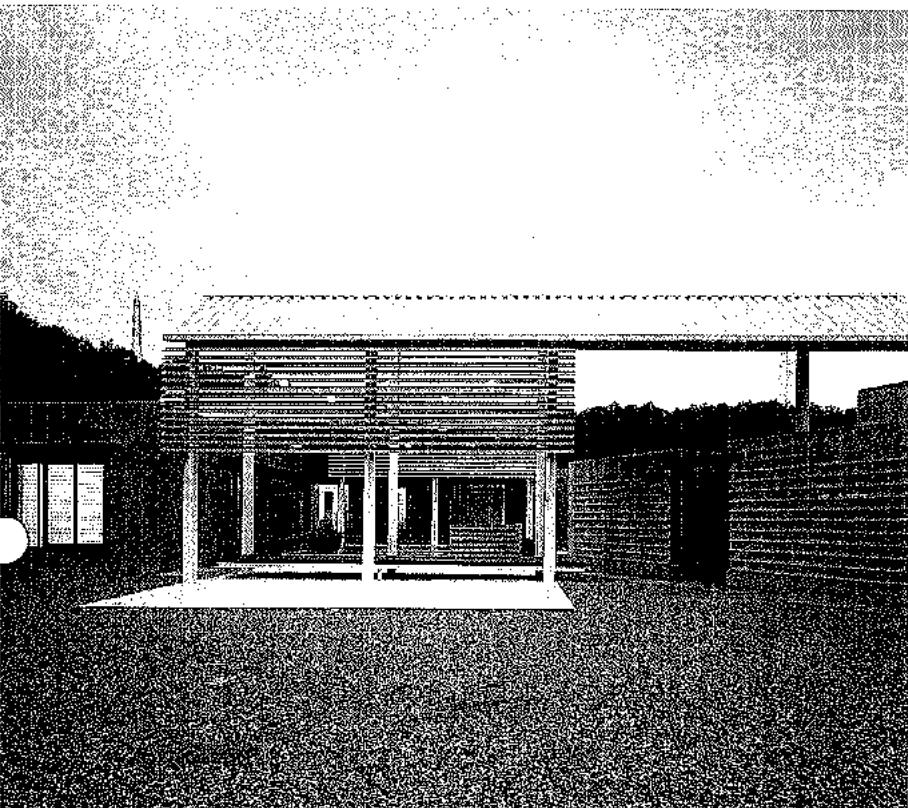
준공 입선 부문

한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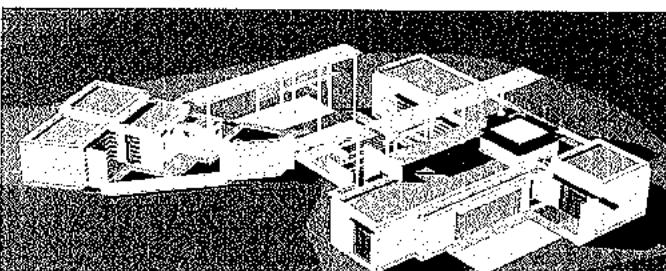
Han-Ho-Je

건축개요

건축사	민규암(토미건축사무소)
시공자	송동설
위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식금리 75-1번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단독주택(전원주택)
대지면적	991.00m ²
건축면적	320.68m ²
연면적	320.68m ²
건폐율	32.76%
주요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벽재료	일반블록처장쌓기(외단열) 알루미늄후레임위 THK18복층유리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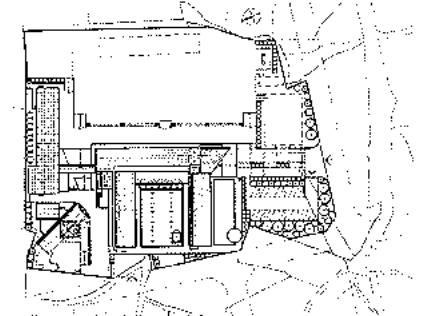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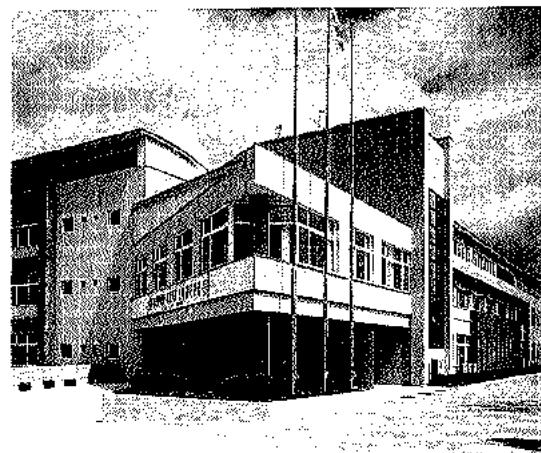


'98한국건축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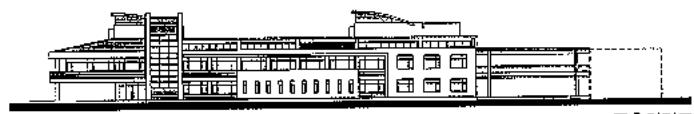
준공 입선 부문

진천 이월초등학교

Ewol Primary School



배치도



동측입면도



설계개요

건축사	이광민+오동희+윤홍노(간·삼건축)
시공자	(주) 태암 권정하, (주) 포스흡 황운현
위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667 번지외 7필지
용도	교육연구시설
지역, 지구	일반주거지역(일부 상업지역)
대지면적	16,569.31m ²
건축면적	2,488.54m ²
연면적	5,467.28m ²
건폐율	15.02%
용적률	30.97%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골조(본관), 경량철골조(유치원)
주차대수	26대
외부마감	외단열시스템, 비닐사이딩 냉난방방식 팩기지 방식+방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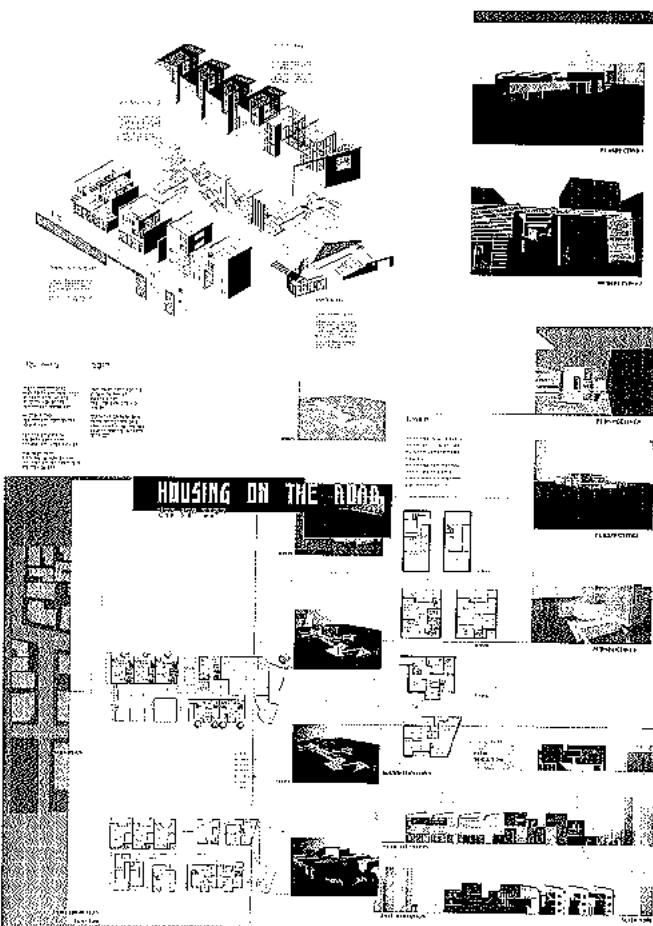


신당동 중밀도 집합주거

Housing on the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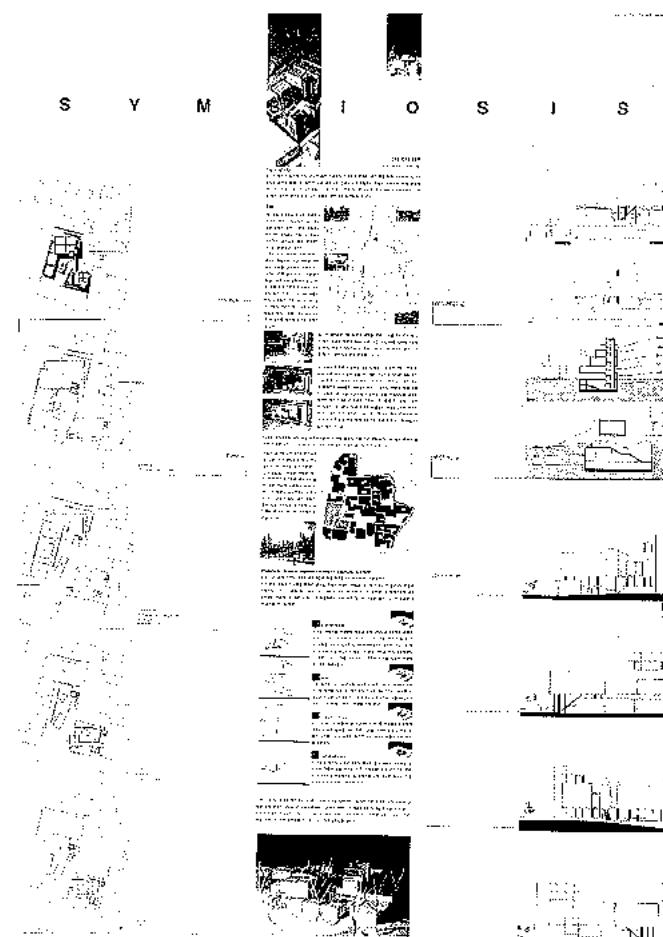
공생

Symbi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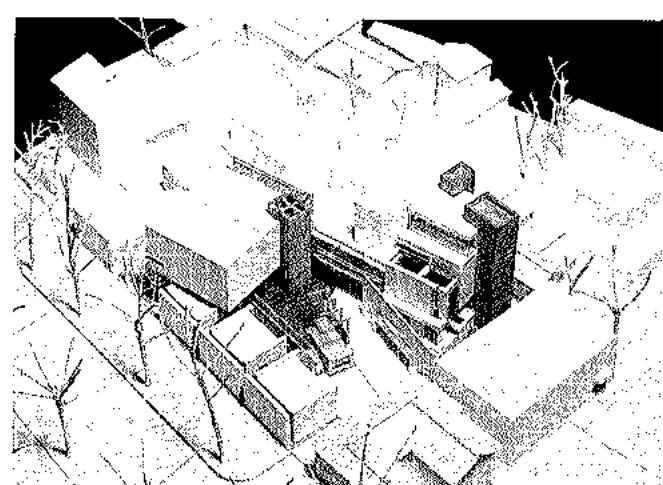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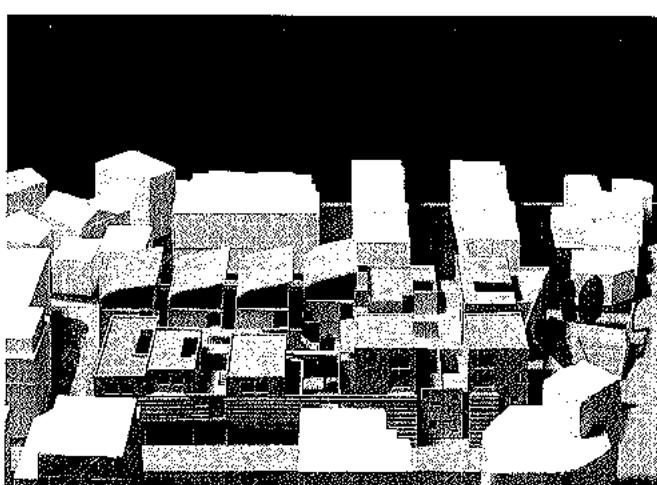
양명석

한양대 건축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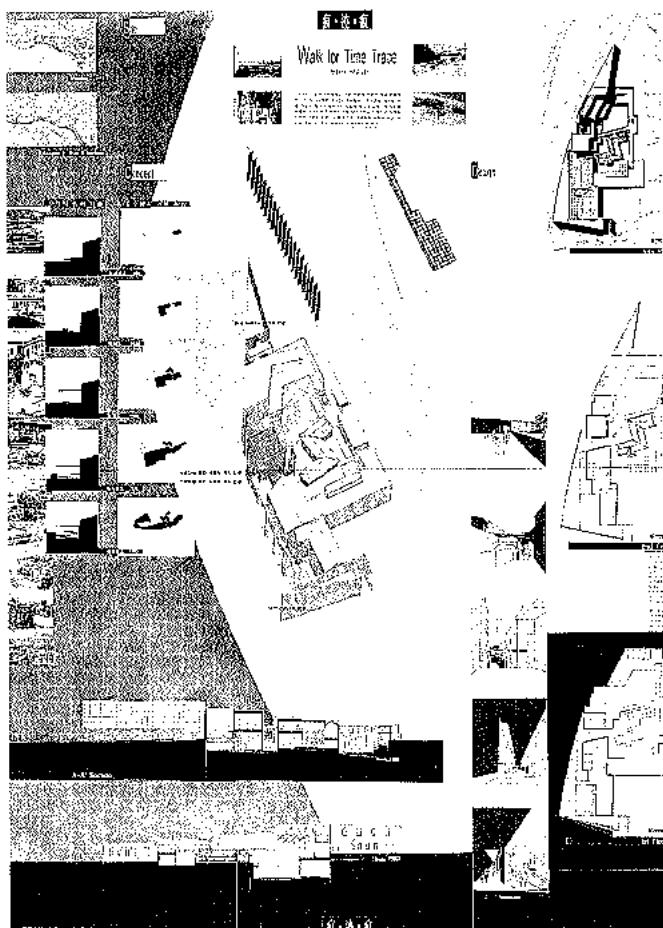
장원석

서울 건축학고



시간 · 흔적 · 산책-한강사박물관

Walk for Time T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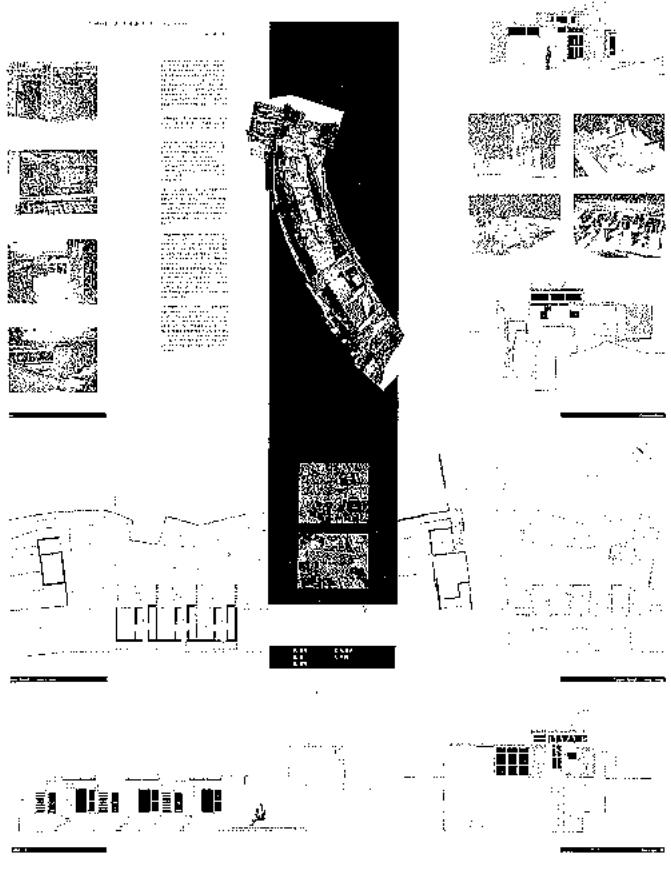


강효진

인하대 건축공학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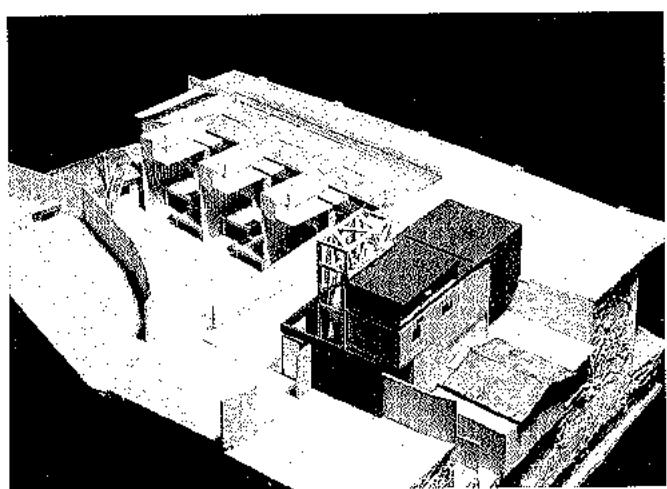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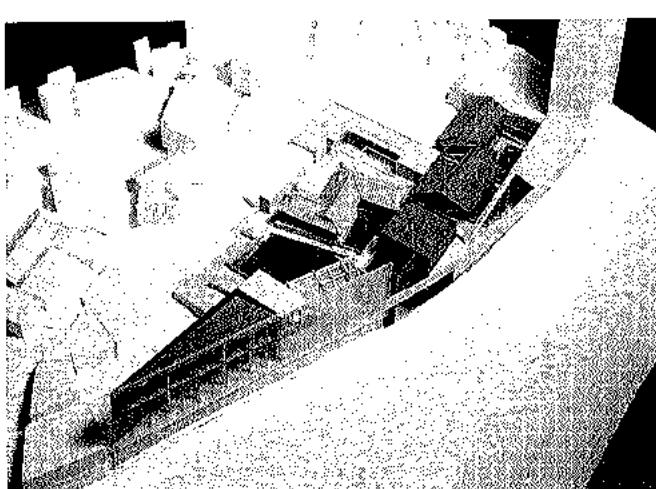
존재하는것, 존재했던것

Existing, Existed



조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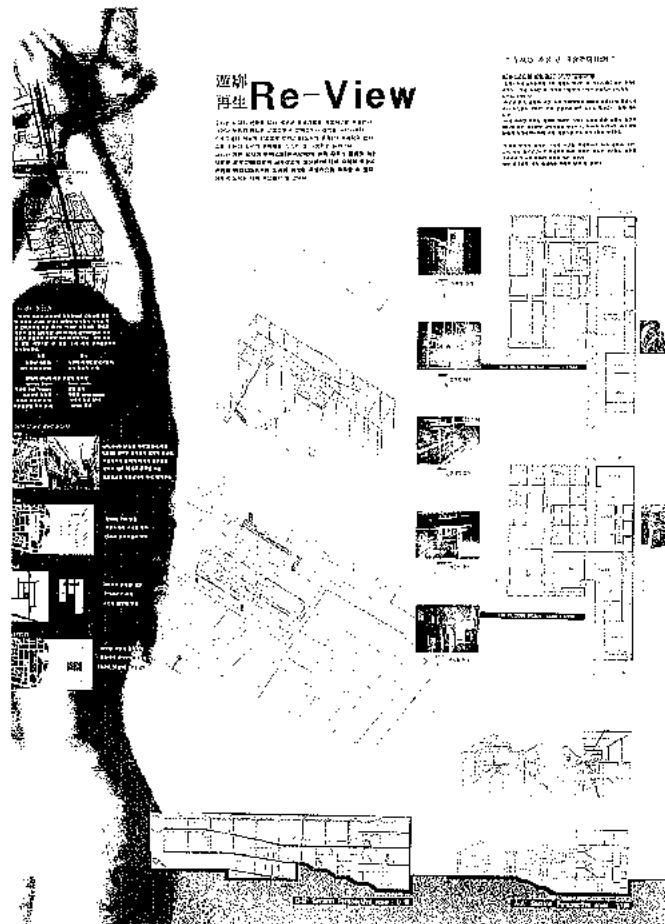
오세에이 건축사무소





유곽재생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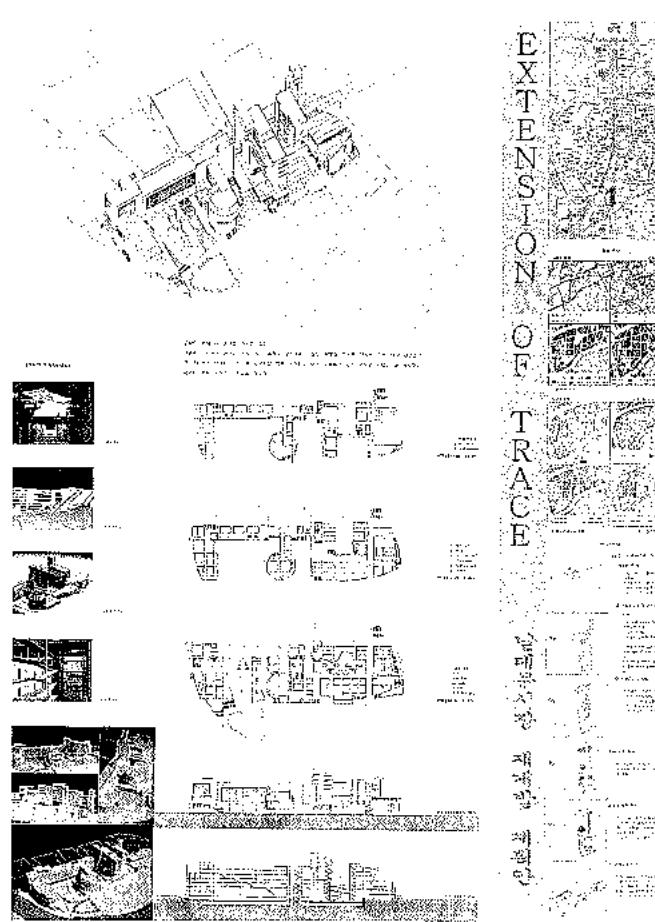


홍장희

서울시립대 건축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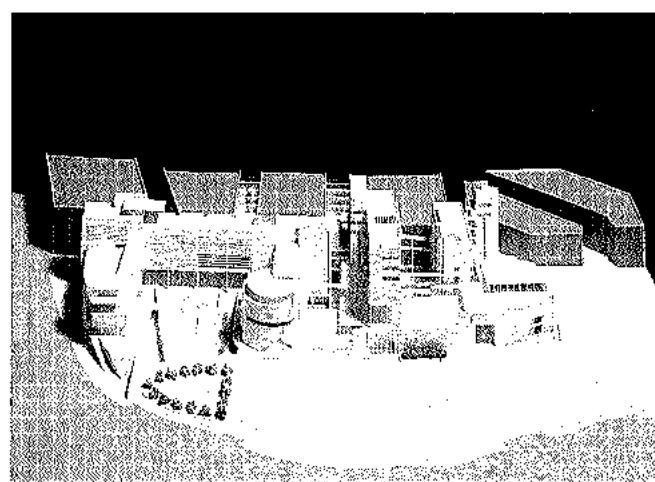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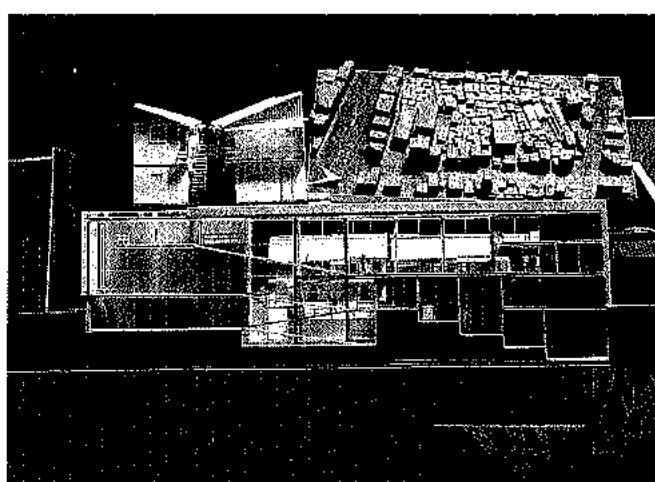
남대문시장 재개발계획안

Extension of Trace



권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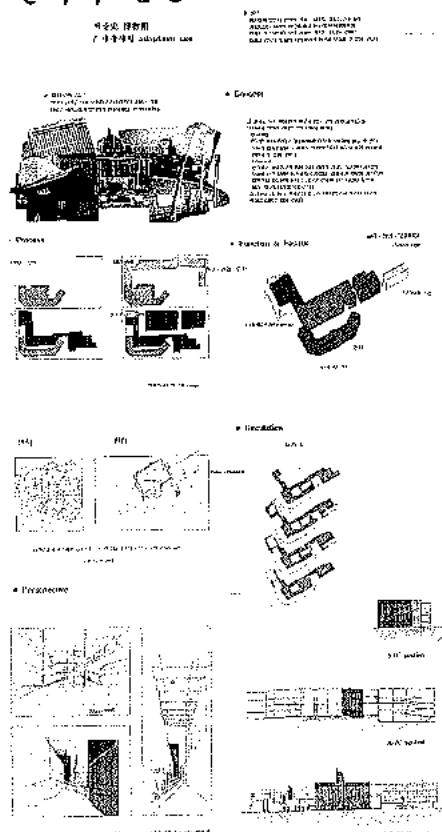
단국대 건축공학과 4년



인식과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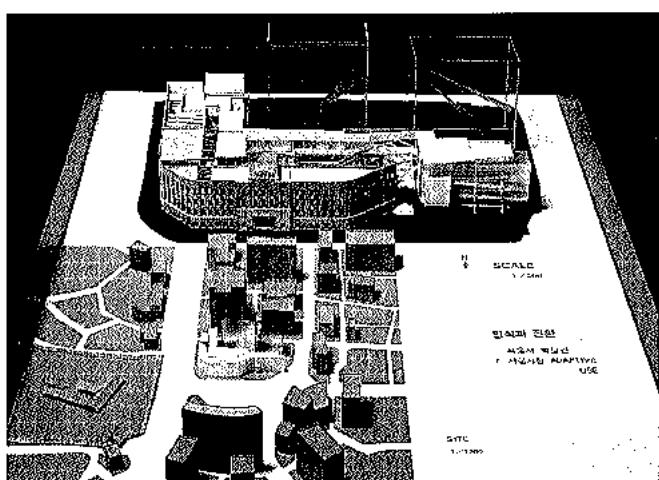
Adaptive Use

인식과 전환



박영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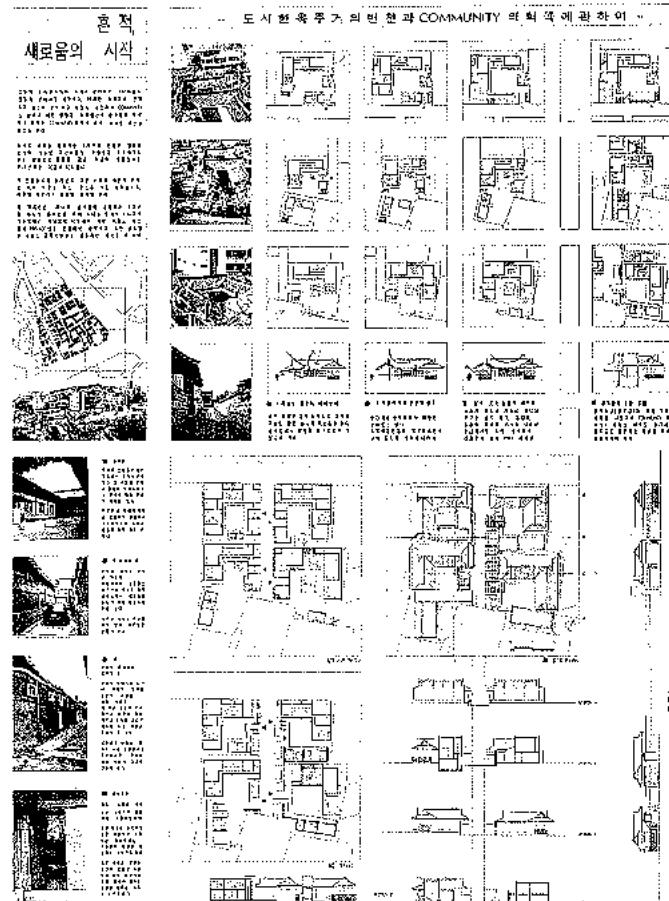
한양대 건축과 4년



흔적, 새로움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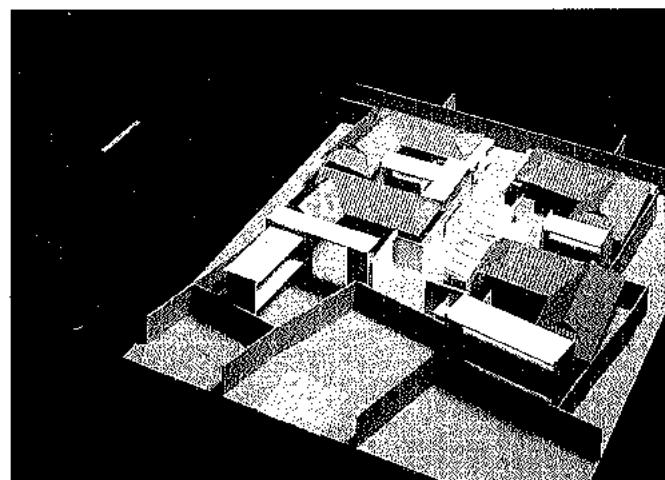
Trace of City

흔적, 새로움의 시작



이태문

스튜디오 W멤버



지역건축탐방 9 - 대전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Taejeon

대전의 근·현대 건축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시건축이 특정한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좌충우돌 격변의 시기를 겪어온 셈이라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시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시선이 정당화되려면 마땅히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검토와 성찰이 뒤따라야 옳은 일이라 여겨진다. 건축을 문화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간 우리는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이 복원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 이야기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의 지적처럼 역사는 책으로도 쓸 수 있지만 건축물로 쓸 수 있다는 교훈을 되살려 보면서 우리 도시건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경시풍조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과거를 서구 근대건축의 완성도에 뜻미친다는 편협된잣대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과 더불어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시건축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고유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억중 / 편집디렉터)

대전의 역사와 풍속 / 한상수(대전대 국문과) 58

도시의 일상 / 고성희(서울대 박사과정) 61

대전의 근·현대건축 / 김정동(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65

대전의 현대건축 / 유병우(씨엔유건축) 71

21세기 대전건축의 주역 / 송용호(충남대 건축공학과) 74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 김억중(편집디렉터, 한남대 건축공학과) 77

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과제 / 임양빈(건양대 건축공학과) 79

좌담: 대전 /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84

- 일시: 1998년 10월 12일(월) 14:00~

- 장소: 목원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강당

대전의 역사와 풍속

The History and Custom of Taejeon

한상수 / 대전대 국문과 교수
by Han Sang-Su

머리말

대전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 통한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순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는 120만명으로 그 중 4분의 10] 충청도 사람이고 나머지는 경상도, 전라도, 이북출신이 각각 4분의 1씩이다. 그래서 대전의 밭 전(田)자가 이를 의미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대전의 옛 이름이 '한(큰)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팔도 사람을 다 포용하는 곳이란 뜻이 들어 있다고 한다.

어쨌든 대전에는 충청도 사람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4분의 3이나 되는 외지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과 동화되어서 마음씨가 순후하고 대전을 인심좋은 고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빗대서 소주(외지 생산된 것)도 일단 대전시에 들어오면 맛이 순해진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만큼 대전은 인심이 좋은 고장이란 뜻이다. 인심이 좋다는 말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된다. 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마음이 순후하다는 뜻도 들어 있다. 어처럼 인심 좋은 고장이 된 연원은 자연적인 환경과人文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대전의 역사

대전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흔히 대전은 '철마가 일궈놓은 도시' 또는 '일본 인들이 만든 도시', '전통이 없는 신흥도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대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대전은 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물은 없지만 가까운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 금강을 따라 대전을 왕래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 것은 청동기시대(B.C 10세기)로 간천과 유등천 주변에 있는 둔산동, 괴정동, 탄방동과 사성동 비래동 등지에 있는 고인돌과 석관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뒤 철기시대(B.C 4세기)에는 진잠에 마한 54개 국가 중 하나인 신흔국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당시 신흔국

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전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신흔국시대의 유물은 진잠과 기성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백제시대 대전지방은 진잠에 진현현, 회덕에 우술군, 유성에 노사지현, 덕진에 소비포현이 설치되어 행정을 관할하여 왔다. 특히 대전지방은 신라와 국경을 접한 요새였을 뿐 아니라 국방의 뒷받침이 되는 군수산업이 발전되고 성곽의 축조, 건물의 건축, 병기의 제작 등 건축기술과 공작기술이 크게 발전했던 곳으로 전하여 오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와서도 백제시대와 같이 군현의 경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명은 진현현을 진령현, 우술군을 비동군, 노사지현을 유성현, 소비포현을 적오현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시대 대전지방의 행정구역은 양광도의 청주목에 속했던 공주군 회덕현 유성현 진잠현의 일부지역이 지금의 대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고려시대 대전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은 명학소(현재 둔산)에서 일어났던 망이·망이소의 난(명종 6년, 1176)이다. 원래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한 토산물을 만드는 곳으로 천민이 사는 곳이었다. 망이와 망이소는 한때 공주, 예산, 직산을 점령하며 신분해방을 부르짖었으나 민란은 1년 반만에 진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충주에 있다가 선조 35년에 공주로 옮겨왔다. 당시 대전은 공주목, 회덕현, 진잠현 등 3군현에 속해 있었다. 특히 유성은 태조와 태종이 온천욕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대전지방은 이율곡 → 김장생 → 송준길 → 송시열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예학의 요람지이다. 그런 관계로 조선시대의 예절을 가장 잘 지켜온 고장이라고 하겠다.

근대도시 탄생

대전은 조선말기까지 회덕현 진잠현 유성현이 교차하는 한촌에 불과했다. 대전의 도시화는 경부선철도의 부설되면서 발전이 시작되었고 호남선철도의 부설로 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898년 9월 8일 경부선철도 합동조약체결, 1901년 6월 경부선철도 기공식, 1910년 7월 호남선 기공식,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 1913년 10월 호남선 개통으로 인하여 대전이 교통의 요지로 떠올랐다. 한편 철도의 통과로 그 당시 많은 인구가 대전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대전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다. 그 중 일본인의 많은 수가 대전에 정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과거 전통적인 도시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또 대전은 서울과 부산, 목포와의 교차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물산이 집결되었다. 이와 비례해서 새로운 사무실, 주택, 창고, 공공건물의 건축이 성행하였는데 대체로 일본식 건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뒤 호남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급증하였다. 1904년 일본인이 188명이었는데, 1909년에 2,487명, 1911년에 3,891명으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일본 풍 속이 신흥도시 대전에 만연하였다.

1912년 정동 중동 원동에 살던 일본인이 서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대전교(목척교)를 건설하여 황교토관공장, 대흥동 연화제와공장, 발암리 채석장, 법원 지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였다. 한편 10월에는 대전역에서 공주 도청을 잇는 도로도 개통시켰다. 그리고 1918년에는 대전-금산간 도로도 준공하였다.

일본인들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심상소학교(1906), 경성중학교 대전문교실(1917, 대전중 전신), 공립실파고등학교(1919, 대전여중 전신)를 설치하였다. 한국인 학교로는 1911년 대전공립보통학교(현 삼성초등학교)를 개교하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이어서 인동 제사공장(1924), 대전도립병원(1927)도 문을 열었다.

대전이 오늘날 6대 도시로 성장하게 된 기폭제는 공주에 있던 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30년 1월 조선 총독 사이또는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공주 사람들의 반발이 극렬했다. 총독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강에 514m가 되는 금강철교 공사를 해주고, 1932년 5월 30일 도청 공사를 완공한 다음, 6월에 대전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대전은 근대도시로써 부족함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한편 대전군은 대전부로 승격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대전은 태극기의 물결을 이룬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감격에 찬 도시였다. 희망에 부푼 모습이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대전은 황폐화되고 말았다. 대전전투가 치열했지만 그보다 미공군의 폭격으로 대전은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형체가 남아있는 것은 충남도청과 대전시청(현 상공회관), 대전지방법원 외에 민가 몇 채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건축한 대전역사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식 건축물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로 대전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남하했던 주민들이 귀향하여 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판자집 시대가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피난민들은 대동, 용운동 산등성이를 비롯하여 용두동, 중촌동, 가오동 등지에 주로 피난민촌을 형성하여 판자집을 짓고 살았다.

5·16군사혁명 후 새마을운동 전개는 대전시 도시계획을 재편하면서 도로망을 새로 구축하고 판자집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뒤 70년대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농촌인구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전은 대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전입인구와 유동인구가 급증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대전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늘어나서 미관상으로 쾌적한 도시의 인상을 타지인들에게 남겨 주었다.

대전이 현대적인 도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둔산지구 개발이라고 하겠다. 이는 대전을 발전시키는 축진제가 되었다. 대전이 국제적인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였다고 하겠다. 엑스포로 인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경제·문화적으로 많은 소득을 안겨 주었다. 또 최근에 완공된 정부청사는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뿐 아니라 대전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고 기대된다.

대전의 풍속

대전은 동쪽으로 식장산, 서쪽으로 계룡산 지역인 구봉산, 남쪽으로 만인산, 북쪽으로 계족산이 자리잡고 있는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에는 만인산에서 벌원한 대전천과 대둔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유등천과 계룡산 지맥에서 흘러 내려오는 갑천이 합하여 금강에 합류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대전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질을 갖게 한 것 같다. 거기다가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유교적인 영향은 이 지방의 풍속을 조금은 정적이고 점잖은 문화로 승화시켰는지도 모른다. 대전은 이처럼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이 어우러져 모든 풍속이 소박하고 점잖은 문화로 귀결된다.

생활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절을 중시한다. 체면을 늘 염두에 두는 의젓한 양반의 예의범절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전의 풍속이다. 이런 것은 주거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25전쟁 전까지 대전의 건물은 크게 3등분 되는데, 그 하나는 대형건물로 된 공공건물류, 다른 하나는 일본식 건물류,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우리 건물류라 하겠다. 전통적인 가옥은 이따금 격조 높은 기와집도 있고 팔칸짜리 초가집도 있었지만 대개가 초가 삼칸집이었다. 미당이 넓으면 좋고 대문이 있으면 더 좋지만 우리 조상들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조촐하고 소박하다.

이사동에 가면 기와집촌을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큰 집이 없다. 은진송씨의 점잖은 주택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 거유였던 송준길의 집 동춘당이나 당시 정가를 한손에 잡았던 송시열이 한거하던 남간정사에 가 보아도 마찬가지다. 당대에 '우암'하면 땅땅대던 인물이지만 남간정사는 그저 소박하다. 이 고장을 대표하는 위인들의 삶이 이러니 서민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의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전사람들은 실용적인 측면에 옷을 입었을 뿐 옷 맵시 같은 것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고장의 국문학자 지현영씨도 대전 사람들은 예로부터 멋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특히 옷을 잘 입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실 여인들의 옷매무새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서울 여인들처럼 사치스러움이 없고, 전라도 여인들처럼 멋스러움도 없고, 경상도 여인들처럼 때깔도 없다. 그저 수수하게 차려 입는 것이 대전 여인들이었다. 물론 현재는 다르지만 한복을 입는 명절 때 같으면 아직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대전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식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출한 것이 대전사람들의 밥상이다. 그것은 잔치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잔치상보다도 이웃 사람들과 궤를 같이 하는 조출한 것이 대전의 잔치상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대전사람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민속놀이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즐기는 농악놀이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요란하지 않고 유별나지도 않으며 어떤 면에서 예의 바르고 의젓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지방의 민속놀이는 관원을 골탕먹인다거나 양반을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대전지방은 물론 충남지방까지도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전의 민속놀이는 내용이 조출하고 소박하다고 하겠다. 그 규모가 크지도 않고 복색이 현란하지도 않다. 놀이의 흐름이 빠르지도 않고 의젓하고 점잖은 데 있다.

인동은 일제시대에 조선인 시장이었다. 일본인들이 중동, 정동, 원동의 상권을 쥐고 있는데 비하여 보잘 것 없었지만 보부상이 모여들고 토산품이 집결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철마다 난장이 서고 아바위꾼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3·1운동때는 만세도 부르던 곳이다.

인동시장을 물건너 두고 있는 문창동은 옛날부터 남사당파가 놀이판을 벌렸다. 이들이 치던 풍장이 웃디리 농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소박하고 점잖은 풍물이다. 당시에 활동하던 송순갑씨의 말에 의하면 대전의 풍물소리는 점잖은

가운데 흥이 나는 것이라고 한다.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경상도 농악처럼 우렁차지도 않고 전라도 농악처럼 간지럽지도 않다. 풍장을 치는 이나 듣는 이나 체면을 보아가며 흥을 일으키는 그런 풍장놀이가 대전의 농악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조출하고 소박하고 점잖은 놀이문화는 부사동 칠석놀이나 문창동 엿장수 놀이 그외 모든 놀이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대전의 풍속은 모든 면에 걸쳐서 소박하고 조출하고 점잖은 마음이 깔려 있다.

맺음말

대전은 역사가 그려했듯이 풍속도 모난 점이 없다. 그것이 충청도 문화를 만들어 왔고 대전문화를 이루어 왔다고 하겠다. 조출하고 소박하고 점잖은 마음, 이것은 대전의 전통속에 그리고 대전의 문화속에 우리들의 삶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대전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곧 양반문화를 창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삶의 전통이 대전 사람들로 하여금 대전을 인심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대전은 한국의 6대도시지만 큰 사건이 없는 조용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남간정사



동춘당

도시의 일상
The Everyday of a City고성희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by Ko Seong-Hee

中都 - 여기가 허리

1) 공동생활권

『Looking Into Cities』에서 저자는 도시란 땅(Lots), 길(Paths), 건물(Buildings)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경우 사람 많고, 집 많고, 차 많은 거리를 떠올리는 만큼 넓고 밀도도 높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전은 엄연한 도시이고, 도시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허리에 들어있는 문자 그대로 중추도시이다. 역사적으로 명칭에서 짐작되는 바대로 크다는 뜻의 태전(太田)이 한밭이라고 불린 바 있으며 한밭이라는 곳의 원래 위치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동, 대홍동을 잇는 넓은 들이었거나 태평동 일대가 아니었을까 추측하여 볼 수 있다."

1990년 아래로 그 행정상의 면적은 537.25km²이고, 인구는 130만을 웃돈다. 서남쪽으로는 호남지방, 동남쪽으로는 충북의 남부를 거쳐 영남지방, 남쪽으로는 한번도 남부의 중심부를 뚫고 남해지방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대전직할시를 지칭하던 여러 가지 명칭중 노사지현(일명 노사지기현)은 대전, 진현, 두계, 연산, 부여를 연결하는 요충지였는데, 생활권역으로 봐도 현재의 마이카시대에는 더욱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다반사이다. 상권이나 주거권을 대전과 인근도시를 두 거점으로 하여 넘나드는 일이 많은 것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을 떠나 오래된 습관처럼 행해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2) 입도(入都)의 다감(多感)

대전의 공동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들고 나는 길의 다양함과 용이함이다. 서울에서 오는 경우 대전역은 이 도시의 입구이자 출구이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친구를 대전역 광장앞의 시계탑에서 만나 부산행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장소이고,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아 빼빼를 쳐놓고 기다림을 갖는 장소가 대전역 광장이다. 서울에서 오는 동안 수원, 천안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며 편입된 대덕구가 된 회덕역을 처음으로 이미 대전을 보고 들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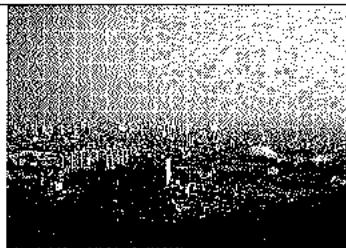
대전에 접근하는 길은 많다. 도시에 접근하는 과거의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역이나 터미널이라면 '문'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중앙로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대전역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상도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구, 유통천을 경계로 동서를 중구와 서구로 나뉘는데, 동문은 동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이고, 서문은 서대전역과 유통천변의 서부터미널이다. 이외에도 옛날부터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 대덕군내에 예속된 유성을 통해 공주 등지로 가는 문이 있다. 그 문들 하나하나가 주는 입도(入都)의 감(感)은 제각기 다르다.

공주에서 금강을 따라 유성을 통해서 대전에 오는 길은 한쪽에 강과 한쪽에 산을 끼고 올 수 있고, 옛성들의 자리를 추적하며 국도로 진입하는 연산, 두계로 오는 길은 구비구비 긴장과 완화를 느끼며 낮은 계곡같은 길로 갈 수 있다. 정공법(正攻法)으로 오는 대전역과 고속터미널을 통하는 길은 국토의 최단거리를 경험하며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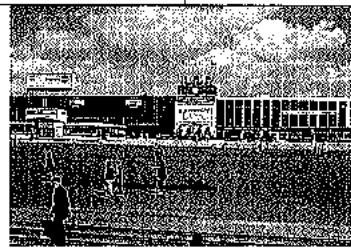
최근 둔산에 3청사가 업무를 시작하며 이 문들은 더욱 출입이 빈번해졌다. 기출이나 방황이 아니고, 교통이라는 것이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업무와 각각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²⁾ 외부에서 내부로 혹은 내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로 교통이 일어난다.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임을 실감나게 한다.

1) 대전직할시, 대전의 유력의 연혁,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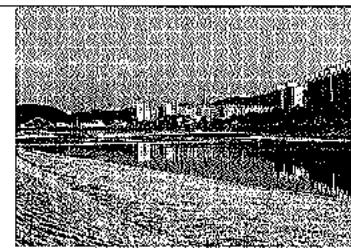
2) 청기원, 韓市廳 잇보기, 서울대 출판부, 1998



대전시내 전경(보봉산)



대전역



대전 갑천

모여드는 곳

1) 대전의 등뼈 중앙로

대전의 도심은 격자형 체계이다. 대전의 중심 지구와 그것의 명확한 격자형 도시구조는 1932년 도청 이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1935년 시경계의 확장을 전후로 하여 해방이전에 대체로 완성된 것이다. 지금의 대전은 자생적으로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1905년의 경부선 개통 그리고 1914년의 호남선 개통을 계기로 인위적으로 계획되어 어진 도시이다.³⁾ 그 질서는 도심주변에 있는 기존의 가로체계와 섞여 수많은 지름길을 찾는 묘미를 주기도 한다. 간혹 그 절점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먼저 대전역앞에 펼쳐있는 중앙로로 가다가 돌 아서서 대전역을 바라보면 일제시대의 대전역사의 모습과 대조적임을 발견한다. 평평한 지붕에 마치 정차되어 있는 기차처럼 길게,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서는 좀 낮게 놓여 있다. 과거의 대전역사 그 뒤로 보이는 자연경관이 마치 대전역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대전시의 중심이 통으로는 계족산, 서로는 구봉산·산장산·계룡산, 남으로는 보문산·식장산에 예워싸이고 있는 분지라는 공간구조의 한 단편을 보는 듯하다. 중앙로는 몇 년전 지하도가 생긴 아래로 대전시민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상에서나 지하도에서나 사람과 삶이 부대끼는 곳이다. 이 길을 따라 홍명상가까지 걷다보면 간단하게 사고 파는 일들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보도에서 잔잔한 불거리가 복잡함과 활기를 더해 주고 있다. 지하도에 있는 상기는 지상의 좁고 길게 횡방향으로 썰린 땅모양만큼이나 조금이라도 많은 수의 전면을 가지려는 상기가 빼곡하다. 이 도청까지의 중앙로축을 가로지르는 대전도심의 중요한 가로축이 4개가 있다. 여기서 주로 만나고 기다리고, 모이는 일들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2) 중앙로의 가로축: 거리 들여다보기

제1가로축: 동백 사거리

위계상으로 그 첫 번째 가로축은 동백백화점

사거리이다. 대전에 살아본 사람다면 누구나 기억속에 있는 제1 약속장소이다. 동양백화점 앞에서는 중앙로의 축방향 정면에서 나 가로방향의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도심내부에서의 가장 쉬운 약속장소이다. 그러한 이유가 단지 동양백화점 건물 하나의 압도적인 불륨과 용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장소는 네거리의 모퉁이땅에 동양백화점이라는 상중심(商中心)과 건너편의 한일은행의 석조건물, 과거의 상공회의 소자리에 들어선 새건물과 신축중인 고층의 건물로 네 모서리가 건물로 단단히 채워 있다. 또한 이 곳은 지적도상에서 중앙로의 축이 얼마간 꺾이면서 하나의 모멘트가 일어나기도 하며 횡방향의 가로가 중앙로의 좌우를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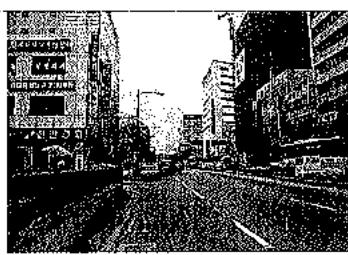
이 상황은 지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분수대와 벤취가 있어 지상의 장소성과 기억이 그대로 지하로도 내려가 연속성을 가진다. 이 곳 정면의 벤취는 세워질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몇 년전 입구 양편에 앉을 자리가 마련된 것은 하나의 장치이지만 길과 사람, 건물과 외부공간이 시간과 함께 그 짐작력을 알아낸 하나의 예이다.

제2가로축: 목척공원

그러나 큰 볼 일이 있지 않는 한 대전의 중앙로를 따라가다 보면 곧바로 그 첫 번째 결절점까지 아무 방해없이 가기에는 여러 가지의 표정을 한 동서 가로축의 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좁고 높은 정면이 반복되며 중앙로의 연속적인 가로면을 형성하고 있는 스크린이 갑자기 단절된다. 그 극점에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동양쇼핑몰(구 대전데파트)과 홍명상가가 나란히 서 있다.

홍명상가 후면에는 삶의生生한 현장인 중앙시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나무와 분수대, 앉을 자리가 있어 휴식처가 되고 있는 목척공원이 있다. 대전역 광장이 공식적인 집회(예를 들어 선거철 유세)가 일어나는데 비해 이 곳은 벽과 같은 두 건물의 앞뒤를 연결하는 통행로이자 머무는 휴식의 역할이 더 크다. 동양쇼핑몰앞에서 간혹 이벤트가 일어나긴 하지만 공간의 규모도 대전역 광장보다 작고 선적이며 다분히 상

3) 송인호, 대전-격자형 도시구조와 건축, 건축문화 8907.



업적이다. 거꾸로 도청쪽에서 대전역으로 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 두 건물은 대전역사의 상징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지나친 높이가 중앙로상에서의 이 지점에 대한 도시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자의적이다. 다분히 목척공원이라는 공공공간으로 인해 육중한 건물의 길이가 노출되어 장벽처럼 앞뒤를 가로막는다. 대전역까지의 축이 여기서 한 번 차단된다.

묘하게도 중앙로 하부의 지하도가 여기서 끝났다가 다시 이어진다. 그 뒤로 기능적인 연결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로축은 대전천의 상부이기도 하며, 하상주차장이라는 쓰임과 더불어 중요한 가로축임에 틀림없다. 밤에도 이 가로축을 따라 많은 도시의 일상이 연속된다. 벤취에 앉아 낮게 흐르는 천을 바라보기도 하고 삼삼오오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제3가로축: 샤리진 장소성 대전극장통

또 하나의 가로축은 그 입구가 시작적으로 단서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과 기억속의 대전극장통이다. 이 길은 주로 4~5층의 건물로 이루어졌고, 1층은 고급부띠끄, 2~3층은 음식점과 커피숍, 뷔페숍 등이 들어 서 있다. 이 길의 서쪽 마지막 부분에는 길에 걸맞는 아담한 규모의 대전극장이 있었다.

현란한 거리를 걸어오다가 영상으로 도심에서의 활보를 끝마치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던 곳이다. 영화를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영화평과 함께 담소를 나눈 뒤 중앙로까지 걸어나오며 버스번호판을 찾을 때까지는 그 여운을 가질 수 있는 거리였다. 정취있던 장소가 갑자기 '대전코아'라는 이름을 내걸고 거대한 건물로 둔갑하였다. 끝까지 밝기만 한 거리, 끝에서 더 올려다 보아야 하는 맷음이 부담스럽다.

도시가 안고가는 '변화와 발전'이라는 통제불 가능한 갈등이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이 거리와 연결되는 격자의 규칙적인 체계안에 도심지역이 펼쳐진다. 이 길로부터 은행동 일대의 이쁜 바 변화기라 일컫는 유락통, 성심당 골목이 모두 연결된다.

제4가로축: 으능정이 문화거리

중앙로로 나와 도청쪽으로 한 블록 더 올라가

면 고급스러운 석조건물(캠브리지)과 안이 완전히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이안경원 건물이 조금 넉넉하게 사람을 반긴다. 이 가로축이 '으능정이 문화거리'이다. 이 곳은 1996년 11월말에 문화의 거리로 제정되어, 차없는 거리가 되었다. 이 거리의 표정은 중앙로 어느 부분보다 특히 밤에 더 밝아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파가 몰려든다. 물리적인 실체를 피악하면 길의 폭이 일단 대전극장통 보다 넓다.

공교롭게도 이 거리의 초입에 이안경원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의 용도상 보여주기 위해 열어야 함이 필요했겠지만 거리의 중요한 모서리가 투명해 낮이나 밤이나 광원과 같은 역할을 건물 자체가 하고 있다. 좌우 모퉁이의 대조적인 물리적 시작이 흥미롭다. 유난히 그 입구에 전화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여들게 되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활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공연도 수용하고 있어 이 거리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세대교체가 되어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차가 안 다니므로 정해진 선의 보도만으로 제한되는 보행의 부자유스러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모이기 위한 영속적인 공간적 배려나 이 길만이 갖는 입면상의 특성이나 어느 정도의 변화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건축적 조치가 부족하다. 이 거리는 서울의 통충동이리기보다는 명동이다.

확장되는 일상

1) 위에서 보기

대시동 보문산에 올라가면 대전의 시기가 내려다 보인다. 시내에서 가까우면서 전망이 좋고, 놀이기구도 있어 보문관광단지로 불리는 이곳은 도시민의 약수터로도 애용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대전의 장점이다.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은 충분히 도시를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올라가는 길 입구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관광지의 기념품들로 즐비하다. 올라가서 만나는 최근 세워진 전망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전망을



홍명공원



충명사



대전 극장통

제한함이 아쉽다. 하지만 대전시 유래와 연혁에 “보문산은 샛골에 원각사, 관음사, 석굴암이 있고, 1965년 4월에 중봉에다 보문대를 건립하였는데 이 곳에 올라서서 사방을 바라보면 동쪽에 식장산, 북쪽에 계족산, 서쪽에 계룡산이 높이 솟아 있음을 볼 수 있고, 시내를 내려다 보면 북쪽에 대전천이, 서쪽에 유등천이 흐르고 이 두 천(川)이 갑천에 합류되어 다시 북쪽으로 금강과 합류하는 모습을 관망케 한다.”라고 나타나 있듯이 대전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멀리 둔산의 확장이 주목할 만하다.

2) 이동하는 중심

갑천은 허허벌판이었던 둔산에 각종 쇼핑몰과 행정기관건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대전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시 가까이에서 한적함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침에는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과 저녁과 주말에는 천렵을 나온 사람들로 붐빈다.

원래 대전의 중심은 은행동 일대였다. 은행동을 중심으로 소위 ‘물 좋은 곳’이 십대에 맞는 거리가 되면서 어려 세대를 걷고 싶게 하는 거리가 증구청앞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 대규모의 주거지와 함께 둔산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겼다. 각종 창고형 매장과 동양타임월드 등이 일상의 친근한 공간이 되면서 중심의 이동에 한 몫 더하고 있다. 행정적인 확장뿐 아니라 거대한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도시는 늘상 개발축을 중심으로 신구가 충돌하며 때론 아픔을 감수하고 때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 둔산의 발전이 단순한 인구집중을 유발하여 처음에 겪었던 주거지의 비람 한 절 없는 미기후를 형성해 일상적인 주거내의 삶을 질적 저하로 물고 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 고층의 아파트에 비하여 조경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급조된 도시의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월평동 일대의 고단위 아파트군은 대전에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월평동과 도룡동을 잇는 대덕대교와 오정동과 둔산동을 잇는 한밭대교는 그 다리의 폭과 길이가 건축적인기는 의심스러우나, 대전내에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충시켜주는 거리(距離)를 갖게 한다. 획일적이고 급진적인 규모확장에 비해 그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엑스포와 대덕연구단지 일대는 대덕대교와 한밭대교의 연결과 더불어 대전의 확장성과 새로운 디스트릭트를 형성하였다.

엑스포공원내의 한빛타워는 밋밋한 둔산의 밤 하늘에 시각적 정위감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유성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의 정위를 알리는 빛보다 활센 건축적이다.

확장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전이 지변화되어 넓은 도시안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산책과 휴양을 할 수 있는 자연을 맛볼 수 있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본다. 이미 이 도시는 도심과 주변에 또 중앙로와 서대전 사거리 등에 아이멘티티가 있는 외부공간이 충분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주말에 대천까지 혹은 논길을 따라 유성쪽의 서골생활을 잠시 접할 수 있는 확장성이 지금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유성의 은천곡으로 생겨난 휴양적 분위기와 둔산의 행정중심, 대전 본래 시가의 활발함이 각각의 개성과 통일성을 가지며 실질적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어느 도시라도 동시대인들이 갖는 일상은 새로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요소의 수와 관계없이 도달하는 ‘장소성’은 같은 일상이라도 물리적인 실체와의 관계속에 유의미(有意味)한 것이 된다.

대전이 가지는 중도성과 확장성이 길을 막지 않으면서 옛도시가 갖던 질서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대물림되어 ‘작위의 상처’가 적게 대전만이 갖는 경지형구조와 기존구조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백제인이 가졌던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세련되되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모습이 도시의 일상에 베어나오도록.



으능정이



서대전 사거리 공원



둔산 아파트단지

대전

Taejeon

근대건축 modern architecture

대전(大田)의 근·현대건축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Taejeon

김정동 /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Kim Chung-Dong

서론

대전의 '근·현대건축'은 이제 90여년의 연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대전 근·현대건축의 실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전은 오늘도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는 문자 그대로 더욱 광역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전광역시(大田廣域市, Taejeon Metropolitan City)에 있어서 '근·현대 건축물은 어떤 유형의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자료 목록을 만들고 그 보존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론

1) 대전, 도시의 형성 과정

한국의 근대건축은 개항(1876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대전의 경우는 1904년 대전역 개역(開驛) 후부터 시작되었다. 대전 근대사의 본격적 진입 축은 1928년 세워진 '대전역'과 1932년 준공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1)에서 보듯 한말(韓末)의 대전은 도시로 열리기 이전의 한촌(寨村)에 머물러 있었다. 경부선 철도의 부설로 인해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졌고 호남선의 통과 역시 대전의 발전에 대가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철도는 일제의 조선, 만주 식민정책의 기간이 되는 '속성사업'이었으며 또한 도시화, 근대화를 이끄는 동력이었다. 철도의 통과로 교통의 중심지, 교차지가 된 대전에는 인구가 집중했고, 특히 일본인의 이주, 정착

〈표-1〉 대전, 근대도시형성(1904~1945)

년도	내용
1896	충청도의 충남북 분리
1898. 9. 8	경부선철도 합동조약 체결
1904	대전수비대 설치, 한성영사관경찰 대전순시주재소, 대전역사 신설(간이수준으로, 파괴), 일본인 거류지 형성
1905. 9.	지방제도 개정안, 희덕(懷德)을 진시(鎮市)로 함
1905. 9.	경부선 철도 개통
1910. 7.	호남선 철도 기공식
1913. 10. 17.	공주 - 대전간, 개수(改修)도로 개통
1914. 3. 22.	호남선 철도 전통식(全通式) 개행
1914.	대전면(大田面) 설정
1923.	행정구역 확장, 현재의 안동, 원동, 중동, 정동, 삼성 등을 포함한 행정구역 면적 6.2km ²
1928. 6. 20.	대전역 신축 낙성식
1931. 4. 1.	'대전읍(大田邑)'으로 승격
1932. 5. 30.	충남도청 준공
1932. 6. 17.	도청 이전 결정 공포(부령 제48호)
1932. 9. 30.	충남도청,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1934.	상수도 공급
1935. 10. 1.	'대전부(大田府)'로 승격(府制실시)
1936. 3.	대전경찰서 준공
1938. 5. 2.	조선총독부 고시 제47호, 최초 도시계획 결정
1938. 10. 1.	충북부에서 대전시기자계획령 실시를 결정
1939. 6. 15.	경부선, 대전 - 서울간 복선열차 운행시작
1940.	행정구역 확장, 35.7km ²
1945. 8. 15.	행정관할구역 36km ²
1949. 8. 15.	'대전시'로 개칭
1959. 1. 1.	충청남도, 대전시 분리, '대전직할시'로 승격
1995.	'대전광역시' 승격

속도가 빠르게 이뤄졌다.

첫 대전역의 준공은 1904년 6월이었고 실제 개통일은 1905년 1월 1일이었다.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한 간선(幹線)인 경부선 철도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들 철도공사 관계자인 일본인이 대전에 들어와 거주한 것이 일본인의 대전 거류의 시초였다.

1904년에는 우선 대전에 수비대(守備隊)를 설치하고 또 '한성영사관경찰 대전순시주재소(漢城領事館警察 大田巡查駐在所)'를 설치하는 등 무력을 투입하고 대전역을 신

1) 대전시는 1995년, 서 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1910년경의 대전역과 그 주변



1928년 대전역 준공 이후



1932년 세워진 충남도청

설하여 일본인이 입주하니...”²⁾

근대 도시로서의 대전은 전통적인 재래 도시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했다. 각지에서 몰려드는 농·어 산물(農·漁產物)들은 이곳을 분기(分歧)로 북으로, 남으로 흐른 서남으로 각각 집산(集散)되어 통과 도시로써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05년 지방제도 개정안(제 5조)에 의하면, ‘회덕(懷德)은 진시(鎮市)³⁾’임으로 군수(郡守)를 폐하고 부윤(府尹)을 둘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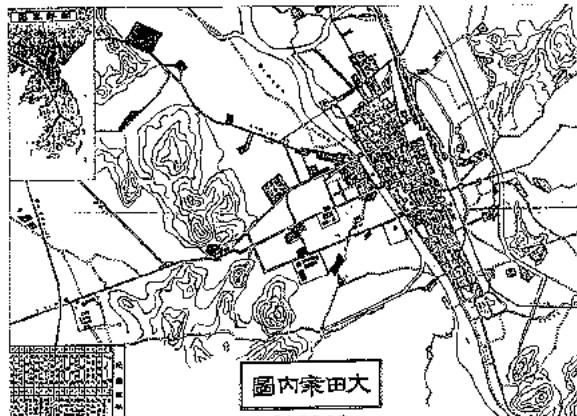
“…1904년 대전천변의 황무지를 점거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본인 거류지는 이미 100여명의 군인, 경관과 88인의 이민단이 정착하여 어용(御用) 옹달업(用達業), 토목·건축 청부업, 여관업, 상품판매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소규모의 제와공장(大興洞) 등이 자리잡아…”

1909년경의 대전에는 일본인 인구가 2,482명에 달하여 주로 대전역 부근인 지금 원동(元洞, 구 本町通), 중동(中洞, 구 春日新地), 정동(貞洞, 구 榮町) 지역에 일본식 거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상점집(商家)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도시의 면모는 일본인 이민단 88인에 의해 주도됐다. 이후 격증한 일본인 거류민은 일본풍의 시가(市街), 소위 ‘너흔마치(日本町)’를 형성해 도심을 확장해 나갔다.

1910년대 초에는 일본인들이 역전에서 가부키(歌舞伎)를 공연하고 있었다. 1915년 경에는 대전천의 목척교(木尺橋)를 건너 형성된 목척리(木尺里)와 지방법원 대전지청을 중심으로 은행동과 선화동(宣化洞, 구 春日町)으로 퍼져 나갔다.

1920년대 중반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인구는 8천123명 수준이었다. 대전역에서 북으로 뻗어 회덕면 읍내리를 통하는 도로를 따라 일본인의 상가는 들어섰고 또 남쪽으로 인동(仁洞)을 거쳐 금산으로 뻗는 도로를 따라 상가도 늘어났다. 당시 대전을 그린 글 하나가 여기 있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별판에 세워 둘 지경이 면… 정거장 문밖으로 나서서 눈을 비식바식 밟으며 큰 길 거리로 나가니까 7년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제 오정 때 대전에 내려



1915년의 대전지도(자료: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市街)가 변하였다. 길 맞은 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빙지를 들였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립다.”(염상섭, 「만세전」, 1923)

당시 대전역 앞 풍경을 염상섭은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1910년경 대전을 거쳐 놓여지고 있는 호남선 노선에 관한 것이다.

‘저어 공주 한밭(大田)서 무안 목포(木浦)루 철로(鐵路)가 사루 나는데, 그것이 계룡산(鷄龍山) 앞을 지나 연산 팔거리(連山 豆溪)루 해서 논뫼 - 강경(論山 - 江景)으로 나와 가지구, 횡등장터를 지나게 된다네그려’(채만식, 「논 이야기」)

한국인들의 대전 이주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전 중심 상기를 벗어나 주변의 빈약한 재래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정도였다.

2) 역과 도청의 중심축

“충남도청(중구 선화동 287)” 이전은 대전 변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 1930년 1월 13일 공주로부터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1858~1936) 총독에 의해 성명으로 총독부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도청의 대전 이전이 발표되었다. 도청 이전 결정에 공주 지역민들은

2) 충청남도 발전사, 호남일보사간,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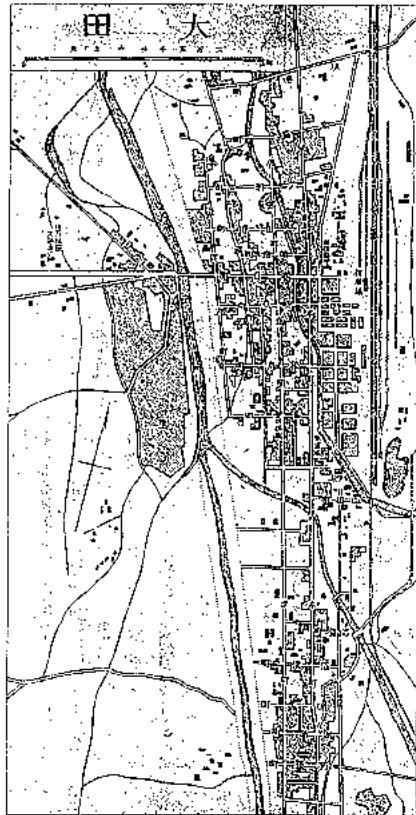
3) 중국에서 宋代 이후 縣民의 한 행정구역이었던 지방의 작은 도시를 일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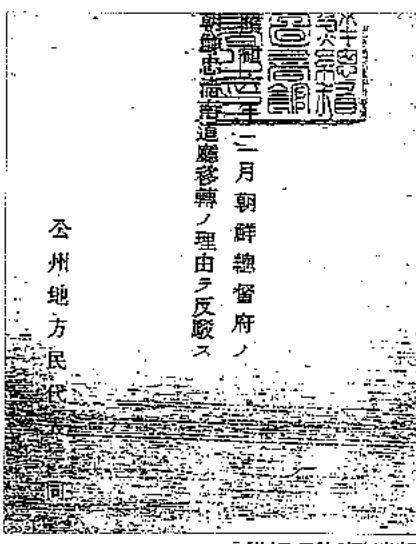
삼성초등학교(1971년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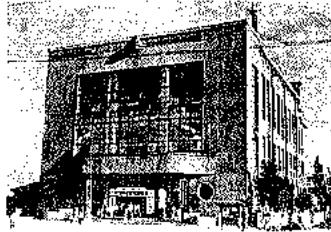
대전형무소, 1919년 설계(자료: 申基秀, 216쪽)



1928년의 대전 안내도



충청남도 도청 이전 빙박문



대전 공회당(현 상공회의소)



복원대 채플

크게 반대했으나⁴⁾ 1932년 4월 일본 제국의회⁵⁾에서 충남도청 이전 문제는 결정되었다. 조선인 토착세력이 별로 없던 대전에 일인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일인들의 조선 침략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당시 일제(총독부)의 의도였던 것이다.⁶⁾

“충청남도 도청사의 신축, 대전군(大田郡) 청사의 신축으로 활기를 띤 대전읍은 대전역-신도청사 간의 도로 폭을 종전의 배로 확장하였다. 중동, 은행동, 선화동을 꿰뚫어 도청사 앞에 닿는 직선도로가 완성되었다. … 1931년(昭和 6년) 6월 20일 기공식이 있었다. 12월 12일 상량식이 거행되었고 1932년 5월 30일에는 신도청사가 준공되었다. 이리하여 이해 6월 17일 충남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부령 제48호에 의하여 정식으로 결정 공포되었다. 1932년 5월 30일 총 신축비 35만 9천원으로 충남도 청사는 준공되어….”⁷⁾

도청은 충독부 영선계의 설계에 의해 이뤄졌다.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2층의 외장타일로 마감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1,451.39평(지하: 42평, 1층: 718.74평, 2층: 690.24평)의 이른 바 ‘근대식’ 청사였다. 시공자는 스스키(須須木 權次郎)였다. 건물은 평남도청과 유사하게 지어졌다.⁸⁾

대전읍은 도청 청사의 신축(이즈음 대덕군청 청사도 신축)으로 조선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활기를 띠었다. 대전역과 도청간의 모뉴멘탈적 이미지가 새로 형성된 것이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만나는 이 건물들은 대전 시가(市街)의 첫 인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동, 은행동, 선화동을 꿰뚫어 이 도청청사에 이르는 직선도로도 완성되었다. 인구는 2만 3천명으로 급증했다. 대전역 역사(驛舎)와 도청 청사 이외의 비교적 다양한 건축물들은 만물전(萬物殿)의 물건같이 거리에 놓여졌다. 다양하여 어떤 형식과 양식의 이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식민

4) 1931년 2월의 반박문은 전 15페이지로 이루어졌다. 제목은 「昭和 6年 2月 朝鮮總督府의 丙午
忠淸南道 이전의 미류를 反駁함」이다. 『公州地方法代處一司』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는 필자기 東京大學 도서관에서 복사한 것이다.

5) 현재의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1925년 12월 세워진 제3차 가의사당에서였다. 철 의사당은 1936년 준공된 것입니다. (東京 千代田區 氷田町 1-1), (출처: 「일본을 걷는다」, 229쪽, 한양출판)

6) 조선남, 충청의 건축(2), 중도일보, 1991.4.26

7) 대전시지, 하편, 1979

8) 충남도청은 3층 부분이 민주당시절 증축되었다. 충남도청이 이전될 때 “금강역사박물관”으로 전용되기를 기대한다.

지아래 어느 지방 도시에서나 미친가지였다.⁹⁾ 대전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200평 짜리 목조 대전역사는 1928년 신축했다. 1959년 현재의 역시로 대체되었다(1958년 7월 20일 헐렸다).¹⁰⁾

대전의 근대건축을 유형 분류해 보면, 절약식 절충형과 간이식 근세형 그리고 일제식 편의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전시지(大田市誌)」는 대전의 한 건축양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전은 왜색 건물이 더욱 많았다. 특히 주택지 또는 요정기에는 왜색으로 된 건물이 있었다. 주택으로 현재의 원동에 있었던 낙타오 소지로(中尾常次郎)의 별저(別邸)는 그 건축구조와 정원 등 모두 대표적인 왜식주택이라 하겠다. 그리고 현 대전교 근처는 천성(千成) 등의 왜식건물 상점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은 주택을 겸한 것이었다.”

여기서 왜식(倭式)이 첨가된 당시의 주택형은,

- 값싼 일본기와 사용
- 왜식 현관 치장
- 오시래(押入) 사용
- 온돌 다다미로 변형
- 왜식정원 도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청, 학교, 은행, 회사, 호텔 등의 양식(洋式)에 왜색을 첨가한 건물로는 도청 외에도 중부 경찰서,¹¹⁾ 삼성초등학교, 대전 여고와 지금은 헐려진 도립 대전의원, 대전 여중 등이 있었다. 또한 역전에 있었던 대전호텔, 대전관 등을 모던 상업건축양식에 왜색이 첨가된 절충양식의 표적이었다.

3) 165개의 목록

대전의 근대사를 알기 위해 그동안 자료로 찾았던 것은 165개의 건물이었다. 이를 다시 14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1998.9.30, 현재).

9) 1982년 2월 대한건축학회에서는 「현대어민기 건축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를 밝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전역에 신재료 건축물 중 1900년대에 건축된 양식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보고서는 대전의 건축물로 충청남도 도청과 대전경찰서를 선정했다. 대전에서 이 두 건물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10) 철도철 주관, 이상순(李相順) 설계

11) 대전경찰서는 대웅동 496번지에 세워졌다. 1936년 3월 준공되었다. 당시 1,027평에 연건평 302.25평의 2층 벽돌조 건물이었다. 1994년 11월 이 자리에 새 청사를 짓기 위해 이사를 시작했다.(동아일보, 1994.11.20)

〈표-2〉 대전 근·현대건축물 조사목록(현존: ○, 헐림: ×)

■ 관야가 건물군: 28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대전역사(驛舍)-1	대동	X	1904. 6. 준공(木造)
대전자탄장	대동	X	1904
대전구 기관구	대동	X	1904
대전철도 그라운드		X	야구장
대전역사-2		X	1918. 6. 준공(木造)
탁자부 임시재정조사국	×		대전출장소
대전군청사-1		X	1914
대전군청사-2	선희동	X	1930
대덕군청사	선희동	X	1931, 삼성생명
충남도청	선희동	○	1932
진잠면사무소	진잠	X	1931
대전세무소	선희동	X	1934
대전우편국	원동	X	1907, 1911, 1922
일·만(日滿)	장대리	X	
연락전화 유성중계소			
전매국 대전출장소	정동	X	
재판소 검사국	선희동	X	1909, 현 동양백화점
대전지방법원		X	1941, (1938.7.1. 개청) 설계: 朴榮範
수비대		X	1904
한성영사관		X	1904
경찰대전순사주재소			
보병18연대 제3대대	유천동	X	
중부경찰서	대흥동	○	1936. 구 대전경찰서
대전소방서		X	
일본현병대 대전분소	옹두동	X	1908. 8. 문화방송 부근
대전형무소	종촌동	X	1919
대전교도소	종촌동	X	1984. 3. 자유회관 부지
농수산물 검사소	온행동	○	1952(?)
대전농사시험소 축사		O	충남대 농대

■ 금융기관 건물군: 15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상공회의소	은행동	○	1936. 대전공회당(기수)
금융조합연합회 도지부	선희동	X	1923
대전금융조합	삼성동	X	1928. 농협공판장 부근
희덕금융조합	월동	○	1926. 부산파이프
한호농공은행		X	1908
한성은행	월동	X	1912
조선식산은행-1	중동	X	1918, 휴전직후 산업은행지점
산업은행-2	월동	○	1945, 조선신탁 대전지점
동양척식 충남북영업소 ¹²⁾	월동	○	1921.4. 현 신한칠강 소유
한일은행-1	은행동	X	1930, 미나카이(三中井)



대전 최초의 본격적 극장, 대전좌



대전문화원(현재 동양백화점 자리)



1930년대 대전 우체국

백화점 자리			
한일은행-2	O	1953	
상업은행	정동	O	
조흥은행	원동	O	
제일은행	중동	X	1952, 신축건물 공사 중
충남무진주식회사	X		현 국민은행 자리

■ 교육기관 건물군: 22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충남대 문리대	문화동	X	이전
목원대학 신학관	목동	O	1953
목원대학 채플	목동	O	1953, 화재 후 개수목원
목원대학 기숙사	목동	O	1953, 남녀 기숙사
침례신학대학	선화동	O	1953.6, 개교
대전공립중 본관	대흥동	X	1917, 경성중학교 대전 분교실, 1918 개교, 1924 준공, 6·25 파손, 현 대전고
대전상업보습학교		X	1924.7.26~11.26, 공사기간
대전여고	대동	X	1919, 1925.6.4, 화재 소실
대전여고 부인관	대흥동	O	1931
충남여고	선화동	X	1943
대전여중 본관	대흥동	O	1919, 대전공립 실과 고등학교, 1921, 공립 대전고등여학교, 1923 준공
대전여중 벌관	대흥동	O	
대전여중 생활관	대흥동	O	
대전여중 체육관	대흥동	O	1937
원동초등학교	원동	X	대전공립 심상고등소학교, 1906 개교, 1927.12 준공
삼성초등학교 본관	삼성동	O	희덕공립보통학교, 1938 준공, 교육 박물관으로 개 보수
삼성초등학교 강당	삼성동	X	1938 준공, 1991 봄 힐링
신흥초등학교	신흥동	X	1924.4~1925.4
중앙초등학교	선화동	X	1943
대전공립보통학교		X	
미스 보딩(M.P.Bording)			
타이렌 이쿠자엔	?		1941, 윌리엄 메렐 보리 스 (William Merrell Vories, 1880~1964)
대덕교육청	?		

■ 사무소 건물군: 7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충남건축대서시조합	대흥동	X	대전극장 부근
남천전기 대전지점	인동	X	
조선운송 대전지점		X	대전역전
간조(簡組)		X	보문산 산굴공사
말길조(末吉組)	선화동	X	총명상가 부근
도방약	정동	X	이카데미극장 맞은편
이연회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 榮, 후에 일본 수상)가 경영

■ 흥행 건물군: 4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연극장(演劇場)	X	1918, 종교(中橋) 옆 창 고 개조, 김갑순 소유, 남 사당파, 광대파 공연	

대전좌(大田座)	원동	X	1920, 대전백화점 좌측 (本町 1丁目), 1백 석, 일 본인 소유 가부키(歌舞伎) 전용관, 이후 송죽계(松竹 系) 키네마 극장
경심관(警心館)	X		1933.9.12, 현 대전극장 자리, 김갑순 소유
대전극장	중동	O	1935, 현 종영극장, 일본 인 호총(戶塙)

■ 언론사: 4개

간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호남일보사-1	정동	X	1909
호남일보사-2	중동	X	1912
조선중앙신문사		X	자국
구 대전일보사	선화동	X	선화동 31번지, 승리당 (김갑순 소유)

■ 숙박, 온천건물: 10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대전관		X	대전역 앞 목조 3층
대전호텔		X	
봉명관	유성	O	국군휴양소, 계룡호텔(일 본 군인호텔)
승리관	유성	X	1917, 유성호텔 구관
유성 온천	유성	X	1923, 온천장(莊)
유성 관광호텔	유성	O	
만년장 관광호텔	유성	X	현 리비라호텔
중앙여관	정동	X	1930년대 대전 최고의 여 관
성남장	성남동	X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 숙소
화가여관	원동	X	신선부인파 자리

■ 문화계 건물군: 4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대전 미국공보원		X	대전문화원, 동양백화점 자리
조선방송협회 대전방송국		X	KBS 제2공개홀, 연정국 악원
충남여성회관	대흥동	O	
대전톨릭문화센터	대흥동	O	

■ 종교건물군: 11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대전신사-1	소제동	X	1907
대전신사-2	대흥동	X	1928~1929, 현 성모어고 교
동본원사	원동	X	목원대학교 창립지
성 병거 수도원	목동	X	1938
목동성당	목동	O	1919 신설, 1920년대 신축
목동수도원	목동	X	1937
프란치스코회	대흥동	X	1945, 대흥동 본당
성산교회	옹동동	X	
성산교회 목사관	옹동동	O	1930
감리교 감독파교회	?	?	1939, 보리스
작산 단군전	두마면 옹동리	X	1913, 이진택, 620사업 으로 절거 이전 서구 점 립동

■ 병원 건물군: 2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철도병원	소재동	X	1920년대
도립대전의원	대흥동	X	1930, 현 현대아파트

■ 상점 건축물: 13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오복점(吳服店)		X	고후쿠야, 포목점, 목조 2층, 상업은행 자리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	중동	X	조홍은행, 한일은행 부근
자유헌(自由軒)		X	(?) 대전역전 양식점
천성(千城)		X	목척교 부근에 있던 와식상점
대전 어체시장	원동	X	1911
왕생백화점	증동	X	구 후쿠다 여관(福田旅館), 외부 구조체는 여관 그대로
이지자상회	선화동	X	
한성약국	삼성동	O	
역전약국	정동	X	
응접센트 수리점	대흥동	O	
조선홍업회사 대전판리소(?)		X	1904, YMCA 자리
러시아 양복점		X	1930년대, 목조, 현 한일은행 건너편
대학회관		X	양식점, 붉은 벽돌 3층, 대전역 전(김길순 소유)

■ 관사, 주택류: 23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충남도지사 공관	대흥동	O	1932, 6·25 당시 이승만 숙소
충남도 진임(秦任) 관사	대흥동	O	당시의 부장, 과장 관사, 현 국장관 사촌
조선주택영단 사택	선화동	O	34채 중 몇 채 현존
조선주택영단 사택	진동	O	54채 중 몇 채 현존
조선주택영단 사택	성남동(?)	O	몇 채 현존
만칠(滿鐵) 사택	소재동	X	1920년대
철도 복관사	정동(?)	O	몇 채 현존
철도 등관사		O	몇 채 현존(대전역 뒤편)
철도 남관사		O	몇 채 현존(역전광장 오른쪽)
일본육군 관사	대흥동	O	1916, 전신전화국 일대
육군대대장 관사		X	
중학교장 관사		X	
현병대장 관사		X	
형무소 관사		X	
문갑동씨 주택	대흥동	X	2층 주택, 외환은행 자리
중미상차량 주택	원동	X	
보문산입구 주택	대사동	O	몇 채 현존
일본식 주택	대흥동	O	몇 채 현존
일본식 주택	선화동	O	몇 채 현존
Baranoff 주택	원동	X	1942
Black 주택		X	1924
Mellzan 주택		X	1937
타케이마(竹山) 주택	?		1942~1944, 박길룡(朴吉龍) 설계

■ 공장류: 6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연와제와공장	대흥동	X	1912
군제(郡是) ¹²⁾	제사 대전 공장	X	아파트단지화 됨
군제공장 기숙사		O	
홍아방직	삼성동	X	다마다(多田) 설계

십양조장	선화동	X	대전양조공장, 1982 철거
대전파혁회사	정동	X	1935

■ 기타: 16개

건물명	소재지	현존유무	비고
일본인 거류민 공동묘지	선화동	X	1907 개설
목척교(大田橋)		X O	1912, 그리고 종교, 문창교, 대흥교, 동광교 ¹³⁾ , 효도교, 삼성교, 소제교, 신대교, 유성교, 만년교
대전운동장		X	1926
대전비행장		X	1924, 육군비행기 임시착륙장 혼암교 일대
비행장	둔산동	X	현 둔산 신시가지
대전 전기주식회사		X	1911 설립
대전발전소	인동	O	1929~1930 현 한전 대전보급소
대전 제 1발전소		X	
대전유관	정동	O	사창가(私娼街)로 일부 혼존
식장산 저수지		X	1931~1934
여과지 편암동		X	1931~1934, 편암동 양수장
조선미곡 대전창고		X	1932
조선 촉성원에 출하조합		X	
소화인쇄 정동		X	
영열탕		O	1958.6 준공 제막
지사총	옹진동	O	1952

3. 결론

1945년 8·15 해방으로 '대전건축'은 일제 건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 닥쳐 온 1950년 6·25 전쟁은 대전을 주전장화하면서 파괴시켜 버렸다. 대전은 임시수도(臨時首都)로 기능했다. 그러나 대전은 1950년 7월 20일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1970년대부터는 경제부흥과 도시발전이 함께 이뤄짐으로써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행해졌다. 지방 도시들은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들은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파괴되거나 변형되어 갔다. 이제 늦었지만 그 건축물들을 조사하여 시대사와 지역사를 정리하고 그 건축물들의 보존,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대 건축물이 결정짓는 도시의 경관은 그 도시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이제 이 목록의 165개 건축물이 모두 헐리게 되면 대전의 근대성은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건축 사도 양식사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건축사가가 되며 시민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근·현대건축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에만 더 관심을 보인다.

대전의 현대건축은 그 근대건축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2) 일제에 의해 충남북 도지 수령의 본산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대전, 충남북 시민 모두 알고 있다.

13) 현문은 군사적 위험에 일본어로는 '군제'가 된다.

14) 다리 위에는 소화 2번(1927) 10월이라 각인한 글씨가 남아 있다.

대전의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Taejeon

유병우 / 씨엔유건축 소장
by Yu Byeong-Woo

들어가며

1910년대에 경부선과 호남선의 개통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도시인 대전의 건축은 처음에는 도청과 대전역을 잇는 중심축으로 한 중앙통과 대전역에서 남북으로 가로질러 산단진편의 정동, 삼성동과 옥천방향의 원동, 인동의 가로변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축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대전역사(1960, 이상순)를 시점으로 하여 5·16혁명 이후인 60년대 초 중앙통에 고려생명사옥(대흥동), 시민관(선화동, 구 문화원) 등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70년대 초에 운성빌딩(은행동), 경암빌딩(대흥동, 김인호), 구 대전일보사(중동) 등의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대전의 현대건축은 서서히 태동을 하였다. 이즈음 휴양지인 유성은 천 부근에 만년장을 비롯한 대형의 숙박시설들이 먼저 세워졌고, 도심에는 도청부근을 중심으로 한 관공서 건물군에 전신전화국 같은 공공업무시설과 각종 교육시설과 병원, 극장, 교회 등의 대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현대건축이 시작하였으며, 이즈음 대화동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 발전을 가로막던 서대전 지역의 육군병참학교와 63병원, 미군부대(Camp Ames) 등이 철수되면서 큰 대지가 형성되면서 건물의 대형화가 촉진되었다. 70년대 말 갑년 체전 때 많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도심의 개발이 시작되고, 80년대 초에 대덕연구단지의 개발과 갑천변의 공군기교단이 나가면서 둔산지구에 신도시의 개발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발도상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바 있는 1993년도에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현대건축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여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다가 이후 1998년도에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으로 정착되려던 현대건축은 IMF체제의 출발로 담보상태를 이루고 있다.

시대별 구분

대전의 현대건축을 시대별로 크게 구획을 지어 60년대를 태동기로 본다면 70년대는 담보상태를 이루었으며 고속성장을 하던 80년대에 물량위주의 건축이 행하여 졌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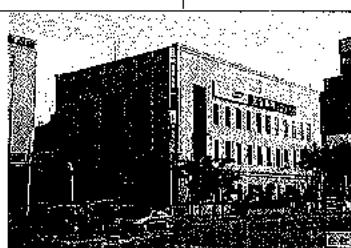
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공서 건물이 주를 이룬다. 이는 도시 형성과정의 전형적인 형태로 관공서 주변의 업무시설을 위주로 하여 상권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주변건물이 등장을하게 된다. 대전시를 한 장으로 나타내는 사진은 보문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눈에 띠는 건물이라고는 후에 개축한 한밭운동장(공간건축, 1979)과 충무체육관(김인호, 1974), 대전중고등학교 교사, 중구청(구 시립도서관) 건물과 멀리 보이는 대전역사가 전부였으며, 나머지는 일반 주택으로 형성된 아담한 도시의 형태였다. 특히 대전역사는 당시 공모에 의하여 진행된 프로젝트로 건물의 형태가 기본적인 모듈에 충실했던 작품으로 대전의 현대건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비교적 종교건축은 활달한 태동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구세군영문(문창동)을 필두로 대흥동성당(1963)이 세워졌으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박만식(충남대) 교수가 계획한 박공지붕의 문창동성당을 비롯하여 정동성당(1982년 철거), 대동성당 등이 세워졌으며 그 외에 농수산물검사소 충남지소(대흥동), 대전여중 서관(대흥동), 대전고등학교 도서관(조정환), 대한결핵협회 대전지부(정진경, 문창동)와 시내에 처음으로 승강기를 설치한 운성빌딩(은행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시내 중심부를 도도히 흐



대전시청사



구 시청(현 삼성화재)



한일은행(구 한국은행)

로는 대전천을 덮어버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목적교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등장해 도심의 중심을 좁혀 주었으며 주거단지로 유천동과 도마동을 비롯한 서부권의 개발이 촉진되어 유등천을 넘어 점차 서쪽 방면으로 뻗어 나갔다. 이즈음 세워진 가톨릭문화회관(지순, 대흥동), 충남학생과학관(이재성, 대흥동), 시민회관(문화동), 대전고속버스터미널(조정환, 용전동), 경암빌딩(김인호, 대흥동), 유천동성당(1979)과 대전성모병원(박만식·이재성, 대흥동), 알루미늄 멀리언을 처음으로 시도한 충청은행 본점(은행동) 등이 세워졌으며, 후반기에 갑년 체전을 즈음하여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들이 양적인 광장을 가져왔다.

80년대에는 정체의 시기를 거쳐서 후반기에는 서울 올림픽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비교적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 교보 대전빌딩(Cesar Pelli 기본안, 1985)을 비롯하여, 원형계단을 중심으로 펼쳐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전대학교 학생회관(이재성·유창열, 1986), 공모에 의하여 진행된 변동성당(송효상, 1988)과 용두동의 총련탑 언덕에 서 있는 성산교회(유병우·박성철, 1989) 등을 들 수 있으며, 유성에는 만년장 자리에 새로이 계획된 호텔 리비라(송기덕, 1988)와 유성관광호텔, 현대리조트(중도건축) 등이 들어섰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간건축(김수근)에서 계획한 두리예식장(장세양, 1990)과 국립중앙박물관(김형만, 1990)을 시작으로 유성의 레스트랑 만나(조성렬, 1992)와 동아리조텔(나한진, 1995), 홍인오피스텔(강영호, 1992), 아드리아호텔(법건축, 1992) 등의 대형 리조텔 형식의 건물군이 형성되었고, 시내에는 동아생명 대전사옥(고려건축, 1996), 그리고 삼성생명(김태선, 대흥동)과 중앙투자신탁(정림건축, 1994), LG증권(조재원, 1997) 등의 금융기관과 대림빌딩(김호, 1993), 수정웨딩홀(나한진 외, 1995), 우송예술회관(박윤웅, 1992), 파출소 건물을 패션화한 은행동파출소(씨엔유건축, 1995)를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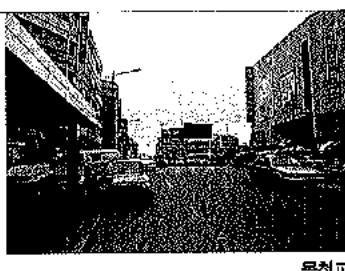
특히 93년도에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면서 한빛탑(한재원+인터디자인, 1993)을 중심으로 정부관(신언학,

1993), 재생조형관(최재은, 1993), 우주탐험관(삼우건축, 1993), 소재관(조춘성, 1993), 전기에너지관(유종성·최용목, 1993), 지구관(이공건축, 1993), 평화우정관(예건축, 1993) 등 많은 전시공간이 다양한 입면과 구조로 영구 전시장이 새로운 공법의 건축물들이 한 번에 등장하여 대전지역의 현대건축에 세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의 중심지역에 공모에 의하여 세워진 대덕과학문화센터(병칠란, 1993), 삼양시연구소(권도웅+Perkins & Will International)와 소박하고 기능적인 건축을 추구하여 97년도에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LG화학 대전연구소(김태수+창조건축, 1997), 우주항공연구소, 도로면에 강한 파사드로 스크린을 형성한 한국이동통신 대덕연구원(한현호, 1997), 원과 사각형의 조화로운 만남을 시도한 데이콤연구소(정림건축, 1993) 등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서면서 대전의 현대건축에 질적인 향상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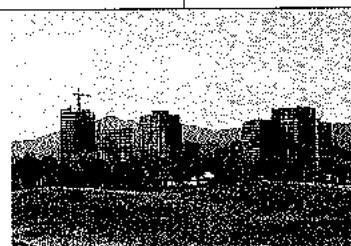
둔산지구가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 많은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분양되면서 이의 수요에 따른 창고형 대형 마트인 까르푸(이영희, 1996)와 마크로(이원석, 1997)와 동양 타임월드(연미건축, 1997)가 등장하고,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지던 서대전역 부근에 세이백화점(간삼, 1996)과 프라يس클럽이 등장하여 대형 마켓이 의미없는 건축물의 대형화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비록 개발을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둔산지구에는 3,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연금 대전회관(인터플랜, 1996), 신세계통신 대전사옥(POS-AC, 심인보, 1996), 대전상공회관(김창일, 1995), 한국통신 둔산사옥(공간 정종영, 1995), 쌍용증권(김수근, 1997), 대우증권(엄웅, 1995), 신용협동조합 대전연합회관(정진건축, 1997) 등의 중대형의 사옥이 앞을 다투며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도심으로의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 준공되어 이전을 마친 중앙의 개방된 중심공간의 중심으로 네 개의 동으로 분산시킨 최첨단기능 건물인 정부대전청사(삼우건축+전동훈, 1997)를 비롯하여 부근에 동일축 상으로 신축 공사중인 대전시청사(박윤웅+이인호), 그리고 전면의 시학연금 대전둔산회관(정림건축, 1988)과



록취교



유성 원경



변동 성당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 총청 하니은행(첨탑건축), 법원 검찰청사 등이 앞으로 새로운 대전의 신도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주거시설은 70년대 말경부터 연구단지 내에 대형의 단독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대단위 공동주택은 60년대 말경 비례동에 처음으로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공동주택단지가 등장하였으며, 대사동의 12층짜리 보문맨션(김종민)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고층화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는 삼부맨션(태평동), 경남아파트(도마동)와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기장동, 산내, 판암동, 문화동, 중촌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둔산지구와 엑스포아파트(아카풀코)까지 대규모 주거단지가 이루어져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로 주거양식이 대부분이 변화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노은주거단지와 앞으로 서남권에 대규모의 단지가 계속해서 조성될 예정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시대별로 형성되어온 대전의 현대건축을 살펴보면 별다른 특징 없이 일반적인 도시발전의 형태에 의하여 세워졌다. 구태여 특장을 듣는다면 서울의 건축이 '세계화'를 추진할 때에 '서울화'를 담습할 정도이었다.

한때는 모방건축이 성행하기도 하였으며 필요 없는 유행으로 가벽이 설치되는 등의 과잉반응을 보이다가 둔산지구가 개발되면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타의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에 적합하게 이상한 형태의 건축문화가 생성되어 역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재료의 사용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표현되어 일률적인 입면으로 표출되고 있어 입면이 건물 자체의 평면이나 기능에 의하여 구성되기보다는 재료에 의한 형태구성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물은 회강식판과 메탈과 유리로 획일화되는 느낌이고 특히 학교건축은 적벽돌로 마감을 통일한 듯하여 다양한 입면의 구성이 불가능한 편의주의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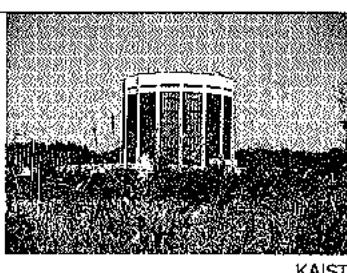
다행스러운 것은 둔산지구와 대덕연구단지에 세워졌거나 새로이 계획되는 건축물들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

임이 있어서 이에 따라 대전의 현대건축은 보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쉽게 의도되었던 상업적인 이윤추구보다도 사회적 기여에 점차로 비중을 둔 건축물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전건축의 지역성을 탈피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총체적인 건축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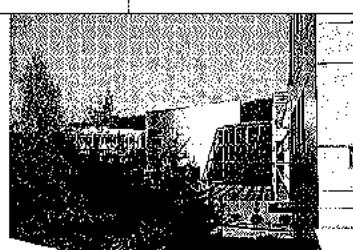
생활공간을 경시하는 풍조는 주변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시민', '지자체', '건축사'가 삼위일체 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은 건축이 예술문화라는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연계성이 있는 건축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전문가의 아이디어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작은 아름다움은 시민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문화와 풍습, 관습 등의 배경이 다른데 일률적인 통제는 자기 주장만을 지속적으로 답습하게 된다. 행위의 대상자인 '건축사'는 주체가 되어서 도시 이벤트를 제공할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만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비평이 존재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음으로 인하여 건축주의 보존 의지는 감소하고 오직 사용의 불편만이 부각되어 칠거의지만 발생하여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기존 건축물을 보다 알고 이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활동으로 보고 지나는 건축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건축이 될 수 있다.



KAIST



삼양사연구소



동양백화점

21세기 대전건축의 주역 The Major Players of Taejeon's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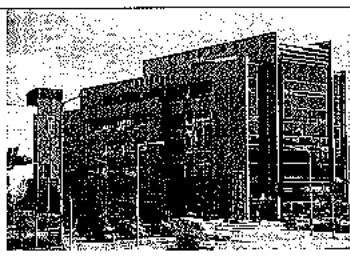
송용호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Song Yong-Ho

편집디렉터의 원고청탁을 수락한 후에 삼십대 건축가들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대표적인 작품이요' 하고 자신있게 나설 이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의 작가적 입장은 이렇소' 하고 특정하게 어떤 이를 내세우기도 마땅치 않고... 하는 등등의 생각으로 여간 고민 한 게 아니다. 별 뾰족한 수없이 시간만 촉ね다가 원고독촉을 몇 번 받은 끝에 궁여지책으로 삼십대 중반의 건축가 몇몇을 우선 만나보기로 했다. 만나서 지역건축에 대한 관심사들을 나누다 보면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겠지? 삼십대중반을 잡은 것은 중반이라는 것이 막연하거나마 평균적인 연령의 대표성을 떠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추석 전에 제자인 이풍숙(한건축사사무소) 소장에게 모임주선을 부탁하였더니 '연휴기간이라 연락하기가 어려우니 추석연휴가 끝난 후에 만나자'는 전갈이었다. 연휴가 끝난 다음날 여러 건축사들이 출연하여 만든 주식회사 한빌건축 회의실에서 모임을 주선한 이 소장과 권목기 건축사(주식회사 한빌건축에서는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구성원의 호칭을 특별한 직명없이 그냥 건축사로 부른다)와 강석관(한빌건축) 대리를 만났다. 재미있는 일은 열살 단위로 구분하는 삼십 줄 연령대의 대표성을 삼십대중반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주선된 모임에 대한 신의 조크였는지 아니면 도우심이었는지 우연하게도 권 건축사(삼십대후반)와 이 소장(삼십 대중반)과 강 대리(삼십대초반)는 대전지역의 삼십대건축가들의 초, 중, 후반에서 각각 한 명씩 나온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서는 적어도 삼십대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 셈이다. 오랜 망설임과 기다림 끝에 시작된 사십대와 삼십대의 대회는 짧지만 그러나 진지한 만남의 자리였다.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말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상대방이 '적정한 정도의 신상프로필을 갖고 있는가?'는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의 대담도 이 신상프로필 확인으로 말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대전의 삼십대건축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적·시대적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또한 이들이 걸어지고 펼쳐나갈 대전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이 지역 건축가들의 잠재적 능력 및 그 개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기대하고 있는지? 와 이외의 대전에서 벌어질 모든 도시건축적 사항들을 세 사람의 학자들로부터 신빙성있게 꿰어내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석한 건축가들에게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또 전에 작업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느 것인가?' 와 결들여 본인의 건축적 가치관부터 물어보았다.

권 건축사는 '실무라는 차원,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것들과 지면과 책자 등에서 이야기되는 건축이론적 전개나 사고 또는 건축 철학적 개념들이 난무한다. 그 속에서 우리가 프로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도 어렵고 어느 정도 깊이있게 해야하는지는 다만 작업 과정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하느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능이나 경제성 또는 건축주의 요구조건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기가 건축가라고 멋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업을 해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 대한 처방으로 '건축인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과 '이런 현상들을 극복 할 수 있는 큰 스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의 안식은 결국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얻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건축가 자신의 노력이 동반될 때 주위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건축적 관심사가 '건축물과 땅의 관계와 같은 건축의 관계성과 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동양 타임월드



비화점 Say

벽 등의 형태적 처리 등등에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그가 참여했던 기억할 만한 작품으로 장곡경, 일사빌딩 프로젝트를 꼽았고, 현재 '유성구청 스포츠센터의 현상설계경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충남대학교 83학번 84학번들이 주축이 된 구가라는 그룹활동을 통해 멤버들이 각자의 건축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한 관심사는 대전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대전건축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무엇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대전건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건축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모던건축의 발전과정 등 근대건축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있다. 디자인캠프 9차와 10차에 투터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의 학교건축교육이 건축실무를 할 때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실무를 하다보면 경제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건축설계안은 매우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그 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내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다'며 '현실적인 조건에 부응할 것'을 희망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축사 수는 이미 만 명을 돌파해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선진국 수준이나 건축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나름대로의 건축활동 환경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다. 그의 건축적인 관심은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능의 종족이 선행되는 형태의 이미지 구현, 건축물의 주변과의 맥락에 대한 고려, 지역성의 건축에 대한 반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했던 작품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 판암동 성당, 부여 K씨 주택, 그리고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건축관을 모두 쓸 아부었다며 대덕문예회관현상 출품작을 설명한다.

강 대리는 '동아공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목원대학 그리고 서울의 건축사사무소 양기주망에서 수련했다. 공고, 대학, 사무소를 거치면서 각각의 경우마다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단계마다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감을 느꼈다. 특히 양기주망에서는 여러 가지 설계에 많이 참여했는데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고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건축 자료, 예술 둘면 흙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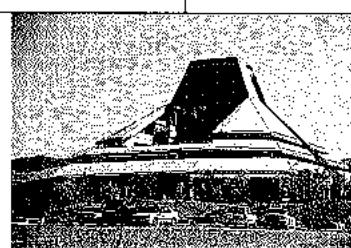
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등을 연구하고 싶어한다. 아직은 실무의 경력이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가 대단하다. 참여했던 것 중에서 서산 수석장로교회를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았다.

21세기 전반기 미래의 건축은 지금은 삼십대 인 젊은 건축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들이 건축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꽂피울 수 있도록 쾌적한 건축활동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동시에 향후의 세계적 무한경쟁에서 우리의 도시 건축문화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적 도시건축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 건축사, 이 소장, 강 대리와 대담을 나누면서 이들의 말에서 뿐어져 나오는 열정이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삼십대의 건축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대전의 도시 건축의 앞날이 밝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런 열정과 사상을 갖게 된 건축적 토양과 자양분은 어떠한 것일까? 독불장군 없듯이 이들이 그만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기까지는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건축 전문가 단체들의 왕성한 그룹활동이 그 배경이 된다. 대전과 대전 근교에 10여 개의 4년제 정규대학에 건축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오늘날 대학의 정규 건축교육은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판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다만 여기서는 대학교육이 미친 영향이나 공과는 논외로 하고 삼십대의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단체 및 그룹활동들을 위주로 살펴본다.

가장 큰 그룹활동의 출기는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연구원 설계학교의 디자인캠프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투터포럼이다. 설계학교장 김익중 교수의 리더십으로 대전의 삼십대 젊은 건축가들이 교수이든 건축사이든 총집결해서 이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일규(우송대) · 한필원(한남대) · 이관섭(한남대) · 김도식(목원대) 교수, 권숙기 건축사, 유병구(CNU건축) · 강희완(조형건축) 소장, 고성희(서울대 박사과정)씨 등의 삼십대들이 운영위원이다. 투터



화연산(충남대)



풍송 청소년 수련원



대덕연구단지(동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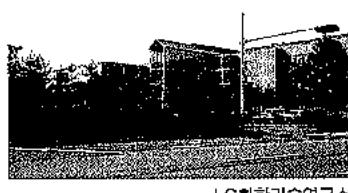
포럼은 39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선발된 멤버들이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캠프에서 점예건축가 양성을 위한 튜터로 봉사하게 된다.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엄, 현상설계 공모전을 수시 개최함으로써 지역 건축인들의 전문성 고양, 지역의 특성 있는 자료의 발굴 및 축적, 입상한 건축학도들의 시상을 통한 설계 의욕 고취 등의 그룹활동을 활발하게 벌리고 있다.

또 다른 그룹활동의 줄기는 대전건축연구재단 연구원 학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스터디그룹 활동이다. 송하영(대전산업대) 교수가 리드하는 시공분야, 최중현(우송대) 교수가 리드하는 CAD분야, 최 올(건양대) 교수가 리드하는 IBS분야, 오덕성(충남대) 교수가 리드하는 도시설계분야, 신경재(한남대) 교수가 리드하는 구조분야 등의 5개 그룹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삼십대 건축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들 스터디그룹들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활동의 결과를 연구보고서나 전문서적 등으로 출간할 예정들이다. 한편 삼십대 이상의 건축가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대학내의 파외활동그룹들을 간단하게 개괄해 보면 한남대의 시공간, 목원대의 제네바, 충남대의 구가 등을 비롯하여 각 대학마다 여러 개씩의 작품작업실 및 연구서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릇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뜻은 곧 의지이니 관심의 동인이 된다. 바꿔 말하자면 관심이 없으면 뜻을 들 수도 없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어디에 뜻을 두는가? 말 할 나위 없이 훌륭한 건물을 생산하는 데에 뜻을 둔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된다. 곧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건축가가 성공하는 길이다. 건축가가 아닌 일반인도 물건에 관심이 많을 진데 하물며 좋은 건축을 생산하는데 뜻을 둔 건축가들에게는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더욱이 다른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건축공부며 건축에는 건축가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다.

이런 생각에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대전지역의 삼십대 건축가들은 '도대체 어떤 건물에 관심을 갖는가?' 를 알아보기 위해 권, 이, 강 세 젊은 건축가에게 질문했다. '대전에

서 최근에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건물은 어느 것인가? 마음에 들어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가는 것도 말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강 대리가 '공들여 다듬은 것으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물의 깔끔함이 눈에 띈다'고 하자, 이 소장이 건물과 주변도로의 축의 관계 설정, 내부공간과 건물형태가 구조체계와 잘 맞아 떨어졌다 고 얼른 그 말에 동조한다. 그러자 권 건축사가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과 영향을 갖고 도시적 공공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비교 분석해 보고 싶은 것'으로 동양 타임월드 백화점과 세이백화점을 예로 든다. 이 소장은 '충남대학교 학연산 교육연구동은 학교내의 다른 건물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평송수련원이 주는 이미지는 그 건물의 중요도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건물들과 주변여건의 조화에 관심을 표한다. 이를 세 사람의 젊은 건축가는 끊임없이 건물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각각에 대하여 본인들의 좋고 나쁜 느낌들을 토로 해낸다. 대덕연구단지의 동부그룹연구소, LG연구소 등에 대한 고도의 관심표명과 둔산 신시가지의 충청 하나 은행 등의 고층 오피스건물들, 제3정부종합청사, 대전시청사, 지방법원 등의 관공서 건물들의 도시적 이미지에 대한 '저 건물들의 설계자들이 저 자리에 다시 설계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형태와 대로 할까?'라는 시니컬한 비판적 발언, 한편으로는 좀 오래된 것들로 구시가지의 도청건물, 천주교 대흥동 성당 건너편의 농업시험소 건물, 원동 사거리 북동쪽의 건물의 형태적 특이성 등등에 대하여 얘기하느라 끝이 없다. 이 얼마나 큰 젊은 삼십대 건축가들의 지역건축 및 도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권 건축사, 이 소장, 강 대리 이들 3인의 선발된 대표 아닌 대표자들과 3시간 가량의 대화와 그들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그들이 속한 대전지역 삼십대 건축가들의 건축작업에 대한 열기와 사상과 활동을 그리고 바라는 비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음악에 비유하여 볼 때 그들이 지금 열파 성을 기울여 활동하는 모습은 대전의 21세기 도시와 건축의 빛나는 모습을 알리는 전주곡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관계로 그들이 제시한 여러 건축가, 단체 및 그룹의 명단과 활동내역을 살피 히 게재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LG화학기술연구소



대전대학교 학생회관



둔산 신시가지
(충청 하나은행, 사학연금 둔산회관)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The Potential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김억중 /편집디렉터,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Eok-Jung

1.

대전 중앙로변의 아력을 살펴보면 우리네 삶의 질곡만큼이나 파란만장하다. 불과 40여년 사이에 격변해 있는 모습과 옛 자취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 때국물을 닦기도 전에 껌데기 옷만 신식으로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좌충우돌 혼자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로변 풍경은 아직도 중, 소규모 3~6층이 대중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필지병합을 통한 거대규모의 매스들이 표진해오고 있는 형국으로 이른 바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어떠한 변화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바람직한 변화란 무엇인가? 무엇이 그러한 변화의 원인과 배경인가? 건물은 도시의 변화를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60여년의 도시건축 경험은 신시가지에 어떠한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채워지고 있는 건물들은 과연 변화를 의식하면서 지어지고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광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번 대전 지역건축탐방의 주제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던 것은 뭔가 신선한 논리로 새로운 전략이나 대안을 드러내기보다는 위와 같은 수많은 의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곧 우리 도시건축의 미래를 진솔하게 생각해 보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우리 도시의 변화는 분명 개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전체의 흐름과 정후는 하나의 공통된 기제 하에서 파악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도시건축물은 허울 좋은 파사드일 뿐 그 배후에는 돈이라는 메카니즘이 풀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네 도시건축은 “돈아래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하게” 모여져 있는 모습을 떨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빛은 광택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듯하다. 광택은 문명의 상징이요 진보의 기표이다. 돈이 지나간 자리는 예외없이 광택이 나기 마련이지만 역으

로 광택을 냈으므로써 자기를 증식시키는 유전법칙을 지닌 것 또한 돈의 메카니즘이 아니던가?

임용빈 교수는 “대전 도시발전의 전망과 대책”에서 둔산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건축 과제를 문화적 차원으로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어 기존의 도시발전을 깊들여온 천박한 경제원리의 지배 풍토를 비판해 주고 있다.

3.

반면 광택은 때국물이나 흔적을 지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거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광택은 시간 속에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광택을 내야하는 숙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대전도 어느 대도시 못지 않게 광택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괴와 신축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 고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역사의 적층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시키거나 마모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지워져 왔다. 도시건축물은 그 시대의 삶의 증거들로 남지도 못하며,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에 디름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까운 과거 - 이를테면 30여년 전 -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묘한 피해의식 - “우리의 근대건축은 배고풀 때 한 것들이라 모두 사이비요 어설풀 것이다”라는 인상과 맞물려 있다 - 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파괴하고 신축하는 일에는 일말의 뉘우침조차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정동 교수의 “대전의 근대, 현대 건축”에서 시도한 리스트 작업은 너무도 소중하기만 하다.

돈은 역사도 서슴없이 밀어내고 갈아치운다. 지금 우리는 우리 도시의 광택내기를 우리 세대에 마치 끝내기라도 할 것처럼 -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조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가? -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돈은 후손을 생각하게 하는 한치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다.

더욱 기증스러운 것은 돈이 문화라는 편리한 옷을 걸쳐 입고 살펴댈 때이다. 기억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런 사고방식이라고 수치심을 자극하면서 속삭여 댄다. 나이가어서는 “지금 이대로가 최고”라고 설득하면서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도록 세뇌한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건축도 이제는 패션이라고 선언할 만큼 문화적으로 성숙하게 됐다고 자긍심을 불어 넣는다. 여기에 또한 신축·파괴의 순환고리가 마치 시대의 요청인 것처럼 그 담위성을 확보하려 든다. 그리하여 껌데기만의 변화를 부추겨. 거리엔 ‘인테리어’ 풍의 캐주얼한 파사드가 세련됨을 뽐내면서 호들갑스럽게 늘어가고 있다.

도시의 변화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미지 자체가 늘 부유하고 인정되지 못하다면 우리의 장소감각은 어떻게

적응해야만 하는가? 게다가 우리 도시는 전체가 곧 건축현장처럼 뒤범벅되어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며, 파괴와 신축을 반복하며 발생되는 생돈을 그만 촉출할 수는 없는 것일까?

고성희 선생의 “도시의 일상”에 대한 글은 그러한 변화조차 따스한 시선으로 어우르고 있어, 도시민의 삶에 필요한 건축적 장치에 주목함으로써 그 또한 잠재력의 단면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4.

우리 도시는 지난 시대에 가꿔왔던 추억과 상상력의 질료를 완전히 거둘나 버리고 있는 중이다. 한 시절 소중한 줄 모른 채 값 잘 쳐준다고 골동풀 팔아 없애던 시대의 의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없애려는 내용만 바꾸어 급기야 집파거리를 미구 파헤치고 있는 셈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추억의 근거를 달 수 없는 절체불명의 외계인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지도에 그려진 이름만의 고향은 있으되 기억의 실체가 증발해 버리고 광택만이 섬뜩한 고향, 진짜 실향민은 우리네 도시인인 것이다. 실향민 찾기에 열을 올리는 순간 더 많은 진짜(돌이가 봐야 별볼일 없는) 실향민이 태어나는 아이러니…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래도 덜 우둔한 편인지도 모르겠다.

한상수 교수의 “대전시의 풍속과 역사”에 대한 개관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억을 생생하게 복원하는 작업으로 지금의 상황이 미래의 소중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5.

우리는 과연 우리 모두가 얼마큼 실향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걸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 건축가들은 건축이 “추억의 질료”를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있는 것일까? 자신의 건축이 어쩌면 “도시 역사의 질료”로 남아있게 될 끔찍한 부담감을 느끼기라도 하는 것인가?

도시건축이 필연적으로 “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인 조건을 얼마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실향을 해결하는 열쇠로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이겨낼 만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도시 형태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프로그램이 바뀌면 파괴의 숙명을 안개 되는 건물이 아니라 고유의 이미지를 커다랗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를 모색해야만 한다. 언제까지나 임시방편의 건축 행위로 인해 파괴와 신축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가?

우리는 도시건축 속에 ‘변하는 것’과 ‘남은 것’

사이의 관계가 이뤄내는 역사와 광택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미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도시와 건축을 하나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다시 우리의 주거와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 함께 더불어 생명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공공의 가치요 덕목이라 할 때 그에 걸맞은 제도(Software)를 아무리 잘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도시의 공간구조(Hardware)안에서 약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궁금불일 뿐이다.

참다운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주거의 질은 법 전에 보장되는 권리만으로는 무의미하다. 그 권리는 거리에서 쉽게 체험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집안의 창문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집밖의 정경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부심과 궁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유려한 말만의 역사로는 미흡하다. Victor Hugo가 역사는 글로도 쓰여지지만 건축으로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을 지으며 도시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유병우 소장은 다소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전의 현대건축”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선정해 평가하였으며, 송용호 교수는 대전 도시건축연구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 지역 30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뇌와 분투를 어실히 기록해 주었다.

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과제
The Prospect and Task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임양빈 / 건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im Yang-Bin

태전의 출발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 가운데 대전만큼 빠른 성장을 이루한 도시도 없을 것이다. 1904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된 대전의 성장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1973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기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을 끝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 시작된 대덕연구단지의 조성과 1970년대 후반 행정수도의 중부권 이전 논의, 1980년 대 3군본부의 계룡대 이전, 둔산 신시가지 개발, 직할시 승격, 1990년대 대전엑스포 개최와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을 이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전의 성장은 도시 자체가
지닌 내발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이 있다. 사실 대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
국 단위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전을
연고로 한 프로팀을 살펴보면 웬지 억지 춘향격임을 느끼는 데
서도 알 수 있다.

즉 내부역량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확충하기보다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점에 무임승차한 느낌을 자울 수 없다.

대표적인 지역개발과 건축활동 역시 지역의 중심세력 및 기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업의 성격상 중앙의 자본이 지출하는 특성을 보여 왔다. 바로 여기에 대전 도

시건축의 한계가 있고 스스로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논리 개발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대전의 전체 인구 가운데 토착인구는 약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수치는 영호남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1980년대 대덕연구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연구원들은 대전에 정착하기보다는 서울을 본거지로 한 채 한동안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연구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고 연구원 및 그 가족들의 현지인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 대전은 새로운 과제를 얻게 되었다.

지난 8월말 이전 완료된 정부대전청사는 4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합해 8만여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주거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각종 생활편익시설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인화에 많은 기간이 걸렸다. 그러나 청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든 것이 거의 원벽하게 갖추어진 상황에서 근무지를 옮겼으므로 이들이 보다 빠른 기간 내 대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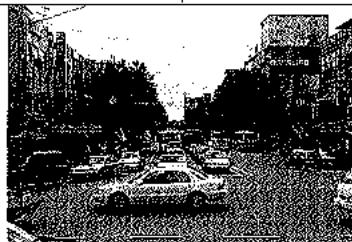
그 동안 대전은 몸집에 비해 장년기 도사로서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성숙을 모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전시민들은 벌 생각없
이 텃밭을 내 주곤 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구는 어느덧 130
만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과연 대전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주체성과 시민의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오히려 대도시에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개별성과 익명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이 아직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시민이란 귀속감을 혼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논의는 대전도시건축의 장래를 주도하는데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 하는 일정한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곡주 → 툰산 들어오는 길



대전역 ... 시청 View



도청 액션 달가

좁은 땅덩어리에 함께 사는 방법

장래 대전의 도시건축을 논의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신화(Myth)가 있다. 이제 환경에 대한 논의는 특정 분야의 영역을 벗어났으며, 도시건축에서도 기존의 논의대상을 도시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재구성해야만 한다.

대형건축물의 건축심의를 하다보면 자주 용적률이 도마 위에 오른다. 둔산지역의 경우 몇몇 공공건물들이 지구의 랜드마크(Landmark)로 어느 정도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은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법이 보장하는 용적률을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건축외적인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형 업무용 건축물이 도심의 주요 교통유발시설이라는 원죄가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시민의 존재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통문제를 논의하면서 보행자의 권익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이고,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만을 위해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건축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둔산지역의 대형 업무용 건축물은 대부분 1,000%이하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다. 건축주들이 혹시라도 완공후 공실률(空室率)이 높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정도의 용적률 확보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용적률 적용이 관행이라면 그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둔산 시가지에서 건물 층수가 25층이나 30층이나 하는 문제는 이미 인간 척도(Human Scale)를 벗어난 문제로 실제 시가지를 걷는 보행자의 관점에서는 건물의 층수가 25층이 되었든 또는 30층이 되었든 수직적 시계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전면 폭이 너무 길지 않고, 건물 사이에 많은 틈이 확보됨으로써 음영공간이 계속 형성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건물을 수평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간적인 페쇄감을 느끼지 않은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용적률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동양백화점 사거리 지하상가



시청 식당가

구(舊)도심의 공동화현상과 재개발방식

지난 8월말경 정부대전청사에 8개 외청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대전은 국토의 중핵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함께 지리적 이점에 절대적으로 힘입은 바 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둔산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정부청사를 비롯하여 대전시청사, 법원 및 경찰청사, 경찰청, 교육청과 그 밖에 관련 업무기관 등 주요 도시기능을 확보함에 따라 대전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대전은 이러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대전의 역사성을 지닌 구도심권의 쇠락이 바로 그것이다.

대전이 지니고 있는 도시기능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다핵(多核)으로 이루어진 공간구조가 아닌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핵구조는 신도심개발시 기존 기능의 분산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그러나 대전시청의 이전을 필두로 한 주요 행정기능의 연쇄 이전은 공간체계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대전시청을 이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단지 시청사가 비좁고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신도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는가? 이제 구도심권의 행정 및 공공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으며 둔산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천년 초반경 구도심에는 주로 상업 및 서비스기능만이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전도시건축연구원에서는 98년초 도심재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기초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구도심의 재개발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흔히 행해졌던 면(面)적인 전면 재개발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재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종합적인 계획하에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한 점(點)적인 부분재개발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주요 거점을 잇는 선(線)적인 재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대상지역으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소재동, 신안동, 대동을 잇는 선과 중동, 은행동, 대흥동을 잇는 선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은행동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선적인



대전정부청사

(표 1) 구역별 개발규모 및 기능배분(대전역 인근 지역)

구역명	면적(km ²)	주기능	부기능
계	495.950	-	-
삼성4구역	112.320	주거	판매, 공공문화
소제1구역	64.470	업무, 판매	숙박위락
소제2구역	54.190	업무	위락, 판매
성남구역	62.240	주거, 판매	위락
신안1구역	41.630	업무, 판매	숙박위락
신안2구역	33.280	업무, 공공문화	위생보건, 판매
신안3구역	61.010	판매, 공공문화	숙박위락, 주거
대동구역	51.820	판매, 숙박위락	주거, 개인서비스

도심조성의 실례가 된다. 이 곳에서는 도심의 보행인구를 유인하여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자본의 투입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새로운 보행인구를 유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증가된 보행인구는 주변 지역의 상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토지이용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적인 도심공간은 면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도심재개발을 논의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대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 대상으로는 역시 대전역과 전면광장, 인근 중앙시장 등이 될 것이다. 대전에 관련된 대중가요로써 널리 알려진 '대전브루스'의 가사 한 구절 '대전발 0시50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의 이미지는 대전역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또한 대전은 대전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상징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 대전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도심재개발의 핵심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고속철도 대전역시가 기존 대전역에 신축되는 것을 포함한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동구 및 중구에 거주하는 대전 토박이의 아픈 가슴이 조금은 위로 받았을 것이다.

서남부권개발과 삼세계획의 운용방안

대전광역시는 장래 유일한 토지개발자원인 서

남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며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서남부생활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일원 25.45km²(약 770만평)에 계획인구는 48.8만명으로 인구밀도는 총밀도 180인/ha이고, 순밀도 500~600인/ha이다.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남부생활권 지역이 기존 도심과 둑산 신도심과 삼각구도를 이루어 21세기의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 서남부생활권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시의 서구·유성구 지역에 걸쳐 있는 바 이곳에는 관저지구, 가수원지구, 교촌지구, 진잠지구, 학하지구 등이 포함되며 유성지역의 봉명, 장대지구와 노은지구가 포함된다.

당해지역은 대규모의 미개발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지역간 간선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상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또한 대전이 지난 국토종심부의 이점을 감안할 때 이곳은 중부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물류유통의 광역적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계획구역의 62%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갑천변으로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상업지역은 유성지역 일부에 지정되어 관광특구의 3차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가수원, 관저, 학하, 노은, 유성일부 지역이다.

한편 삼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서남부생활권의 비량적한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둑산지역의 도시설계·삼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상업용지의 획지분할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의 강화로 인해 소요 주차대수를 기계식주차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 기계식주차가 어려운 소규모 필지가 있다. 또한 용도별 단위 필지 규모와 적정성 여부를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도로의 사선제한, 건폐율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용도규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의 일정 비율(40%이하)을 비주거용으로 허용함에 따라 주거부분의 용도가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삼천동 및 탄방동의 지구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말았다. 지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준거지, 상업 및 기타 용지별로 적절한 용도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서남부권의 용도배분은 구도심



관저지구 아파트



샘터리공원



대전 1, 2공단

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둔산지역과 상충되지 않도록 배분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둔산지역을 도시설계 또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의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제도적 위상과 내용, 전문분야로서의 위치정립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도시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별통치악으로 인식하고 서남부생활권에 지구 지정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관련전문가집단은 도시의 미래상이나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장래 수주에 만 관심을 갖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아직도 제 자리 를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환경 조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건축과 도시계획, 그리고 조경분야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도시설계를 이해하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설계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와 건축가의 좌표

대전 제1, 2공업단지가 위치한 대화동은 80년 대 중반까지는 대전의 외곽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신탄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고 차츰 회덕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면서 요즘은 주변지역과 잘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곳은 변변한 제조업체 하나 없던 시절, 그래도 대전경제의 숨통을 트여 주던 곳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간의 확대에 의해서건 혹은 시설의 노후화에 의해서건 기존 기능이 쇠퇴하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새로운 공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신탄진지역에는 대전 제3, 4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대전시는 인근에 대전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결과

〈표 2〉 상세계획 수립대상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면적(평)	구성비	비고
총 계	15,153,847	4,584,039	100.0	
주거용지	소 계	5,293,953	1,601,421	34.9
	단 독	244,586	73,987	1.6
	중 주 거	233,476	70,626	1.5
	공 동	4,815,891	1,456,807	31.8
상업용지	697,838	211,096	1.5	
공공용지	소 계	9,126,056	2,771,522	60.5
	근린공원	3,264,826	1,906,510	23.9
	어린이공원	83,915	25,384	0.6
	자연녹지	518,878	156,961	3.4
	공공공지	631,806	191,121	4.2
	하천	465,491	140,811	3.1
	공용의정사	128,015	38,725	0.8
	교육시설	596,187	180,347	3.9
	문화시설	46,994	14,216	0.3
	주차장	70,734	21,397	0.5
도로	2995,210	906,051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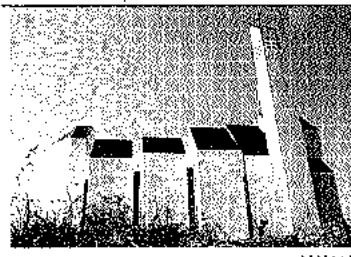
자료: 서남부생활권 상세계획 수립용역, 대전광역시, 1997

를 생산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동 1, 2공업단지의 현실적인 처리방안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이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제 세 번째의 새로운 천년 대를 목전에 둔 우리는 각종 정보망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 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산업생산력의 팔목할 만한 증대와 자본주의의 성숙, 그 가운데 겪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회주의의 확산과 몰락, 국경 없는 경제로 표현되는 무한 경쟁시대 등 실로 수많은 사건과 변화로 20세기는 점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건축가의 마음은 한편으로 무심하고 또는 당황스러워 보인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원격통신기술과 서비스에



총인호텔 옆 녹지공원



성산교회



동아증권 대전사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정보시대에 대한 논의는 바로 필요한 정보와 시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일어나고 변화가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포드주의(Fordism)의 쇠퇴 및 이를 대신하는 포스트 포드주의(Post Fordism)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진 건축행위를 포드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건축가는 대량 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건축인들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을까? 단순히 재택근무, 가상도시, 멀티미디어, 원격통신 등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신화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아닐까? 장구한 인류역사를 반추해 보면 새로운 질서와 오래된 질서간의 관계는 꽤 오랜 기간동안 확장과 함께 중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여왔다. 예컨대 산업화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도 농업은 제조업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으며, 또 대체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농업 및 제조업의 비중을 앞지르겠지만 서비스업에 의한 농업 및 제조업의 완전 대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구의 많은 도시들은 이제 단순한 장소의 판촉에서 진일보하여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의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적 유산이 그 생산의 배경이나 의미와 관계없이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다. 도시경제의 비교우위로써 상품화된 문화란 지난 30여년 동안의 세계산업자본의 재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많은 산업의 입지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자 천연자원이나 값싼 노동력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더 이상 주요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소의 독특성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이 도시의 매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고, 많은 도시들이 사회 및 문화적 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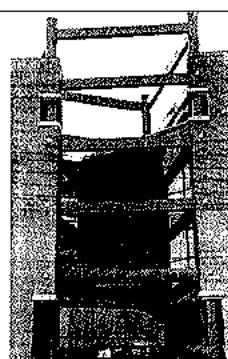
그렇다면 21세기를 눈 앞에 둔 대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전 1, 2공단을 용도폐기하고 대형 아파-

트건설업체를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디를 통해 문화가 깃든 도시상품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그 곳으로 시청을 이전하고 현대식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시의 미래상이 얘기되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질은 정말 나아지고 있는지… 구시가지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구도심에 있는 기능 기운데 재활용할 만한 것, 특히 그 가운데에서 신도심이 흡수하고 싶어도 흡수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 이를 재적용 방식을 이용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논의는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대전을 사랑하고 건축을 아끼며 도시공간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대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건축의 역할

1988년 대전지역 건축학과 교수 및 소장 건축가의 주도하에 시작된 디자인캠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들은 디자인캠프를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 끝에 건축 3단체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건축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것이 바로 1995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도시건축 연구재단의 설립배경이다. 한편 재단의 설립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산하에 연구원을 두고 있다. 대전도시건축연구원에서는 건축실무와 연구 및 교육에 참여하는 건축가를 위한 공동의 징을 마련하고, 특히 각 분야별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 모임은 연구원의 세부 조직의 하나인 학술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IBS, CAD, 건축시공, 건축구조, 도시설계 등 다섯 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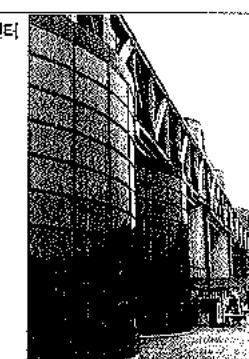
그동안 지역 건축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구원의 활동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적된 내부역량을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심포지엄도 건축인들의 활동이 기존 영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역건축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함께 논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다.



두리에식장



중앙투자신탁 본사



대덕과학문화센터

좌담: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The Potential of Taejeon's Urban Architecture

일 시 / 1998년 10월 12일 14:00~18:00
장 소 / 목원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강당
참석자 / 송용호(사회/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종현(지정토론/세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남정일(대전광역시 건축과장)
박일호(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여태석(한밭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성희(지정토론/아카비전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종국(지정토론/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조대우(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하한기(신화엔지니어링 기술이사)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송용호교수)

좌담회는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 연구원 주최의 '98 정기 심포지엄으로 개최되었다. 제1부 개회식에 이어, 제2부는 김억중(한남대 건축과 교수)의 사회로 "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대책 - 임양빈(건양대 건축과 교수)"과 "대전의 근·현대 건축 - 김정동(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및 "대전의 현대건축 - 유병우(씨엔유 건축사사무소 소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제3부에서는 송용호(충남대 건축과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편집디렉터 주)

송용호 이번 심포지움은 대전 도시건축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능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과거,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 수밖에 없으며, 전체의 그림보다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의 스케치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수렴 가능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려하기보다는 다소 거칠거나 산만하더라도 대전 도시건축의 미래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시의적절한 아이템들을 수확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성희 소장께서 임양빈 교수의 발표한 "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지정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희 2부 주제 발표에서 임양빈 교수께서는 건축과 도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시대성을 비롯하여 평창한 대전의 구도심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동화 현상과 재개발 방식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서남부 생활권 개발과 그에 따른 상세한 운용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1990년대 개발되기 시작한 둔산지역과 최근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남부 생활권의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설계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도시적 건축적 관점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시가지의 도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둔산 신시가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둔산지구의 개발은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수용을 목표로 하고, 업무와 주거 및 그와 연관된 시설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 골격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둔산지구의 경우 도입 기능수용의 부재로 인하여 구도심의 기능이 신도시로 단순히 이동한 결과를 초래하여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규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신시가지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상당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지는 순수 단독주택의 형태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단독주택으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균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또는 다원주택 형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공급되어 있는 노원지구의 경우는 기존의 단독주택의 용지에서 허용했던 40% 미만의 균린생활시설 또는 비주거용시설의 수용을 일절 금하고 있어서 주거권의 침식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사이에서 용도상의 원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축법에서 준주거용지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거의 수용하고 있고, 일반 사용 면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규제에 있어서는 주거와 관련된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이 주거 환경을 보전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구의 성격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다 보완적인 소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차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둔산지역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서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량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기계식 주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지분할시에 필지의 크기의 적정여부와도 관계가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건축주가 요청하는 용지 일부에 다른 주차 수요의 유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지 분할은 토지 이용계획 수립시에 효율성이나 경제성과 깊은 관계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차 계획 수립과 관련된 필지분할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별 필지의 주차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몇 개의 공동주차 시설을 늘리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블록별 주차 전용 필지가 주어져 있기는 합니지만은 건축물 부설 필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지구 가로경관계획을 살펴보면 가로수의 정렬이라든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건축 지정선과 한계선을 설정하고 최고 최저 충수를 규제하는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행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고 가로변에 활력을 주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케이트를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제

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체 건축에 있어서는 아예 대응하려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건축가와 건축인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용호 도시구획 기능과 밀도, 용도 규제, 주차 문제 등을 중심으로 둔산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둔산 신도시 건설이 완료 단계에 있는 현재 까지도 둔산 신도시에 대한 소위 거주후 평가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포지엄을 계기로 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종현 교수께서 김정동 교수가 발표한 “대전의 근·현대 건축”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종현 우선 근대건축의 자료 발굴 및 일원화 작업을 해 주신 김정동 교수께 깊은 겸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걷는다」와 「하늘 아래 도시, 땅위의 건축」



을 출간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대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김정동 교수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제 나름대로의 의미로 분류하고 그 동안 갖고 있었던 고민과 대전의 근대건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긴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 교수의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두 권의 책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건축에 대한 해석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언급이 되어 왔었다고 할 수 있지만 김 교수께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함으로써 단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근대건축이 일본이라든가 서양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느끼고 활동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했다는 시각을 갖고 활동했다는 상호교류 차원으로 밝혀낸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한국 근대건축, 즉 지역적으로 근대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한국적이나 또는 근대적이나라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근대건축이라고 하거나 또는 대전의 근대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전의 실정을 또 한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 근대적인 특성과 서양의 고전적인 양식을 표현한 건축물

들이 과연 한국 근대건축의 주류로 포함되어야 하느냐 라는 점에서 제 니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서양의 고전적 양식을 맑은 건축들의 우리나라 한국 건축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한국적이고 근대적인 출발의 연장선상에서 그 흐름을 잡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이나 한국의 근대건축이 한국적인 특성이라든가 근대적인 특성을 크게 살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 근대건축, 아니면 대전의 근대건축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거나 어떤 의미가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동 교수께서 말씀한 방향이 리스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즉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대전역 자체가 서양의 고전적 양식과 그 다음에 일본의 목조양식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한 대전 역사 형태가 대전의 건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지만 설사 그런 양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에 우리 생활의 어떤 발자취라든가 생활의 태도, 전통 같은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근대적인 생각과 사고가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건축을 단순하게 건축 양식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접근방법이 앞으로 한국 근대건축과 전통건축, 그리고 현대건축을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에 담겨있는 생활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사고 등의 의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건축가의 입장에서 건축양식을 논하고 그 다음에 건축 형태를 논하고, 강변하더라도 그런 의미화 작업, 즉 근대 건축물에 담겨있는 대전 인물들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자리났는가, 이 분들이 현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될 때 그 건축물들은 건축의 형태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근대건축이라든가 근대건축은 옛 날 건물이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무시해 버리면 지금 지어지는 현대건축도 언제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향에 갔을 때 그런 추억을 담고 있듯이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생활과 정신사적인 측면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대전 시민들은 호흡을 하고 그 건물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옹호 _____ 김교수께서 김정동교수가 발

표한 근대건축의 리스트 작업에 대해서 건축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대전 근대건축의 의미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을 카울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의 이종국 교수께서 유병우 소장께서 발표한 "대전의 현대 건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국 _____ 유 소장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

면 1960년대 이후의 대전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들어 대전 현대건축의 형성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의



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현대건축 상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낙관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비관적인 측면입니다. 낙관적인 측면은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하는 다소나마 희망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 비관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것인데 서울의 건축이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대전의 건축은 서울의 건축을 답습하고 있는 서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서울화라는 표현이 아주 기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속에 대전의 실상을 시의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열거한 90년대 대전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을 최근에 지어진 것을 보니까 95% 이상이 서울 건축기가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연구단지가 있고 둔산 신시가지의 대형건물이 갑자기 세워지는 바람에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전 현대건축의 정체성과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서울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전의 건축이 서울을 또 서울은 외국의 건축을 잘못 모방하거나 심지어는 거의 그대로 표절하는 일이 일상화된 일이 오래 되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방 시대를 맞아해 외국의 건축가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계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식민지 상황으로 주장하고 탈식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이 적절하다면 서울은 외국의 건축 식민지고, 대전은 서울의 건축 식민지라는 안타까운 명제가 성립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민화 현상은 대전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타파하기 위해 대전 도시건축의 독자적인 정체성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전의 지역 특성은 무엇인

가. 건축 문화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전의 근대 건축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재개발해서 우리의 인공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해서 폐쇄성을 넣는다면 안됩니다. 문화는 폐쇄된 가운데에서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건축가든 서울의 건축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건축가든 우리 대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대전지역의 여러 가지 경관의 특성이나 인공환경 특성, 보전 가치가 있는 과거의 유산들을 파악해서 그것이 대전 건축 문화를 자극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이 건축가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을 포함해서 건축 문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용호 이 교수께서는 대전 도시건축의 자생력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텃을 외부에 돌리지 말고 우리 건축계 내부의 자성을 토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 도시건축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대전을 사랑하는 시민과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을 도시 건축의 공간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인가하는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호 문제제기의 의미에서 우선 대전의 도시건축 상황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석 대전에 있는 건축가는 사실, 도시 차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도시에 대해서 할 말 있는 건축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포함해서요. 건축가가 도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도 있어야 하고 어떤 역할도 해야 되지만 관심을 가진 건축가는 물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건축가가 하나도 없죠. 돈벌기 바쁜데 도시 문제까지 신경 쓰는 건축가들을 봤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축물이 서는데 문화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축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건물이든 사용자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적이거나 돈이나 자본이 관여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에 동참해 주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물은 대강 지으면 되지… 혹은 돈 많이 남는 건물이 중요하다고 들 하지요. 도시건축의 주체여야 할 사용자들의 의식으로 보아서는 아파트라는 것도 사실은 화급성이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는 주거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도시건축을 문화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남정일 행정쪽에서 제나름대로 우리 대전시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건축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매스가 기능성이나 토지대가 이운



에 집착하여 도시 스케일에 비해서 때로는 법규가 허용하는 한 최대의 규모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아파트의 경우, 보통 길이가 120m가 넘거나 90m에서 100m가 되는 것이 예사입니다. 이를 적절히 분할해 공간과 공간을 떼어놓으면 도시의 경관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도시 경관에 스타일이 없다는 것과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내의 옥상을 올라가 보면 그 밑이 다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색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색이 가장 비범적하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일단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태도 틀리고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각각의 건물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일 뿐, 전체의 질서와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대우 저는 좀더 커다란 스케일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전 주변에는 공주시가 있고, 논산시가 있고 금산군이 있고, 연기군이 있고, 옥천이 영동이 있고, 청주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중부권의 중심 도시역할을 하려면 소위 광역 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는 원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변도시의 결핍된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조화와 기능적인 조화 뜻지 않게 중요시해야 하는 실리적, 정서적인 조화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대덕연구단지가 70년대에 조성되었을 때만하더라도 대전시민으로부터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놀다', '이방인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역량이 대전시에 있었다면 과연 그러



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탈될 수 있는 또한 집단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바로 둔산 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과 아파트 단지는 과연 연결이 될까요? 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존 도시의 상권과 경제권과 또 주거지역과 또는 새로이 생겨날 문화에 대해서 행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송용호 세분께서 대전 도시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전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대전이라는 도시의 고유한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조대우 원래 대전이 시로 승격이 된 것은 1949년입니다. 대전 공단이 70년대에 만들어지고, 80년대에 연구 단지가 들어오게 되었고 90년대 초에 대전 엑스포가 열리게 됨으로써 대전은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명성을 세계로부터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98년도에 들어 행정타운이 들어옴으로써 행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전이 갖고 있던 종래의 도시적 기능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원래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도시로서의 기능, 군사도시로서의 기능, 행정도시로서의 기능, 거기에서 국제도시로서의 기능과 서남부 경제권을 연결시켜 물류유통 도시로서의 기능을 포괄해가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도시 온천도시 또는 휴양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대전의 도시 기능은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에는 산업설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76%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대전시를 방문에서 과연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조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규모는 8백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8백억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지역산업을 육성시키고, 위와 같은 복합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태석 저도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컸는데 대전이 한 5, 60년 된 도시 인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대전은 수 만년된 도시입니다. 아마도 갑천변을 따라서는 수 없이 많은 구석기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있을 거예요. 또 고인돌이라든지 유적들도 많이 있고, 조선 시대… 등등으로 해서 역사가 있는 도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옛 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옛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발표한 근대건축 부분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가 갖지 않은 것도 우리 도시의 상품이 돼야 됩니다. 상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고인돌도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고 짓는 개념이 아니고 덧붙이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헐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보존해야 될 것, 혹은 보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도 그대로 두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많죠. 두고서 무언가를 덧붙이는 작업, 이것이 건축에 있어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둔산이나 유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점차 형성되고 확대될 때, 구도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 진다고 봅니다. 문화적으로나 건축을 상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어떤 상품적인 요소가 있을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행정쪽에 있는 분이나 건축 학계에 있는 분이나 건축가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사실은 대전도시건축연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용호 말씀한 대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화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대안이 필요할까요? 도시건축이 나이가아야 할 방향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무방하겠습니다.

조대우 도시라는 것은 조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화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과의 조화를 말합니다. 아까 김정동 교수께서 보여준 건물들이 기능성만 너무 강조되었을 뿐, 예술성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슬라이드에 안 나타났을 겁니다. 저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조화가 도시 전체의 건축물들의 묘한 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전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까?



까? 로마와 같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까? 경주와 같은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까? 대전이 이제 50년이 지난 신생도시인데 얼마나 세로이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져 주시고요,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의 꿈을 심어 주시고 그 도시가 앞으로 천년이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래의 꿈을 우리 후손들에게 담아 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기능의 조화와 정서적인 조화를 갖추어줘야 오래 살아남죠. 그렇지 않으면 경주와 같이 아주 좁은 범위의 단순한 기능을 가지는 도시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

력해야겠습니다.

송용호 대전지역 건축분야의 정책과 실행 과정의 실질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서는 주택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도시건축의 모습이나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정일 건축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도시 경관을 환경과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여 건축물의 형태가 도시 전체의 질서와 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를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고 할 때, 독자적으로 훌륭한 건물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 도시가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가 아름다운 것은 특출하게 서 있는 건축물 때문이라기 보다는 평범하더라도 보다 많은 개체로서의 건물들이 전체와 더불어 조화성과 연계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축물 단위의 규제, 관리보다는 도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단위, 구역 단위별 관리를 통해 특수성과 다양성을 물론 전체의 질서를 꾸밀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건축 행정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용호 대전 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진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 단위의 규제행정에서 도시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 구역별 관리위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점은 대전의 도시건축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 도시건축의 정체성 구현은 필요 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 도시의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건설,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지역건축 업체의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신화건축의 하한기 이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한기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건축환경은 어떻게 생존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지난 30년동안 무한한 발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터결된 이후 우리 건축계에서 치밀한 준비



를 못하는 바람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건축업계도 똑같은 파도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환경은 그린라운드는 물론 선진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력시장까지 개방을 요구하는 블루리운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적산업인 건축 설계 업무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들이 이미 국내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임금 수준과 능력을 보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보다 두세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설계사무소라든지 기타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대전시 남과장님도 있고 해서 부탁 말씀과 같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액비가 무려 30% 미만인 29.7%에 낙찰되는 상당히 저기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PQ라는 제도에 의해서 하고 동시에 가격표를 제시를 함으로써 저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지역 건축업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안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가 수주에 의한 피해를 보면 당연히 회사들은 저 임금에 채용을 할 것이고 감리하는 사람도 자주 교체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대전에는 서울 쪽의 건설업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익은 당연히 대전지역에 남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우를 우리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시행령이라든가 규칙같은 것들을 시급히 마련해서 앞으로 대전지역의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용호 토론의 주제가 지역건축의 정체성이라든지 잠재력에 대한 것인데 협안 문제들이 대부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여태껏 건축사께서 대전 도시 건축인들의 활동에 나타나고 있는 잠재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석 우리 모두는 누구나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부터 그러한 풍토를 지니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러한 생각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대전지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갖은 것이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하는 학생들도 앞으로 자기가 건축을 해나감에 있어서 찾아야 될 건축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용감해 졌습니다. 일단 뭐가 있으면 헐고 봅니다. 땅, 일단 있으면 갈아… 옛날 것이 있으면 의미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의 경우 가보면 별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과대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대포장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새로운 의미가 얹혀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과대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대포장해서 그것이 대전에만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계룡산도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조건이듯이 지금 구 도심에 남아 있는 몇 개의 건물도 대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용호 미학을 전공하는 박일호 교수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적 가능성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일호 근년에 저는 이상이나 꿈이 있어야지 현실이 있는 것이지 현실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나 꿈이나 이상이 없는 현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이 예술이나 공학이나 하는 애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술을 예술이라고 정당화하는 이론도 있겠고 공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도 하나의 예술이며, 한 시대의 어떤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건축기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물론 같은 점도 있겠지만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고, 더 크게 확대시켜서 말하자면 각 시대마다, 각 사회마다, 특정의 건축경향들이라는 것이 달라져 왔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이 있고,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건축은 예술이고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전의 건축문화, 과연 대전이란 곳의 정체성,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반영된 그런 곳이어야 된다. 가능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든지… 대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막상 이러한 논의

들은 원론일 뿐, 어떤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의 형태들이 있어야 되고, 그 건축공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의 어떤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성을 나타낼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는가 어떤 의미화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송용호 박교수께서 빼아픈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전 도시건축에 관한 원론 수준의 논의조차 미흡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아 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각론이 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좌담회를 통해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지를 탐색하려 했던 시도들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구도심의 문제와 서남부권 계획을 비롯한 중요한 현안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전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아끌어 내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를 일궈내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도시건축 연구재단을 비롯하여 대전의 건축인들과 대전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대전의 도시건축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소식 / 91
건축계소식 / 97
현상설계 / 104
계획작품 / 109
전시리뷰 / 110
해외잡지동향 / 112
회원현황 / 11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0

협회소식 KIRA news

신·구회장 이취임식 거행

11월 6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6일(금) 오전 11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역대회장을 비롯 시·도건축사회 회장, 그리고 본부 및 서울건축사회 임직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김영수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남은 정열과 모든 인생을 협회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신임 이의구 회장은 “회원의 업역확대와 서비스 극대화, 협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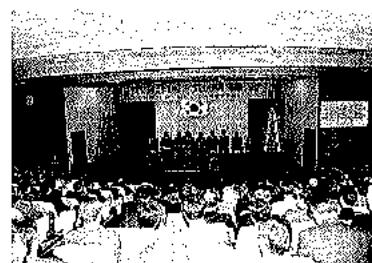
이·취임식 광경

建築士協會 會長 離·就任式
1998. 11. 6

김영수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신임 이의구 회장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제23대 회장에 이의구 회원 당선



제33회 정기총회 광경

우리협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9일(목) 오전 10시 20분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재적의원 6백71명중 5백97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등 8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는 협회 고문 등 내·외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개회사, 공로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전회 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시련을 인내로 바꾸고 좌절을 기대로 틈바꿈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내일을 남보다 먼저 환희로 맞이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시작과 관념으로 우리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성취감과 남 다른 희열을 꾸준히 창출하는 스스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수 회장은 “새로이 탄생될 20세기의 마지막 세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아래 선택된 21세기의 준비팀인만큼 끝까지 믿고맡겨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이 줄곧 든든한 그 후견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함과 함께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남은 정열과 모든 인생을 협회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항렬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정부는 건축설계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능

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축사협회는 변화하는 건축설계시장에서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이사 7인, 감사 1인에 대한 임원개선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이의구 후보와 이문우 후보가 2차 투표에서 경합한 결과 총 투표자 5백 28명중 3백59표의 지지를 얻은 이의구 회원이 제23대 신임회장에 당선되었고 감사에는 김인곤 회원이 추대되었다. 이번 총회의 각 의안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중 아래의 사항을 개정기로 함.
<대의원 선출>
- … 대의원은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 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 1인을 추가 선출)<대의원제>
- … 건축사회의 대의원제 도입
- 제2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 제3호의안: 98년도 협회비관리회계 제

제33회 정기총회 / 개회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에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향렬 건설교통부 차관보님, 역사 회장님들과 대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우리 협회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협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귀빈들과 단체장들께도 이 자리에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저는 감히 IMF를 우 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인내로 바꾸고 좌절을 기대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내일을 남보다 먼저 환희로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8·15 해방과 6·25동란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의 우리는 차라리 행

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주인의 건

- 제4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입회비 일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이상 일괄 상정)
- 제6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 유보
- 제7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제8호의안: 임원 개선
– 신임회장에 이의구 회원을 선출하고 감사(1인)에 김인곤 회원을 추대하고 신임이사(7인)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함.



李義求 신임회장

약력

- 1941년 1월 15일생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청간축 대표이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 심의위원회 위원
- '91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홍보·편찬위원장)
- '92 4회(파키스탄) 아카시아 총회 한국 대표
- 16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

▣ 신임임원 명단

—이사

柳聖熙 / 류성희건축사사무소
朴成吉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尹榮才 / (주)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李冕永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李宗正 / 이튼건축사사무소

鄭在京 / (주)원일종합건축사사무소
趙泰鍾 / 건축사사무소 마당

—감사

金仁坤 / (주)동일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연금청산의 후유증으로 78억의 세금 때문에 협회는 압류딱지가 나붙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는 재벌건설업체들이 우리의 업역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찰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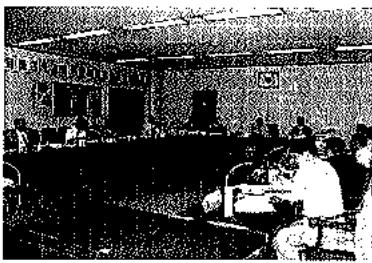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듯이 준비된 것, 이루어야 하는 것, 그리고 각오한 것이 있었기에 “盡人事待天命”한 것 이지 결코 자랑으로 드린 말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던 부가가치세 또 한 지금은 유보상태라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앞으로의 대책 또한 계획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대의적인 위기상황은 원전 해소된 것도 있지만, 개방과 개혁자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있음을 생각할 때, 각오 또한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그 결과 또한 예측불허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제13회)과 10월 26일(제14회)에 협회 중회 의실에서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송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3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의안〉

예산 과 목	'98예산액	예산잔액	사용 계획액	예산 과부족	목간 전용액
회 총 회 비	44,433,000	24,929,760	21,000,000	3,929,760	감 2,000,000
의 이사회비	21,952,000	10,431,260	5,000,000	5,431,260	감 4,000,000
비 위원회비	30,401,000	4,414,900	10,414,900	-6,000,000	증 6,000,000
중장기발전 사 업 비	264,766,000	242,857,500	5,857,500	237,000,000	감 200,000,000
사 조사연구비	116,650,000	81,252,010	11,252,010	70,000,000	감 60,000,000
업 출판사업비	501,197,000	194,343,470	119,343,470	75,000,000	감 50,000,000
비 홍보사업비	200,000,000	194,163,000	49,163,000	145,000,000	감 120,000,000
연 수 비	89,900,000	89,292,000	792,000	88,500,000	감 54,000,000
보 총 금	365,860,000	176,500,770	659,915,700	-483,414,930	증 484,000,000

키로 함:

- 제2호의안: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보조금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99년도 대한 건축사협회 장학회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제33회 정기총회 의제 변경 승인의 건
- 제7호의안: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건 축 사 회	지 원 한 도
서 울	142,628,580
부 산	27,475,000
대 구	24,914,840
인 천	23,420,100
광 주	19,944,800
대 전	18,761,050
울 산	27,526,060
경 기	109,911,200
강 원	35,272,500
제 주	10,397,500
충 북	15,161,500
충 남	40,057,500
전 북	28,684,980
전 남	17,680,060
경 북	21,107,010
경 남	20,793,020
합 계	583,735,700

건축연구소, 건축교육원, 건축정보센터를 차례로 설립하였으며, 사무처개혁 차원에서 책임팀제 및 연봉제를 어느 건설관련 단체보다도 먼저 전격 도입하여 협회구조조정의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본부와 16개 시도 전산망 연결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장학회 설립 또한 감격적이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특히 내년은 정부가 "건축문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우리 건축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우리의 직업적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복과 도전이라는 시대의 명제 또한 우리 건축인 모두가 함께 리드해야 할 숙명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앞장서고 국가가 일어설 때 우리가 밀어주는 "건축문화의 해" 전면목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

리의 건축적 소명이요 세계와 인류를 위한 우리의 문화적 양심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건축인은 물론 우리 건축사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때 "건축문화의 해"는 분명 국민의 신뢰와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는 기필코 희망찬 조국의 장래로 남아 또 한 세기를 빛내는 장엄한 建築文化史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정기총회가 이러한 뜻을 담아 우리 협회가 비상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새로이 탄생될 20세기의 마지막 새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

아래 선택된 21세기의 준비팀인만큼 끌까지 믿고 맡겨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이 줄곧 듣는 그 후견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 또한白衣從軍의 마음으로 제가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남은 정열과 모든 인생을 협회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在任期間 중에 협회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협력하고 헌신하여 주신 모든 임원님과 시·도 건축사회 회장님, 각 위원회 위원님들, 또 여기 만장하신 대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자랑스러운 6,800여 회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언제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임 인사를 결해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 10. 29.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영수

〈제6호의 안〉

당 초	변 경
제1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2호의안: 98년도 입회비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제1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2호의안: 98년도 입회비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제3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추가) (추가)	제4호의안: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임원개신	제6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장"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임원개선

- 제8호의안: 공로회원 표창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김인모	1916. 1. 9.	김인모건축사사무소	1965. 8. 16.
김우성	1945. 8. 23.	(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1984. 4. 30.
방철린	1948. 12. 1.	(주)인·토 종합건축사사무소	1987. 12. 4.

- 제9호의안: '98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표창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제33회 정기총회 / 치사

존경하는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규빈 여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업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94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지난해 말에 닥쳐온 외환위기 사태는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축설계업계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료가 몇 달째 일감을 찾

지 못하고 스스로 정든 직장을 떠나는 현실

에 있어서 관련 정책을 충실히하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가로서의 궁지와 사명감을 잊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에 진력하고 있는 건축사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정부는 이와 같은 건축설계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건설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중도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하여 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축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토지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고 하지

'98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거행

영예의 대상에 「울산현대예술관」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98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개막식이 지난 10월 27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거행되었다.

개막식, 시상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사장 등 주최기관장을 비롯, 각 후원단체장 및 건축관련단체장, 그리고 부문별 수상자와 가족, 취재진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이어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진행된 부문별 입상자에 대한 시상에서는 맨먼저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수상자인 「울산현대예술관」의 설계자 노형래(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씨에게 대통령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었으며,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건축주 현대중공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오늘의 건축사협회 총회는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건축인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빌어 평소 가져 왔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건축행정 풍토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부조리를 없애고자 힘써 왔으나 아직도 국민들은 건축분야를 비리의 온상인 양 인식하고 대표적인 규제분야로 손꼽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결연히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50퍼센트 이상의 규제를 철폐하여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노력이 소

업에 국무총리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김옥길기념관, 고려포리미(주)사옥, OAK VALLEY RESORT, 세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등 본상을 차지한 설계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에게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건축주에게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었고, 16개 각 입선작의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헌창진(한정건축)·대한주택공사·한국주택협회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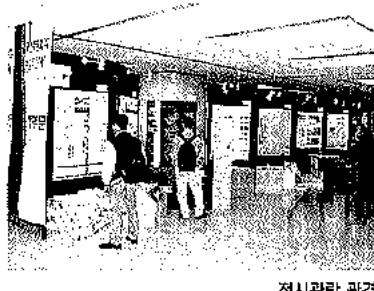
또 준공건축물부문에 이어 진행된 계획건축물부문 시상에서는 작품 「공생」·「신당동 중밀도 집합주거」·「시간·흔적·산책 - 한강사 박물관」을 각각 출품하여 은상을 차지한 장원석(서울건축학교)·양명석(한양대 건축과 4년)·강호진(인하대 건축공과 3년)씨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50만원이 수여되었으며 이밖에 동상5점과 입선22점의 출품자들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올해의 각 부문 수상작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포스코센터 서

관 2층 다목적홀에 전시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시상식 광경



전시관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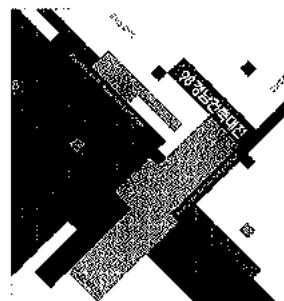
경남건축사회, 제8회 경남건축대전

11월 7일까지 접수받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시

경남건축사회는 제8회 경남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작품접수일은 11월 7일이며 시상은 11월 12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된 작품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건축사회 지하 전시실에 전시된다.



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로 느끼고 있는 불필요한 제도나 관행부터 먼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건의하는 규제폐지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종사자로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어느 건설업 분야의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값싸게, 빨리, 건설하는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건축물을 안전이나 기능, 예술성을 추구하는 데는 다소 소홀히 해 왔습니다. 건축설계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값싸고 빠르게 건설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

과 기능, 그리고 예술성이 함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21세기의 건축설계시장에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이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건축설계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사협회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건축설계시장에서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호와 규제가 시리짐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없는 건축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에서도 태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축분야가 보다 내실있고 경쟁력 있게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충회에서는 회장단과 임원진이 새로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역임

중인 김영수 회장님은 임기중에 건축정보센터를 개설하여 회원상호간의 신속한 경영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하고 또한 건축연구소를 내실화하여 건축관련제도 개선에 큰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축업계를 위하여 혼신하는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새로이 선출되는 신임회장님은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지혜를 모아 회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신장 뿐만 아니라 새시대의 건축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건축사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시어 개방화, 세계화에 맞는 건축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1998. 10. 29.

건설교통부장관 이정부

충북·전북·경북건축사회, 회원 친선 등산모임

3도가 만나는 삼도봉에서



충북·전북·경북건축사회 회원 및 직원 100여명이 지난 10월 16일 충북·전북·경북이 한 곳에서 만나는 삼도봉에서 3도회원 친선 등산모임을 실시했다.

이번 등산모임은 3도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증진하고 경기위축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도회원은 기념식, 자연보호활동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건축문화 발전, 건축인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충북·전북·경북 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아도무종합건축,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건축작품집 충정

(주)아도무종합건축(대표이사 장석동)은 지난 10월 1일(목) 창립 30주년을 맞아 건축계 원로 및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창립행사를 가졌다.

또 이날 40여년의 건축작품들을 회고하여 발간한 건축작품집을 충정하였고, 300여명의 건축계 원로와 각계 인사들

의 축하와 격려속에 (주)아도무종합건축의 새로운 30년과 재도약을 기원하였다.



TAS건축, 디자인 학원 개설

건축 스케치·CAD·그래픽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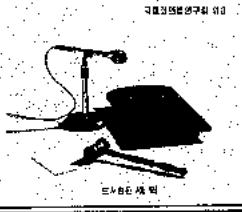
TAS건축의 김인환회원이 "TAS건축 디자인 학원"을 개설하였다.

15년 가까이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느껴온 '학교교육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이다. 건축 전문 학원이 없다. 건축 그래픽도 비전문가가 한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학원은 건축 스케치학과(프리핸드스케치, 투시도, 컬러링), 건축 CAD학과(건축 AUTOCAD와 지원프로그램), 건축 그래픽학과(현상설계 및 Presentation 도면)로 나누어 교육한다.

구회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회의 진행 가이드북 「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국제회의법연구회 역음, 도서출판 새벽)」가 출간됐다.

총 6편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제1편로 버트 회의규칙을 바탕으로 한 회의의 이론, 제2편 단체의 결성방법, 회의의 실제, 제3편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진행 방법, 제4편 국제회의의 각종 학술 세미나 등에 주로 사용되는 회의 영어, 제5, 6편 각종 회의 사례와 회의시 문제된 문답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의를 이해하고 회의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신국판 / 388쪽 / 1만원 / 문의 051-525-0304)

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



남진관 회원, 「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 펴내

국제회의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단행본 출간

유진건축의 남진관회원이 국제회의법연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위원회

건축 및 유관단체 인사 19명으로 구성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는 지난 10월 9일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 19명을 위촉하여 발표했다. 우리 협회 및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건축 및 유관단체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위원장으로 이 광로(예술원 회원)씨가 추대되었다.

조직위원회 명단

- △이광로
- △송종석(현대건축계획연구소장)
- △이명호(중앙대교수)
- △이경희(대한건축학회장)
- △오운동((주)한림건축컨설팅 대표이사)
- △이영학((주)회림종합건축대표이사)
- △김규태(향도종합건축대표)
- △김영수(대한건축사협회장)
- △김정철((주)정립건축대표이사)
- △윤도근(총익대교수)
- △장석웅((주)아도무건축대표이사)
- △윤승중((주)원도시건축대표이사)
- △강석원(그룹가건축도시연구소대표)
- △김한근(한국건축기협회장)
- △천병옥(한국전통의장연구소대표)
- △지순((주)간 삼종합건축대표이사)
- △장명수(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 △김용문(문예진흥원사무총장)
- △하진규(문화관광부예술진흥국장)

건축설계관련 상호인증제도
토론회 개최

UIA 상호인증제도 (표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문자격사 단체,

공청회 개최

주제는 전문자격사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전문자격사 단체 일동은 지난 10월 15일(목) 오후 2시에 전경련회관 3층 국제 회의장에서 "전문자격사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는 구종태(세무사 회장)씨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우택(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토론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강남언(회계사) 강영복(세종대 명예교수)
강인애(변호사) 김면규(경기대 교수)
서희열(강남대 교수)
심재형(국제신문사 부사장겸 편집국장)
양주백(관세사) 이영필(변리사)
정은선(세무사) 최삼철(부산대 명예교수)
김유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건축설계관련 상호인증제도 토론회 광경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발표

10월 31일 경북대학교에서

대한건축학회(회장 이경희)가 지난 10월 31일 경북대학교에서 추계학술발표 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발표에는 계획 및 설계와 관련해 51편의 논문을 비롯, ▷역사·의장 및 건축론 55편 ▷도시 및 단계획 16편 ▷환경 및 설비 37편 ▷구조 I · II 77편 ▷재료 및 시공 54편 등 7개 분야에서 29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와 더불어 상임축구장 설계안 설명회와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건축교육 제도의 개선'에 대한 포럼도 개최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 학술발표

오는 11월 21일 흥의대학교
공과대학 K동 201호실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오는 11월 21일 흥의대학교 공과대학 K동 201호실에서 11월 월례 학술발표회를 한다.

육옥수(한양대 졸 / 프랑스 솔본느대 박사과정)씨와 김봉건(공학박사 /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씨가 "깊이 있는 파사드"와 "북한의 건축문화재"를 각각 발표한다. 아울러 이날 한국건축역사학회 정기총회가 있다.

문의: 성균관대학교 윤인석 교수 전화 0331-290-7558

한국실내디자인학회, '98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부산의 지역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환경 디자인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는 10월 23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부산의 지역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환경디자인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98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홍경(경원대학교) · 손광호(인제대학교) 씨와 사회로 이뤄진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는 정수임(부산정보대: 부산 교통시설의 디자인 현황) · 곽홍길(건원건축: 부산 고속철도 역사의 디자인 특징에 대하여) · 바이트 쉬트라이텐베르그(독일 Prof. at idas, seoul: High Speed Transportation - Low Speed Design) · 이현희(경원대학교 교: 일본 폐리역사 디자인의 특성)씨가 강연하였고 김인권(경성대학교) · 박부미(동서대학) · 변량선(포럼건축)씨가 부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환경디자인의

전망에 대해 토의했다.

바람직한 실내디자인의 제시를 위해 한국의 지역적 현안을 디자인적으로 접근,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외 사례연구와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문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화 02-564-2598

건설기술인협회, "무료취업센터" 확대 운영

8천여건의 취업정보망
자체 개발 · 구축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직장을 찾는 건설기술인과 기술을 구하는 건설관련업체를 위하여 '무료취업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무료취업센터'는 88년부터 무료직업소개사업 혜가를 노동부로 득하여 취업알선해온 것으로 98년초부터는 총 8천여건의 취업정보망을 자체 개발 · 구축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취업알선의 효율적인 수행과 회원들의 협회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PC통신(하이텔 및 천리안 go kocea)과 인터넷 홈페이지(www.kocea.or.kr)에도 구인 · 구직란을 운영 필요한 자료의 직접 조회도 가능하게 하였고, 건설기술인회관 지하1층에는 '회원정보교류센터'를 개설,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와 함께 독서 및 휴식 그리고 회원간 전달하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문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무료취업센터
전화 02-3416-9251 팩스 02-3416-9099

대전시 건축상 공모

작년 11월부터 이달말까지
시공완료나 준공예정인 작품

대전시는 지난 10월 12일에 '대전시 건축상'의 공모요강을 발표했다.

도시경관에 어울리면서 기능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이 공모전의 대상작품은 작년 11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시공이 완료됐거나 준공예정인 작품으로 건축물의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중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희망자는 응모원서, 설계자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건물전경사진, 설계자 등을 대전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대전시 건축과 전화 042-250-3464

진주시 건축상 공모

오는 11월 20일까지 작품접수

진주시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4회 진주시건축상을 공모한다. 창조적인 건축문화 창출과 질적향상 및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하여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촉진코자 제정된 이 공모전의 대상작품은 97년부터 98년 진주시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중 97년도 건축상 작품에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의 소유자, 설계자, 시공자중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전화 -591-749-235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건축대상제

오는 11월 25일까지 접수

김해시가 제2회 '김해건축대상제'를 시행한다. 11월 2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김해건축대상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및 견실한 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전에 준공된 관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등이 응모할 수 있다.

김해시는 12월중 시건축위에서 도시경관 조성 기여도와 창의적 건축계획, 사용자재 및 견실시공 등을 심의, 입선작은 12월말 종무식때 시상할 예정이다.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월간 「이상건축」는 창간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탈도시 주거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목재를 이용한 건축적 형태와 공간이 탈도시 연립주택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구조는 목조로 제한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모요강 및 일정

- 응모자격 : 전국의 건축사사무소 직원, 해외 유학생, 전국의 대학 건축관련학과 학생(전문대 및 대학원생 포함) 1인 1작
- 응모일정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1998. 11. 16(월) ~ 11. 20(금)

오후 5시까지 전화, 팩스, 우편 신청가능

- 작품제출 마감 - 1999. 1. 25. ~ 1. 27.

오후 5시까지 내사(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 시상: 당선작 10선 - 이상건축 해외건축기행(미국) 참가 특전 부여, 잡지기재, 전시회 참가

가작 10선 - 월간『이상건축』1년 정기구독권 부여, 잡지기재, 전시회 참가 입선 10선 - 전시회 참가

- 심사위원: 김병현(장건축 대표), 이종호(메타건축 대표)

- 코디네이터: 조용수(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

문의 : 월간 이상건축 전화 051-465-1833 팩스 051-465-1837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www.koreanarchitect.or.kr



제2회 안암건축포럼

11월 10일 서울신문사옥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흘에서

21세기 한국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설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발족된 안암건축포럼이 제2회 포럼을 11월 10일 서울신문사옥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흘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방향"으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박승씨가 강연했다.

현실비평연구소

제4회 비평상 공모전

의연 1월 말일까지 접수

현실비평연구소가 제4회 비평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리의 생활환경문화를 다루는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무대예술, 조경, 디자인 등 6개의 응모부문으로 한정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한국학파'로 99년 1월말까지 사전 신청접수해야 하며, 200자 원고지 70매 분량의 미발표작으로 원고마감은 99년 3월 20일 까지이다.

박길룡·정길협·서보광·김민수·이필훈·전시형씨가 심사하여 대상 1편(300만원 상당 해외건축 연수비), 가작 3편, 입선 다수를 선정, 수상하게 된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 전화 304-6539 · 376-7775~6, 팩스 376-7776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370-39
B3호

독일문화원, 세미나 개최

오는 11월 11일 포스코빌딩 강당 4층에서

독일문화원과 강남대학교는 오는 11월 11일 삼성동 포스코빌딩 강당 4층에서 "주거, 도시 그리고 삶의 질"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틸 크류거(함부르크시 도시재개발국장)의 "함부르크시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와 삶의 질", 요한 하르틀(베를린, 독일 도시계획사협회)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개발과 생태학, 수도 베를린"이 각각 발표되고 이춘호(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

로 토론이 이뤄진다.
문의: 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전화
0331-280-3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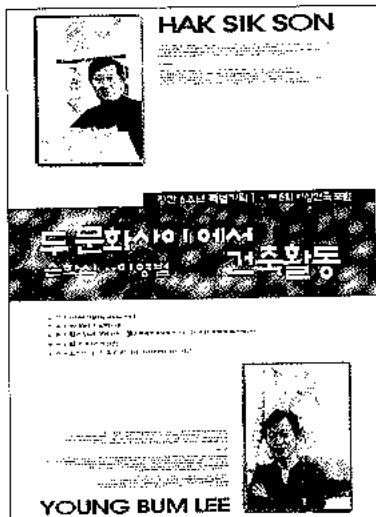
이상건축 포럼, 두 건축가와의 대화

건축가 손학식·이영범

월간『이상건축』는 지난 93년이래 꾸준히 개최해온 이상건축 포럼을 오는 11월 6일(금) 오후 2시에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건축가 손학식(AIA건축)·이영범(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 교수)씨를 초빙하여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건축가의 건축관, 인생관, 작품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건축을 진단하고 동시대 현대건축의 향방을 가늠하며 다음 세기의 건축을 예측하는 자리가 됐다.

문의: 월간 이상건축 전화 051-465-1833 팩스 051-465-1837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C3그룹, 제4회 C3 포럼 개최



건축세계사, 제2회 PA 특별강좌

주제는
전통적 컨텍스트속에서의 현대건축

월간『건축세계』와 격월간『PA』를 발행하고 있는 건축세계사가 지난 10월 14일에 제2회 PA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밀알학교 소집회실에서 열린 이번 특별강좌의 주제는 '전통적 컨텍스트속에서의 현대건축'으로 건축가 유 걸(유길건축연구소)씨가 질의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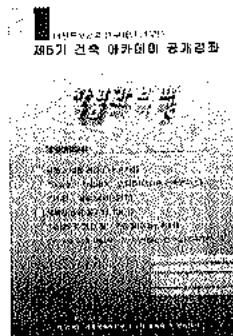
C3그룹은 지난 10월 14일(수)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강당에서 제4회 C3 포럼을 가졌다.

건축가 김 현(종합건축사사무소 에디)씨가 초청된 이번 포럼의 주제는 '무위성의 여백'으로 김성우(연세대학교)·이종건(경기대 건축대학원)·정진국(한양대학교)교수가 패널로 참가하였다.

제6기 건축 아카데미 공개강좌

11월 6일과 13일 목원대학교
건축도시학부 강당에서

대전도시건축 연구재단 연구원에서는 제6기 건축 아카데미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작품과 비평"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강좌는 목원대학교 건축도시학부 강당에서 이일훈(이일훈건축연구소)·김홍일(워드건축)씨가 각각 '이일훈의 작업세계', '관계'라는 주제로 11월 6일에 강의하고 권문성(아틀리에17)·이주연(월간 건축인 POAR 주간)씨가 각각 '세상으로 열린 집', '건축과 길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제7회 테마건축기행

답사를 통한 '세계건축사' 시리즈

현실비평연구소는 답사를 통한 '세계건축사' 시리즈 테마건축기행을 준비했다. 모집 인원수에 따라 15명이나 30명으로 구성될 이번 답사는 '봉고로 떠나는 유럽건축사 기행', '해쳐 모여 IMF식 일본현대건축 기행', '6년의 노하우 양질전이 프로젝트' 세 가지로 스터디식 사전 세미나 시스템을 운영, 미리 답사 건물에 대하여 도면에 대한 자료에서부터 철저히 공부한 다음 출국하게 된다.

문의: 현실비평연구소 전화 304-6539, 376-7775

■ 봉고로 떠나는 '유럽건축사' 기행

일정: 99. 2. 13 ~ 2. 28(15박 16일)
코스: 서울을 출발 싱가폴, 런던, 브뤼셀, 암스테르담, 베를린, 취리히, 빙, 피렌체, 로마, 베니스, 바르셀로나, 파리, 홍콩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참가경비: 미정(245~275만원)
참가신청마감: 98. 12. 10

■ 해쳐모여 'IMF식 일본현대건축' 기행

일정: 98. 12. 30 ~ 99. 1. 5(6박 7일)
코스: 서울에서 출발 동경, 오사카, 동경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참가경비: 미정(120~135만원)
참가신청마감: 98. 12. 5

■ 6년의 노하우 '양질전이' 프로젝트

일정: 99. 1. 22 ~ 1. 28(6박 7일)
코스: 서울에서 출발하여 동경, 오사카, 교토, 고베, 하메지, 후쿠오카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참가경비: 미정(162~180만원)
참가신청마감: 98. 12. 5

탈식민성 - '한국현대건축', 어떻게 볼 것인가?

12명 선착순 모집

현실비평연구소가 "탈식민성 - '한국현대건축',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1. 모집인원: 12명(선착순)
2. 참가비: 450,000원(교통비, 식사비, 교재비, 자료비 포함)
- 참가비는 분할 가능하며(신청금 50,000원 별도), 오프닝 행사부터 지난 3차까지의 답사는 비디오로 촬영되어 있어 신청시 답사자에 한하여 무료로 대여되며 복사 또한 협용함.
3. 접수처: 현실비평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370-39
대아빌라 B-3호
전화 304-6539, 376-7776, 팩스 376-7776
4.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지정하는 은행에 먼저, 신청금을 입금시켜야 하며, 선착순 원칙으로 접수한다.
5. 참가비: 은행계좌번호 / 서울은행 21704-3685501(예금주: 조옹범)

한국무대미술가협회, PQ '99 참가신청 접수

개인 또는 단체 참가신청 가능

한국무대미술가협회(회장 이병복)는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체코공화국 문화성에서 주관하는 제9회 프라하 카트리엔날레 세계 무대미술 및 극장건축 전시대회, 프라하 웨드레니얼(이하 PQ) '99의 극장 건축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며 이와 더불어 PQ '99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무대미술가협회(OISTAT)에서 주관하는 제5회 OISTAT 경연대회, 'The World Theatre in Prague 1999'에 참가를 희망하는 극장 건축가 또는 건축가 지망생을 모집한다.

문의: 한국무대미술가협회 전화 02-743-7635 팩스 02-741-2972

서울 건축학교, 98/99년 제2쿼터 신입생 모집요강 및 프로그램 일정

15명 모집,
11월 16일~11월 25일까지 접수

김수근문화재단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건축학교가 98/99년 제2쿼터 신입생 모집요강 및 프로그램 일정을 발표했다.

문의: 서울건축학교 전화 02-763-0471, 02-747-3046

모집요강

• 응시자격: 설계사무소 경력 3년 이상자, 4년제 정규대학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1999년 졸업예정자, 국내외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 모집인원: 15명
- 원서교부: 1998. 11. 2(월)~11. 25(수)
- 원서접수: 1998. 11. 16(월)~11. 25(수)
- 전형: 1998. 11. 26(목)~11. 30(월)
1차—서류,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심사
2차—면접(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등록기간: 1998. 12. 1(화)~12. 10(목)

프로그램 일정

- 설계스튜디오
- 김영준 / 도시구조의 건축 2

- 김 현 / TRANscriptions in TRANSition 2
- 김홍일 / 투명성
- 최 옥 / a · topos in seoul
- 설계지원스튜디오
 - 강성원(미술평론가) / 서양미술사 2
 - 미학 · 문화이론 · 시민사회의 역사 (칸트미학과 도덕의 자율성 · 궁중예술, 레생 · 셀러 · 빙겔만의 민주주의와 미학, 헤겔 시민사회론과 법철학 · 미학, 19세기 시민사회의 발전 과재구성 · 공공성 개념)
 -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 한국건축사 2 - 정신과 사상 (동양건축사상, 풍수지리설, 한국건축의 집합성, 성리학과 서원건축)
- 건축기행
 - 기행1 / 1999. 2. 6(토)~7(일)
 - 기행2 / 1999. 4. 3(토)~4(일)
- 공개프로그램
 - 금요강좌 금요일 7:30 / 주제 - 현 실과 관점 '전환'
 - 건축가세미나 화요일 7:30
 - 영화세미나 토요일 2:00
 - 서울건축학교 97/98년 학생전시회
 - 기간 / 1998. 12. 5(토) ~ 12. 19(토)
 - 장소 / 서울건축학교 전시실

경기대 건축대학원, 98년도 2학기 건축전

포스코 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 전시큐레이터 / 서혜림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은 98학년도 제2학기 건축전을 12월 3일 개막하여 12월 10일까지 포스코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갖는다.
- 이번 건축전은 3개의 출연스튜디오(김준성, 한영경, 조택연) 외 10개의 디자인스튜디오(김홍일, 이영범, 헬렌박, 이일훈, 이강현, 이종건, 백문기, 임재용, 김현

태, Magritta) 학생의 가을 학기 작품 및 건축과 기술, 드로잉, 건축과 사진, 조형 예술과정의 학생작품을 선정, 전시한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 전화 02-390-5245~6 팩스 02-313-4131

전남대학교, '98건축전

건축전중 김석철(야기반)소장
특별강연

전남대학교 건축학과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대 2호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98건축전을 가졌다. 이번 건축전 중(10월 15일)에는 김석철소장이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특별강연하였다.

승실대학교, 101주년 기념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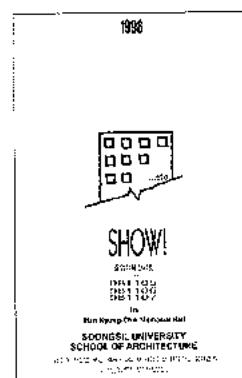
목요 건축 공개강좌
"도시적 맥락의 건축"

승실대학교는 개교 10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제13회 목요 건축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승실대학교 과학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좌에는 10월 15일 조대성(성균관대학교 교수) · 10월 29일 유재현(세민재단 이사장) · 11월 5일 김종규(M.A.R.U.건축 소장) · 11월 19일 이경희(대한건축학회 회장) · 12월 3일 정인숙(전 평양 도시계획 설계사업소 설계원)씨가 각각 '네덜란드의 도시와 건축', '시민참여와 도시건축 뉴욕/서울', '런던에서 배운 도시건축', '독일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축', '한국의 도시건축 평양/서울'을 강의한다.

이와 더불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출

업작품전시회를 가졌다.
문의: 승실대학교 건축학부 전화 02-820-0700 팩스 02-816-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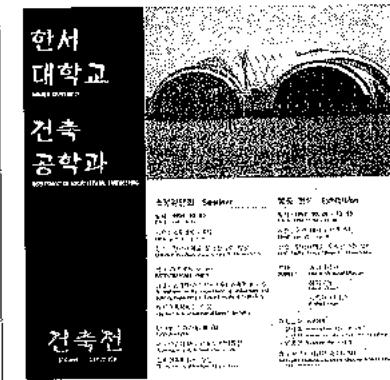


한서대학교, 건축전

초청강연 및 작품전시

한서대학교 건축공학과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도서관 5층 로비에서 건축전을 가졌다.

이번 건축전에는 학생의 작품전시뿐만 아니라 10월 26일에는 일본의 현대건축가인 센다 미쓰루(仙田 满)교수와 나이토 아키라(内藤 昌)교수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홍익대학교, 제42회 홍익건축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제42회 홍익건축전을 가졌다. 이번 건축전에는 졸업생 각자의 문·예·기로 다듬어진 졸업작품과 홍익대 건축교육의 통과의례파제로 정착된 3학년 공동작품, 1, 2학년의 평소과제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건축작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현대건축사, 격월간 건축 전문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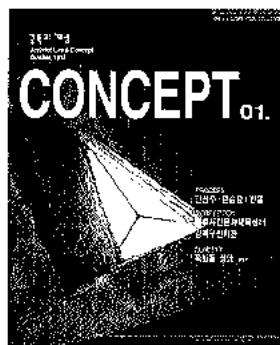
CONCEPT - 건축과 개념

현대건축(CA)사가 격월간 건축 전문지 「CONCEPT - 건축과 개념」을 발간했다. 추상적인 건축 개념을 구체적인 공간과 형태로 만들어 나기는 작업과 그 작업과정에 자신의 건축적인 고민과 사상, 자신의 조형언어를 투영시키는 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발행된 이 책은 건축을 하면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건축가들의 작업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설계경기와 계획안, 완공된 건축물이 모두 함께 보여져 경우에 따른 건축의 접근 방법과 풀어나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의: 현대건축사 전화 02-547-6156~7



신간안내

호텔건축계획

100 of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 호텔건축계획

Hotel Design에 필요한 개요, 개념과 종류, 건축계획, 법규 검토 및 공사업무 등 이론적인 체계와 Hotel의 사설, 도면, 사진, 투시도 등 Design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대지의 선택에서 Hotel의 Open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은 국내 및 외국 Hotel들의 Case Study를 통하여 시설의 이용고객들에게 건강, 안전 및 휴식, 그리고 문화예술공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Hotel Project를 처음 대하는 설계사무소는 정보를 많이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병직 저음 / 세진사 (02-922-6371~3) / 다이아몬드판, 양장 제본 / 310쪽 / 4만원



◇ 100 of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국제적인 초고층건축을 협의회인 CTBUH(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서 주관, Lehigh대학 건축학과 교수 Ivan Zaknic가 「100 of the World's Tallest Buildings」을 출간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고 멋진 초고층건물을 100개가 선정되어 수록된 이 책은 지난 65년 이상의 건축물 기술과 예술이 집약된 건물들로써 높이는 221m부터 452m의 범위다.

각각의 건물들에 대하여 설명, 사진, 평면도 및 특기사항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John Portman과 Duncan Michael의 서인이 포함되어 있다.

CTBUH 발행(팩스 미국 1-610-758-4522, 국내 0418-548-5126) / IMAGES Publishing 출판 / 국내판 / 220쪽 / U\$59.95+우송료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부경대 학술정보센터

소가야유물전시관

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각리초등학교

부경대 학술정보센터

The Scientific Information
Center of Buky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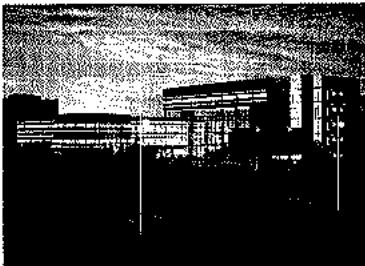
부경대학교는 캠퍼스의 성격을 좀더 분명하게 부각시켜 줄 학술정보센터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9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창조건축사사무소(조재원+유태용)안, 우수작에 성립종합건축사사무소(임장렬)안, 가작에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진병태)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10월 9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경희(연세대), 김광현(서울대), 임충신(울산대), 이수룡(부경대), 이호진(건국대), 류종우(부경대), 조홍정(부경대), 조용수(동아대), 신용재(부경대), 조성기(부산대), 우동주(동의대)

▶ 당선작 / 창조건축사사무소

(조재원+유태용)



조감도

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국립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지구
주요용도	도서관, 학술정보센터
대지면적	캠퍼스 전체-333,788㎡ 계획대지-9,890㎡
건축면적	3,425㎡
연면적	전체 연면적: 9,777㎡ 지상층 연면적: 9,252㎡ 지하층 연면적 : 524㎡
건폐율	계획대지기준 34.6%
용적률	계획대지기준 93.5%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THK30 화강석 물갈기, Access플로어위 전도 타일, 무식면타일 등 벽-THK30 화강석 물갈기, 흠음패널 등 천장-메탈 천정판, 암면텍스 등
외부마감	바닥-화강석 잔다듬, 벽-THK30 화강석 물갈기, THK16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최선종, 이상훈, 송선훈

■ 설계요지

대학분부와 마주하는 캠퍼스 중심공간으로써의 상징성을 가지며, 국립 부경대학교 캠퍼스의 성격을 좀더 분명하게 부각시켜줄 수 있는 명확한 Layout의 설정,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첨단 정보의 검색과 관리영역, 전자자료의 열람 영역 확보와 그의 이용에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상의 축과 외부동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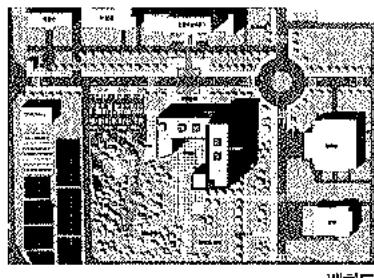
계를 명확히 유지할 수 있는 공간배분을 통하여 전통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의 형태적인 분리를 의도하였으며, 캠퍼스 주축과 신축 본관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필로티를 통한 중정진입으로 캠퍼스 주축과의 유기적인 관입을 형성하고 대지가 갖는 각 방향의 성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주어진 기능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신축 본관과의 소광장 공유 ← 필로티 → 중정으로 이어지는 캠퍼스의 활기찬 공간의 축을 형성하여 대지를 중심으로 남서측의 보존되어야 할 해송군과 북동측으로부터 밑으로 확장된 조경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적극적인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실영역, 검색영역, Multi Media A/V영역, 수서 정리영역, Data Base영역, Multi Media 제작, 편집영역, 전자 계산소영역, 관리영역 등으로 기능구성에 따른 전문영역을 설정, 이용자위주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평면이 계획되어야 하며, 석재가 갖는 안정감과 유리면의 개방감을 기능 및 형태와 조합하여 학술정보센터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형태가 구성되어야 하고, 대학본부가 갖는 강한 성격을 최대한 부각시켜줄 수 있는 전면부의 입면계획이 전제되었으며, 해송숲을 향하여 안과 밖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의 설정, 그리고 필로티로 강조되는 수평면을 조절하는 수직적 요소들의 조합이 의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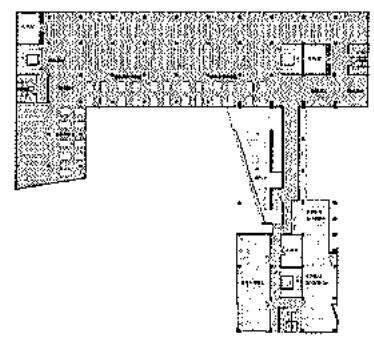
저층부의 필로티와 상층부의 긴 유리면을 통하여 이용자중심인 전자도서관으로써의 개방성과 신축 본관과의 건축적 관계를 상정하였으며, 전자도서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첨단성을 캠퍼스 중심을 향한 메탈 패널에 의해 상징적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다수의 공용시설(검색 및 정보수집, 열람)이 주가 되는 저층부에서 각종 인쇄 정보 및 디지털정보의 전문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중층부로, 그리고 전문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루게 되는 전자계산소 기능을 갖춘 상층부로의 배열이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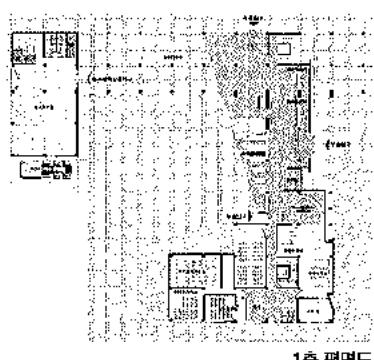
이제 국립 부경대학교의 학술정보센터가
명실상부한 학문과 연구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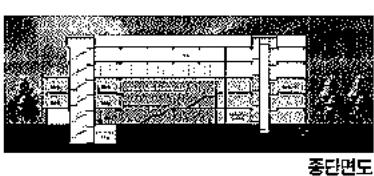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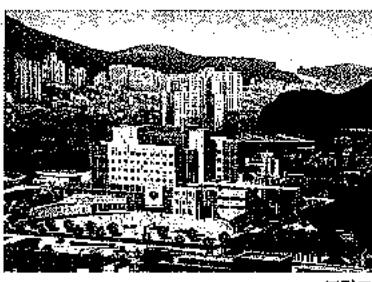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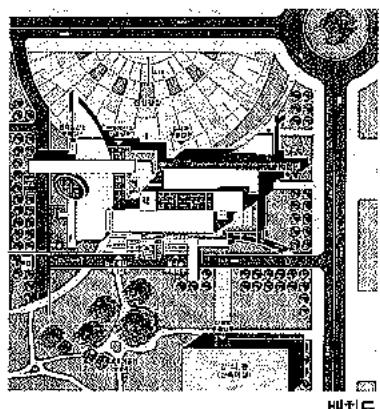
종단면도

▶ 우수작 / 성립종합건축사사무소 (임장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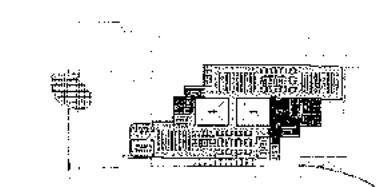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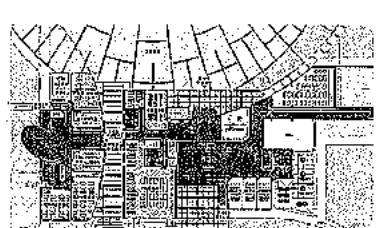
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동 599-1 대 연캠퍸스 내
지역	일반거주지역, 학교시설지구
대지면적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준함
건축면적	2,590.47m ²
연면적	9,762.41m ²
건폐율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준함
용적률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준함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주요시설	전자도서관, 주제별 도서관, 전자계산소
부대시설	진입광장, 수공간, 육외휴게 공간
외장재료	화강석 벽면구이, THK24 철 러복층유리
주차대수	기존 주차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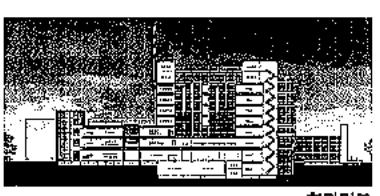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가작 /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진병태)



조감도

대지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경대학교 구
내(대연캠퍸스)

대지면적 337.788.00m²

건축면적 3,323.36m²

연면적 9,759.36m²

건폐율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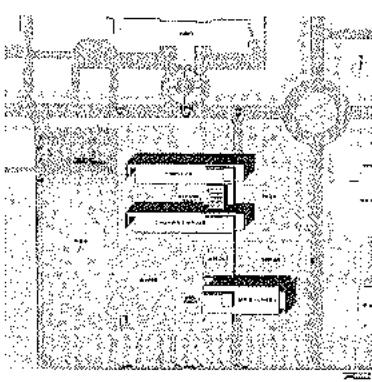
용적률 2.69%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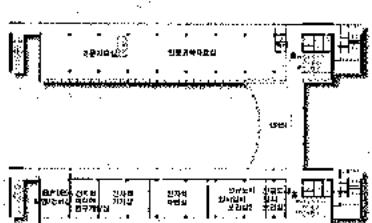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기존주차장에 통합(법정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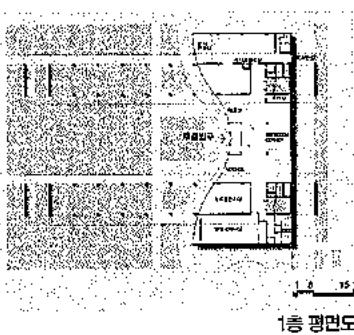
외벽마감 노출콘크리트, 금속페널, Low-E복층유리(티타늄 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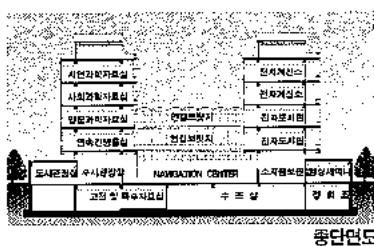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건축면적	619.13m ²
연면적	619.22m ²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노출콘크리트, 천벽돌
설계	이기훈, 강정호
G. G	권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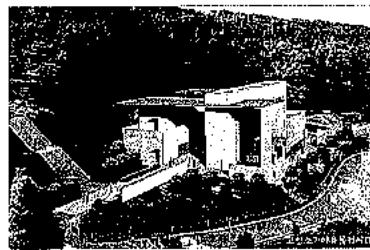


소가아유물전시관

Sogaya Heritag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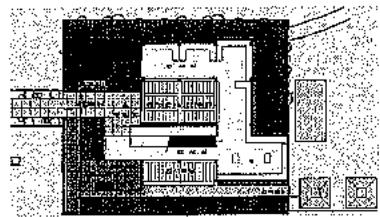
고성군은 소가아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교수 2명, 공무원 5명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건축디자인그룹 이·상(박병철)안, 가작에 (주)기원건축(임부춘)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10월 24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건축디자인그룹 이·상 (박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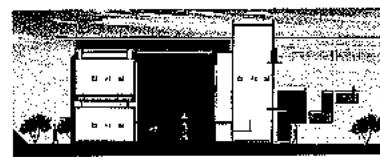


조감도

위치	경남 고성군 담항포 국민관광 단지내
대지면적	1,191.4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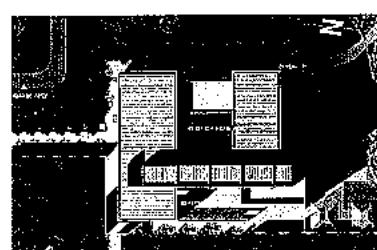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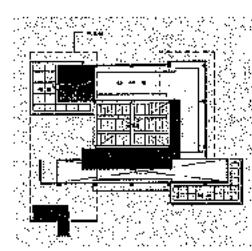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전면에 펼쳐진 '당항포'와 지역사의 유물을 담는 역사성, 대지가 가지는 자연적 조건, 이 세가지 요소는 건축물의 관계이다. 이 요소들이 전시공간의 채분리로 마당을 이룬다. 주도로로부터의 담장은 전시관으로 유도하며 전시마당(중정)에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이는 전통적인 옛보기 수법이다. 채분리에 의한 중정은 안마당에 애워싸기이며 치붕에 의한 위요감, 전면의 꽉쳐브레이姆 또한 우리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1, 2층 전시공간의 연결은 동측 당항포 바다와 관계를 가지며 경사로를 따라 유도된다. 경사로를 이동하는 중에도 당항포의 바다 – 육외전시마당 – 중정 등이 내부공간과 결합되어 중성적 공간이 된다. 전면 휴식마당에서는 의도된 프레임을 통해 바다의 경치를 옛보기 하며 호기심은 바다로 이끌어진다.



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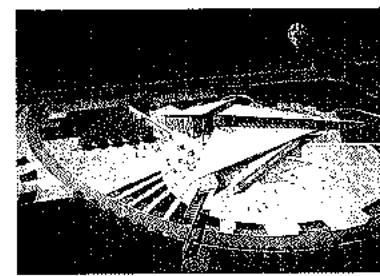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념시설물

The Monuments of Goyang International Flower Exhibition

고양시는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념 시설물'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28개 작품 가운데 최우수작에 (주)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한충국+김영민)안, 우수작에 종합건축사사무소 설우건축(임태종)안, 기작에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김봉희)+(주)빛티건축사사무소(임광호)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9월 10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주)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한충국+김영민)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예술회관부지내)
지역지구	공원구역내
대지면적	21,487.70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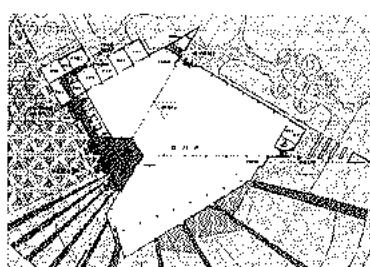
건축면적	5,521.59m ²
연면적	6,714.28m ²
건폐율	25.70%
용적률	28.10%
구조	트러스조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투명유리, 컬러복층유리, 메탈페널
설계담당	이웅선, 신지선, 김은희, 김성수

이 프로젝트는 세계 꽃박람회 기념시설 물로써의 상징성 부각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

방향성이 없는 대지의 성격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시방향성을 기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꽃박람회의 주 전시관과 호수공원의 상징으로써 조형성과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제시하게 되었다. 배치계획은 호수와 대지를 직선으로 잇는 축과 진입도로에 수평인 축에 의해 분할된 지붕선과 기벽으로 4개의 영역(진입광장, 옥외전시장, 옥외휴식공간, 서비스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들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영역간의 상호관입을 통하여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였다. 큰 단위의 공간을 축을 따라 3개의 각기 다른 기울기와 예각을 가지는 삼각형 지붕 프레임을 형성하여 동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해 낸다. 3개의 삼각형 매스의 조합, 그 결절점에로 비가 형성되며 그것은 가변형 평면 구성의 중심이 된다. 행사에 따라 대·중·소 규모의 공간형성이 가변적으로 이루어진다. 입면과 단면계획에 있어서는 첨단재료인 유리와 메탈페널을 마감재료로 사용하고 장스팬 구조를 위한 파이프 트러스를 사용함으로써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야간에 호수공원의 상징으로써의 발광체 역할을 한다.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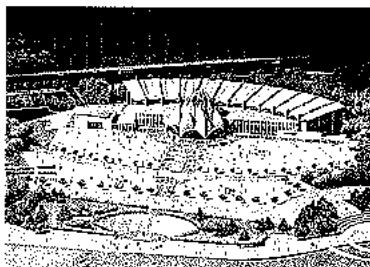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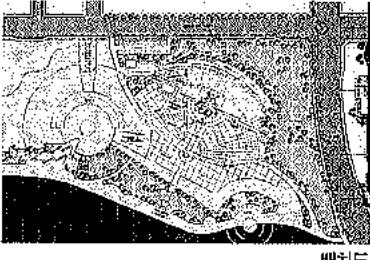
우측면도

▶ 우수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임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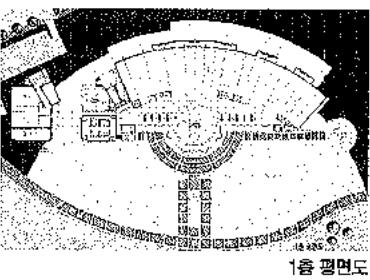


조감도

건축면적	6,319.5m ²
연면적	6,884.6m ²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외부마감	화강석 베녀구이, 알루미늄 쉬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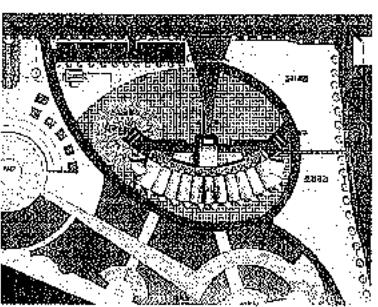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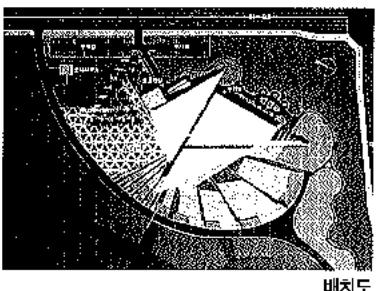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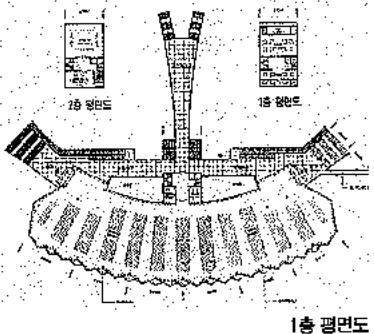
건축면적	7,652.74m ²
연면적	6,760.60m ²
건폐율	35.61%
용적률	28.33%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부 철골조)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THK3.0 알루미늄 복합페널



배치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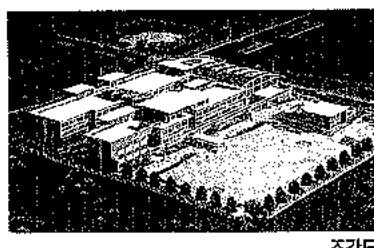
각리초등학교

Gakree Primary School

충북 청원 교육청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기존의 학교를 택지개발지구내에 이전 신축하기 위해 각리초등학교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31개 작품 가운데 당선작에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권오준)안, 우수작에 (주)선종합건축사사무소(오선교)안, 기작에 선기획종합건축사사무소(이용선)안과 (주)이·오컨설팅건축사사무소(정태인)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8월 25일에 발표했다. 실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김승제(광운대학교), 박영기(연세대학교), 안병욱(충청대학), 이 훈(충북대학교), 최효승(청주대학교), 박모현(충북교육청 설계계장), 조성근(충북 청원교육청 교육장), 윤명구(충북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정관영(충북 청원교육청 시설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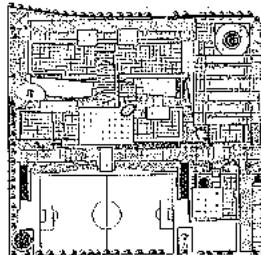
▶ 당선작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권오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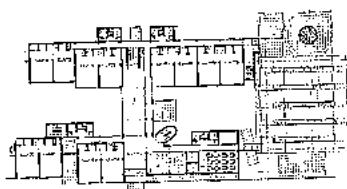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청원군 오창면 오창과학산업 단지 택지개발지구 B6
대지면적	15,163.00m ²
연면적	9,574.27m ²
건축면적	3,860.91m ²
건폐율	25.46%
용적률	61.96%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층수	지하1층~지상4층(교사·민 전실), 지상2층(유치원), 지상 1층(관사), 지하1층~지상2 층(수영장·강당)
외부마감	적벽돌, 외단열시스템, 복층 유리
조경면적	2,729.34m ²
주차대수	3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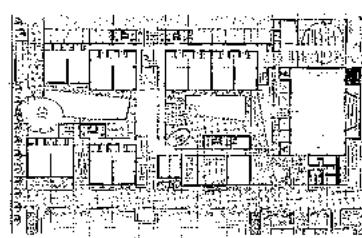
병렬형으로 배치하여 "사잇공간"을 높이 학습공간으로 이용하였고, 3차에 걸친 12학급씩의 증설계획시 동별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수평과 수직에 의한 "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단과학단지를 상징하는 발전적인 형상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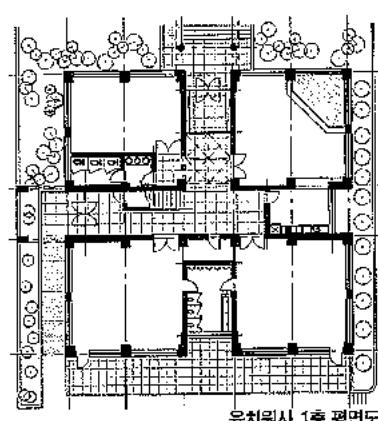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유치원사 1층 평면도



첨단면도

계획작품 process work

평창메밀향토자료관

평창메밀향토자료관

Buckwheat Folk Custom Center of Pyungchang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보평면 창동리 산
176-2번지 일대

대지면적 이효석 문학과 부지내(약1,700m²)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건축면적 284.35m²

연면적 284.3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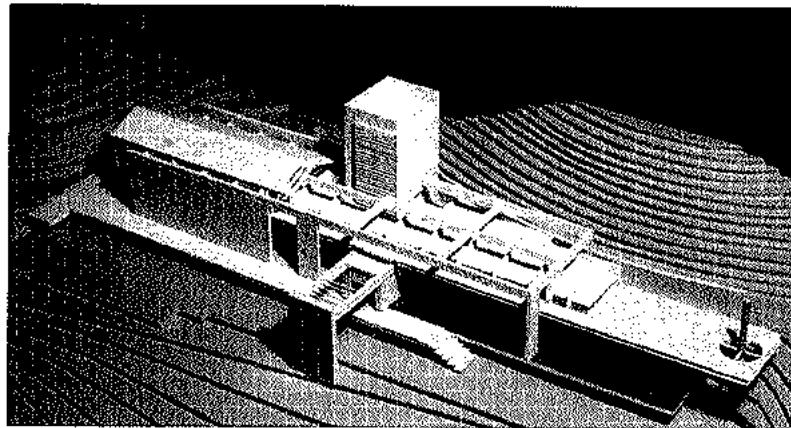
용적률 16.73%

규모 지상1층

외장재료 THK24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글루엠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주차 10대



모형도

계획의 특징

- 메밀에 대한 이해를 증진 - 메밀의 이용 및 우수성 홍보
- 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 평창의 대표적 문학인인 이효석을 기리는 이효석 문학관 등산 부지내에 위치하여 효석의 작품에 대한 상징성 부각
- 관광명소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평면계획

기본개념

- 효율적 동선분리와 연결
- 명확한 평면계획 및 효율적 공간계획
-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평면계획
- 장애자를 고려한 동선계획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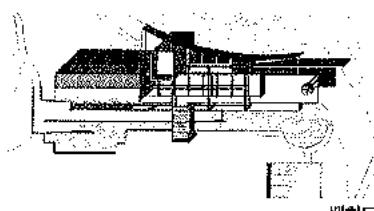
- 전시기능 - 동선의 단순화 및 원활화
- 가변성 고려 - 전시실 + 준비실 + 로비 + 체험공간
- 기능에 따른 Zoning - 전시 · 체험시설과 화장실의 명확한 구분
- 진입방향의 인지성 확보 - 입구부의 이미지 Wall을 통한 인지성 확보 및 상징성 부각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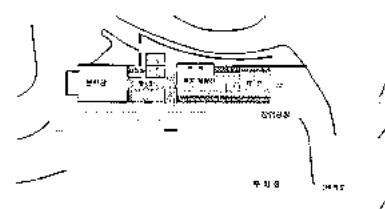
- 구조미와 형태미의 결합을 통한 조형미 표현
- 메밀자료관의 상징성 부각 - 수직 · 수평 요소의 조화
- 동선진행에 따른 라듬감 표현
- 모듈에 의한 합리적 입면계획
- 구조의 노출을 통한 간결한 형태표현
- 나무, 노출콘크리트, 유리를 이용한 자연미 / 현대미의 표현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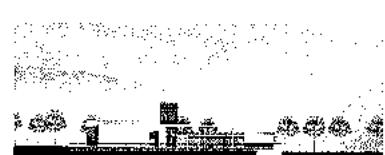
- Canopy - 외부공간의 내부화를 통한 공간확장 및 외부환경과 접할 수 있는 외부 공간 형성
- Deck - 원목을 이용한 공간구획,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 계절별 외부환경체험
- 진입광장 - 이효석 문학동산의 진입부에 위치한 메밀자료관의 진입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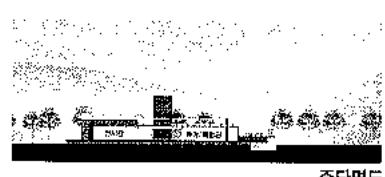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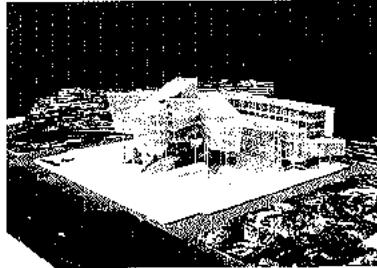
주단면도

전시리뷰 exhibition

'98 대한민국건축대전

일시: 1998. 10. 10 ~ 10. 16
장소: 예술의 전당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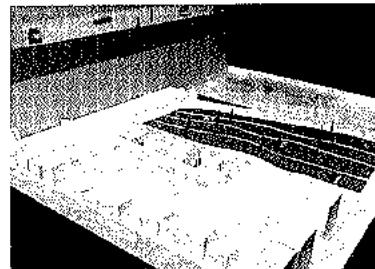
대상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계획안
이승훈(건국대 건축대학원)



이 프로그램은 건축의 영역을 확장하여 건축, 도시, 조경, 실내 분야의 설계교육을 전담할 건축대학과 건축대학원을 위한 건축학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건축교육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건축, 도시, 조경, 실내 등 분야 간의 수평적 관계와 학부에서 대학원, 그리고 교수 연구에 이르는 수직적 관계들이 신축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Open Studio와 전시 및 이벤트 홀, 도서 정보센터, 콩코스 등 여러 사적·공적 장소들에서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학과 도시의 만남'이라는 명제하에 Sunken Square와 연계되는 지하공간은 도시적 시설인 Gallery와 Art Book Store, 그리고 시민참여 Workshop 등을 수용하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교육의 장소'를 구성하도록 한다. 대지의 특성상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Passway를 구성하여 건물 전체가 캠퍼스 서쪽 Gate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경사진 Slab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Sequences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우수상 / Mediapark Jougmyo
한서영(홍익대 건축학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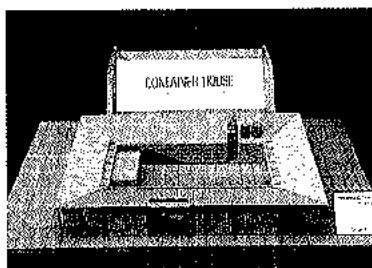


현대의 각종 Media가 모여 있는 이 Media Park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Cyberspace

나 TV에서의 공간경험을 참고한다면 우리는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단주 하니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단편적 공간구조, 이것을 만들기 위해 미로와 동양 산수화의 구조를 합쳐서 이용하는 데 이 Project의 목적이 있다.

- 종묘: 종묘 계단의 구름을 보았는가. 이것은 죽음을 위한 기상의 땅이다. 이곳 공원의 한 번을 완성시키는 삶의 가상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 가로: Mediapark를 가로공원화 해보자. 이 가로를 중심으로 각종 정보와 공간이 흘어져 존재한다. 내관자는 마음에 드는 장소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정보를 찾아 한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 다양한 목적, 다양한 속도를 조작하며 무연성까지 붙잡는다.
- 미로: 원한다면 한 길에서 옆길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길 사이의 여백은 Cyberspace나 TV에서 공간도약 경험 산수화의 여백에서의 공간초월을 느끼게 한다. 여러 문을 통해 언제나 입출입이 가능하다.
- Collage Space: 성격이 다른 여러 공간의 맞붙임. 산의 다양성 공간도약
- 정보의 담: 왜 우리는 성벽 이미지에만 집착하는가. 모든 것을 흡수하는 반투명 유리벽, 벽 안과 밖의 스크린. 산수화의 현상적 투명성인 여백.

우수상 / 컨테이너 하우스
남익호(홍익대 건축학과 4학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안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건축적 제안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에 지금까지 제시된 기존

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시한다.

Container를 이용하여 기존의 콘크리트 중량 건물이 아닌 조립, 해체, 이동, 재활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주거 형식을 제안한다.

Container House의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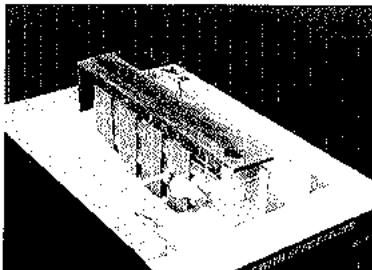
(1) Homeless를 위한 임시주거 시설 - Container Unit을 복도가 포함된 주거 Unit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계획한다.

(2) 저소득층 부실주거 개선 - 현재 비닐 하우스들이 대지의 특성을 고려 화훼재 배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예재배 공간을 주거부와 연계시켜 공간 구성한다. 재배공간에는 각종 식물의 특성에 따라 채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재민을 위한 가설주거안 -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필요로 한다. 기존 택지 외에 주변 나대지(경사지)를 Container Level 차를 조정함으로써 경사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우수상 / 그들은 관객들과 함께 존재한다

최세원(경희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연극인을 위한 납골당

묘지 수가 증가하면서 묘지 면적이 증대되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다. 이에 '납골당'이라는 대안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납골당을 살펴보면 주로 도시 밖에 형성되어이며 죽은 자와 그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 폐쇄적·상징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납골당(죽은 자의 공간)은 도시(산 자의 공간) 속에서 그 지역상황에 적응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그 지역의 형태를 활성화하는 도시 속의 납골당이다.

연극 공연장이 많은 대학로에 연극인을 위한 납골당을 형성하여 피카디리극장 앞 광장(영화인들이 손도장 찍은 광장)과 같이 상징적 공간으로 활성화된 공간을 제안한다.

기존의 대로번 휴식공간을 Street Gallery화시켜 이 납골당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비디오 갤러리로 납골당의 진입부로 구성한다. 미당은 추모제 때 제의식과 그들(죽은 자)의 연극 Revival이 이루어지는 휴식공간으로 구성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행위를 같이 하는 공간이다. 이 납골당엔 다섯 개의 상징벽이 있다. 이는 극작가, 연출가, 스태프, 연기인, 그리고 관객이라는 연극의 5요소를 상징한다. 연극의 다섯 번째 요소인 관객은 연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인 4개의 상징벽에 의해 내부공간은 계획되어지며 납골공간과 묻힌 이들의 전시공간이 연계된다. 다섯 번째 상징벽은 유리벽으로 동선상에 외부의 모습(관객인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일반공모부 심사평 / 강석원(심사위원장)

금번 제17회 건축대전은 그 동안의 심사방법을 바꾸어 1차와 2차 심사로 시행한 첫 번째 대전이다. 사상 최대의 출품으로 총 1,131개 작품이 1차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1/10 정도인 135개 작품이 입선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2차에는 126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나 건축대전의 수준을 지키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14점을 탈락시키고 112점을 입선으로 결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많은 응모자 수에도 불구하고 입선작은 예년의 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시간의 심사 끝에 그 중 특선 후보작 11점을 선정하여 공개 토론회를 가졌으며, 진지한 발표와 토론 끝에 심사위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4점을 선정 발표했다.

다양한 주제, 독특한 해석과 전개로 돋보이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상작은 8점에 불과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대상작품인 「건축대학」은 기존 대학의 캠퍼스 내에 가로에 면한 부분을 열어 도시를 끌어들이면서 표현한 점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수상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연극인 납골당」과 임시주택으로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선정되었는데, 「연극인 납골당」은 종묘문화를 개선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인의 납골당과 추모 기념공간, 행사공간 등을 합하여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건축을 만들고자 한 점, 「컨테이너 하우스」는 임시 Low Cost Housing이라는 주제를 장인적인 탐구를 통해 실현시킨 현실적 실현장신으로, 「Media Park 종묘」는 놀라적인 접근과 표현으로 세련되면서도 신선한 차별을 준 점 등이 탁작품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밖에 특선작들도 작가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수작들로 건축심리 경험공간, 도시사찰, 환경정보센터, 이동형 가변형 소극장 등의 작품도 작품정신이나 성취도가 뛰어나 앞으로의 정진이 기대된다.

최종 결선까지 올라왔으나 안타깝게도 탈락한 3작품은 건축적인 성취도를 좀 더 높이거나 설득력있는 성숙한 표현을 하였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준 응모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건축대전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축가 축제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건축문화

98년 9월호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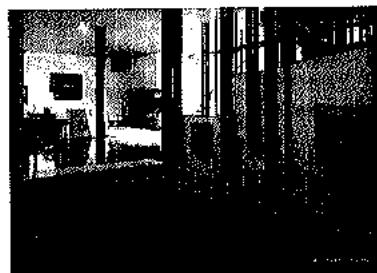
알바 알토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호는 마이 레아 저택과 파이미오의 세 나토리움, 알토의 여름 주택 등 6개의 알바

알토의 작품들에 대한 사진 소개와 그의 주요 작품 50개에 대한 개략적 소개, 그리고 두 차례의 대담내용과 에세이가 실렸다.

■ 알바 알토 특집

알바 알토의 건축은 “그것들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서 직접 보아라”라는 말처럼 그 작품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회피되어 왔다. 알토의 비평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유기적” 내지는 “축각적인” 혹은 “인간적이고 편안한” 같은 단어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는 있으나 그의 건축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의 10월호에서는 알토의 건축적 공간에 대한 탐구를 다른 모더니스트들의 영향과 건축사에서 알토가 지니는 위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진행한다.

▶ 대담1: 알토로부터 읽어내는 모더니즘의 건축, 도시(야쓰카 하지마와 오까베 노리아끼의 대담)



이 대담의 주제는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



서 알토가 갖는 위치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모더니즘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알토는 분명 주변에 속하는 인물로 생각되나 그는 결코 이단적 인물이 아니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이기만 했던 중심의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를 시킨 알토의 건축이 오히려 모더니스트의 이념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의 우익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알토가 좌익인 생산주의자들보다 생산의 문제를 더 실천에 옮겼다는 이야기도 된다. 대담의 내용은 국가의 인프라 스트럭쳐로서의 건축과 도시, 테크놀로지에 대한 근대적인 관심, 사아리넨과 알토, 빛의 문제, 알토의 다양한 실험 등의 주제로 전개되었다.

▶ 대담2: 현재의 세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알토의 가능성(쓰카모토 요시하루와 오네다 아키라의 대담)



이 대담은 알토가 건축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것이 현재에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생각해보는 것이 주제였다. 쓰카모토는 알토의 공간 형성은 ‘미분적분’ 같은 것으로 네덜란드의 더 스텔이나 러시아 구상주의자들의 요소 환원주의와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작은 요소로부터 전체로 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모더니스트들의 요소들은 전체로 형성되었을 때도 하나하나 구별이 가능한 반면 알토가 전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치 적분을 하는 것과 같이 통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적분'의 과정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방식이 존재하고 이 방식은 지역의 형세와 연관을 맺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원형극장과 같은 형태가 건물의 볼륨이 되었던 독의 공간의 형태가 되었던 전체 형태를 구성해 가는데 있어서 고집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알토 공간이 갖는 신체성과 외부조건과의 생기있는 대응관계가 흥미있는 것으로 지적된 반면 문제를 명확히 조직화하는 모더니즘과 달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직학 이전에 지역주의를 통해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지적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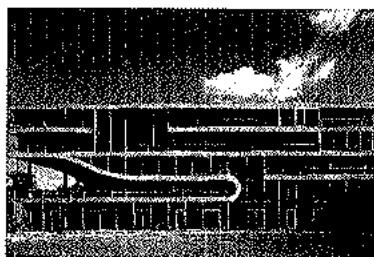
▶ 이 외에 알토 건축의 성장 배경과 과정을 조명한 아쓰카 하니메의 에세이 연재물 제1회 '알토 - 행복한 건축가'와 마이레아 주택, 파이미오의 세나토리움, 세이나차로의 사무소, 알토의 어룸주택, 아뜰리에 알토, 쿠르투리탈로 등 현존하는 여섯 작품이 사진들과 주요 작품 50선 중 제1부가 소개되었다.

a+u

98년 9월호

로테르담 건축가의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호는 피터 부케너의 소개와 함께 렘 콜하스의 Utrecht 대학의 Educa-torium, MVRDV의 Villa VPRO와 RVU 사무소, 키이스 크리스천의 Pijler 초등학교, 뉴틀링스와 뉴데의 우체국 등의 로테르담 건축가들의 최근작들이 소개되었다.

■특집: 로테르담의 건축가들



이번 호는 깊은 흥미를 끄는 다수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건축의 특집으로, 앞으로 발간될 12월호와 함께 두 번에 걸쳐 꾸며지게 된다.

이번 호의 테마는 '로테르담 건축가들'이다. 로테르담은 일다시피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의 고향이다. 지금은 이미 국제적인 건축가로 활약하고 있는 콜하스지만 그를 이해하는 데에는 네덜란드 특유의 건축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즈부르그나 몬드리안, 리트 펠트, 야우트, 듀덕 등을 배출한 네덜란드는 기능주의, 모더니즘의 중심지였다. 그 이후 네덜란드 건축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기능주의, 합리주의를 우선하는 건축을 고대해 왔다.

피터 부케너의 논문 속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네덜란드 건축에 강력한 충격을 가할 것을 생각한 것이 렘 콜하스였다. 그리하여 그의 아이러니컬한 유도 피아는 눈깜짝할 사이에 전세계에 파고 들어 많은 건축가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게다가 콜하스의 존재는 모더니즘을 신앙으로 생각해온 네덜란드에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ex-OMA라 불리는 건축가그룹이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들은 콜하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자적인 건축을 전개하여 역으로 OMA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게 할 정도의 충격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로테르담은 OMA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 ex-OMA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Movement를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 피터 부케너의 Introduction "Netherlands Now"에서는 근대 이후 네

덜란드 건축의 특징과 콜하스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덜란드 작가들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렘 콜하스의 유트레히트(Utrecht)대학의 Edatorium, MVRDV의 Villa VPRO, RVU Office, 그리고 De Architectengroep과 협동 작업한 Double House, 키이스 크리스천의 Pijler Primary School, Housing at Spreeuwen Street and Koekoek Street, Hooikade Housing, 뉴틀링스와 뉴데의 Minnaert 빌딩, 우체국, Veeman Printers를 위한 새 건물, West 8의 스파부르크 광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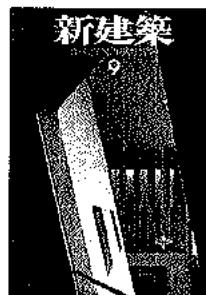
— 네덜란드 건축의 특징 —



신건축

98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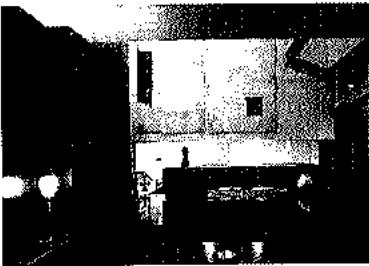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서는 후미히고 마끼의 나토리市 문화회관, 도요 이토의 오마區 휴양촌 주요부, 와세다 대학 오사루 이시야마 연구실의 와세다 사자까, 히데또 호리이키와 URTOPIA의 ZONA(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따미 준의 墓의 庵, 노오스 환경설계



사무소의 아타미이즈 산장 등 19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현재로서는 전후 모더니즘건축의 궤적 - 단계겐조와 그 시대'가 게재되었다.

■ 작품 소개

▶ 후미히코 마키의 나토리市 문화회관



이 건물은 인구 6나의 나토리시에 건립되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회관이다. 나토리시는 아직 농촌의 풍경이 남아있는 곳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로서 이 문화회관은 인접하는 시청사와 체육관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 중심부로서 계획되었다. 농지 속의 파빌리온으로 구상된 이 건물은 마키 특유의 깔끔한 면과 매스의 처리와 함께 넉넉한 높이의 실내공간이 특징이다. 대·중·소의 공연장을 각기 독립된 포이어를 가지면서 중정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

▶ 도요이토의 오다구 휴양촌 주요부

이 건물은 북동쪽으로 등을 등지고 전면으로는 강을 건너 서쪽으로 펼쳐지는 평야대로 시야가 뻗어나가는 위치에 있다. 반달 모양의 굽은 형태를 한 평면은 함께 마련된 태양의 광장을 에워싸듯이 자리잡았으며 강건너의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감싸안는 듯하다. 긴 평면은 지형에 따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길이방향을 따라 연결되는 각각의 공간들은 단차를 이루며 분절되고 이들을 경사로로 된 복도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과 목재 루버의 입면은 농촌지역에 세워진 이 거대한 건물의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있다.

▶ 와세다 대학 오사무 이시야마 연구실의 와세다 사자끼湯

옥장인 이 건물은 황색의 벽들이 실내를 꾸미고 있다. 파편화된 공간과 이에 대조

되는 장식 없는 황색의 벽들은 사이사이 들어오는 빛에 의해 조희를 이루며 연출되고 있다. 갈라진 틈처럼 보이는 건물의 종방향으로 난 복도는 '단일한 볼륨을 두 개로 나누어 그 결과로 출현하는 공간의 흡적이 이 건물 의장의 포인트'라 지적한 작가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이따미 준의 墓의 魏

흙, 나무, 돌 등의 자연 재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이따미 준 건축의 특징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대나무라는 자연 재료와 철이라는 반자연 재료에 주목하였다. 건물의 외피를 곧은 대나무로 목재 루버와 같이 마무리하였으며 전면에 심어져 있던 두 그루의 벚꽃 나무가 이러한 외관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실내는 흑색의 철판을 사용하여 바닥과 벽을 마감하였다. 실내에 장식된 동양화와 도예품들과 함께 흑색의 철은 동양적인 재료로 탈바꿈되었다.

▶ 연재: 전후 모더니즘 건축의 궤적 - 단계겐조와 그 시대

満家 清(1918년생)은 단계겐조(1913년생)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을 배운 인물이다. 모더니즘이 이미 일본에 들어온 시기인 1938년에서 1943년까지 동경미술학교와 동경공업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 그에게 비춰진 당시의 모더니즘의 모습을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조경과 건축의 경계에 있는 작품들도 있으며 자연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택, 별장 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미국 건축가들의 다변화, 다각화되고 있는 부동산업계로의 참여 경향 등을 다루고 있다.

■ 자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축에 대하여



▶ Sweet Farm은 케벡의 Easter Township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숲을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토론토의 디자인 회사인 PLANT가 디자인한 것으로 도시의 인공물을 다루듯이 숲을 다뤘지만 그것의 구성물은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숲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의도된 시퀀스를 갖는 장소를 갖는다. 1. Maesh Porch - 늘지대에 걸쳐진 포치로 다리를 따라 걷다가 플랫폼에 이르면 능주위의 작은 묘목들과 그 밑에 만들어내는 캐노피가 새소리와 함께 장소성을 만들어낸다. 2. Mink Cage Garden - 철망으로 만 들어진 작은 링크 우리(Cage)들을 쌓아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었다. 원래의 기능은 순환되고 내용은 전환된다. 우리로 쌓은 벽은 펼쳐진 경치의 시퀀스를 만들 어내어 좁은 진입로사이로 골짜기의 드라마틱한 전망이 펼쳐진다. 3. Woven Walls - 5ft 간격의 나무 말뚝에 가로방향으로 긴 나무막대들이 얹여 있다. 이것은 스크린을 형성하여 숲으로의 전망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기도 하여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Louisville, Kentucky에 위치한

Architecture

98년 7월

7월호는 Fa
bricating
Nature라는
주제로 자연
에 대응하여
세심하게 고
려된 작품들



Waterfront Park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안내소, 벤치, 공공화장실 등의 기능을 갖는 Bravura가 설계한 Functional Follie ▶웨스트 버지니아에 위치한 U.S. Fish & Wildlife Service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심하게 고려된 연구시설, 주택단지로 언덕주위에 적정한 스케일의 건물군들을 얻도록 다양한 건물 크기의 풍선들을 매어놓아 비교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텍사스에 있는 Laurence Speck의 Rough Creek Lodge ▶캘리포니아, 산호세지역의 재개발에 일대 전환을 맞게한 Jones, Partners의 공격적인 모습의 관광안내소 ▶Shim-Sutcliffe, Architects의 토론토 공원 ▶Vincent James의 미네아폴리스 데이튼주택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미국 건축가들의 부동산 참여 경향
새로운 교육의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활기로 건축가들과 건축교수들이 다변화, 다양화되는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MIT나 Columbia대학은 80년대부터 부동산관련 학과를 개설해 왔으며 그밖의 건축 대학도 MBA과정과 M.Arch의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을 받은 많은 전문인들은 부동산 개발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디즈니 월드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유명한 건축가들을 지휘하거나, 뉴욕 할렘지역의 재개발계획에서 역사보존지구와 비보존지구의 민감한 문제와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개인적인 건축설계의 과정을 넘어서서 건축물들의 통제와 건물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심을 갖는다. 나아가 현실적인 사고 안에서 경제논리에 충실했던 건축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 기타

▶석고보드의 기술적 정보 ▶건축적 스케치를 정확한 수치의 도형이나 2차원의 도면으로 전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의 소개가 다루어져 있다.

World Architecture

98년 10월

이번호는 전 세계 건축가의 설계사무소 소개와 함께 연속기획으로 캐나다 건축계에 초점을 맞춰서



캐나다 현대 건축의 지형도를 그려보았으며 각 대륙별로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수준이 실려 있다.

■ 건축가 자신의 사무소

건축가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장시간의 작업과 밤샘작업이 많은 직업이다.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작업공간을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를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설계사무소의 소개를 통해 다룬었다. 유럽에서 청형적인 오피스 건물에 설계사무소를 갖는에는 드물다. Zaha Hadid는 넓은 학교 건물에, Ricardo Bofill은 버려진 시멘트 공장에 자신의 사무실로 개조하여 쓰고 있으며 Renzo Piano는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투명한 테라스 하우스에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자신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Michael Graves는 뉴저지의 역사적인 농가를 리노베이션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보다 큰 규모의 Richard Meier의 뉴욕 본사는 개조된 1920년대의 벽돌 오피스 건물의 12개층을 임대하여 쓰고 있다. 캐나다의 젊은 건축가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만큼이나 독특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버려진 제재소의 장치물을 인테리어에 이용한 다년지, 콘크리트 블록 하우스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다.

아시아의 설계사무소들은 자신의 사무실

이 그 회사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며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Gensler의 홍콩지부와 OMA Asia가 소개되었다.

■ 캐나다 건축



Country Focus에서는 캐나다가 다뤄졌는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건축인과 캐나다에서 일을 원하는 외국인이 처한 건축적인 환경에 대해 실려 있으며 캐나다의 가장 큰 설계사무소 중 하나인 Zeidler Roberts Partnerships의 소개와 캐나다 건축가들의 세계적인 프로젝트작업에 관한 심포지엄 내용, 그리고 다음과 같은 캐나다의 최근 건물이 소개되었다.

▶Bing Thom의 밴쿠버 Chan Centre 콘서트 훌 ▶Saucier + Perrotte/Menkes Shooner Degeneais의 몬트리올 건축학교 ▶Patkau Architects Inc의 빅토리아 Strawberry Vale School ▶Dan Hanganu Architects의 몬트리올 Cirque de Soleil 본사

■ 기타



▶각 대륙 건축계의 설리리 조사결과로 지난해 미국 건축계의 호황에 이어 올해는 호주 건축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가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여름 개항한 홍콩의 체림록 공항에 대한

문제점 비판 ▶David Lloyds Jonse의 저서 「Architectre and Environment」와 최근의 대형 아트 뮤즈움에 대해 다룬 책, 「Towards New Museum」의 북 리뷰 ▶기능적이고 팀 작업의 효율을 려줄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용 가구의 소개가 실려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8년 8월

8월호는 Institutional Building에 관해 다루고 있다. Niels Torp의 히드로 공항 근처의 브리티쉬 항공사 복합건물, Steven Holl의 헬싱키 New Museum, Alvaro Siza의 포루투갈의 작은 마을인 Marco de Cavanes의 교회, Studio Granda의 아이슬란드 대법원 청사 등을 소개하면서 시설에 대한 건축가들의 새로운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현대의 시설에 대해

현대의 시설은 변화하고 있다. 현대 시설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는 존엄성과 즐거움이다. 역사에 걸쳐서 건축은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이상화시키고 요약화 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시설의 정의가 어려워지고 단지 주거나 종교적인 용도 등으로 분화된다. 아니면 법원, 교회, 병원, 박물관 등의 전형으로 분류된다. 20세기의 시설 디자이너들은 이전의 모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에 적응해 있다. 현대의 사회구조는 절대적 권위를 요구하는 단체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산업사회는 절대적 가치나 그 가치를 명명해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갖지 않는다. 서구에서 신의 지위는 부에 의해 그 자리 를 빼앗겼으며 베드로 성당의 존엄성은 홍콩이나 상하이 뱅크로 넘어 갔다. 20세기 중반으로 공공시설의 분화와 영원함, 절대적 부에 대한 혐오는 건축에 대한 세로 움과 도전들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건축이론으로의 유행에 의해 새로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적, 미적 관심이 일어났다. 역사적 선례, 도시적 맥락 그리고 공공의 참여에 대한 고려는 시설적인 건물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제도의 분해는 새롭고 다양한 타입의 시설이 생겨나도록 하였다.

▶ Steven Holl의 헬싱키 New Museum은 과거의 엘리트적인 보물창고의 이미지에서 대중과의 교류를 위한 역동적이고 민중적인 이미지로의 전환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설로서의 박물관을 제시하고 있다. ▶ Niels Torp의 히드로 공항 근처의 브리티쉬 항공사 복합건물은 삭막한 오피스 건물의 문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중심화되는 대신에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인간적인 스케일로 조직되었다. 법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에 의해 얻어진 현대 법원의 해석은 ▶ Studio Granda의 아이슬란드 대법원 청사와 ▶ Jourda & Perraudin의 Melun에 위치한 지역법원에서 보여진다. 건축은 제도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해나가는 동인이다. 위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건축의 영역은 개방성, 접근성, 존엄성 그리고 즐거움의 배양을 통해 현대 시설 형성의 유희를 포함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례들로써 ▶ Alvaro Siza의 포루투갈의 작은 마을인

Marco de Cavanes의 교회 ▶ Victor Lopez Costelo의 스페인 Brunete 문화센터 ▶ Heikkinen-Komonen Architects의 헬싱키 맥도널드 본사 ▶ Saucier + Perrotte의 몽트리올 필름센터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생태 막 Eco Membrane



1930년대 지어진 공업적 용도의 창고 건물인 Deckelhalle은 Eco Membrane에 의해 Siemens 스튜디오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단열재가 없으며, 평면의 너비가 너무 깊어서 자연광이 건물의 중앙까지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외판은 변형없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장을 내고 꼭대기 부분과 처마마루에 환기를 위한 루버를 두었으며 건물의 외피와 내부의 새로운 막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층을 형성하기 위해 투명한 막을 건물의 내부에 걸었다. 환경설비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이 것의 설계자인 Herzog는 투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원리를 재해석하였다. 이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동안 Siemens의 디자이너들은 과거와 현대의 건축기술에 대해 시각적으로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 기타

▶ 성페테스부르그의 에르미타쥬 박물관은 다음 세기초에 개관할 응용미술과 장식미술 그리고 멀티미디어 박물관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 Urban Landscape로 씨의 Megaform이라는 주제로 케네스 프랭튼의 사회로 열린 네 번째 예루살렘 건축

세미나,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으로 ▶Olson Sundberg의 시애틀 박물관 재계획 ▶Claesson Koivisto Rune Architektkontor의 스톡홀름 레스토랑 등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98년 8월호

예술과 레저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연속기획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리스본의 아쿠아리움과 일이노이주 미술관, 뉴저지주의 공원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T. R. Hamzah & Yeang의 말레이지아 Guthrie Pavilion과 Steven Holl의 헬싱키 Kiasma Museum이 근작으로 자세히 다뤄졌으며, Steven Ehrlich의 Neutra가 30년대 설계했던 Lewin House 증축에 대한 비평과 미국의 대규모 설계사 무소의 강점과 각 사무실의 소개가 실려 있다.

■ 건물유형 연구 - 예술과 레저

혁신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그들 주변환경을 털珲하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건물은 사람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며 우리를 초대한다. 상호작용은 요란한 분위기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소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작품들 - 아쿠아리움, 공원, 미술관은 완전히 재충전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다음의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사람과 장소사이의 본능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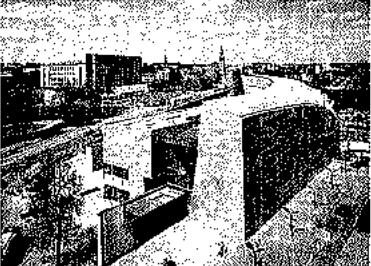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들은 정적인 구조가 아니며 건물과 인간사이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구체적 사례들로는 ▶Cambridge Seven Associates의 리스본 Oceans Pavilion ▶Parsons + Fernandez-Castello의 뉴저지 Boyd 공원 ▶Frederick Fisher + Partners의 뉴욕 롱아일랜드시의 현대미술관 ▶De Stefano + Partners의 일리노이주 Elmhurst 미술관

■ 근작소개



▶T. R. Hamzah & Yeang의 말레이지아 Guthrie Pavilion
고도의 인장기술과 비정형의 기하학이 결합된 Ken Yeang의 Guthrie Pavilion은 패브릭 캐노피로 특징지어 진다. 유리 섬유로 된 넓은 천마는 주간에는 햇빛을 분산시켜주고 야간에는 조명을 흡수하여 반사시킨다. 내진에 대한 고려는 없었지만 태풍과 바람에 대한 저항이 구조적으로 계산이 되어 설계되었다.

▶Steven Holl의 헬싱키 Kiasma Museum



그의 초기 스케치에서 보이는 “Intertwining - 꼬임”을 도상화한 것으로 그것은 미술관과 시의 모뉴멘탈한 건물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의회당을 하나로 감겨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건물 중심부의

아트리움은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수평띠를 가지고 있는데 400ft길이의 이중 곡면을 얻기 위하여 5개의 판의 콘크리트가 층을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되었다. 램프는 주된 순환 동선이 되며 25개의 전시실은 각 전시 작품에 따른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다. Hall에 의하면 건물은 분리된 대상이라기 보다는 연속된 뷰와 공간경험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건물은 부분적인 도시적 조망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흥미로운 점은 그 단편속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다.

■ 비평 - Steven Ehrlich의 주택

30년대 Neutra가 설계한 Lewin House는 Steven Ehrlich에 의해 원래크기의 거의 두배정도로 증축이 되었는데 이 건물의 주된 결점은 아이러낙하게도 너무나 잘 의도된 뉴트리적 제스츄어이다. 그것은 뉴트리가 “Spiderleg Outrigging”라고 부른 것인데, 그는 40~50년대, 조형적인 지붕선의 무한한 확장과 동시에 그 것을 땅으로 다시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그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Lewin House가 지어지던 1930년대에는 그러한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Ehrlich의 새로운 Spiderleg는 사이클로이드 블트 천장의 소도구가 되어 그것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Lewin House의 새로운 설계자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그 자신 스타일대로 변경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 특집 - 미국의 대규모 설계사무소

▶대규모의 설계회사를 운영할때는 창조적인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대규모 설계회사의 강점은 전문적인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처에 용이하다는 것과 대규모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와 좀더 빠른 시간내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율러 미국의 대규모 설계사무소인 NBBJ, Gensler, Leo A. Dahl, RTKL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최근 소식

▶암스테르담 역사지구에 지어진 Ben

Van Berkle의 쇼핑몰에 대한 소식으로 비정형의 이 대지는 300년 이상된 작은 규모의 네덜란드의 벽돌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는 과감하게 분절된 매스를 사용하였다. ► National Building Museum in Washington D.C.에서 열린 새로운 박물관에 대한 심포지움 소식 ►기하학적인 삼각 뿔로 이루어진 지붕이 교토 교외의 숲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I. M. Pei가 설계한 교토 미호 미술관 ►지역 고전주의 디자인에 호응하는 A. M. Stern의 내쉬빌 도서관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던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라호마 배이 브릿지의 새로운 디자인 ►2005일본 엑스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968ft, 150층 높이의 타워소식 등을 다루고 있다.

■ 기타

►필름 코팅, 라미네이팅된 유리의 기술적 정보 ►교회, 트레이드쇼, 레스토랑, 초등학교 등에 쓰인 조명이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면서 건물에 어떻게 생동감을 부여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효과와 시각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조명 연구

domus

98년 8월

Mario Botta의 텔 아비브 유태인 Heritage Center와 Rafael Moneo의 스톡홀름 현대 예술, 건축 박물관 그리고 Gigon & Guyer 다보스 스포츠 센터, Henri Godin의 아미엥스 Saint Leu 대학, HOK Sport의 스포츠 시

설, Damien Hirst의 Pharmacy 레스토랑 등이 근작으로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Wiener Werkstatte를 조명하는 전시회 소식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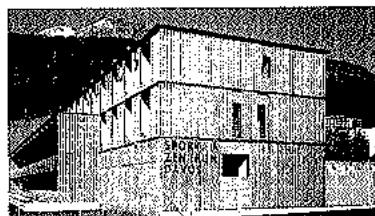
■ 근작 소개



►Mario Botta의 텔 아비브 유태인 Heritage Center의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종파, 즉 이스라엘 정유태교와 자유 유태인들을 위한 유태교회당이 두 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되었다. 하나는 기도를 위한 공간, 다른 하나는 토론을 위한 장소로 구성되었으며 보타 특유의 기하학의 사용으로 두 개의 공간은 등등하게 각각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Rafael Moneo의 스톡홀름 현대 예술, 건축 박물관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크기와 비례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각 블록들을 연결하는 Compactness의 논리는 전체를 지배한다. ►Gigon & Guyer 다보스 스포츠 센터는 세 가지의 주제 아래에서 디자인 되었으며, 그것은 1. 앞마당의 뜻볼 경기장을 겨울에 스케이트 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램의 기능을 할 길다란 평행육면체의 형태, 2. 돌출, 후퇴 그리고 천공된 공장건물과 같은 입면, 3.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래픽적인 색상과 재료, 디테일의 명확성이다. ►Damien Hirst의 Pharmacy 레스토랑은 팝아트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반영한 작품으로, Hirst는 작업환경에 설치 예술을 만들어내면서, 건축안에 예술이 녹아 있도록 내부공간과 외부를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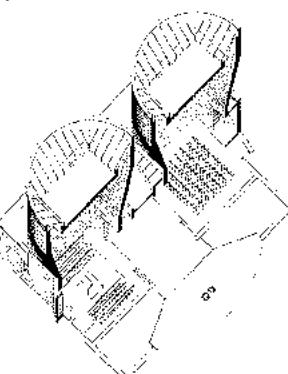
다. ►구성의 방법으로서 예술 - 회화를 겹치려는 Atelier Mendini의 관심이 드러난 스위스 아로사 카지노의 입면 재계획 작품으로 여기서 디자인, 건축, 회화는 독립적인 조각의 흥미로운 꼴리주로 섞이게 된다. 그밖에 ►Henri Godin의 아미엥스 Saint-Leu 대학 ►HOK Sport의 스포츠 시설 등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 Wiener Werkstatte의 전시회



1903~1932에 활동한 디자인 운동단체인 Wiener Werkstatte의 전시회 소개, Joseph Hoffman, Koloman Moser 이후 이 단체를 주도한 Peche의 예술이 응용된 가구, 금속작품, 보석, 세라믹, 직물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그는 예술과 인공물을 혼동하며, 제품의 실제적인 면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입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지만 가능을 넘어서 사물의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면을 부각시킨 그의 디자인은 Joseph Hoffman, Koloman Moser 이후로 Wiener Werkstatte의 작품들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 기타



Renzo Piano의 98년 프리츠커상 수상 소식 ►in-off공식에 의해 전개된 98밀라노 가구 전시회 소개 ►지도와 함께 네덜란드 건축가 Van Eyck의 작품 답사 소개.

회원현황 member

회원변동사항(9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6331	2734	642	513	219	217	240	121	783	153	169	165	183	101	220	309	63																	
급 범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회원 수	6803	28	2729	5	641	1	512	1	218	1	217	0	237	3	121	0	778	5	153	0	167	2	182	3	180	3	99	2	218	2	308	0	63	0
회원변동	입회	21	0	9		1		1										8	1		1													
	재입회	4	0	2							1							1																
	전입	13	0	1		1						3						4			1	2									1			
	전출	-18	0	-2		-1		-1				-2						-3			-3	-4									-1			
	폐업	-9	-1	-20		-13						-2						-2			-1		-4		-1					-6				
	사망	-1	0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6773	27	2718	5	629	1	512	1	216	1	218	0	238	3	121	0	786	5	154	0	165	1	181	3	176	3	98	2	218	2	302	0	63	0
계	6800	2723	630	513	217	216	241	121	791	154	166	164	166	164	179	100	220	302	63															

98년도 회원변동사항(9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입회	456	0	140		22		21		11		32		27		9		80		15		15		17		14		9		21		15		7	
재입회	11	0	6								2						3																	
전입	117	0	18		9				6		3		6		1		44		3		3		5		2		9		4		4			
소계	583	0	164	0	31	0	21	0	17	0	37	0	33	0	10	0	127	0	18	0	18	0	22	0	16	0	18	0	25	0	19	0	7	0
계	583	0	164	0	31	0	21	0	17	0	37	0	33	0	10		127	0	18	0	18	0	22	0	16	0	18	0	25	0	19	0	7	
전출	125	0	38		5		6		11		12		6		1		18		5		4		8		3		1		8					
폐업	231	7	134	4	27		17		3		10	1	7		10		27	1	3		4	1	2		8	4	7		28					
사망	13	0	3		1		1		1								2	1						1		1		1						
등록취소	3	0	3																															
소계	432	7	178	4	33	0	23	0	14	0	23	1	13	0	11	0	47	1	9	0	8	1	10	0	9	0	7	0	9	0	37	0	1	0
계	439	0	182	0	33	0	23	0	14	0	24	0	13	0	11	0	48	0	9	0	9	0	10	0	9	0	7	0	9	0	37	0	1	
누계	144	-18	-2	-2	3		13		20		-1		79		9		9		12		7		11		16		-18		6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9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97.9) 9백6십3만4천8백97㎡ 보다 58.9%(5백6십7만2천5백94㎡) 감소한 3백9십6만2천3백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분('97.1~9) 8천9백5십2만1백㎡ 보다 54.1%(4천8백4십5만4천14㎡) 감소한 4천1백6만6천86㎡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8월분('98.8) 2백9십4만1천4백47㎡보다 34.7%(1백2만8백56㎡) 증가한 3백9십6만2천3백3㎡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경 남	359,882	362,404	2,522	0.7%
감소지역	서 울	4,446,221	2,110,106	(2,336,115)	-52.5%
	부 산	835,053	373,541	(461,512)	-55.3%
	대 구	748,098	86,342	(661,756)	-88.5%
	인 천	318,574	81,768	(236,806)	-74.3%
	광 주	69,883	59,939	(9,944)	-14.2%
	대 전	138,499	7,509	(130,990)	-94.6%
	울 산	66,528	22,933	(43,595)	-65.5%
	경 기	1,381,057	331,686	(1,049,371)	-76.0%
	강 원	206,269	61,554	(144,715)	-70.2%
	충 북	329,757	179,883	(149,874)	-45.4%
	충 남	340,158	114,550	(225,608)	-66.3%
	전 북	79,121	47,152	(31,969)	-40.4%
	전 남	95,961	47,062	(48,899)	-51.0%
	경 북	165,675	52,207	(113,468)	-68.5%
	제 주	54,161	23,667	(30,494)	-56.3%
합 계		9,634,897	3,962,303	(5,672,594)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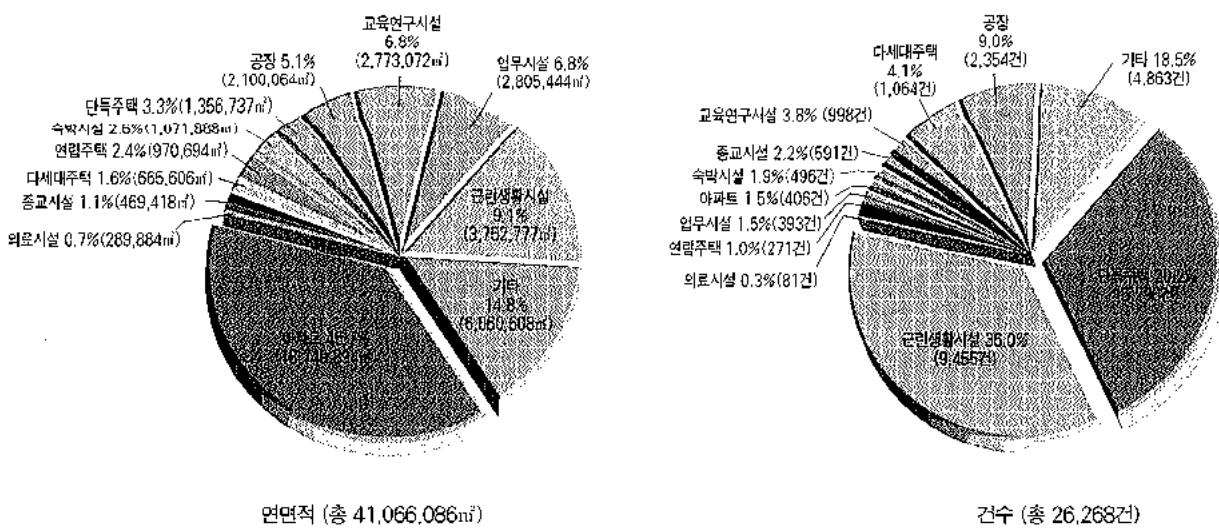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m ²)	(용도)	(단위)	(연면적)
단 독 주 택	75,128 102,457 (36.4%)	단 독 주 택	75,128 102,457 (36.4%)	
다 세 대 주 택	17,226 26,267 (52.5%)	다 세 대 주 택	17,226 26,267 (52.5%)	
연 립 주 택	13,009 19,687 (9.3%)	연 립 주 택	13,009 19,687 (9.3%)	
아 파 트		아 파 트	1,126,303	2,216,263 (96.8%)
근린생활시설	243,033 369,406 (52.0%)	근린생활시설	243,033 369,406 (52.0%)	
종 교 시 설	41,132 (-26.2%)	종 교 시 설	41,132 (-26.2%)	8월
의 료 시 설	30,374	의 료 시 설	30,374	9월
교육연구시설	66,708 (-73.4%)	교육연구시설	66,708 (-73.4%)	연면적 합계/ 7월: 2,941,447m ² 8월: 3,962,303m ² (34.7%)
업 무 시 설	17,754	업 무 시 설	17,754	
숙 박 시 설	186,535 207,478 (-11.2%)	숙 박 시 설	186,535 207,478 (-11.2%)	
공 장	224,475 141,586 (-36.9%)	공 장	224,475 141,586 (-36.9%)	
기 타	583,911 612,188 (-4.8%)	기 타	583,911 612,188 (-4.8%)	
	0		0	3,000
			1,000	
			2,000	
				(연면적/단위: 천m ²)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 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793	1,883	527,488	477	506	102,457	(1,316)	(1,377)	(425,031)	-80.6	
다 세 대 주 택	379	405	243,021	62	62	26,267	(317)	(343)	(216,754)	-89.2	
연 립 주 택	146	153	235,812	13	14	19,687	(133)	(139)	(216,125)	-91.7	
아 파 트	116	281	3,864,330	38	100	2,216,263	(78)	(181)	(1,648,067)	-42.6	
근린생활시설	2,389	2,443	1,172,242	1,131	1,159	369,406	(1,258)	(1,284)	(802,836)	-68.5	
종 교 시 설	84	91	74,388	60	62	30,374	(24)	(29)	(44,014)	-59.2	
의 료 시 설	19	20	97,119	10	10	17,754	(9)	(10)	(79,365)	-81.7	
교육연구시설	150	186	352,854	91	103	207,478	(59)	(83)	(145,376)	-41.2	
업 무 시 설	105	109	1,288,796	34	35	183,569	(71)	(74)	(1,105,227)	-85.8	
숙 박 시 설	241	246	238,572	43	49	35,274	(198)	(197)	(203,298)	-85.2	
공 장	453	630	463,409	220	292	141,586	(233)	(338)	(321,823)	-69.4	
기 타	948	1,093	1,076,866	595	704	612,188	(353)	(389)	(464,678)	-43.2	
합 계	6,823	7,540	9,634,897	2,774	3,096	3,962,303	(4,049)	(4,444)	5,672,594	-58.9	(=미너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9월분 누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158	1,159	4,446,221	354	354	2,110,106	(804)	(805)	(2,336,115)	-52.5	
부산	508	780	835,053	166	249	373,541	(342)	(531)	(461,512)	-55.3	
대구	386	387	748,098	129	129	86,342	(257)	(258)	(661,756)	-88.5	
인천	203	206	318,574	118	118	81,768	(86)	(88)	(236,806)	-74.3	
광주	125	130	69,883	82	104	59,939	(43)	(26)	(9,944)	-14.2	
대전	196	197	138,499	26	26	7,509	(170)	(171)	(130,990)	-94.6	
울산	150	150	66,528	50	59	22,933	(100)	(91)	(43,595)	-65.5	
경기	1,671	1,859	1,381,057	582	673	331,686	(1,089)	(1,186)	(1,049,371)	-76.0	
강원	375	414	206,269	199	218	61,554	(176)	(196)	(144,715)	-70.2	
충북	337	425	329,757	154	200	179,883	(183)	(225)	(149,874)	-45.4	
충남	350	285	340,158	223	175	114,550	(127)	(110)	(225,608)	-66.3	
전북	191	191	79,121	103	103	47,152	(86)	(88)	(31,969)	-40.4	
전남	183	205	95,961	129	136	47,062	(54)	(69)	(48,899)	-51.0	
경북	334	358	165,675	165	188	52,207	(169)	(170)	(113,468)	-68.5	
경남	527	657	359,882	220	270	362,404	(307)	(387)	2,522	0.7	
제주	129	137	54,161	74	94	23,667	(55)	(43)	(30,494)	-56.3	
합계	6,823	7,540	9,634,897	2,774	3,096	3,962,303	(4,049)	(4,444)	(5,672,594)	-58.9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9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1,795	11,842	38,920,761	4,407	4,461	22,445,959	(7,388)	(7,381)	(16,474,792)	-42.3	
부산	4,194	6,484	10,476,335	1,398	2,444	2,412,590	(2,796)	(4,040)	(8,063,745)	-77.0	
대구	4,269	4,273	5,467,883	895	895	722,244	(3,374)	(3,378)	(4,745,639)	-86.8	
인천	2,514	2,561	4,232,969	1,113	1,123	1,741,967	(1,401)	(1,438)	(2,491,002)	-58.8	
광주	2,979	3,357	1,895,866	843	1,043	633,645	(2,136)	(2,314)	(1,282,221)	-66.6	
대전	2,332	2,363	1,529,289	651	651	567,929	(1,681)	(1,712)	(961,360)	-62.9	
울산	314	323	183,592	415	438	240,279	101	115	56,687	30.9	
경기	13,490	15,180	9,584,257	6,216	7,243	4,918,102	(7,274)	(7,937)	(4,666,155)	-48.7	
강원	4,023	4,387	1,746,786	1,708	1,897	896,754	(2,315)	(2,490)	(850,032)	-48.7	
충북	3,723	4,427	2,831,371	1,590	1,956	1,819,930	(2,133)	(2,471)	(1,011,441)	-35.7	
충남	2,958	2,377	1,895,581	1,518	1,269	813,698	(1,440)	(1,108)	(1,081,883)	-57.1	
전북	1,887	1,887	1,448,529	727	727	502,529	(1,160)	(1,160)	(946,000)	-65.3	
전남	2,679	2,886	1,467,376	964	1,061	507,880	(1,715)	(1,825)	(959,496)	-65.4	
경남	3,529	3,894	1,806,299	1,479	1,656	812,032	(2,050)	(2,238)	(994,267)	-55.0	
제주	1,364	1,509	599,151	570	670	244,046	(794)	(839)	(355,105)	-59.3	
합계	68,661	75,460	89,520,100	26,268	29,719	41,066,086	(42,393)	(45,741)	(48,454,014)	-54.1	()=마이너스